전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5 호

평 양 근로자사 1970

근로자

전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 5 호 (338)

차 례

일본군국주의의 재생을 반대하자

일본제국주의가 패망한 때로부터 스물다섯해가 되는 오늘 일본은 아세아에서 새로운 전쟁온상으로 자라났다. 인류에게 그처럼 많은 불행과 고통을 들씌웠던 일본군국주의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적극적인 비호밑에 되살아나 또다시 피묻은 칼을 휘두르려 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일본군국주의는 아세아에서 위험한 침략세력으로 등장하였습니다. 일본군국주의세력은 미제를 등에 업고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해보려고 망상하고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323페지)

일본군국주의세력은 《일본대국론》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아세아를 침략하기 위한 미제의 전략에 적극 가담하여 남조선을 비롯한 해외에 침략의 검은 마수를 뻗치기 시작하였으며 식민지세력권을 이룩하기 위한 전쟁준비를 다그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이미 60여년전에 꾸며놓았던 《대륙정책》을 되풀이하려 하고있으며 놈들이 아세아침략에 한창 기승을 부리던 때에 떠벌이던 《북진론》과 《남진론》을 다시 실천에 옮겨보려 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와의 흉악한 공모결탁밑에 아세아와 나아가서는 세계의 평화를 엄중히 위협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의 재생과 그의 재침략의 위험성은 래일의 문제가 아니라 눈앞의 현실적문제로 나서고있다.

이 엄중한 사태발전은 우리 조선인민들과 사회주의나라 인민들, 신생독립국가인민들, 평화와 정의를 사랑하는 아세아와 세계의 모든 인민들에게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세력의 침략책동에 경각성을 높이며 그것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1. 일본군국주의는 력사적으로 큰놈을 등에 업고 침략과 략탈을 감행하였다

미제에 의하여 재생재무장된 일본군국주의의 침략의 위험성이 어느때보다도 커지고있는 오늘 력사는 새로운 힘으로 일본군국주의의 죄악과 그것을 부활시키고 침략의 《돌격대》로 삼고있는 미제의 죄악을 고발하고있다. 력사적사실은 오늘의 현실과 함께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 민족적독립과 사회적진보를 귀중히 여기는 모든 인민들에게 일본군국주의의 침략에 대하여 소리높이 경종을 울리고있다.

일본이 자본주의발전의 길에 들어선 이래 걸어온 100여년의 력사는 다른 나라에 대한 끊임없는 침략과 략탈의 기록으로 가득차있다. 일본군국주의는 세상에 태어난 첫날부터 일본을 전쟁에서 전쟁에로 이끌어왔다.

이것은 자본주의제도자체의 본질에서 나온것이며 특히는 일본자본주의를 특징지었던 자본주의발전의 후진성, 군사반봉건적제국주의침략성과 강도적략탈성으로부터 나온것이였다.

그러나 일본군국주의가 그처럼 횡포무도하게 한 전쟁에서 다른 전쟁에로 계속 줄달음쳐나갈수 있었던것은 다만 여기에만 기인하는것은 아니였다. 그것은 또한 미제를 비롯한 서방제국주의렬강들의 지원과 고무가 있었기때문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력사적으로 큰 놈을 등에 업고 〈횡재〉하는데 습관되여있습니다. 그들은 지난날 미영제국주의자들과 결탁하여 그 비호하에 조선을 병탄하고 아세아대륙에

침략의 마수를 뻗쳤으며 파쑈독일 및 이딸리아와 동맹을 맺고 아세아의 <맹주>가 되려고 발광하였으나 결국은 패망하고말았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402페지)

자본주의렬강들은 식민지를 나누어가지고 세력권을 빼앗기 위한 싸움에서 자기와 맞서는 경쟁자를 쉽게 때려눕히기 위하여 언제나 이러저러한 일시적동맹자들을 긁어모은다. 자본주의발전의 길에 뒤늦게 들어섰거나 비교적 약한 자본주의나라들은 자본주의렬강들사이에 불가피하게 있게 되는 대립과 알륵을 리용하며 어느 한 강대국 또는 그의 동맹체에 가담함으로써 자기들자신의 식민지를 확보하며 세력권을 나누어가지는데 한몫 끼여왔다.

일본은 1868년의 이른바 《명치유신》이후 자본주의발전의 길에 들어섰다. 일본에서 부르죠아개혁은 천황제밑에서 일부 봉건령주들과 무사들이 중심세력이 되여 봉건적압박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에 편승하여 우로부터 추진시켰다. 부르죠아개혁은 철저하게 수행되지 못하였으며 일본자본주의는 처음부터 군사반봉건적특성과 함께 가장 강도적이며 야수적인 침략성을 가지였다.

일본이 자본주의국가로 발전하기 시작한 때는 벌써 구미자본주의렬강들에 의하여 세계의 식민지분할은 거의 끝나가고있었으며 아세아가 식민지와 세력권 확장을 위한 그들의 싸움터로 변하고있을 때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일본이 시장을 나누어가지는데 한몫 끼우며 식민지를 가지려면 오직 군사적략탈의 방법에 의해서만 가능하였다.

자본주의국가로서 방금 발전의 길에 들어섰을뿐인 일본은 해외팽창의 야망에 불탔으나 아직 경제적 및 군사적 힘이 매우 미약하였다.

여기로부터 교활한 일본군국주의는 아세아의 식민지와 세력권 분할을 위한 싸움에서 구미자본주의렬강들사이에 있는 모순과 대립을 교묘하게 리용하며 큰놈을 등에 업고 《횡재》하는것을 상투적수법으로 삼아왔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일본이 자본주의국가로 등장한 첫시기부터 미영제국주의자들앞에 아부굴종하면서 그들을 배경으로 하여 이웃나라들을 침공하고 자기의 침략지반을 넓힐것을 피하였다.

한편 미영제국주의자들은 아직 힘이 약한 일본자본주의를 가장 덜 위험한 경쟁자로 보고 일본군국주의의 호전성과 일본이 아세아에 자리잡고있는 지리적유리성을 리용하여 일본을 동방에서 다른 제국주의렬강을 견제하는 방패로, 침략의 길잡이로 내세우려고 타산하였다.

그리하여 일본군국주의는 1870년대에 벌써 미영제국주의자들의 적극적인 지지밑에 아세아나라들에 침략의 마수를 뻗치기 시작하였다.

조선에 대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침략은 이미 1866년 미제의 해적선 《샤만호》의 조선침입과 거의 때를 같이하여 시작되였다.

《샤만호》사건에서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한 미제는 그후에도 여러 차례의 무력침공이 거듭 실패되자 일본을 내세워 침략의 길을 닦기 위하여 일본군국주의자들에게 군함과 무기를 대여주고 조선을 침공하도록 부추기였다.

미제의 이러한 지원과 고무 밑에 일본군국주의자들은 1875년에 군함 《운양호》를 조선 강화도에 침입시켜 날강도적해적행위를 감행하였다. 그리고 이 도발사건에 대한 《책임》을 도리여 조선봉건정부에 들씌우고 그 이듬해에 대함대를 조선에 파견하여 무력적위압밑에 예속적인 《강화도조약》을 강요하였다.

이것을 계기로 조선에 대한 침략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1894년에 저들의 세력권을 넓히기 위하여 청일전쟁을 도발하였다.

그때에 일본은 혼자서 청국과 전쟁을 할만한 힘을 가지고있지 못하였다.

미영제국주의자들의 지지밑에서만 일본은 청일전쟁에서 승리할수 있었다. 미영제국주의자들은 일본의 군사적진출에 의하여 만청세력을 약화시키고 짜리

로씨야의 아세아진출을 가로막음으로써 저들의 침략기반을 강화하려는 타산밑에 일본군국주의자들을 적극 지원하였다.

청일전쟁의 결과에 일본은 조선을 아세아대륙침략의 거점으로 확보하였으며 대만과 팽호렬도를 빼앗아 남방진출의 교두보로 만들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짜리로씨야와의 전쟁도 역시 미영제국주의자들의 지원밑에 감행하였다.

아직도 힘이 약하고 뒤떨어졌던 자본주의일본이 그때에 독일 및 프랑스 제국주의와 결탁한 제국주의로씨야와 맞대고 전쟁을 할 결심을 하고 감히 덤벼든것은 오직 미영제국주의자들의 적극적인 뒤받침이 있었기때문이였다.

미영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에 진출하는 짜리로씨야의 세력을 저들의 식민지 및 세력권에 대한 더 큰 위협으로 느끼였다. 미영제국주의자들은 이것을 가로막기 위하여 등뒤에서 일본을 적극 떠밀어 짜리로씨야와 대결시켰다.

1902년에 영국과 일본은 중국에 대한 영국의 《특권》과 조선에 대한 일본의 《특권》을 서로 승인하며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 때에는 서로 원조하며 필요할 때에는 직접 협동할것을 규정한 《영일동맹》을 맺었다. 미국으로부터는 막대한 차관과 무기와 군사고문과 군사기자재들이 공급되였다. 일본은 전쟁비용 17억원중 그 절반이상을 미영의 차관으로 보장하였다.

미영제국주의자들로부터의 재정적, 군사적, 정치적인 모든 원조와 담보에 고무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드디여 1904년에 짜리로씨야에 대하여 언제나 하는 버릇그대로 불의의 공격으로 전쟁을 개시하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짜리로씨야와 강화조약을 맺을 때에도 바로 미영제국주의자들의 주선과 압력을 교묘하게 리용하여 남부싸하린과 료동반도를 손안에 넣었다.

일본군국주의자들과 미영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에서 서둘러 저들의 세력권을 확정하며 식민지분할협정을 맺었다.

1905년 7월 로일전쟁이 아직 지속되고 있을 때 일본수상 가쯔라와 미륙군장관 타프트는 일본이 미제의 필리핀강점을 승인하는 대신에 미제는 일본의 조선강점을 승인하는 비밀협정을 맺었다.

때를 같이하여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영제국주의자들과의 사이에 일본은 영국의 인도강점을 지지하고 영국은 일본의 조선강점을 승인하는 기초우에서 제2차 《영일동맹》을 맺었다.

이에 기초하여 일본군국주의자들은 1905년 11월에 자기들의 무력을 동원하여 가장 야만적인 강압적방법으로 조선의 봉건통치배들에게 《을사보호조약》을 강요하고 조선을 실질적으로 일본의 식민지로 만들었다. 그후 1910년에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조선을 완전히 병탄하였다.

이처럼 일본군국주의는 미영제국주의자들의 아세아식민지분할정책의 하수인으로서 그들의 침략정책의 손아래 동맹자로서 끊임없는 침략전쟁을 통하여 짧은 기간에 조선, 대만, 남부싸하린을 포괄하는 식민지제국을 이룩하였다.

제1차세계대전기간중에 일본군국주의자들은 그의 침략성과 교활성을 더욱 남김없이 나타냈다. 서방제국주의자들이 구라파에서의 전쟁에 몰두하여 아세아에 대하여 손을 쓰지 못하는 기회에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영일동맹》에 의한 《의무》를 지킨다고 하면서 그때에 독일제국주의자들이 강점하고있던 중국산동성의 청도와 태평양의 여러 섬들을 빼앗아냈다. 일본은 이 전쟁기간에 미제와 더불어 교전쌍방나라들에 대대적으로 전쟁물자를 팔아먹고 세계시장에서 경쟁자들이 일시 떨어져나간 틈을 타서 폭리를 가로채여 커다란 어부지리를 얻었다.

쏘련에서 사회주의10월혁명이 승리하자 이를 가장 악의에 차서 반대하며 갓 태여난 쏘베트공화국을 그 요람기에 압살하려고 쏘련원동지방에 대한 제국주

의무력간섭의 앞장에 서서 날뛴것도 바로 일본군국주의자들이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군사적으로 씨비리를 강점할것을 망상하였다. 놈들은 또한 사회주의10월혁명의 영향이 저들의 지배하에 두려는 동방나라들에 미칠것을 매우 두려워하였다.

사회주의10월혁명의 승리를 증오하며 적대시하는 공통된 립장으로부터 미영제국주의를 비롯한 구미렬강들사이에 쏘련에 대한 무력간섭의 공모가 이룩되자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가장 많은 군대를 동원하여 무력간섭의 《돌격대》로 나섰다.

전세계 진보적인민들의 한결같은 지지를 받은 쏘련인민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무력간섭이 실패되자 서방제국주의자들은 할수 없이 자기 군대를 철수하였다. 그러나 오로지 일본군국주의자들만은 1925년까지도 쏘련령토의 일부에 버티고앉아 마지막까지 발악하다가 쫓겨나고말았다.

《침략과 략탈은 제국주의의 본성이다. 침략적이 아닌 제국주의가 있다면 그것은 벌써 제국주의가 아니다. 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김일성)

미영제국주의자들의 비호밑에 침략전쟁으로 자라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침략적야망은 살이 찌고 배가 부를수록 더욱 커갔다. 침략과 략탈전쟁을 통한 전리금과 식민지수탈을 중요한 자본축적의 밑천으로 하여 빨리 불어난 일본독점자본은 새로운 상품 및 자본 수출시장과 원료원천지를 요구하였다.

국가권력을 더욱 꽉 틀어쥔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늘어난 군사적힘에 의거하여 식민지세력권의 확장에로 줄달음쳤다.

중국동북지방에 이미부터 침략의 마수를 깊이 뻗치고있던 일본군국주의자들은 1931년 9월에 드디여 《만주사변》을 조작하고 상투적인 기습적군사행동에 의하여 전체 중국동북지방을 완전히 강점하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뻔뻔스럽게도 《만주, 몽골은 일본의 생명선》이며 《극동에 있어서 공산주의위협에 대처하여 장벽을 만드는것》이라고 떠들면서 판에 박은 침략적구호로써 이 강도적침략행위를 가리우려 하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대낮의 날강도모양으로 이처럼 감히 대대적인 침략전쟁을 일으킨것은 여전히 미영제국주의자들의 지지를 기대할수 있었기때문이였다.

사실에 있어서 일본이 중국동북지방을 독차지하는것은 미영제국주의자들이 중국에서 차지하고있는 《권익》을 직접 침해하는것이였다. 이것은 그때에 온 자본주의세계를 휩쓸고있던 장기적인 심각한 경제공황의 결과에 매우 날카로와진 제국주의렬강들사이의 세력권재분할을 위한 대립투쟁을 그대로 반영한것이였다. 미영제국주의자들은 중국동북지방의 넓은 시장을 일본이 독점하는것을 물론 달가와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영제국주의자들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중국동북지방강점에 대하여 이른바 《불간섭정책》을 내세우면서 도리여 그들의 침략행동을 지지하였다.

그 리유는 명백하다.

미영제국주의자들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중국동북지방에 쏘련을 침략하며 조선인민과 중국인민의 날로 앙양되는 혁명운동을 억누르기 위한 거점을 만들것이라는 기대밑에 일본의 침략행동을 지지하였던것이다.

력사적사실은 제국주의의 계급적본질을 얼마나 속속들이 보여주는가!

미영제국주의자들이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중국동북지역에 대한 침공을 지지한것은 사실상 《뮨헨》정책의 아세아에서의 시작이였다.

미영제국주의자들의 이러한 《유화정책》에 더욱 고무되여 일본군국주의자들은 1937년 7월에는 온 중국을 삼킬 목적밑에 중일전쟁을 도발하고 중국에 대한 전면적인 침공을 개시하였다.

놈들은 이 침략전쟁을 《공동반공》,

《동양평화》, 《동아신질서건설》을 위한 것이며 《8굉1우》(온 세상이 한집안이라는 뜻)의 《성전》이라고 떠벌이였다. 이것은 《…중국을 정복하자고 하면 먼저 만주, 몽골을 정복하지 않으면 안된다. 세계를 정복하자고 하면 반드시 먼저 중국을 정복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던 일본군국주의자들의 강도적야욕을 티윽 남김없이 드러내놓은것이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북부중국으로부터 상해, 광주를 거쳐 해남도에 이르는 광대한 중국령토를 강점하였다. 뿐만아니라 1938년과 1939년에는 쏘련과 몽골인민공화국을 침략하기 위한 무력침공을 련이어 도발하였으며 그후에도 계속 쏘련을 침공하기 위한 준비를 강화하였다.

군사적강점에 의하여 중국에서 넓은 식민지시장을 독차지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점령지대로부터 다른 경쟁자들을 내몰기 시작하였다. 여기에 이르러서도 미영제국주의자들은 계속 《불간섭정책》을 내세우면서 일본의 진쟁수행을 지원하였다. 미제는 1939년말까지만 하여도 해마다 일본의 년간총수입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군수품과 전략물자를 공급하였으며 영제국주의자들은 일본해상수송의 40%를 보장하였다.

그것은 여전히 일본침략군의 군사적침공에 의하여 중국인민들의 혁명운동을 억누르며 더 나아가서는 쏘련과의 전쟁에로 일본을 밀어넣으려는 흉악한 타산에서 그렇게 한것이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영제국주의자들의 이러한 극동 《뮨헨》정책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리용할대로 리용하였다.

그러나 1930년대말에 와서 벌써 제국주의렬강들사이의 모순과 갈등은 오직 군사적행동에 의한 식민지와 세력범위의 새로운 재분할을 요구하는 그러한 극도로 날카로운 단계에 이르고있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아세아의 《맹주》가 되려는 그의 야망을 실현하자면 조선, 중국을 비롯한 아세아인민들의 혁명력량과 쏘련을 반대할뿐만아니라 중국과 동남아세아일대에서 커다란 세력권을 가지고있는 미영제국주의와도 정면으로 대결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이러한 정세밑에서 이때까지 등에 업고온 미영제국주의자를 대신에 새로운 동맹자와 재빨리 야합하였다.

그들은 구라파에서 새로운 강력한 침략세력으로 등장한 나치스독일과 결탁하는 길에 들어섰다.

이미 1936년에 일본군국주의자들은 파쑈독일과 《반공협정》을 맺었으며 1937년에는 파쑈이딸리아가 여기에 편들었다. 이에 기초하여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쏘련과 세계의 혁명적인민들을 반대하며 또한 미, 영도 반대하여 세계를 재분할하기 위한 목적밑에 1940년 파쑈독일 및 이딸리아와 함께 3개국 군사동맹을 맺었다.

그리하여 이 침략의 무리들은 구라파와 아세아에서 야만적살륙전쟁을 더욱 확대하는데로 나아갔다. 1941년 6월 나치스독일은 쏘련에 대한 전면적인 침공을 개시했으며 같은 해 12월 일본군국주의자들은 태평양전쟁을 도발하였다.

오래동안 준비해온 침략적계획에 따르는 불의의 습격으로 얻은 일시적인 우세를 리용하여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전쟁초기에 벌써 웰남, 라오스, 캄보쟈, 말라이, 비마, 타이,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많은 나라들을 강점하였으며 인도, 뉴질랜드, 오스트랄리아에까지 침략의 위협을 미치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침략에 미쳐날뛰던 이 진행정에 식민지와 강점지역들에서 온갖 최신기술적방법들과 중세기적 야만적폭압을 결합하여 실로 일찌기 례가 드문 잔인무도한 테로통치와 무제한한 략탈을 감행하였다. 조선을 비롯하여 중국, 쏘련 원동지방, 웰남, 그밖의 아세아 여러 강점지역들에서 인민들을 쏘아죽이고 때려죽이고 불태워죽인 일본군국주의자들의 가지가지 살륙만행은 사람들의 머리로 상상할수 있는 한계를 훨씬 벗어나는것이였다.

놈들은 조선에서 수백만명의 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하고 재물을 략탈하

였으며 조선민족을 말살하려고 하였다.

놈들은 중일전쟁행정에서만 1,200만명의 중국인민을 학살하였다. 태평양전쟁기간에 웰남에서 200여만, 인도네시아에서 200여만, 필리핀에서 110여만 인민들을 학살하였다. 수많은 일본청장년들이 침략전쟁의 희생물로 되였다.

놈들이 강점한 아세아나라들에서 빼앗아간 재부는 수천억딸라에 이르렀다.

그러나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이 모든 침략과 략탈, 인민들에 대한 끝없는 야수적학살만행은 놈들이 꿈꾸던 《영광》에로의 길이 아니라 파멸에로의 길로 이끌어갔다.

《제국주의는 강한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사상루각과 같은것이며 그 멸망은 불가피합니다. 히틀러가 그랬고 과거 일본제국주의자들이 그러하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402페지)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침략전쟁을 확대하며 식민지략탈을 강화하면 할수록 더 많은 나라 인민들의 날로 더욱 커가는 강력한 항거에 부딪쳤다.

조선인민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조선에 침략의 발길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그놈들을 반대하여 줄기차게 투쟁하였다.

특히 김일성동지께서 15성상에 걸쳐 직접 조직령도하신 영웅적항일무장투쟁은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과 조선공산주의운동에서 일대 혁명적전환을 가져온 가장 영광스러운 투쟁이였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진행된 조선인민의 항일무장투쟁은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통치체계를 밑뿌리채 뒤흔들어놓았으며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지지와 기대를 받은 맑스-레닌주의적혁명무력인 항일유격대는 마침내 쏘련군대와 함께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조선인민의 항일무장투쟁은 중국대륙과 쏘련을 침공하려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기도에 배후로부터 커다란 타격을 주었으며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민족적독립과 사회적해방을 위한 식민지 및 예속국가 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하였다.

중국인민은 중국공산당의 령도밑에 오랜 기간 항일전쟁을 용감히 벌리여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중국에 대한 침략지야망을 꺾어놓았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이 강점한 동남아세아의 모든 나라들에서 례외없이 놈들을 반대하는 항쟁운동이 치렬하게 벌어졌다.

군사적감옥으로 전변된 일본안에서도 지배층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불만은 커가고 반전운동은 강화되였다.

쏘련군대에 의하여 일제의 동맹자인 파쑈독일이 격멸되고 일제의 100만 관동군도 괴멸되였다.

조선인민, 중국인민, 쏘련인민, 아세아와 세계의 모든 진보적인민들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 세계제패를 꿈꾸던 일본군국주의는 패망하고말았다.

일본군국주의의 발전과 패망의 력사는 실로 많은것을 말하여주고있다.

일본군국주의가 걸어온 범죄적행로가 똑똑히 보여주는바와 같이 놈들이 그처럼 기승을 부리며 침략을 확대하여 아세아의 모든 나라들을 지배하고 그 우에 군림하려고 날뛸수 있었던것은 오직 서방제국주의 특히 미영제국주의자들의 비호와 고무가 있었기때문이였다.

미영제국주의자들은 일찍부터 아세아에서 일본군국주의를 저들의 침략의 길잡이로 리용하였으며 더우기는 사회주의와 민족적독립을 위한 인민들의 해방투쟁을 말살하기 위한 공격의 앞장에 내세우기 위하여 모든 수단을 다 썼다.

제국주의자들사이에는 시장과 세력권쟁탈을 위한 싸움에서 모순이 있으나 독점자본가들은 사회주의와 민족적독립을 위한 국제로동계급과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반대하여서는 련합된 국제적힘으로 공격한다. 바로 미영제국주의자들은 이러한 목적밑에 다른 나라 인민들을 서슴없이 희생시켜 일본군국주의에 미끼를 던져주면서 그들을 침략의 길로 내몰았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이것을 리용하여 미영제국주의자들을 등에 업고 저들의

침략적목적을 추구하였다. 그리하여 큰 놈을 등에 업고 침략을 감행하는것은 바로 일본군국주의가 생겨난 첫날부터 가지고있는 일관한 특성으로 되였다. 이 특성은 일본군국주의로 하여금 제국주의와 군국주의에 고유한 침략성과 반동성, 야수성과 교활성을 필연코 더욱 가중케 하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저들의 침략적목적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간악한 수단과 방법도 배신적인 행위도 가리지 않았다.

력사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을 침략의 도구로 삼은 미영제국주의자들의 범죄적수법과 일본군국주의자들의 그 전통적인 침략성과 교활성에 경각성을 고도로 높일것을 가르치고있으며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잔피에 넘어가 정치적흥정을 일삼으며 타협을 추구하는것은 엄중한 후과를 배태하고있다는것을 가르치고있다.

력사는 또한 일본군국주의자들과 서방제국주의자들이 결탁하여 제아무리 서로 업고 업히면서 강도적침략에 미쳐 날뛰여도 결코 인민들을 굴복시킬수는 없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일본군국주의가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을 시작한 때로부터 오랜 기간 아세아의 수많은 공산주의자들과 혁명투사들,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수백수천만 인민들이 일제의 착취와 압박, 침략과 전쟁을 반대하는 성스러운 투쟁에서 많은 피를 흘렸으며 목숨을 바쳤다. 인민들은 일본군국주의격멸을 위한 투쟁에서 흘린 선렬들의 이 고귀한 피의 대가를 헛되이하려는 그 어떠한 책동도 용납하지 않을것이다.

인민들의 단결된 힘은 일본군국주의를 패망시켰으며 그와 결탁한 반역자들과 반동들을 쓸어버리였다.

력사의 교훈은 이러하다.

2. 일본군국주의는 또다시 아세아에서 위험한 침략세력으로 등장하였다

제2차세계대전에서의 파시즘과 군국주의격멸의 결과에 국제생활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났다.

일본의 앞길에는 나라를 비군국화하고 평화애호적인 민주주의국가로 전변시킬 가능성이 열리였다.

그러나 그때로부터 지나온 스물다섯해동안 일본은 비군국화의 길이 아니라 재군국화의 길로 달려나갔다. 민주화의 길이 아니라 파쑈화의 길을 걸었다. 평화의 길이 아니라 전쟁에로의 길로 또다시 나가고있다. 오늘 일본에서 군국주의의 온상인 독점자본은 불어날대로 불어나 다시 지배권을 확립하였다. 거대한 상비군과 경찰폭력기구는 날로 무겁게 인민의 어깨우를 짓누르며 반동공세를 강화하고있다. 군국주의, 복수주의 사상이 전국을 활개치고있다. 벌써 일본독점자본주의는 제국주의적해외침략의 길로 나서고있다.

바로 이것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이 빚어낸 산물이다.

제2차세계대전후 제국주의의 우두머리로 등장한 미제국주의자들은 세계제패의 야망을 실현하려고 사회주의력량과 민족해방운동을 반대하는 침략책동을 강화하였으며 특히 침략의 예봉을 아세아에 돌렸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이미 2차대전행정에서부터 파시즘과 군국주의를 철저히 때려부시는것을 원치 않았다. 그들은 제1차세계대전의 결과에 비추어보아서도 전후에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인민들의 혁명운동이 새로이 크게 일어날것을 무엇보다도 겁내였다.

세계제패의 야망에 사로잡힌 미제는 전쟁의 포연이 가시기도전부터 아세아에서 사회주의를 반대하며 민족해방운동을 억누르는 《돌격대》로서 일본군국주의를 다시 소생시킬것을 계획하였다. 그들에게 있어서 일본은 그의 군사전략적위치, 발전된 공업력, 야만적침략경

힘과 그 인적자원으로 하여 침략적군사기지로서, 병기창으로서, 대포밥공급원천으로서 모든 가치를 다 갖추고있었다.

한편 패전의 막다른 골목에 다달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의 이러한 흉책을 알아차리고 옛버릇 그대로 다시 그에 아부굴종하여 무조건 항복후에 받아야 할 징벌을 모면하며 앞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것을 꾀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전후 일본의 《민주화》에 대하여 떠들었으나 뒤에서는 이미 계획한 범죄적인 음모를 추진시켰다.

그리하여 침략과 략탈에 대한 끝없는 공통된 야욕,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을 실현하는데 언제나 괴뢰들과 추종자들을 앞장에 내세우는 미제의 상투적침략수법, 그리고 큰놈을 등에 업고 한몫보는데 이골이 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전통적수법이 또다시 맞붙어 새로운 주종관계밑에 결탁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때에 벌써 미일결탁의 내막을 간파하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극동에서 이른바 〈태평양동맹〉을 결성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있는데 이것은 일본제국주의자들을 다시 무장시켜 그들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쏘련, 중화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의 〈돌격대〉로 리용하며 또한 태평양연안의 여러 피압박국가인민들의 민족해방운동을 억누르는데 리용하기 위한것입니다.〉(《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 기치, 반제반미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세계혁명을 촉진하자》, 단행본, 16페지)

사태의 발전은 그대로 되고있다.

패망전 일본군국주의의 사회정치적 및 경제적 지반은 천황제절대주의와 독점자본주의 및 농촌의 반봉건적지주제도였다.

전후 일본에서 군국주의를 뿌리빼자면 마땅히 그의 사회경제적지반을 허물어버리고 군국화의 온갖 기구를 파괴해야 하였다. 그러나 미제국주의자들은 어떻게 하지 않았다.

놈들은 첫째가는 전범자인 《천황》을 국제재판에서 면제시켜 그대로 자기 자리에 남아있게 하였다. 군국주의의 온상인 독점재벌을 《해체》한다고 하였으나 그것은 다만 경쟁자로서의 일본독점재벌의 능력을 약화시키고 그것을 미국독점자본에 종속시키도록 개편하는데 지나지 않았다. 《농지개혁》이 실시되였으나 농촌의 반동진지는 무너지지 않았다. 군국주의통치기구도 보존되였다. 경찰관료기구를 그대로 남겨두었으며 군대는 해산된다고 하였으나 그 골간들은 위장된 군사조직들에 간직해두었다.

미제는 군국주의재생의 터전을 닦으면서 일본공산당을 비롯한 일본민주력량에 대하여 거듭 탄압을 강화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이 도발한 조선침략전쟁은 일본에서 독점자본의 부활과 군국주의재생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되였다.

미제는 전쟁을 도발하자 《경찰예비대》, 《해상보안대》의 이름밑에 일본군대를 되살렸으며 수십만의 전범자와 파시스트관리들을 형식적으로 가하였던 형집행과 공직추방에서 면제시켜 다시 활동무대에 올려놓았다.

조선전쟁기간에 미제는 일본에 관한 국제협정들을 완전히 집어던지고 일본반동지배층과 쌘프랜씨스코단독강화조약 및 미일《안전보장조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의하여 미제는 저들의 일본강점과 그의 군사기지화를 《합법화》하며 그때까지 은폐된 형태로 추진시켜온 일본군국주의의 재생과 재무장을 공개적으로 진행하며 일본이 침략적군사동맹에 가담할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일본군국주의는 그가 재생되는 첫시기부터 벌써 미제의 조선침략에 가담하였다. 일본반동지배층은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미제의 침략전쟁을 적극 지지하여 전령토를 공격기지, 보급기지로 제공하고 직접 일본의 군사인원들과 선박들을 조선전선에 동원시켰다. 악명높은 일본의 세균진전문가들이 조선에서의 미제의 세균전에 가담하였다.

일본독점자본은 미제침략군에게 각종

무기와 군수품을 생산공급하며 비행기, 합선들을 수리하여줌으로써 벼락돈벌이를 하였다. 조선전쟁기간에 일본독점체들은 미제의 《특별수요》에 의하여 수십억딸라를 벌었으며 일본의 공업생산을 70%나 높여 제2차대전전수준을 회복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일본에서 독점자본의 부활과 재무장 과정은 본격적으로 추진되였다.

조선전쟁이후에도 미제는 《특별수요》로써 일본독점자본에게 계속 돈벌이를 시켰으며 일본의 재무장을 촉진시키며 일본경제를 더욱 예속시키기 위하여 이른바 《미일경제협력》이란 이름밑에 자본과 기술을 널리 일본에 끌어들였다. 일본독점자본은 이것을 리용하여 경제의 군사화를 다그치며 군수경기를 조성하였다.

일본독점자본은 무엇보다도 로동자들에 대한 가혹한 착취와 수탈을 강화하며 국가독점자본주의기능의 뒤받침밑에서 대규모적인 설비투자를 진행하여 생산을 확대하였다. 또한 상품과 자본 수출을 공간으로 하여 다른 나라 인민들에 대한 착취와 략탈을 강화하였다.

미제의 웰남침략전쟁은 계기로 일본독점자본은 또다시 《황금의 소나기》를 맞이하였다. 미제의 웰남침략에 직접 편들어 그를 지원해주는 대가로 일본의 《죽음의 장사군》들은 큰 횡재를 하였으며 이로써 경제의 이른바 《고도장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원래 평균 10년도 못되는 사이에 한번씩 벌려놓은 침략전쟁에서 자라고 살찌던것이 일본독점자본이였다. 전후 일본독점자본은 미제국주의자들이 20년도 못되는 동안에 두번이나 벌려놓은 조선과 웰남에서의 침략전쟁에 끼여든 대가로 조선인민과 웰남인민이 흘린 피로 물든 딸라를 받아먹고 또다시 배를 불리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일본의 《번영》에 대하여 떠들고있다. 그러나 번영을 누린것은 일본인민이 아니라 한줌도 못되는 소수 독점자본가들이다.

일본경제의 팽창과정에서 생산과 자본은 중공업과 화학공업을 중심으로 고도로 집적집중되였다. 선철, 자동차, 동, 알루미니움 등 중요공업제품생산의 70~90%가 해당부문의 5개 독점기업체들에 집중되였다. 일본의 전체 회사수의 0.2%도 못되는 약 900개의 대독점기업체들이 전체 회사들의 자본금총액의 70%이상을 차지하고있다. 최근에는 모든 중요산업부문들을 한두개 또는 두세개의 최대독점기업체들이 완전히 지배할것을 목표로 하여 독점체들간의 합병과 재편성을 더욱 다그치고있다. 생산과 자본의 집적집중을 토대로 하여 거대한 금융자본의 지배체제가 더욱 강화되였다.

이른바 《미일경제협력체제》밑에서 강행된 일본경제의 《고도장성》정책은 미제의 아세아침략의 《돌격대》로서의 일본군국주의의 경제적토대를 이룩하기 위한 미제와 일본독점자본의 공동음모의 산물이다. 미제는 이것을 통하여 일본경제를 저들에게 더욱 예속시키며 일본인민을 착취수탈하는것과 함께 일본의 경제력을 저들의 아세아침략에 리용할것을 노리고있다. 바로 전후 일본독점자본의 부활과 팽창에서 새로운 특징으로 되는것은 미제에 대한 그의 종속적관계가 강화된것이다. 석유를 비롯하여 철강, 전력, 자동차, 전기기계, 전자공업 등 일본군국주의의 물질생산기지인 중공업과 화학공업의 기간부문이 자본, 원료, 기술면에서 미제에 의존하고있으며 무역에서도 일본은 미제에 얽매여있다.

미제에 종속된 일본독점자본의 부활과 그의 지배체제의 확립에 기초하여 군국주의적재무장이 촉진되고 파쑈체제가 강화되고있다.

군국주의의 기본무기는 그의 방대한 상비군이다.

미제국주의자들과 일본반동지배층은 일본의 침략무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발악적으로 책동하였다. 특히 1960년에 미일간에 체결된 신 《안전보장조약》은 일본군국주의의 재생재무장에서 또하나의 새로운 단계로 되였다. 이는 1950년대의 미일 《안전보장조약》보다도 한결

움 더 나아가 《공동방위》라는 명목밑에 《미일공동작전체제》를 확립하고 사회주의나라들과 민족해방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미일군사동맹관계를 강화하며 일본을 미제의 핵전략체제속에 끌어넣어 일본의 핵무장을 실현할것을 목적한것이였다.

이 《조약》체결후 일본의 침략무력은 두차례의 장기군비증강계획을 거쳐 크게 확장되였다. 이를 위하여 지출된 일본의 군사비는 최근 10년동안에 4배로 늘어났으며 그의 년평균장성률은 세계최고에 이르렀다.

미국식으로 장비되고 미군사령부에 종속되여있는 일본군대는 이른바 《자위대》라는 이름밑에서 약 30만명에 이르는 병력을 가지고있다. 이것을 골간으로 하여 미제가 도발하는 침략전쟁에 아무때나 수백만 군대를 편성하여 동원할수 있게 되여있다.

일본 《자위대》는 미국화된 옛일제침략군대의 재판이다. 이는 미제의 아세아침략을 위한 돌격부대이며 미제와 종속적결탁관계를 맺고있는 일본독점자본의 침략도구이다.

침략무력의 확장과 함께 지금 일본에서는 대외침략책동에 상응한 국내체제를 갖추기 위하여 파쑈화가 급속도로 추진되고있다. 로동계급을 비롯한 인민대중에 대한 파쑈적 탄압과 테로는 군국주의의 통치형태이다.

일본 사또도당은 《치안체제》를 강화한다는 간판밑에 국가폭력기구를 계속 확장하고있다. 경찰은 각종 명목의 《특별경찰》까지 합하여 30만명에 이르고있다. 이는 패망전 일제경찰의 수배에 이르는 방대한 수자이다. 이밖에도 경찰의 《별동대》로서 10여만명을 망라하는 수백개의 우익테로단체들이 일본반동정부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비호육성되고있다. 사태는 인민탄압에 직접 《자위대》무력까지 출동시키는것이 그들의 당면한 일정에 오르는데까지 이르렀다.

인민에 대한 탄압을 《합법화》하기 위하여 이미 각종 파쑈악법들을 조작한 일본반동정부는 최근에도 극반동적인 대학관리해체법을 국회에서 강압채택하였다.

특히 사또도당은 박정희괴뢰도당과 결탁하여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권리를 짓밟으며 탄압을 강화하고있다.

이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의 또하나의 로골적인 표현이다. 력사적경험은 재일조선공민들에 대한 탄압이 강화된 뒤에는 언제나 일본민주력량에 대한 탄압이 뒤따른다는것을 보여준다.

일본반동지배층은 나라의 전면적인 군국화를 위한 책동의 한고리로서 호전적이며 침략적인 군국주의사상을 다시 퍼뜨리며 천황숭배사상과 민족배타주의 및 복수주의 사상을 체계적으로 고취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출판, 방송, 영화, 텔레비죤 등 여러가지 선전수단과 학교교육을 통하여 이른바 《국방》사상을 주입하며 지난날 저들이 감행한 피비린내나는 침략전쟁들을 뻔뻔스럽게 《정의의 전쟁》으로 찬미하고있다.

일본은 또다시 아세아에서 위험한 침략세력으로 등장하였다. 력사적으로 가장 강도적이며 야수적인 잔인성과 교활성을 가지고있는 일본군국주의는 오늘 침략과 전쟁의 주되는 세력이며 국제헌병이며 현대식민주의아성이며 세계제국주의의 두목인 미제국주의와 종속적인 동맹관계를 맺고 그의 침략계획에 충실히 복무하고있음으로 하여 2중의 반동성과 침략성을 띠고있다.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는 미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정책에 편승하여 공공연히 제국주의적해외침략의 길에 나서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또정부는 미제의 사촉밑에 우리 나라를 비롯한 아세아사회주의나라들을 적대시하는 정책을 실시하고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원조〉, 〈공동개발〉, 〈경제기술적협력〉이라는 허울좋은 간판을 들고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들에 대한 경제문화적 침투를 강화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

집》, 제4권, 323~324페지)

오늘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민족해방운동을 탄압하며 신생독립국가들을 침략하는데 있어서 로골적인 폭력적방법에 의거하는 동시에 더욱 교활하고 음흉한 신식민주의적방법을 배합하고있다.

반동화된 군부상층과 우익계층들을 매수하여 긁어모아서 괴뢰정권을 조작하고 그것을 식민지정책의 하수인으로 내세우며, 《원조》의 허울좋은 간판밑에 경제적예속화정책을 실시하며, 사상문화침투를 강화하여 인민들의 민족자주의식과 반제혁명의식을 마비시키고 《반공》사상과 민족허무주의, 패륜패덕을 부식하며, 나아가 《반공》, 《호상안전》의 구실밑에 침략적군사쁠럭과 쌍무적군사동맹을 조작하여 거기에 참가한 나라들을 군사적으로 예속시키고 식민지군사기지화하는것 등은 신식민주의의 중요한 수법들이다.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정책에 가담하여 바로 이와 같은 모든 수법을 본따고있을뿐만아니라 타고난 교활성으로 한수 더 뜨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와의 공모결탁밑에 먼저 남조선에 제국주의적침략의 발걸음을 내디디고있다.

일제가 패망한후 남조선을 직접 강점하고 새로운 식민지통치자로 군림한 미제는 조선인민의 완강한 반항에 부딪쳐 저들의 식민지통치가 거듭 심각한 붕괴의 위기를 겪게 되자 이를 수습하기 위하여 한편으로는 박정희괴뢰도당을 조종하여 가장 포악한 군사파쑈통치를 실시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군국주의세력을 남조선에 다시 끌어들이기 시작하였다.

1965년 1월 미제의 이진두목 존슨과 일본군국주의 두목 사또가 일본이 아세아에 대한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에 적극 가담하는 대가로 남조선에 재침하여 미제와 함께 지배권을 가지도록 하는 비밀협약을 맺은것은 드러난 사실이다. 이것은 1905년의 타프트—가쯔라 비밀협정의 현대판이였다. 이 비밀협약의 결과에 오래동안 끌어오던 남조선괴뢰도당과 일본군국주의자들사이의 《한일회담》이 서둘러 결속되고 범죄적인 《한일협정》이 체결되였다. 《한일협정》은 1905년 타프트—가쯔라비밀협정의 결과에 일본이 조선을 이른바 《보호국》으로 만들것을 강요하였던 굴욕적《을사보호조약》의 재판으로 되였다.

이렇게 하여 60년전 미일제국주의자들간에 꾸며졌던 흉악한 결탁의 낡은 정치적연극이 또다시 우리의 눈앞에서 되풀이되였다. 지난날과 다른것은 이것이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강화하면서 일본군국주의의 재침략의 수단으로 리용되고있는것이다. 《한일협정》에 의하여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모든 분야에 걸쳐 남조선을 다시 침략하여나섰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신식민주의적수법으로 남조선에 대한 전면적인 경제적침투를 감행하고있으며 저들의 손때묻은 주구인 박정희괴뢰도당을 리용하여 남조선을 정치적으로 틀어쥐려 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이면서 이들을 박정희괴뢰도당과 군사적으로 결탁시키고있다: 《한일협정》의 체결에 의하여 미제와 일본 사또반동정부와 남조선괴뢰도당사이에는 사실상 3각군사동맹이 형성되고 《미일한공동작전체제》가 이루어지고있다.

남조선은 날로 미일제국주의자들의 2중의 식민지로 굴러떨어지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웰남인민을 반대하는 미제의 침략전쟁에도 적극 가담하고있다. 사또반동정부는 일본이 미제를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조선전쟁때와 마찬가지로 일본 전령토를 미제의 웰남침략을 위한 보급기지, 수리기지, 공격기지로 제공하고있다. 그들은 미제침략군에게 막대한 량의 무기와 군수품을 생신공급하고 .파손된 비행기, 함선들을 수리해주고있으며 《선원》, 《전문가》의 이름밑에 직접 수천명의 군사인원들도 보내여 미제의 전투작전행

동에 참가시키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해외침략을 넓히고있으며 더우기 동남아세아에 대한 침략을 날로 강화하고있다.

그들은 오늘 남조선에서 거두고있는것과 같은 《효과》를 래일의 동남아세아에서 기대하고있다.

동남아세아에 대한 침략에 있어서도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의 아세아침략체제를 보강하면서 경제적침투부터 시작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원조》를 미끼로 하여 이른바 《무상증여》, 《배상지불》, 《정부차관》, 《연불수출》, 《직접투자》, 《합영기업》 등 형식으로 자본수출을 강화하고있다.

대외 《원조》의 이름으로 해외에 수출된 일본의 자본총액은 1960년의 5억 8천만딸라로부터 1969년 3월말현재로 54억딸라에 이르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국주의자들은 거액의 자본수출과 여러가지 식민지리권에 의거하여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에서 경제의 명맥을 자기의 손아귀에 틀어쥐고있습니다. 그리하여 제국주의독점자본은 이 나라들의 풍요한 자원과 근면한 이 나라 인민들의 로동의 열매를 계속 가혹하게 략탈하여가고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경제원조>를 통하여 뒤떨어진 나라들의 자립적민족경제의 발전을 억제하고있을뿐아니라 이 나라들의 내정에 란폭하게 간섭하며 정치적독립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있습니다.》

(《5대륙의 진보적기자들은 혁명의 필봉을 높이 들고 미제를 준렬히 단죄하자》, 단행본, 6페지)

비록 제국주의자들이 형식상 《무상》으로 준다고 하는 《원조》라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공짜가 아니다. 그것은 가장 교활하게 은폐된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와 예속을 위한 미끼이다.

그들은 《원조》를 통하여 체화된 《잉여》상품을 내리먹여 남의 나라 시장을 교란하고 독점한다. 그 《원조》상품을 처분하여 얻은 자금이나 시설재들은 그 나라의 자립경제건설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나라 경제를 저들에게 예속시키도록 하는 방향에서 사용하도록 통제한다. 그들은 《원조》에 대한 대가로 사자본의 직접 투자의 안전보장을 강요하는 등 여러가지 내정간섭을 일삼는다. 제국주의자들의 이른바 《원조》는 결코 자선사업이 아니다. 자본은 오직 최대한의 리윤을 추구하여 행동한다.

일본정부는 지난 2차대전기간 일제침략군이 동남아세아나라들에서 감행한 야수적살륙만행과 강도적략탈에 대한 이른바 《배상지불》까지도 그것을 재침략의 수단으로 리용하고있다. 일본반동지배층은 《배상지불》의 이름밑에 저들의 《잉여》상품을 터없이 비싼 값으로 처분하고 그것을 길잡이로 하여 자본수출과 상품수출 지반을 꾸리여 남의 나라 경제를 일본에 의존시킬것을 꾀하고있다.

실례로 타이는 1962년에 일본과의 사이에 맺은 《특별원보상협정》에 의하여 2천 6백 70만딸라의 이른바 《원조》를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을 계기로 하여 타이에 침투한 일본독점자본은 1968년에 벌써 타이에 대한 외국의 민간자본투자에서 첫자리에 올라섰다. 1969년도 타이의 전체 수입액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률도 36%로서 역시 첫자리를 차지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타이의 반동지배층까지도 우려의 빛을 나타내는데 이르렀다.

일본독점자본은 《증여》니, 《배상》이니, 《정부차관》, 《연불수출》이니 하는 등의 국가자본의 진출에 의하여 이른바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신식민주의적 팽창과 략탈의 지반을 닦은 다음 사자본을 대대적으로 직접 투자하는 단계에로 넘어가고있다. 일본독점자본은 직접투자의 형식으로 동남아세아나라들에서 《합영회사》, 《새끼회사》 등을 설립하고 《개발자금》을 제공하는 등으로써 그 나라의 풍부한 원료자원과 값싼 로동력을 마음대로 착취략탈하고있으며 그 나라의 경제권을 더욱더 틀어쥐고있다.

일본독점자본가들은 한해에 남조선에서는 투하한 자본의 90%, 동남아세아나라들에서는 40~50%에 이르기까지의

최고률의 리윤을 짜내고있다.

일본독점자본의 이른바 《기술원조》도 경제적 침투와 략탈의 중요한 수단으로 되고있다.

일본독점자본의 경제적침략은 정치적 침략에로 넘어가고있다. 자본투자를 위한 안정된 환경과 조건, 착취와 략탈의 믿음직한 보장을 받는 그런 정치적체제의 확립은 독점자본의 일관한 요구이다.

일본독점자본은 미제와 더불어 저들의 《원조》를 통하여 이 지역의 친미반공괴뢰정권들을 적극 부축하여주고있다. 일시적으로 재정경제기난관을 겪고있는 신생독립국가들을 금융경제적인 유혹으로 낚아서 그들을 우경화하고 반제전선에서 떼내려 하고있다.

일본반동지배층은 저들의 경제적침투 지반이 굳어짐에 따라 경제적 《원조》에 갈수록 큰 정치적부대조건을 내세우며 《원조》받는 나라들에 직접 간접으로 여러가지 압력을 가하고 위협하고있다. 그들은 오늘 동남아세아 여러 나라들에서《황색양키》라고 불리울 정도로 오만무례해지고있다.

일본반동지배층은 저들의 이러한 정치경제적침투에 사상문화적침투를 밀접히 배합시키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온갖 선전수단을 발동하여 미제의 침략적정체를 가리워주고 변호하며 제놈들이 그 전날의 악독한 침략자, 략탈자로부터 오늘은 마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벗》으로 개변이나 된것처럼 떠들고있다. 사또반동정부는 사상문화침투와 파괴암해공작의 첨병으로서 악명높은 미제의 《평화군》의 일본판인 《일본청년해외협력대》라는것도 만들어서 여러 나라들에 내보내고있다. 최근에는 《친선방문》이라는 이름밑에 해군함대까지 동남아세아 여러 나라들에 들이보내여 일제에 대한 환상을 조성하며 앞으로의 군사적침략의 길닦이를 하였다.

일본독점자본가들은 자본수출과 상품판매시장을 확대하며 신식민주의적침략을 강화할 목적으로 동남아세아뿐아니라 중근동, 나아가서는 멀리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에까지 분주히 싸다니고있다.

일본반동정부는 미제의 부추김밑에 이스라엘유태복고주의자들의 군사잠세력강화를 적극 도와주면서도 아랍나라들과 겉으로는 《친선》, 《중립》을 가장하고 이 나라들에 대한 경제적침투의 길을 열어놓으려고 간교하게 책동하고있다.

남아프리카와 남로데시아의 인종주의자들과 정치경제적으로 밀접히 손을 잡고 그들을 두둔하여주고있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아프리카에 대한 침략의 길을 넓히려고 수많은 《사절단》, 《조사단》들을 련이어 이 지역에 보내고있다. 그들은 이제 아프리카대륙의 풍부한 자원과 값싼 로동력을 착취략탈하려고 기를 쓰고있다.

일본독점자본은 라틴아메리카의 일련의 나라들에도 적지않은 직접투자를 하여 원료자원들을 략탈하고 인민들을 가혹하게 착취수탈하고있다.

실로 이 모든 사태발전은 미제의 비호밑에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가 이미 어느 정도로 위험한 침략세력으로 등장하였으며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에서 어느 정도로 멀리 나갔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준다.

이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과연 어디까지 나가려 할것인가?

독점자본은 식민지적지배를 요구하며 식민지적지배는 구경 힘에 의한 지배이다.

지금 일본반동지배층은 해외팽창에서 이미 얻은 일본독점자본의 《권익》을 수호하며 새로운 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사력을 강화하여야 하겠다고 로골적으로 떠들어대고있다.

일본군국주의는 더욱더 무모한 모험의 길로 나가려 하고있다.

3. 미제의 최후발악적인 아세아전략과 일본군국주의의 흉악한 재침야망

오늘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혁명과 반혁명력량사이에 치렬한 투쟁이 벌어지고있는 가운데 세계자본주의체계는 무너지고있으며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의 마지막숨통이 끊어져가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지구상의 온갖 제국주의가 다 그러한것처럼 미제국주의도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있으며 더욱더 죽어가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횡포하게 행동하면 할수록 그들의 처지는 더욱더 어렵게 되여가고있습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단행본, 71～72폐지)

미제국주의는 이르는 곳마다에서 혁명적인민들의 강력한 타격을 받고 안으로, 밖으로 커다란 위기를 겪고있으며 더욱더 막다른 골목에 빠져들어가고있다.

미제는 남부윁남에 50만이 넘는 큰 침략무력을 집어넣고 한해에 300억딸라에 이르는 엄청난 군사비를 쏟어넣으면서도 윁남침략전쟁에서 참담한 군사정치적패배를 면치 못하고있다.

지난 조선침략전쟁에서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한 미제는 조선에서 새 전쟁을 도발하려는 계획적책동의 한고리로서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과 대형간첩비행기 《이씨—121》사건을 일으켰으나 더욱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말았다. 미제의 어용출판물까지도 이것을 보고 《초대강국의 시대》는 끝장났으며 세계를 지배하는 《아메리카의 세기》에 관한 신화는 물거품과 같이 사라졌다고 비명을 질렀다.

미제의 세계재패야망은 깨여져나가고있으며 그의 아세아침략을 위한 기본전략은 전면적으로 파탄되고있다.

미국안에서도 독점자본의 억압과 착취를 반대하는 근로자들의 투쟁, 범죄적침략전쟁을 반대하는 각계층 인민들의 반전운동, 흑인들의 해방투쟁이 날로 크게 앙양되고있다.

또한 국제수지의 계속되는 악화, 금보유량의 전례없는 감소, 통화팽창의 격화, 생산의 침체와 실업자의 증대 등에서 나타나고있는바와 같이 심각한 경제공황의 위협이 무겁게 미제의 머리우에 드리우고있다. 사회적 혼란과 불안은 갈수록 심해지고있다.

자본주의전반적위기가 심각화되고있는 오늘 미제국주의만이 아니라 전체 자본주의세계가 다가오는 멸망의 공포로 하여 떨고있다.

이러한 처지에서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잃어버린 진지를 되찾으려고 결사적으로 발악하고있으며 침략과 전쟁에서 칠성판에 오른 저들의 운명을 구원하려고 더욱 악랄하게 날뛰고있다.

미제독점체들은 대통령을 갈아채우고 아세아에서는 무너져가는 식민지통치지반을 부지하기 위한 최후발악적인 책동으로서 이른바 《닉슨주의》라는 《새로운 아세아정책》을 들고나왔다.

미제의 《새로운 아세아정책》은 이때까지 미제가 아세아에서 도맡아왔던 이른바 《방위》와 《안전》 및 《개발》에 대한 《책임》을 앞으로는 《아세아사람들자신에게 맡긴다》는것이며 미제는 그것을 뒤에서 《도와준다》는것이다.

미제는 이것으로써 아세아에 대한 전면적인 무력침략과 간섭 정책에서 점차 물러서는듯이 가장하여 아세아와 세계 인민들의 눈을 속이고 반전운동에 떨쳐나선 미국인민들을 무마하려 하고있다.

그러나 사실은 물러가는것이 아니라 그러한 연막뒤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보다 음흉하고 교활하게 보다 악랄하고 범죄적인 수법으로 침략과 전쟁 정책을 강화하려는것이다.

미제의 침략적이며 호전적인 기본정

책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제국주의자들이 아세아에서 추구하고있는 기본전략에 대하여 이미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아세아를 침략하기 위한 미제국주의자들의 기본전략은 더욱더 많은 미국무력을 이 지역에 집중하고 일본군국주의세력을 비롯한 자기들의 추종국가들과 괴뢰들을 동원하여 아세아사회주의나라들을 봉쇄하고 공격하며 아세아에서의 혁명력량의 급격한 장성을 가로막고 식민지통치를 부지하려는데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319~320페지)

미제국주의자들의 《새로운 아세아정책》은 깨여져나가고있는 저들의 이 아세아전략을 수습하기 위하여 《아세아사람들끼리 싸우게 하는》 악명높은 침략수법을 더 로골적으로, 전면적으로 추진시키려는것이다. 그의 기본은 바로 오래동안 준비하여온 계획그대로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세력을 본격적으로 아세아침략의 앞장에 내세우며 특히는 그를 군사적침략의 주되는 타격력으로 삼으려는데 있다. 그리하여 일본군국주의세력을 골간으로 남조선의 박정희괴뢰도당따위들을 긁어모아 《반공》군사동맹을 조작하여 침략전쟁에 내몸으로써 저들은 될수록 타격을 적게 받고 침략적목적을 이룩하며 아세아에서 계속 식민지지배권을 틀어쥐려는것이다.

이른바 《닉슨주의》의 이러한 흉악한 본질은 얼마전 닉슨이 국회에 보낸 《대외정책서신》에서 일본이 아세아에서 《더큰 책임을 짊어질 립장》에 있으며 미일간의 《협동》관계가 《닉슨주의의 성공을 위한 열쇠》로 되며 《각별한 의의》를 가진다고 떠벌인데서도 더욱 날날이 드러났다.

미제의 비호밑에 되살아나 이미 해외침략의 길에 적극 나선 일본군국주의세력은 미제의 이 《새로운 아세아정책》을 환성을 올리며 받아물고 이것을 더없이 좋은 기회로 하여 아세아에 대한 제국주의적팽창야욕을 전면적으로 이루어보려고 어리석게 타산하고있다.

팽창할대로 팽창한 일본독점자본주의 자체가 오늘 새로운 안정된 시장과 원료원천지를 확보하지 않고서는 더 나갈수 없는 커다란 모순에 부딪치고있다.

독점자본의 가혹한 착취와 수탈로 하여 일본근로자들은 더욱 빈궁해지고 그들의 구매력은 떨어지고있다.

국내시장은 생산력의 장성에 비하여 더욱더 좁아지고있다. 독점자본가들은 국내에서 인위적으로 이른바 《유효수요》를 자극하고 설비투자경쟁을 일으켜 시장문제해결을 시도하였으나 그것도 허사로 되고있다. 생산의 장성에 따라 원료문제도 시장문제에 못지 않게 절박하게 나서고있다. 원래 일본공업은 원료문제해결을 크게 해외에 의존하고있다. 최근년간 독점자본의 집중과 합병을 기둥으로 하여 중공업과 화학공업 발전을 다그침에 따라 원료확보와 생산물실현을 더욱더 해외시장과 대외무역에 의존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일본독점자본이 공업생산력을 늘이고 생산을 강화할수록 과잉생산위기는 유령처럼 뒤따라다니고있다.

일본독점자본주의는 자본주의기본모순인 생산의 사회적성격과 생산물에 대한 점유의 사자본주의적형태사이의 모순으로부터 불가피하게 초래되는 엄중한 위기의 출구를 더욱더 경제의 군사화와 해외팽창의 확대에서 찾고있다. 일본독점자본가들은 경제의 군사화를 다그쳐 안정된 생산과 확실한 지불, 높은 리윤을 보장할것을 노리며 폭리를 쏟아주는 식민지세력권을 확보하려고 발악하고있다.

이것은 그들을 군사적침략에로 내몰지 않을수 없다. 경제적침략에 군사적침략이 뒤따르는것은 원래 제국주의침략에서 뗄수 없는 두 측면이다. 오늘 일본군국주의는 바로 그렇게 하려 하고있다. 일본독점자본주의의 발전의 이 필연적인 침략적요구가 곧 미제의 아세아침략정책에 적극 가담하여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하려는 망상과 직결되여있다.

이리하여 미제의 아세아침략전략이 무너지고있는 오늘의 력사적위기를 배

경으로 일본군국주의를 저들의 침략정책수행에 더욱더 내세우려는 미제의 책동과 고도로 자라난 일본독점자본주의의 해외팽창야망이 한데 엉킨 기초우에서 미일제국주의자들사이의 침략적공모결탁은 새로운 엄중한 단계에 들어서게 되였다.

미제의 비호밑에 1950년대에 공공연히 재무장의 길에 들어선 일본군국주의는 1960년대의 경제적팽창과 재무장의 촉진단계를 거쳐 1970년대에 드디여 미제를 등에 업고 아세아에 대한 전면적군사침략의 길로 다시 발걸음을 옮기려하고있는것이다.

말하자면 살찐 승냥이는 이제 우리밖으로 기여나오고있는 셈이다.

1969년 11월 닉슨도당과 사또도당이 워싱톤에서 가진 회담과 그 결과에 발표된 미일《공동성명》은 미제의 《새로운 아세아정책》에 의한 미일제국주의자들사이의 새로운 침략적공모결탁의 전모를 남김없이 드러내놓았다.

닉슨—사또도당은 워싱톤회담후 입을 모아 미일간에 《전후시대》는 끝이 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였으며 전체적으로 태평양지역은 《새 시대에 들어섰다.》고 떠들었다. 닉슨—사또도당이 떠벌인 《태평양 새 시대》란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자들을 미제의 《돌격대》로서 공공연히 침략의 앞장에 내세워 위기에 처한 미제의 아세아전략을 수습하는데 복무케 하며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이에 편승하여 아세아에 대한 자기자신의 재침야망을 전면적으로 이루기 위한 새로운 제국주의적팽창단계에 들어선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미일《공동성명》은 바로 미일 두 제국주의강도배들의 아세아에 대한 이러한 강도적공동침략의 야욕을 공공연히 선언한 침략문건이다.

그것은 현대제국주의의 날강도적광포성과 파렴치성을 가장 집중적으로 나타냈으며 피비린내나는 미일 두 제국주의의 피비린내나는 력사에 새로운 흉악한 범죄적페지를 펼쳐놓았다.

《공동성명》에서 무엇보다먼저 닉슨—사또도당은 이른바 《극동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미제침략군이 이 지역에 계속 주저앉아있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일본은 미제와 협력하여 이른바 《아세아의 평화와 번영》에 《적극적으로 공헌》할것이라고 떠벌이였다.

이것은 미제침략자들이 일본을 비롯하여 아세아의 여러 지역을 계속 강점하고 침략과 략탈 정책을 감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사또가 《공동성명》발표후에 기자회견에서 더 똑똑히 까밝힌바와 같이 미제의 아세아침략정책수행에서 《주도적역할》을 맡아나서겠다는것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이렇게 미제의 일본강점과 아세아의 침략을 보장하여주며 미제의 침략정책수행에서 앞장에 나서는 대가로 일본군국주의자들에게 지난날의 세력권에 침투하도록 하여줄데 대한 담보를 주었다.

《공동성명》에서 사또는 남조선이 《일본자체의 안전에 불가결한것》이며 대만도 《일본의 안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남부웰남도 일본의 《안전》에 관계된다고 하면서 《극동 여러 나라의 안전은 일본의 중대한 관심사》라고 떠들어댔다.

이것은 미제의 아세아전략에 가담하여 그 《돌격대》로 나서며 아세아나라들을 침략하려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침략적야망이 얼마나 로골적이며 위험한 단계에 이르렀는가를 그대로 보여준다. 말하자면 이것은 사또도당이 일본전토를 조선, 중국, 웰남 등 아세아나라들을 반대하는 미제의 완전한 침략전쟁기지로 내여맡기고 미제의 각개격파전술에 따라 이 나라들을 반대하는 미제의 침략전쟁에 적극 가담하겠다는것을 공언한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남조선, 대만, 남부웰남과 극동의 전지역에 대한 식민지적지배를 확립하려는 일본군국주의자들자체의 야망을 로골적으로 드러낸것이다.

오늘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미제와 더불어 감히 조선인민, 중국인민, 웰남

인민을 적대시하고 그의 령토완정을 오만무례하게 침해하면서 이 나라들의 불가분의 령토들을 제놈들의 이른바 《방위권》안의 지역들로 선포한것은 그자체가 묵과할수 없는 제국주의날강도적론법이다.

닉슨—사또도당은 《평화》와 《번영》이니, 《방위》와 《안전》이니 하는 따위의 언제나 하는 허튼소리로 저들의 강도적정책를 가리우려 하고있다. 그러나 근대력사의 전기간을 통하여 일본의 두리에 있는 그 어느 한 나라도 미국과 일본을 침략하거나 위협한 일이 없다.

원래 그자체가 침략과 전쟁의 화근인 제국주의에 있어서는 진정한 의미에서 《방위》란 있을수 없으며 또 없다. 이것은 력사적으로 검증된 진리이다. 제국주의자들이 내세우는 《평화》와 《방위》선언은 전통적으로 침략선언이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이전의 침략전쟁에서와 마찬가지로 조선에 대한 침략전쟁도, 꾸바에 대한 무력침공도, 윁남에 대한 침략전쟁도, 콩고(킨)와 도미니까에 대한 무력간섭도 모두 《평화》요, 《자유진영의 방위》요, 《미국의 안전》이요 하는 구호밑에 감행하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이미 지적한바와 같이 19세기말엽이래 감행하여온 청일전쟁, 로일전쟁, 조선강점, 쏘련침공, 중국침략, 동남아세아침공의 전행정에서 바로 《동양평화》요, 《거류민보호》요, 《공산주의침략위협》으로부터의 《생명선방위》요, 《공존공영》이요 하고 떠들었다. 그때에도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만주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조선이 없으며 조선이 없으면 일본의 방어는 가망없다.》고 하였다.

미일 《공동성명》에서 닉슨—사또도당이 들고나온 이른바 《방위》와 《안전》에 관한 넉두리가 그 선행자들이 떠들어온 이러한 침략적구호와 무엇이 다른가. 아무 차이도 없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와의 이러한 공동침략을 위하여 미일 《공동성명》에서 침략적군사동맹인 미일 《안전보장조약》을 올해의 기한만료후에도 계속 《견지》할것을, 미제에게 확약하였다. 뿐만아니라 미일반동들은 이때까지 형식상이나마 일본령토안에 국한시키고있던 이 《조약》의 적용범위를 전극동지역에로 확대할것을 공공연히 규정하였다.

이로써 일본을 미제가 《방위》해준다는 이름밑에 1950년대에 조작된 《안전보장조약》은 1960년대에 《공동방위》라는 이름밑에 미제의 침략전쟁에 일본군국주의가 직접 가담하도록 개악되였으며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것은 다시 극동 전지역의 《방위》란 이름밑에 더욱더 로골적인 침략조약으로 개악되게 되였다.

미일제국주의자들은 이 침략조약을 골간으로 아세아 《반공》군사동맹의 형성을 완성하려 하고있다.

미일 《공동성명》은 아세아의 평화와 안전, 이 지역 인민들의 독립과 령토완정을 엄중히 위협할뿐아니라 일본인민의 주권과 안전을 더욱 횡포하게 침해하고있다.

닉슨—사또도당은 일본인민을 속이고 그들의 반항을 무마하기 위하여 미제가 오끼나와를 일본에 돌려줄 용의를 가지고있는듯이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상 《공동성명》에는 미제가 오끼나와를 일본에 반환할것이라고 확정적으로 담보한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오끼나와시정권의 반환》이라는 기만극을 통하여 겉으로는 넘겨주는듯이 꾸미고 안속으로는 미제가 계속 이 섬을 핵무기를 포함한 침략적군사기지로서 관리통제하려는 음흉한 기도를 보여주고있다. 더 나아가서 《본토와 동등한 조건》에서의 《시정권반환》 이라는 구실밑에 일본전토를 오끼나와와 같은 핵기지로 전변시킬것을 노리고있다.

이것은 오끼나와의 무조건, 즉시적인, 전면적 반환과 일본의 독립, 평화,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전체 일본인민의 념원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며 모독이다.

미일 《공동성명》은 또한 아세아나라들에 대한 신식민주의적경제적예속화정책을 강화할데 대한 야욕도 더욱 로골

적으로 나타냈다. 닉손—사또도당은 미일제국주의가 세계경제에서 무슨 《지도적지위》를 차지하고있다고 하였으며 사또는 일본이 아세아에 대한 경제적《원조》를 확대할 의향이라고 떠벌였다.

최근 일본국회에서 한 《시정방침》연설에서 사또가 《경제의 국제화》를 실현하겠다고 지껄인것도 바로 그러한 속심을 드러낸것이다.

결국 미일 《공동성명》은 1970년대에 일본군국주의재무장을 보다 완성하며 그를 앞장에 내세워 아세아에서 공동으로 식민지 지배와 약탈을 강화하며 새로운 침략전쟁을 벌려놓을것이라는것을 공공연히 떠벌인 미일 두 제국주의의 가장 뻔뻔스러운 강도적선언이다. 이것은 일본인민을 또다시 침략전쟁의 참화속에 이끌어넣으며 아세아와 세계를 새 전쟁의 위험속에 빠뜨리려는 가장 흉악한 범죄적침략문서이다.

바로 이것이 미일제국주의자들이 떠드는 《태평양 새 시대》의 기본내용이기도 하다. 사또는 《태평양 새 시대》란 태평양을 사이에 둔 미일 두 나라가 《협력》하여 아세아태평양지역에 《새 질서를 창조》하는 시대라고 벌어놓았다.

두 강도배가 손을 맞잡고 식민지 약탈과 지배의 《새 질서》를 세우겠다는 이 넉두리보다 더 똑똑히 미일제국주의자들사이의 범죄적결탁의 진짜내막을 밝혀주는것은 없다.

《새 질서를 창조》한다는 말자체가 벌써 지난날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미친듯이 아세아를 침략할 때 부르짖던 《대동아 새 질서 건설》이란 구호를 그대로 되뇌인것이다. 얼마전 닉슨이 미국회에 보낸 《대외정책서신》과 사또가 일본국회에서 내놓은 《시정방침》은 다같이 저들의 이 침략계획을 다시금 확인하였다.

이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의 아세아침략전략과 1970년대 미일간의 종속적인 제국주의적결탁의 새로운 단계를 계기로 하여 갈수록 더욱 오만하게 꺼리낌없이 복수주의적침략야망을 드러내놓고있으며 그를 위한 준비를 다그치고 있다.

그들은 대외적으로는 일본이 다시 아세아에서 《지도자》로 되여야 한다는 《아세아맹주론》을 들고나오고있다.

대내적으로는 군비의 대대적확장과 파쑈적탄압체제의 강화에 모든 힘을 돌리고있다.

그들은 1970년대는 《아세아개발의 10년》이라고 하면서 이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경제적침략과 함께 그것을 군사정치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태세를 갖추고 있다. 일본이 《국력에 상응한 군사력》을 가져야 하며 《해외에서 군사적역할을 수행》할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는 등으로 지금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떠들어대고있는것은 다 이것을 말하여주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1970년대에 그들이 말하는 앞으로 《크게 행동할수 있는》 군사력을 갖추기 위하여 이른바 《자주방위구상》을 내놓고있다. 그에 의하면 그들은 핵무기를 자체로 개발보유하며, 징병제와 전반적인 군사훈련을 실시하며, 항공모함과 원자력잠수함을 포함한 《서부태평양제압력량》을 확보하며, 다른 나라를 공격할수 있는 폭격기와 전투폭격기들을 정비할것 등을 목표로 하고 년간 군사비지출을 지금보다 4배나 더 많은 55억딸라이상으로 할것을 제기하고있다. 이 이른바 《자주방위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계획의 하나라고 하는 4차 《방위력정비계획》(1972～1976)은 해군과 공군력을 대대적으로 늘이고 일본군대를 더욱더 공개적인 공격무력으로 전변시킬것을 계획하고있다.

또한 《향토방위군》이라는 이름밑에 100만군대를 무장시킬것을 계획하고있으며 700여만에 이르는 징병대상자명단까지도 이미 만들어놓았다. 뿐만아니라 《원자력의 평화적리용》의 간판밑에 핵무기생산에 각방으로 달라붙고있으며 그의 운반수단인 로케트와 초음속전투폭격기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이렇게 하여 일본군국주의의 해외팽창을 군사적으로 보장하며 아세아에서

《국부전쟁》, 《전면전쟁》을 다같이 수행할수 있는 기동력과 화력과 병력을 갖추려고 서두르고있다.

사또도당은 미제의 비호밑에 침략무력의 해외진출을 주장하면서 미제의 수법대로 《유엔》의 기발을 들고 그것을 실현하려는 악랄한 음모까지 꾸미고있다.

미일《공동성명》에서도 사또도당은 앞으로 미제의 조선침략전쟁에 가담하는 경우 이렇게 할 음흉한 기도를 그대로 드러내놓았다.

사또도당은 동남아세아나라들을 중심으로 여러가지 《지역협력체제》들을 형성하고 그를 아세아 사회주의나라들을 반대하는 침략적군사동맹으로 전환시키는것을 자기의 해외군사팽창을 실현하는 또하나의 중요한 수단으로 삼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경제 《원조》와 《협력》의 간판밑에 저들의 신식민주의 정책의 집행도구인 《동남아세아개발각료회의》, 《동남아세아농업개발회의》, 《아세아개발은행》 등 수많은 기구들을 군사적팽창을 위한 도약대로 리용하고있다. 그들은 미제의 적극적인 부추김에 따라 《아세아태평양지역각료리사회》안에서 주도적지위를 차지하고 이 기구를 아세아 《반공》군사동맹으로 전환시키려고 갖은 책동을 다하고있다.

해외에 대한 제국주의적팽창을 더욱 로골화하면서 바야흐로 사또도당은 국내정책의 모든 부문에 걸쳐 재군국화와 파쑈화의 전면적실현을 기도하고있다.

부르죠아민주주의장식물인 국회가 아직은 남아있다.

그러나 일본반동지배층은 지난해말 총선거에서 사기협잡과 폭력으로 국회에 더욱 큰 《자민당》다수파를 조작한것을 코에 걸고 《국회법》을 개악하며 《소선거구제도》를 실시하여 《의회제민주주의》마저 유명무실하게 만들어버리려 하고있다. 전후 초기에 군국주의의 지반을 청산이나 하는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취하였던 일련의 기만적조치들마저 모두 집어던지고 농촌에서 대토지소유제와 부재지주의 부활을 합법화하는 《농지법개정안》을 만들고있으며 독점재벌들이 마음대로 활개치게 하는 악법들을 조작하려 하고있다. 독점체들과 군부는 더욱더 결합되여 헌법을 개악하고 나라를 무한정의 군비경쟁과 전쟁체제에로 다시 이끌어가려 하고있다. 일본의 인적물적자원을 침략전쟁에 징발하기 위한 수십종의 전시동원법을 검토하고있다. 일본의 독립, 민주주의, 평화를 위한 인민들의 모든 운동에 파쑈적탄압을 강화하고있으며 민주주의적정당, 사회단체들의 활동을 틀어막기 위한 여러가지 파쑈적악법들을 제정하려고 공공연하게 시도하고있다.

일본에서 벌어지고있는 이러한 사태들은 일본반동지배층이 필요한 때 언제든지 일본을 전시총동원상태로 전환시키며 제국주의군사팽창단계에 알맞는 국내탄압체제를 갖추어나가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책동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일본제국주의나 미제국주의나 또한 지난날의 제국주의나 오늘의 제국주의나 할것없이 모든 제국주의는 다 침략적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473~474페지)

오늘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실로 북쪽은 알라스카 이남으로부터 남조선, 대만, 남부웰남을 거쳐 마락카해협에 이르는 계선을 이른바 《방위선》이라고 하며 지어는 남태평양의 아라후라해협까지 포함한 아세아 전지역을 《방위》하는데 필요한 군사력을 창설하여야 하겠다고 주장하는데까지 이르고있다.

이와 함께 사또도당은 오끼나와의 기만적 《반환》을 구실로 삼아 쏘련에 대하여 이른바 《북방령토문제》를 걸고드는 깜빠니야를 더욱 대대적으로 일으킴으로써 민족배타주의와 복수주의를 고취하기에 미쳐날뛰고있다.

이 모든것은 결국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자들이 태평양전쟁기간에 강점하였던 전지역을 그대로 다시 차지하려는 야망에 불타고있으며 그렇게 하여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재현하려는 끝없

는 망상에 사로잡혀있다는것을 가장 뚜렷이 보여주는것이다. 일본군국주의두목 사또는 《아세아의 안정문제에 대하여 주역을 담당수행하는것은 일본》이라고 하면서 《〈아세아는 하나이다〉라는 명치때의 선배의 말이 지금처럼 통절히 상기되는 때는 없다.》고 떠벌이였다. 일본출판물까지도 지금 일본반동지배층들속에서 해외팽창에 관한 론의에 《제2차세계대전전야를 방불케 할 정도로 열중하고있다.》고 평하고있는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오늘 국제무대에서 력량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하였고 사회주의를 비롯한 세계평화애호력량이 강력한 조건에서 제국주의자들은 결코 함부로 날뛸수는 없다. 그러나 이것은 미제와 더불어 일본군국주의자들이 결코 죄행을 다시 저지를수 없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미제국주의는 대외침략정책의 파탄과 국내의 정치, 경제적 위기가 심각화된 현단계에서 일본군국주의를 어떻게 리용하는가에 따라 아세아에서 저들의 운명이 좌우된다는것을 공개적으로 실토하고있다.

한편 대미종속하에서 되살아났으며 현시기 해외침략과 식민지세력권의 강탈없이는 더 나갈수 없는 단계에 이른 일본군국주의는 미제의 이 전략에 최대한 편승하여 아세아의 《맹주》가 되려는 침략적야망을 기어이 실현하려고 타산하고있다.

미제국주의의 적극적인 부추김과 지지를 받아 과대망상적인 타산을 앞세워 전면적인 군사침략의 길에 나서려고 피하고있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분별없는 책동을 그대로 내버려둔다면 그들은 또다시 아세아와 세계 인민들에게 커다란 참화를 끼치게 될것이다.

모든 평화애호인민들은 이것을 명심하여야 하며 최대의 경각성을 높여야 한다.

4. 조선인민은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책동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것이다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해외팽창에서 남조선에 대한 침략은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세력의 남조선재침략은 미일제국주의간의 새로운 침략적공모결탁의 직접적산물이며 먼저 조선을 침략하고 이를 발판으로 하여 아세아를 침략하려는 일본군국주의의 전통적전략계획의 구체적표현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이 《닉슨주의의 성공을 위한 열쇠》가 미일간의 《협동》관계에 있다고 공개적으로 떠벌였다면 남조선은 그의 첫째가는 시험장으로 되고있다.

오늘 남조선이 미제의 가장 반동적인 식민지군사파쑈통치밑에 놓여있으며 그것이 식민지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파쑈통치와 신식민주의정책의 전형으로 되고있다는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식민지지배체계가 밑뿌리로부터 뒤흔들리고있는 위기의 환경속에서 남조선인민들을 희생시켜 일본반동지배층에게 침략적공모의 미끼를 던져주면서 일본군국주의세력을 직접 군사적침략의 앞장에 내세우려는 흉계를 남김없이 드러내놓았으며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이것을 받아물어 남조선을 《대동아공영권》의 옛망상을 실현하는 도약대로 삼으려 하고있다.

미일 《공동성명》은 뻔뻔스럽게도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미일 두 제국주의강도배들의 이 악랄한 침략적흉계를 그대로 온 세상에 공포하였다.

이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전초기지로 하고 일본군국주의세력을

《돌격대》로 삼아 조선에서 새로운 침략전쟁을 일으키려는 미제의 전쟁정책에 따라 남조선에 군사적침략을 감행하려는 단계에까지 공공연히 들어서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근 반세기에 걸쳐 우리 조선인민에게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하고 우리 나라의 아름다운 모든것을 짓밟고 략탈하여간 우리 민족의 철천지원쑤입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오늘 미제를 등에 업고 자기들의 옛지위를 회복하려고 망상하면서 또다시 남조선에 기여들고있으며 위험한 침략세력으로 등장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390페지)

이미부터 미제의 조종밑에 박정희괴뢰도당과 맺은 《한일협정》에 의하여 남조선에 전면적으로 기여들고있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서 벌써 정치, 경제, 문화의 여러 분야에 걸쳐 미제의 다음가는 지배적지위를 차지하고있으며 두번째 《주인》으로 등장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먼저 경제적으로 침투하여 미제와 함께 남조선경제를 예속화하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을 디딤돌로 삼아 해마다 일본독점자본의 수백개 상사들, 각양각색의 《대표단》, 《사절단》, 《조사단》, 《관광단》의 이름을 띤 수천수만의 침략의 척후병들이 앞을 다투어 남조선에 제집처럼 드나들고있다. 그들은 치외법권적특권행세로 리권을 손에 넣고 침략의 지반을 날로 확대하고있다.

일본 상품과 자본은 물밀듯이 남조선에 쓸어들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지난날 일제가 조선에서 감행한 식민지략탈에 대한 《배상지불》이나 되는것처럼 꾸며서 내놓은 이른바 《청구권자금》을 통하여, 《경제협력》이란 이름밑에 돌이먹이는 《민간상업차관》을 통하여 남조선경제의 군사화를 촉진시키며 그의 중요명맥을 틀어쥐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남조선괴뢰들이 일본자본을 끌어들여 실시하는 투자의 방향과 규모, 그 내용과 기일 등을 통제할뿐아니라 새로 설치되는 남조선기업체의 운영과 관련된 기술, 원료와 자재의 공급지어는 기업체들의 경영권까지 실질상 틀어쥐고있다.

일본독점자본은 박정희괴뢰도당으로부터 조세, 공업소유권보호문제 등에서 식민지적특권을 보장받게 되자 이제 사자본의 대대적인 직접투자단계에 들어섰다.

자본의 직접투자는 제국주의침략의 기본특징의 하나이며 대상나라의 경제를 철저히 예속시키고 최고률의 착취와 략탈을 보장하는 수단이다.

일본독점체들은 지금 《합영회사》의 설립이라는 이름밑에 서로 앞을 다투어 남조선에 기여들어 기간공업분야에 깊이 뿌리박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또한 《보세가공》의 간판밑에 아무런 세금지불도 없이 설비와 자재를 남조선에 끌어들여 청부가공케 함으로써 자본주의세계에서 가장 낮은 남조선로동력을 무제한 착취하여 폭리를 얻고있다. 지어 그들은 남조선청장년들을 일본에 끌어가서 노예로동을 시켜 저들의 배를 불릴 계획까지 꾸미고있다. 지난날 조선에서 끝없이 착취와 략탈을 감행하던 《미쯔이》,《미쯔비시》 등 독점재벌의 은행들이 또다시 직접 남조선에 기여들어 침략적인 금융, 투자 활동을 벌리고있다.

남조선은 일본독점자본의 채무노예로 되고있으며 일본의 자본수출지로, 잉여상품시장으로 되고있다.

지난날 조선인민을 야만적으로 착취하고 우리 나라의 값진 자연부원을 마음대로 략탈하여간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이렇듯 오늘 또다시 남조선에서 우리 인민의 고혈을 짜내고있으며 재부를 긁어가고있다.

남조선에 경제적으로 침투하여 침략의 사회경제적지반을 닦고있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대한 정치적지배를 강화하려 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침략의 거점으로서 서울 한복판에 아세아의 다른 어느 나라에 가있는 일본대사관보다도 더 큰 건물과 기구를 가진 《대사관》을 꾸리고 저들의 충실한 앞잡이 박정희괴뢰정권

을 적극 부축해주며 박정희도당을 통하여 침략과 략탈의 온갖 특권을 다 보장받고있다.

지금에 와서 일본 사또반동정부가 국제무대에서까지도 미제와 함께 남조선에 대한 《보호자》, 《후견인》처럼 행세하는 일이 갈수록 더욱 잦아지고있다.

사상, 문화적 분야에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친선》, 《문화교류》라는 허울좋은 간판밑에 온 남조선땅에 썩어빠진 양키문화와 함께 왜색왜풍이 뒤덮어게 하고있다. 그들은 남조선인민들이 저들의 침략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저들의 략탈에 순순히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추악한 사상문화적독소를 뿌리고있으며 남조선인민들의 뿌리깊은 반일감정을 해소시키고 일본숭배사상을 고취시키려 하고있다. 그들은 반동적인 출판물과 영화를 남조선에 범람시키고있으며 《천리교》와 같은 국수주의적인 침략종교까지 남조선에 끌어들여 퍼뜨리고있다.

그리하여 남조선인민들의 민족적자주의식과 계급의식을 마비시키며 자유와 해방과 조국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와해시키려 하고있다.

군사적으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한일협정》에 의하여 《미일한 3각군사동맹체계》를 갖추어놓은데 기초하여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미제의 새 전쟁 도발책동에 적극 끼여들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어미 미제가 조선에서 다시 침략전쟁을 도발할 때 여기에 가담하며 이것을 계기로 전쟁을 아세아대륙에까지 확대하려는 구체적인 전쟁계획까지 이미 다 짜놓고있다. 세상에 널리 폭로된 《세개화살작전》, 《날아가는 룡작전》, 《달리는 황소작전》 계획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 전쟁계획들에 예견된 방침들에 근거하여 일본《자위대》는 재편성을 하며 장비를 강화하고있으며 미제침략군 및 남조선괴뢰군과 공동군사연습들을 거듭하여 벌리고있다. 이들은 조선과 다른 아세아지역들을 작전지역으로 가상한 《상륙전》, 《공수작전》, 《대유격전》 훈련과 《내한훈련》을 다그치고있다.

일본《자위대》 두목들과 이른바 《재향군인대표단》들은 뻔질나게 남조선에 기여들어 군사분계선일대와 남조선괴뢰군부대들을 시찰하고 박정희괴뢰도당과 전쟁밀담을 벌리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미제의 새 전쟁도발책동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뛰여들고있는가 하는것은 미제국주의자들이 계획적으로 우리 공화국의 령해와 령공을 침범한 1968년 1월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과 1969년 4월의 대형간첩비행기 《이씨—121》사건을 계기로 미친듯이 전쟁소동을 벌렸을 때 일본 사또반동정부가 이에 배합하여 《자위대》에 비상경계명을 내리고 《림전태세》를 갖추었던 사실에서도 똑똑히 알수 있다.

미일 《공동성명》이 발표된 이후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악의에 찬 중상비방을 늘어놓으며 조선에 대한 군사적침략기도를 더욱더 로골적으로 드러내고있다.

최근 일본국회에서 사또도당은 미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조선에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그것을 《강건너 불보듯할수 없다.》고 하면서 일본군국주의침략무력을 조선에 출동시킬 의사를 공공연히 표명하였으며 지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선제공격》도 생각해야 한다고 떠벌이였다.

사또도당은 미제가 조선에서 도발하는 침략전쟁에 뛰여들기 위하여 열이 오를대로 오르고있다. 그들은 이른바 《거류민보호》를 위하여 일본군대를 남조선에 보낼수 있다는 소리까지도 서슴없이 하고있다.

바로 이 《거류민보호》란 허울좋은 간판이야말로 조선인민에게는 듣기만 하여도 소름이 끼치는 제국주의의 야만적 침략의 가장 뻔뻔스러운 대명사이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력사적으로 감행한 모든 침략전쟁에서 내세운 첫째가는 구실이 이른바 《거류민보호》였다는것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사또도당이 이 악명높은 침략의 넉두

리까지 그대로 되뇌이면서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진출의 흉계를 공공연히 드려내놓고있는것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이번 세기초에 조선에 침입하던 때 하던 그 강도적행세와 본때를 그대로 련상시킨다.

사실상 일본군국주의자들은 패망하여 쫓겨간뒤에도 조선을 다시 침략하려는 야망을 한순간도 버린 일이 없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지난날 조선에서 감행한 식민지략탈통치를 실시한것은 《영광스러운 제국주의》로서 조선에 《유익》하였다느니, 《38도선을 압록강밖으로 밀어올리는것이 일본의 임무》라느니, 《일본은 형이 된셈치고 남조선을 크게 먹어치워야 하겠다.》느니 하는 오만한 침략적망언들을 끊임없이 떠벌인 사실들은 다 이것을 말하여준다. 그들은 조선에 대한 식민지통치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꾸며냈던 《동조동근》, 《내선일체》란 지난날의 악랄한 침략적구호마저 되살려 《일한운명공동체론》을 새로이 들고나왔다.

얼마전에는 조선이 《일본에서 분렬되여 독립하였다》느니 조선인민이 《같은 일본국민》이였다느니 하는 조선인민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적인 악담까지 떠벌이였다. 조선을 거어코 삼켜보려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변함없는 강도적인 침략적본성을 이보다 더 똑똑히 보여주는것은 없다.

남조선에 대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전면적인 재침략과 이에 따라 날로 강화되고있는 사또반동정부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은 미제의 새 전쟁 도발책동으로 극도에 이른 조선에서의 긴장상태를 더욱 날카롭게 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의 재침략으로 하여 남조선인민들에게는 더욱 큰 불행과 재난이 들씌워지고 4천만 조선인민이 한결같이 념원하고있는 조국의 평화적통일의 앞길에는 새로운 또하나의 장애가 조성되고있다.

오늘의 이 엄중한 사태발전은 조선에 대한 침략적목적을 이루어보려는 미제국주의자들과 일본군국주의자들의 흉계가 얼마나 위험한 고비에 이르고있는가 하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조성된 현실은 전체 조선인민이 피맺힌 원쑤 일본군국주의의 재침략책동을 날카롭게 주시하며 그것을 짓부시기 위하여 더욱 완강히 투쟁할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제와 함께 일본군국주의는 우리와 직접 맞서고있는 가장 위험한 침략세력으로 등장하였다. 민족적량심을 가진 조선사람은 그 누구든지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또다시 우리 나라 남녘땅에 기여들어 주인행세를 하며 침략군대까지 끌어들이려는것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수 없다.

남북을 막론하고 전체 조선인민들은 미제를 반대하여 투쟁하는것과 함께 미제의 전략에 따라 남조선에 전면적으로 침략의 마수를 뻗치고있는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더러운 발길로 우리의 신성한 조국땅을 감히 짓밟지 못하게 하여야 하며 그놈들이 또다시 피묻은 칼을 휘두르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특히 지금 침략을 직접 당하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이 민족적분노의 불길을 더욱 높여 일본군국주의세력의 침략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에 단호히 일떠서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남조선의 모든 애국적인민들은 범죄적인 <한일협정>을 폐기하며 일본군국주의세력의 남조선재침략기도를 분쇄하기 위하여 결정적으로 투쟁하여야 할것입니다. 이 투쟁은 동시에 미제국주의식민지통치를 반대하는 투쟁의 일환으로 됩니다.

남조선인민들은 오직 미제국주의침략세력과 그 주구들을 타도하여야만 자유와 해방을 달성할수 있으며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침략기도를 분쇄하여야만 새로운 재난의 위험에서 벗어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390페지)

남조선인민들은 외래침략자들과 국내

반동세력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운 력사를 가지고있다.

지난날 수많은 반일애국투쟁과 혁명투쟁에서 전체 조선인민과 함께 남조선인민들은 열렬한 애국주의정신과 혁명적기개를 시위하였다.

미제의 조종밑에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남조선괴뢰도당과 벌려놓았던 이른바 《한일회담》을 반대하여 또한 《한일협정》을 짓부시기 위하여 남조선의 애국적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거듭 영웅적투쟁을 벌리였다.

3. 24투쟁, 6. 3투쟁을 비롯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미일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괴뢰도당에게 커다란 타격을 준 반제반파쑈애국투쟁이였다.

이처럼 용감하게 싸워온 남조선인민들이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이 어느때보다 위험한 지경에 이른 오늘 어떻게 사태를 보고만 있을수 있겠는가!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책동을 반대하여 투쟁하는것과 함께 그 앞잡이들을 쓸어버려야 한다. 박정희도당은 《제2의 리완용》을 자처하면서 일본군국주의자들을 남조선에 업어들이여 오늘과 같은 엄중한 사태를 빚어내고있다.

일찌기 일본침략군의 장교로서 일본《천황》에게 충성을 맹세한 민족반역자이며 해방후에는 미제의 충실한 특무로 변신한 극악한 매국노인 박정희괴뢰도당은 오늘 미제와 함께 일본군국주의자들까지 상전으로 섬겨 남조선을 미일제국주의의 2중의 식민지로 전락시키면서까지 저들의 더러운 목숨을 이어가려고 갖은 범죄적행위를 다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이 일본군국주의의 침략을 반대하여 투쟁에 일어섰을 때마다 박정희괴뢰도당은 방대한 무력을 동원하여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정당한 애국투쟁을 야수적으로 탄압하였다. 이것은 박정희괴뢰도당이야말로 미일제국주의의 충실한 개이며 천추에 저주받을 매국역적이라는것을 더욱 똑똑히 보여주었다.

남조선인민들은 식민지노예의 운명에서 벗어나며, 자유와 해방을 이룩하기 위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을 몰아내고 일본군국주의의 재침략을 부셔버려야 하며 박정희괴뢰도당을 타도하여야 한다.

일본군국주의세력의 침략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은 생존의 권리를 쟁취하며 민족적독립과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남조선인민들은 《원조》, 《협력》의 간판아래 기여들어 미제와 더불어 남조선의 경제명맥을 틀어쥐려는 일본독점자본의 온갖 간악한 책동을 반대하는 광범한 대중적인 투쟁을 벌려야 한다. 남조선인민들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정치적 간섭과 지배를 단호히 물리치고 박정희도당의 친일매국정책을 끊임없이 폭로단죄하며 민족적독립과 나라의 자주, 자립을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양풍과 함께 왜색왜풍을 견결히 배격하며 그것을 퍼뜨리는 어떠한 행동에 대해서도 제때에 타격을 가하여야 한다.

특히 남조선인민들은 당면해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군사침략계획을 파탄시키기 위하여 억세게 투쟁하여야 한다.

남조선인민들은 일본침략군대가 절대로 우리 조국땅우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완강한 투쟁태세를 갖추어야 하며 범죄적인 《한일협정》을 부셔버리기 위한 대중적투쟁을 벌려야 한다.

오늘 일본군국주의의 남조선재침을 짓부시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남조선인민들이 새로운 재난의 위협에서 벗어나는가 못하는가 하는 사활적인 문제이며 민족의 전도와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우리의 아름다운 조국강산이 또다시 전쟁의 불길속에 빠지지 않게 하며, 망국노의 쓰라린 운명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누구나 미제를 반대하여 투쟁하는것과 함께 일본군국주의의 침략책동을 물리치기 위한 투쟁에 분연히 일떠서야 한다.

남조선의 모든 애국적인민들이 힘을

합쳐 억세게 싸워나간다면 그들은 반드시 미일제국주의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때려부시고 혁명의 승리를 쟁취할수 있다.

남조선인민들은 자기들의 투쟁에서 결코 외롭지 않다.

남조선인민들에게는 공화국북반부의 위력한 혁명기지가 있으며 북반부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이 있다.

공화국북반부인민들은 언제나 모든 힘을 다하여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지원할것이며 그들과 함께 조국의 완전한 해방과 통일독립을 위하여 완강히 싸워나갈것이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이제 또다시 《횡재》의 기회를 노리면서 미제국주의자들을 등에 업고 남조선에 기여들며 침략야망을 실현하려고 책동하고있으나 이것은 터무니없는 망상이다.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어받은 조선인민은 우리 나라에 대한 일본제국주의자들의 그 저주로운 침략의 력사가 되풀이되는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것이다. 우리 인민은 공화국북반부의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튼튼히 꾸리며 원쑤들의 어떠한 침공도 단호히 물리칠 만단의 준비태세를 갖추고있다.

미일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여 싸우는 조선인민의 편에는 전세계의 수억만 혁명적인민이 서있다.

만일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력사의 교훈을 저버리고 무모하게도 우리 나라를 반대하는 새로운 침략전쟁을 일으킨다면 그들은 바로 그 전쟁의 불길속에서 영영 타죽고말것이다.

5.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중요시하며 일치한 행동으로 그의 침략적야망을 저지파탄시켜야 한다

미제와의 공모밑에 조선을 침략하며 나아가서 아세아를 침략하려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발악적인 침략책동은 이 지역의 정세를 한층 더 긴장시키고있으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커다란 위협을 조성하고있다.

아세아침략에서 미일제국주의자들사이의 군사적결탁을 더욱 강화하며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미제의 《돌격대》로서 《주역》을 맡아나서 새로운 군사적팽창의 단계로 넘어가려는 위험한 시각이 다가오고있다.

아세아와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인민들앞에는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중요시하며 일치한 행동으로써 그의 침략적야망을 저지파탄시켜야 할 과업이 절박하게 나서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의 지시에 따라 새 전쟁을 적극 준비하고있으며 일본은 아세아나라들을 침략하기 위한 미제의 공급기지로 또한 공격기지로 복무하고있습니다. 이러한 형편에서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결코 소홀히 할수 없습니다.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은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의 일환이며 아세아와 세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입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단행본, 1968년판, 70페지)

현대군국주의는 독점자본주의의 산물이다. 독점자본주의는 그의 략탈적, 침략적 본성에 의하여 나라의 군국화를 끊임없이 추진시킨다. 경제를 군사화하고 군비를 증강하며 재벌과 군벌이 결탁하여 국가기구를 파쑈화하고 인민들에 대한 탄압과 착취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다른 민족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식민지략탈을 위한 침략전쟁에로 끊임없이 내달린다.

일본군국주의는 미제의 종속적동맹자로서 아세아제패의 야망을 또다시 공공연히 선포하였으며 아세아인민을 반대하는 범죄의 길에 발악적으로 들어서고

있다. 자본주의의 전반적위기가 날로 커지고 미제의 침략과 전쟁정책이 더욱 파산되며 일본독점자본자신의 모순이 첨예화되고 판로와 시장, 원료원천의 부족이 심각화되면 될수록 일본군국주의의 해외팽창책동은 그만큼 더 맹렬화될것이다.

원래 태여날 때부터 가장 강도적침략성과 가장 야수적인 잔인성과 비길데없는 광면주의적교활성을 가지고있는것이 일본군국주의의 특성이다. 일본군국주의의 이 본성은 죽을 때까지 변할수 없다.

오늘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는 이 고유한 본성을 그대로 보존하고있는데만 그치지 않고있다.

거기에는 어제날의 패망을 앙갚음하려는 불타는 복수심이 더 첨가되여있다.

《식민지제국》을 다시 이룩하며 기어이 아세아제패의 옛꿈을 실현하려는 광신적침략성이 첨가되여있다.

2차대전시기에는 아직 물질적으로 덜 준비되였었으나 이제는 그때의 《국력》을 몇배나 능가하는 《대국》으로 되였다는 과대망상이 첨가되여있다.

더 나아가서 날로 힘있게 앙양되는 인민들의 혁명운동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력의 장성에 대한 더욱 커가는 공포심과 증오심이 첨가되였다.

일찌기 류례없는 잔인한 식민지통치방법과 수다한 침략전쟁에 숙달되였으며 항상 기습과 배신적인 불의공격에 습성화된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미제의 침략적요구와 그자신의 커가는 침략적야망에 따라 또다시 그 어떤 흉악한 범죄도 서슴없이 감행하는 길에 들어서리라는것은 명백하다.

더우기 오늘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는 사회주의와 민족해방운동을 반대하며 아세아침략의 공통된 리해관계로부터 출발하여 현대의 가장 야만적이고 파렴치한 침략자이며 침략과 전쟁의 주되는 세력이며 세계반동의 원흉이며 현대식민주의의 아성이며 민족적 해방과 독립의 교살자이며 세계평화의 교란자인 미제국주의와 밀접히 결탁하여 종속적동맹관계를 맺고있으며 그의 아세아침략의 《돌격대》로 나서고있다.

바로 이것은 일본군국주의의 흉악한 침략성과 반동성을 더욱 배가하여주며 그의 위험성을 더 크게 하여준다.

오늘에 와서 일본군국주의자들이 감히 제2차세계대전의 결과를 재검토하며 그것을 뒤집어엎을데 대하여 드러내놓고 떠들게 된것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것은 구라파에서 서부독일군국주의자들이 떠들고있는 복수주의적요구와 그대로 일치하고있다.

이 모든것은 일본군국주의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며 아직은 그가 침략전쟁을 벌려놓기에는 멀었다고 생각하여서는 결코 안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력사의 교훈을 잊지 말며 현실에 눈을 감지 말아야 할것이며 일본지배층에 대하여 그 어떤 환상도 가지지 말아야 할것이다. 미일간의 모순이 앞으로 격화되는 경우에 그것을 리용할수 있다는 구실하에 결코 여기에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용해시키거나 이것으로 하여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약화시켜서는 안될것이다.

호상간의 일정한 모순과 갈등에도 불구하고 미제와 일제는 침략을 위한 근본적문제들에서의 리해관계의 공통성으로 하여 종속적동맹관계에서 결탁되여있다.

미제국주의는 일본을 정치, 경제, 군사의 모든 분야에 걸쳐 지배하고있으며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일관하게 대미추종정책을 실시하고있다.

일본 사또정부와 가까이하면서 그 어떤 정치적흥정을 하여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침략과 팽창 야욕을 멈춰세우거나 돌려세울수는 없다.

일본군국주의의 위험성을 보지 않고 그와 투쟁하지 않으며 사또반동정부와 가까이한다면 사실상 일본지배층의 위선적인 정체를 가리워주고 그의 해외팽창을 고무해주며 아세아에서 미제의 지위를 강화하여주게 된다.

평화와 민족적독립, 민주주의와 사회

주의의 리익은 전반적정세평가에서 '구라파나 아세아의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지 말며 서부독일군국주의와 일본군국주의의 위협성에 대하여 어느 하나만 중시하고 다른 하나를 경시하는 립장을 취하지 말것을 요구한다.

민족리기주의적립장에 서거나 일시적인 눈앞의 리익만 생각하고 전반적인 반제투쟁의 리익을 무시한다면 결국에 가서 그것은 더 비싼 파국적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다.

아세아에서 일본이 또다시 새 전쟁의 발원지로 자라난 이상 그것을 그대로 두고서는 아세아와 세계는 결코 평온할수 없다.

오늘 일본군국주의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하는것은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견결히 반대하는가 안하는가, 아세아에서 평화와 안전을 진실로 념원하는가 안하는가, 민족적독립과 사회적진보를 위하여 투쟁하는가 안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근본립장문제로 된다.

아세아의 안전을 보장하고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를 진정으로 지키며 민족적 독립과 사회적진보를 위한 인민들의 위업을 성취하려면 미제를 반대하여 싸우는것과 함께 아세아에서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여 공동으로 견결히 투쟁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반제혁명력량과 평화애호력량은 광범한 반제반미공동행동과 통일전선을 이룩하고 미제를 반대하여 투쟁하는것과 함께 힘을 합쳐 그 동맹자인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할것이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사이의 호상결탁의 흉악한 내막과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책동을 끊임없이 전면적으로 폭로하며 최대한의 경각성을 높일것이 요구된다.

일본반동지배층이 상투적인 위선적구호밑에 국내에서 파쑈체제를 강화하며 다른 나라들에 대한 신식민주의적침략책동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하며 감히 불장난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일본이 아세아에 위치하고있는 사정을 리용하여 일본 사또반동정부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의 《벗》으로 가장하고 이 지역 나라들에 침략적지반을 닦으며 반제전선을 와해시키려는 책동을 철저히 짓부셔야 할것이다.

그렇게 하여 이르는곳마다에서 일본군국주의자들에게 타격을 주고 그들을 국제무대에서 고립시키며 일치한 행동으로 일본군국주의의 침략적야망을 꺾어버려야 할것이다.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사회주의나라들이 큰 역할을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나라들은 평화의 위력한 성새이며 모든 진보적인민들의 승리의 믿음직한 보루이다. 사회주의나라들이 어떤 립장을 취하는가에 따라서 전반적사태발전은 큰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나라들앞에는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인민들의 민족적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력사와 인민 앞에 지닌 무거운 책임적인 립장에서 일본군국주의에 대하여야 할 엄숙한 임무가 나서고있다.

사회주의나라들은 맑스-레닌주의혁명적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 미제의 충실한 종속적동맹자인 일본반동지배층에 대한 원칙적립장을 일관하게 견지하며 일본군국주의의 침략책동을 반대하여 날카롭게 투쟁하여야 자기의 국제적임무에 충실할수 있다.

사회주의나라들은 미제를 반대하여 투쟁하는것과 함께 일본군국주의의 침략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하며 그들을 적극 지지하여야 할것이다.

지난날 일본군국주의의 야만적침략과 식민지통치를 겪었던 모든 아세아나라 인민들앞에는 힘을 합쳐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책동을 견결히 반대하여야 할 공동의 과업이 나서고있다.

오늘 일본반동지배층은 아세아인민들속에서 의연히 강하게 살아있는 반일감정을 무마하기 위하여 자기들은 마치

지난날의 일본군국주의와는 다르며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을 도우려는 《선의》를 가지고있는듯이 여러모로 선전하고있다. 그러나 양가죽을 뒤집어쓴 승냥이의 본성은 그대로 남아있다. 독점자본의 침략성과 략탈적본성은 미제나 일제나 그리고 지난날이나 오늘이나 다를것이 없다.

아세아, 아프리카의 신생독립국가들은 일본과 경제관계를 맺는 경우에 있어서도 겉으로는 《낮은 자세》에서 알랑거리나 속심은 침략과 략탈의 구멍수를 찾는데 그 어느 제국주의자들보다도 더 간악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정체를 간파하고 그에 대하여 응당한 경계를 하여야 할것이다. 그리하여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이른바 《원조》를 미끼로 그 나라의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을 방해하거나 내부문제에 간섭하여 정치적영향을 미치려는 어떠한 책동도 단호히 폭로하며 물리쳐야 할것이다.

이렇게 하여야만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신식민주의적침략책동으로부터 나라의 독립과 자주적발전을 믿음직하게 지켜낼수 있다.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며 미일반동들의 공동의 침략음모를 저지파탄시키는데 있어서 일본인민과의 련대성을 강화하는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오늘 일본공산당을 선두로 하는 일본인민은 어려운 환경에서 미제와 일본독점자본을 반대하며 나라의 완전한 독립과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 있다.

일본인민은 미제와 일본독점자본들간의 흉악한 공모밑에 진행되고있는 일본의 재군국화와 핵기지화를 반대하는 투쟁, 미일 《안전보장조약》의 폐기와 오끼나와의 즉시 무조건적인 전면적반환을 요구하는 투쟁, 또한 《한일조약》의 폐기를 요구하며 미일제국주의자들의 조선에서의 새 전쟁 도발책동을 반대하는 투쟁, 미제의 웰남침략전쟁과 그에 가담하고있는 일본반동정부를 반대하는 투쟁, 일본군국주의의 새로운 해외침략책동을 반대하는 투쟁 등 여러가지 투쟁을 날로 치렬하게 전개하고있다. 이러한 투쟁은 독점체들의 착취와 수탈을 반대하며 생활상 권리옹호를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부되여 진행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본인민의 투쟁은 미제의 아세아침략과 일본군국주의에 커다란 타격을 주고있으며 세계평화의 위업에 기여하고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325페지)

사회주의나라들을 비롯하여 아세아와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인민들이 일본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그와의 국제주의적련대성을 백방으로 강화하자.

일본군국주의재생을 반대하는 투쟁은 일본인민과 아세아인민들, 나아가서는 온 세계 인민들의 공동의 투쟁과업이다.

아세아와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인민들이 일본인민과 굳게 단결하여 견결히 투쟁한다면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범죄적결탁과 위험한 침략책동을 반드시 때려부실수 있다.

력사가 보여주는바와 같이 군국주의는 그자체에 멸망의 씨앗을 내포하고 있다.

오늘 미일제국주의자들이 서로 공모결탁하여 침략책동을 더욱 로골화하고 있는것은 결코 그들의 강대성을 보여주는것이 아니다. 반대로 그것은 죽어가는 제국주의의 취약성을 실증하여주는 것이다. 바로 군국주의는 독점자본주의의 부패성과 기생성의 집중적표현이다.

미일제국주의자들이 인민의 의사와 시대의 흐름을 거역하여 횡포하게 행동하면 할수록 그들의 처지는 더욱더 어렵게 될뿐이다.

군국화의 진척에 따르는 군비의 발광적확장과 경제의 군사화는 많은 재부와 로동력을 비생산적소비에 탕진하고 재정적파탄을 가져오며 경제적위기를 더욱 심각화하게 된다. 그것은 광범한 근로대중을 빈궁과 무권리 속에 몰아넣고 그들의 불만과 반항을 증대시켜 혁명적위기를 더욱 격화시키게 된다. 군국주

의의 팽창적해외침략책동은 다른 나라 인민들의 분노와 항거를 불러일으키여 국제적고립화를 더욱 촉진시키게 된다. 구경 군국주의는 독점자본주의의 모순을 불가피적으로 첨예화시키며 자기자신의 발전의 결과에 멸망하고만다.

력사적사실뿐만이 아니라 오늘의 현실어 또한 이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미제의 조종밑에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침략적야망을 로골화하면 할수록 그들을 반대하는 일본인민들의 투쟁은 더욱 확대강화되고있다.

사회주의나라들과 아세아와 세계 평화애호인민들속에서 규탄의 목소리가 날로 드높아가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직접 경제적침략의 마수를 뻗이밀고있는 동남아세아의 여러 나라들에서도 최근 시기 일본군국주의의 재침투를 경고하며 반일감정을 새로이 크게 터뜨리고있다.

《일본인들이 산업력과 재력을 통하여 아세아에서 가장 침략적인 국민으로 되였다》, 《새로운 제국주의의 진군을 막으라》, 《아세아의 경제원조에 일본이 덧붙이는 제조건에서 과거의 대동아공영권구상을 발견한다》, 《일본인이 온당한 리익만으로는 만족하지 않기때문에 마음을 놓을수 없다》, 《추악한 일본인이 추악한 미국인을 대신하며 한다》는 등 여러가지 분노에 찬 목소리들이 울려퍼지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의 조선은 어제날의 조선이 아니며 오늘의 아세아는 어제날의 아세아가 아닙니다. 만일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력사의 교훈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조선과 아세아 침략의 길에 뛰여든다면 그들은 자신이 지른 불길속에서 타버리고말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402~403페지)

오늘 우리 시대는 지구상의 모든 피착취인민들과 피압박민족들이 해방투쟁에 떨쳐나서고있는 위대한 투쟁의 시대이며 제국주의식민지체계가 걷잡을수 없이 무너져가고있는 보람찬 혁명적변혁의 시대이다.

사회주의와 평화애호력량은 승승장구하고있으며 제국주의침략세력은 계속 쇠퇴몰락하고있다. 아세아에서 력량관계는 더욱 혁명의 편에 유리하게 전변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이 제멋대로 활개치며 다른 나라를 함부로 침략하고 주인행세를 하던 시기는 영원히 지나갔다.

1970년대는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망상하는 침략과 략탈의 《새로운 태평양시대》가 아니라 민족적해방과 사회주의를 위한 피압박인민들의 혁명투쟁이 더욱 위대한 승리를 거두는 장엄한 력사적시대로서 빛을 뿌릴것이다.

사회주의가 승리하고 제국주의가 멸망하는것은 어떠한 힘으로도 막을수 없는 우리 시대의 기본추세이다.

제1차세계대전과 제2차세계대전의 력사적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오늘의 이 엄연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이 감히 새로운 침략과 식민지략탈전쟁에로 뛰여든다면 그들은 더는 헤여날수 없는 파멸의 무덤속으로 급속히 빠져들어가게 될것이다.

일본이 나가야 할 길은 침략과 전쟁의 길이 아니라 독립과 민주주의, 평화와 중립의 길이다.

일본은 하루속히 미제의 예속에서 벗어나야 하며 진정한 민주주의적평화애호국가로 되여야 한다.

우리 당과 정부는 시종일관 미제에 의한 일본군국주의재생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그것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왔다.

조선인민은 앞으로도 일본의 완전한 독립과 민주주의와 평화를 쟁취하기 위한 일본인민의 투쟁을 모든 힘을 다하여 적극 지지성원할것이다.

조선인민은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기치, 반제반미투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세계인민의 공동의 원쑤 미제를 반대하여 투쟁하는것과 함께 그의 동맹자인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계속 힘차게 벌림으로써 자기에게 맡겨진 민족적 및 국제적임무를 다할것이다.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 문제를 창조적으로 밝힌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적로작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3년전에 발표하신 천재적인 로작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 문제에 대하여》에서 현시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절박하게 해결을 요구하고있는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 문제에 대하여 가장 정확한 맑스-레닌주의적해답을 주시였다.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 문제를 옳게 해결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과도기는 로동계급의 정권을 세운 다음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는 길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력사적시기이다. 정권을 잡은 로동계급은 과도기의 임무를 옳게 수행하여야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고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완수할수 있다.

프로레타리아독재는 로동계급의 수중에 장악된 계급투쟁의 무기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무기이다. 로동계급은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견결히 고수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야만 과도기의 임무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반적과업을 옳게 수행할수 있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수행에서 사활적의의를 가지는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에 관한 문제는 종전까지 완전히 해명되여있지 못하였으며 최근년간 국제적범위에서 리론상으로나 실천상으로 혼란을 겪고있던 문제이다.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 문제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고수하며 그것을 새로운 력사적조건에 맞게 창조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력사적과업은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빛나는 해결을 보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천재적로작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 문제에 대하여》에서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의 본질, 과도기의 계선과 임무,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의 호상관계,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력사적사명, 사회주의사회에서의 계급투쟁 등 일련의 리론적문제들에 대한 천재적인 해명을 주시였다.

김일성동지의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에 대한 리론은 그이의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한 독창적리론으로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로 되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로동계급의 력사적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확고한 지침으로 된다.

1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 문제에 대하여》에서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키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탁월한 로작에서 특히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의 계선을 어디에 그울것인가 하는 문제에 처음으로 과학적인 해답을 주시였다.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수립으로부터 시작되는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가 언제 끝나는가 하는 계선을 옳게 긋는것은 과도기문제를 리론적으로 해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과도기의 계선을 어디에 긋는가 하는 것은 과도기를 어떤 시기로 리해하며 과도기과업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것과 직접 관련된 문제이다.

과도기의 계선을 지나치게 짧게 긋거나 또는 너무 길게 긋는것은 모두 과도기에 관한 이 근본적문제들에 그릇된 태도를 취하는것으로 되며 따라서 과도기의 임무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반적과업을 정확하게 해결할수 없게 한다.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과도기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가 이룩되여야 끝나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는 무계급사회가 실현되여야 비로소 이룩된다는 독창적인 리론으로부터 출발하시여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의 계선을 무계급사회의 실현까지로 그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가 사회주의건설을 전진시켜 중산층을 우리편에 완전히 쟁취하게 될 때, 로동계급과 농민의 차이를 없애고 무계급사회를 건설하게 될 때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의 임무가 실현되였다고 말할수 있을 것입니다.》(《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 문제에 대하여》, 14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과도기의 계선을 무계급사회의 실현까지로 규정하신것은 과도기의 본질과 임무를 과학적으로 해명하신데 기초한것이다.

천재적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처음으로 해명하신바와 같이 과도기는 로동계급이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을 세운다음 사회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자본주의를 완전히 타승하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는 시기이다. 즉 과도기는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을 세운 로동계급이 착취계급을 청산할뿐만아니라 착취계급의 잔여분자들의 준동을 철저히 진압하며 근로자들의 머리속에서 낡은 사상잔재를 청산하고 그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사상, 공산주의사상으로 교양개조하며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를 없애며 생산력의 락후성을 없애고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아올리는 시기이다.

이것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가 본질에 있어서 국내적범위에서 자본주의를 완전히 타승하며 온갖 계급적차이가 없는 무계급사회를 건설하는 시기라는것을 말하여준다.

천재적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고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면 곧 과도기가 끝난다고 보는것은 잘못입니다. 맑스-레닌주의창시자들이 말한데 근거해서 문제를 보아도 그렇고 우리의 실지투쟁경험에 비추어보아도 그렇고 로동계급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자본가계급을 때려부시고 사회주의혁명을 했다고 해서 완전한 사회주의사회가 건설되는것은 아닙니다.》(우와 같은 책, 10페지)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착취계급을 청산할뿐만아니라 그 잔여분자들의 준동과 낡은 사상의 부식작용을 종식시켜야 한다. 착취계급이 청산된 다음에 그 잔여분자들의 파괴책동과 근로자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반대하는 계급투쟁을 강화하여 적대분자들의 준동을 분쇄하고 낡은 사상잔재를 극복하는것은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 다음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 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이 과업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과 낡은 사상의 부식작용을 그대로 두고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는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가 없어지고 중산층, 특히 농민대중이 우리를 적극 지지하게 되여야 비로소 이루어질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10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고 무계급사회를 실현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적개조가 완성된 다음에도 남아있는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를 없애는것은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위한 근본조건의 하나로 된다. 따라서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고 무계급사회를 실현하기전에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가 보장되였다고 말할수 없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고 사회주의사회에 상응한 생산력의 높은 발전수준을 이룩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지난날의 중산층까지도 다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실생활을 통하여 더 잘 느끼도록 하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몸바쳐 싸우도록 할수 있다.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과도기의 과업과 함께 과도기 이후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를 실현하기 위한 과업도 과학적으로 규정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라는것은 로동자와 농민의 차이가 없는 무계급사회일뿐아니라 정신로동과 육체로동간의 차이도 없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따라 분배를 받는 고도로 발전된 사회입니다.》(우와 같은 책, 8페지)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반적과정에서 사회주의가 어느때 가서 완전히 건설되며 완전한 사회주의로부터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에로의 이행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가를 천명하여주고있으며 과도기의 과업과 그 이후의 과업들의 차이를 명확히 밝혀주고있다.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각자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따라 분배받을수 있는 생산력의 높은 발전수준을 이룩하며 육체로동과 정신로동간의 차이도 없애야 한다. 이 문제는 물질적생산에 훨씬 더 높은 과학기술이 도입되고 모든 근로자들이 높은 공산주의적사상과 도덕을 소유할뿐만아니라 기술문화면에 있어서도 보다 높은 수준에 도달하게 될 때에만 완전히 해결될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불후의 로작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 문제에 대하여》에서 전개하신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 관한 리론은 선행한 맑스-레닌주의창시자들이 제기한 과도기리론을 확고히 고수하고 그것을 우리 시대의 요구에 맞게 전면적으로 발전시킨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 이 로작에서 심오히 밝히신바와 같이 전독점자본주의시대에 활동한 맑스는 과도기문제를 설정할 때 농촌까지도 이미 자본주의화되여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가 없는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를 념두에 두었으며 주요자본주의나라들에서 거의 동시에 련속적으로 프로레타리아혁명이 일어날것을 전제로 하였다. 따라서 맑스는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를 비교적 짧은 력사적기간으로 보았다. 뒤떨어진 자본주의나라에서 혁명을 령도한 레닌은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차이를 없애는 과업도 과도기에 수행할 과업으로 인정하고 과도기를 비교적 길게 보면서도 기본상 맑스의 립장을 계승하였다. 과도기에 관한 선행한 맑스-레닌주의창시자들의 견해는 당시의 력사적조건에서는 전적으로 옳은것이였다. 그

려나 현실은 이 리론을 창조적으로 발전시킬것을 요구한다.

오늘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고있는 대다수 나라들은 지난날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되지 않았던 나라들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실상 세계에는 고도로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는 얼마되지 않고 대다수 나라들은 지난날 식민지 또는 반식민지였던 뒤떨어진 나라이거나 지금도 예속상태에 있는 나라들이다. 이러한 나라들에서는 사회주의혁명을 한다음에도 비교적 오랜 기간에 걸쳐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를 없애야 무계급사회를 건설할수 있다. 따라서 이런 나라들에서는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가 비교적 긴 력사적시기를 포괄하지 않을수 없으며 과도기에 수행하여야 할 임무도 선행한 맑스-레닌주의창시자들이 예견하였던것보다 훨씬 복잡하지 않을수 없다.

특히 얼마되지 않은 고도로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를 제외한 세계의 대다수 나라들에서는 사회주의혁명의 승리를 이룩하는데서 중산층을 쟁취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이 나라들에서 사회주의혁명의 승패는 결국 로동자와 자본가의 두 계급가운데서 누가 중산층을 종국적으로 자기편에 쟁취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할수 있다. 로동계급은 중산층을 자기편에 확고히 쟁취하여야 사회주의혁명의 승리를 보장할수 있으며 그것을 공고히 할수 있다.

중산층이 사회주의제도의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지 못하고 동요하는 조건에서는 사회주의가 완전히 승리하였다고 말할수 없다. 지난날의 중산층이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확신하고 어떠한 동요도 없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게 될 때 사회주의가 완전히 승리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는 문제를 지난날의 중산층을 완전히 쟁취하는 문제와 직접 결부시켜 해명하신 창조적사상은 오늘 세계의 대다수 나라들의 계급구조와 계급적력량관계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한것이며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오늘의 요구에 맞게 더욱 발전시킨것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과도기에 관한 리론은 또한 정권을 잡은 로동계급이 오랜 기간에 걸쳐 세계제국주의와 대치한 상태에서 혁명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세계사회주의혁명발전의 현실적조건을 정확히 반영하고있는것이다.

자본주의가 제국주의단계에로 발전된 조건에서는 자본주의의 정치 및 경제의 불균등적발전법칙이 작용하여 사회주의혁명이 제국주의의 약한 고리를 하나하나 끊고 일어나게 되였다. 따라서 이미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한 나라들은 장기간에 걸쳐 세계제국주의와 대치한 상태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게 되였으며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의 과업을 제국주의와의 치렬한 투쟁속에서 수행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이것은 오랜기간에 걸치는 날카로운 계급투쟁속에서만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과업을 수행할수 있게 하는 다른 하나의 객관적조건으로 된다.

천재적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혁명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경험으로부터 출발하시여 과도기에 관한 맑스와 레닌의 리론을 이러한 새로운 력사적조건에 맞게 더욱 발전시키심으로써 과도기의 본질과 임무 특히 그 계선을 가장 정확하게 규정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탁월한 로작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 문제에 대하여》

에서 전개하신 과도기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은 과도기문제에서 나타나고있는 그릇된 립장들에 대한 결정적타격으로 된다.

그것은 우선 로동계급이 정권을 잡은 다음 사회주의제도를 수립하면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가 끝난다고 하면서 사회주의하에서 계속되는 계급투쟁의 과업을 끝까지 수행하지 않으며 혁명을 중도에서 그만두려는 그릇된 립장에 결정적타격을 주었다. 동시에 그것은 로동계급이 정권을 잡은 다음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까지의 긴기간을 과도기로 보면서 사실상 과도기의 계선을 긋지 않는것이나 다름없는 그릇된 견해에도 타격을 주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전면적으로 전개하신 과도기에 관한 탁월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은 과도기에 관한 온갖 기회주의적리론이 로동계급의 혁명적립장에서 리탈한 반맑스-레닌주의적리론이라는것을 남김없이 보여줌으로써 그를 철저히 극복할수 있게 하였다.

2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천재적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 문제에 대하여》에서 또한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의 호상관계를 새롭게 밝히시고 로동계급의 력사적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계속 견지하여야 할 객관적필연성을 천명하시였으며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계급투쟁의 특성에 대한 새로운 독창적인 해명을 주시였다.

프로레타리아독재 문제는 맑스-레닌주의의 핵을 이루는 문제이다.

그러나 프로레타리아독재에 관한 모든 문제가 종전에 다 해명되어있은것은 아니다. 프로레타리아독재를 언제까지 견지할것인가 하는 문제도 명백히 해명되여있지 못한 문제의 하나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로작에서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프로레타리아독재를 로동계급의 력사적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객관적필연성을 전면적으로 밝히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무엇보다도 프로레타리아독재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는 물론 과도기가 끝난 다음에도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의 실현을 위하여 계속 견지되여야 한다는 사상을 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프로레타리아독재가 과도기의 전기간에 있어야 할것은 더 말할것도 없고 과도기가 끝난 다음에도 그것은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까지 반드시 계속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15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한 나라에서 공산주의를 실현한 다음에도 세계혁명이 완수될 때까지 프로레타리아독재는 계속되여야 한다는 혁명적사상을 다음과 같이 천명하시였다.

《세계혁명이 아직 완수되지 못하고 자본주의와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조건에서는 한 나라 또는 일부 지역에서 공산주의를 실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회는 제국주의의 위협을 면치 못할것이며 외부의 원쑤들과 결탁한 내부의 원쑤들의 반항도 면할수 없을것입니다. 이런 조건에서는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에 가서도 국가는 조락될수 없으며 프로레타리아독재는 의연히 남아있어야 할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16페지)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들은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를 떼여서 보아야 한다는것을 명확히 가르쳐준것이며 프로레타리아독재가 언제까지 계속되여야 하는가를 처음으로 명확하게 밝힌 탁월한 고전적명제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를 떼여서 보아야 한다는 창조적사상은 바로 과도기의 본질과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력사적사명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한것이다.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는 밀접히 관련되여있으면서도 구별되는 문제이다. 과도기에 관한 문제가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을 세운 로동계급이 한 나라에서 착취계급을 때려부시고 사회주의제도를 수립하며 사회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자본주의를 철저히 타승하고 완전한 사회주의사회를 실현하는 시기에 관한 문제라면 프로레타리아독재문제는 로동계급이 자기의 세계사적사명을 종국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끝까지 틀어쥐고나가야 할 무기에 관한 문제이다.

로동계급의 력사적사명은 자기 나라에서 사회주의를 완전히 실현할뿐아니라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를 실현하며 나아가서 세계적규모에서 제국주의를 종국적으로 타승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데 있다. 따라서 프로레타리아독재는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의 전기간에는 더 말할것도 없고 과도기가 끝난 다음에도 로동계급의 력사적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계속 견지되여야 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과도기가 끝난 다음의 과업들도 프로레타리아독재없이는 수행할수 없다.

각자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따라 분배할수 있는 정도로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문제와 육체로동과 정신로동간의 차이를 없애는 문제는 모두 로동계급의 계급적령도,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강화하는 조건에서만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로동계급은 과도기가 끝난다음에도 계속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강화하면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야만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를 실현할수 있다.

더우기 과도기가 끝난 다음에도 세계에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조건에서는 제국주의와 그 앞잡이를 반대하는 투쟁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국주의는 완전히 멸망하기전까지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침략과 파괴 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한다. 로동계급은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계속 강화하여야만 제국주의의 위협과 그와 결탁한 내부의 앞잡이들의 반항을 철저히 분쇄하고 나라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보장할수 있으며 세계에서 제국주의를 영영 청산해버릴수 있을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로동계급의 력사적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계속 견지하여야 한다고 하신 탁월한 혁명사상은 맑스-레닌주의선행고전가들이 제기한 사상의 진수를 고수하고 그것을 오늘의 력사적조건에 맞게 독창적으로 발전시킨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 이 로작에서 밝히신바와 같이 선행고전가들은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가 시간적으로 상응하는것으로 보았으며 프로레타리아독재와 과도기를 뗄수 없는것으로 인정하였다. 이것은 맑스주의창시자들이 활동한 력사적환경과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문제를 고찰할 때 그들이 설정한 전제밑에서는 옳은것이였다. 단일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혁명이 련속적으로 일어나 전세계적규모에서 자본주의가 멸망하고 사회주의혁명이 동시에 승리하게 될 경우에는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가 서로 일치하게 되고 과도기가 끝나면 프로레타리아독재도 더는 필요없게 된다고 생각할수 있다.

그러나 세계적규모에서 사회주의혁명은 맑스주의창시자들이 예견했던것과는 다르게 발전하고있다. 오늘 사회주의혁명은 세계의 일부 지역에서만 승리하고 사회주의나라들은 제국주의와 대치한 상태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고있다. 세계에 아직 자본주의나라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우리 나라를 비롯한 일련의 나라들에서는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완전하고도 종국적인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혁명발전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 이와 같은 조건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의 호상관계와 프로레타리아독재를 어느때까지 견지할것인가 하는 문제를

새롭게 해명할것을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하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확고한 주체적립장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혁실적 및 전망적 요구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신데 기초하시여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를 떼여서 보아야 하며 과도기가 끝난 다음에도 로동계급의 력사적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계속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는것을 천재적으로 밝히심으로써 프로레타리아독재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선행고전가들의 리론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키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과도기가 끝난 다음에도 혁명과 건설의 강유력한 무기인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계속 견지하여야 한다고 밝히신 탁월한 혁명리론은 프로레타리아독재를 악랄하게 헐뜯으면서 함부로 국가조락을 운운하는 기회주의적조류에 섬멸적타격을 주는것이다. 동시에 이것은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한 나라에서 공산주의건설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그릇된 견해에 대하여서도 결정적인 타격을 준 가장 과학적인 사상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 문제에 대하여》에서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의 호상관계를 밝히시였을뿐만아니라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시기의 계급투쟁의 특성에 대하여서도 과학적인 해명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계급투쟁이 있는 한 프로레타리아독재가 있는것이고 프로레타리아독재는 계급투쟁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것입니다. 그러나 계급투쟁의 형식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자본주의를 때려부시는 때의 계급투쟁과 자본주의를 때려부신 다음의 계급투쟁은 그 형태가 다릅니다.…

사회주의혁명을 할 때의 계급투쟁은 자본가들을 계급으로서 청산하기 위한 투쟁이고 사회주의사회에서의 계급투쟁은 통일단결을 목적으로 하는 투쟁이며 그것은 결코 사회성원들이 서로 반목질시하기 위해서 하는 계급투쟁은 아닙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계급투쟁을 하되 통일과 단결을 목적으로 하여 협조의 방법으로 계급투쟁을 하는것입니다.》 (우와 같은 책, 17페지)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이 사상은 로동계급이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을 세운 다음 사회주의제도를 세우기전시기와 그이후 시기에 계급투쟁이 어떻게 발전되며 계급투쟁의 기본형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처음으로 밝힌 천재적인 사상이다.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이후시기의 사회관계의 특성과 이 시기의 계급투쟁의 과업을 전면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내린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결론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바와 같이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는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수립으로부터 시작하여 사회주의제도의 수립을 위한 투쟁시기와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 다음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투쟁시기를 포괄하게 된다. 사회주의제도의 수립은 로동계급의 력사적위업수행에서 이룩된 위대한 승리로 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력사적인 전환으로 된다.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면 계급으로서의 착취계급은 청산되고 로동계급과 협동농민, 근로인테리의 단결과 협조가 사회관계의 기본을 이루게 된다.

따라서 계급투쟁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되지만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이후시기의 계급투쟁은 그 이전시기와 다른 형식을 띠지 않을수 없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혁명을 할 때의 계급투쟁은 주로 착취자들을 계급으로서 완전히 청산하기 위한 투쟁이였다면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 진행하는 계급투쟁은 사람들을 청산하기 위한것이 아니라 주로 사람들을 개조하여 단결시키기 위한 투쟁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의 계급투쟁의 목적은 농민을 로동계급화하여 계급으로서의 농민을 없앨뿐아니라 지난날의 도시소자산계급을 비롯한 중산층을 혁명화하여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는것이다. 이와 같이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로동계급과 농민, 근로인테리의 단결을 목적으로 하여 협조의 방법으로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이 계급투쟁의 기본형식으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

치신바와 같이 물론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외부로부터 반혁명세력의 파괴적영향이 들어오며 내부에서 전복된 착취계급의 잔여분자들이 준동하기때문에 내부와 외부의 원쑤들에 대한 독재를 강화하며 놈들의 반혁명적책동을 진압하기 위한 계급투쟁도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와 직접 대치하여있고 나라의 절반땅에는 아직도 착취계급과 착취제도가 그대로 남아있는 우리 나라의 조건에서는 내부와 외부의 원쑤들을 반대하는 계급투쟁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로작에서 사회주의사회에서의 계급투쟁문제를 해명하시면서 인테리들의 혁명화를 촉진하기 위한 방도에 대하여서도 명철하게 가르쳐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풍부한 실천적경험을 개괄하시면서 인테리들을 혁명화하기 위하여서는 당생활을 비롯한 여러가지 조직생활을 강화하도록 하는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하시였다.

* *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천재적로작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 문제에 대하여》에서 새롭게 천명된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 문제에 대한 사상들은 우리 혁명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실로 거대한 리론실천적의의를 가진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 문제에 대한 리론들은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건설을 완성하고 공산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힘있는 사상리론적무기이다.

김일성동지께서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와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시기에 수행하여야 할 기본과업들을 과학적으로 규정하시고 그 매 시기에 있어서의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임무를 명확히 천명하여주신 이 탁월한 로작은 우리 나라의 혁명과 건설을 가장 정확한 길로 이끌며 우리 인민들로 하여금 뚜렷한 투쟁목표와 확고한 전망을 가지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수 있게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 불후의 로작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순차적로정과 특히 사회주의제도확립 이후시기의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중요임무, 계급투쟁의 특성들을 과학적으로 밝혀줌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고있는 인민들이 프로레타리아독재를 철저히 견지하여 혁명과 건설을 가장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확고한 지침을 준다.

또한 이 로작은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고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 문제에 관한 리론을 획기적으로 발전완성시켜 맑스-레닌주의보물고를 풍부히 하는데 불멸의 공헌을 한 위대한 문헌이다.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천재적인 로작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 문제에 대하여》에서 혁명발전이 제기하는 복잡한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주체적립장에 확고히 서시여 창조적으로 푸는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립장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반적로정과 관련되고 지금까지 혼란되고 외곡되였던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 문제에 대하여 전면적인 과학적해명을 주시였다. 이는 그이의 주체사상의 위대성을 뚜렷이 확증하여주는 것이다. 로작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모든 문제를 오직 위대한 주체사상에 확고히 립각하여 우리 나라 혁명과 건설의 실천적경험으로부터 출발하여 풀어나갈 때에만 항상 옳은 결론에 이를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공화국창건스무돐기념보고를 비롯한 모든 로작들과 더불어 이 불후의 로작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 문제에 대하여》를 심오히 학습하여 수령께서 밝혀주신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에 관한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확고히 전진함으로써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촉진하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하며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겨야 할것이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은 우리 당 건설의 기본원칙

김 국 훈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시며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시였고 그이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우리 당은 오늘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장엄한 진군을 계속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오늘에 이르는 40여년간 오로지 혁명적당의 창건과 그 강화발전을 위하여, 우리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온갖 심혈을 다 기울이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맑스-레닌주의당건설원칙을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의 구체적실정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에 관한 리론을 가일층 발전시키시였으며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당건설의 근본원칙을 전면적으로 밝히시였다. 그이께서는 특히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을 내놓으심으로써 맑스-레닌주의당건설의 근본문제에 정확한 해답을 주시였다.

우리 당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관한 사상을 지침으로 하여 전당과 인민을 수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웠으며 수령의 사상과 배치되는 온갖 반당, 반혁명적 사상조류들을 극복하고 조선공산주의운동의 통일을 이룩하는 력사적과업을 빛나게 실현하였다.

우리 당은 전당과 전사회에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우고 이에 기초하여 당의 령도적역할을 백방으로 강화함으로써 조선혁명의 전투적참모부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고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확고히 세워 어떤 역경속에서도 일편단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그이의 두리에 철석같이 뭉쳐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것은 우리의 모든 승리의 결정적담보이며 당원들과 근로자들 앞에 나서는 가장 숭고하고도 선차적인 혁명임무이다.

1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의 본질을 뚜렷이 밝히시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이 맑스-레닌주의당건설의 기본원칙으로 된다는것을 전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운다는것은 자기 수령의 혁명사상, 자기 당정책으로 전당을 무장시키고 모든 당원들을 수령과 당중앙의 주위에 굳게 묶어세워 혁명사업을 해나가도록 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운다는것은 탁월한 수령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을 수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 전당과 전체 인민의 사상, 의지 및 행동의 완전하고도 무조건적인 통일을 이룩하며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그이의 유일적인 령도밑에 혁명사업을 해나가도록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사상은 혁명투쟁에서 로동계급의 수령이 노는 위대한 역할에 대한 심오한 분석에 기초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로동계급과 근로대중은 자기의 우수한 령도자를 가져야만 혁명투쟁에서 승리할수 있습니다. 로동계급이 혁명투쟁에서 승리하자면 사회발전법칙의 지식과 계급투쟁에 관한 리론으로 무장되여야 하며 과학적인 전략과 전술을 가져야 하며 동맹자를 전취하며 혁명의 후비군을 동원하며 리용할줄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사업은 로동계급의 당과 그 수령들에 의하여 수행되는것입니다. 당과 로동계급의 수령들은 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모든 경험을 일반화하고 맑스-레닌주의 원리를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인민대중에게 정확한 투쟁강령을 제시하고 혁명과 건설의 매 단계에서 옳은 전략과 전술을 세우며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끕니다.》

력사의 창조자는 인민대중이며 혁명은 인민대중을 위한, 인민대중자신의 사업이다. 력사적경험은 어떠한 혁명운동에서나 거기에 참가하는 인민대중의 의식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들이 조직화되면 될수록 더욱 큰 힘을 나타내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인민대중의 계급의식을 높여주고 그들을 선진사상으로 깨우쳐주며 혁명투쟁에로 조직동원하는것은 로동계급의 위대한 수령이다. 로동계급의 수령은 대중을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며 정확한 투쟁구호를 제시하여 그들을 혁명투쟁에로 힘차게 불러일으킨다. 대중은 수령의 현명한 령도를 받음으로써만 의식화되고 조직화되여 력사의 참된 창조자로 될수 있다.

위대한 수령은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의 정치적참모부인 당을 창건하고 공고발전시킴에 있어서 결정적역할을 한다.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은 오직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에 의해서만 창건될수 있으며 수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서만 그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이 끊임없이 강화될수 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사상은 또한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에서 수령, 당, 계급, 대중의 호상관계에 대한 전면적인 분석에 기초하고 있다.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에서 수령, 당, 계급, 대중은 서로 떼여낼수 없는 전일체를 이루고있으며 수령은 그의 총체를 지도하는 위대한 령도자이다.

수령이 없는 당은 지휘관이 없는 군대와 같다. 현명한 수령이 없는 당은 진정으로 로동계급의 선봉대로서의 역할을 할수 없다. 또한 참모부가 없는 군대가 전투에서 승리할수 없는것과 마찬가지로 위대한 수령의 령도를 받는 당이 없이는 로동계급은 혁명투쟁에서 승리할수 없다. 혁명적당의 옳은 정치적령도를 떠나서는 로동계급이 인민대중을 자기의 주위에 묶어세울수 없으며 그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이끌수 없다. 로동계급이 광범한 대중가운데서 가장 선진적인 부분이라면 당은 로동계급의 전위대이며 위대한 수령은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을 하나로 묶어세워 혁명승리에로 인도하는 유일한 중심이며 심장이며 최고뇌수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위대한 수령이 노는 결정적역할과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위치에 대한 심오한 분석에 기초하시여 맑스-레닌주의당건설의 기본원칙으로서의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을 새롭게 내놓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은 당의 조직, 사상, 리론적 기초를 더욱 공고발전시켜 로동계급의 선봉대로서의 역할과 그의 조직된 부대로서의 역할을 원만하게 하도록 하는것으로서 맑스-레닌주의당건설의 기본원칙이며 사회주의혁명의 승리와 공산주의건설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교시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이 맑스-레닌주의당건설의 기본원칙으로 되는 근거를 전면적으로 밝히시였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은 우선 당의 조직적기초를 튼튼히 함으로써 당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며 그의 전투력을 높일수 있게 하는 기본문제로 된

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은 조직된 전투적부대로서의 당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는데서 결정적의의를 가진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같이 교시하시였다.

《…로동계급의 선봉적부대가 사상의지와 행동의 통일을 보장하며 원쑤들과의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성원들이 하나의 원칙에 의하여 철저하게 조직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291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로동계급의 선봉대인 당이 사상의지 및 행동의 통일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의 원칙 즉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기초하여 조직되여야 하며 움직여야 한다.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은 전당과 전체 인민의 의사의 체현자이며 당의 최고뇌수인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수령의 유일적인 령도밑에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이는 강철같은 규률과 정연한 사업체계를 요구한다.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은 수령의 혁명사상에 의하여 하나로 굳게 결속된 전일적인 혁명조직이다.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을 조직하며 령도하는 수령은 맑스-레닌주의당의 통일단결의 유일한 중심이다.

그러므로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워 모든 당원들이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수령의 사상과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할 때라야만 당의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기초한 통일단결을 강화할수 있고 수령의 교시라면 불붙을 헤아리지 않고 무조건 옹호관철하는 혁명적 질서와 규률을 세울수 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은 또한 당대렬을 튼튼히 꾸리며 당원들의 당조직생활을 강화할수 있게 하는 근본문제로 된다.

당은 무엇보다도먼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움으로써만 당대렬을 우수한 선진분자들로 꾸려진 전투적부대로 만들수 있다. 맑스-레닌주의당은 수령의 혁명사상을 지침으로 삼아 로동계급의 력사적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자각적인 선진투사들의 혁명조직이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은 수령의 혁명사상을 심장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견결히 옹호하며 수령께 끝없이 충직할 일념으로 가득찬 선진분자들로써 꾸려져야 한다. 이것은 당대렬을 튼튼히 꾸리는데서 당의 유일사상이 기본척도로 되여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수령의 혁명사상을 유일한 척도로 하여 당대렬을 꾸려야만 온갖 이색분자들이 당안에 기여들수 없도록 대렬의 순결성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으며 당을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충실한 선진투사들의 전투적부대로 강화발전시킬수 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은 당원들의 조직생활을 강화하는데서도 근본문제로 된다. 당원들은 수령의 혁명사상을 자기의 신념으로, 세계관으로 삼고 투쟁하는 혁명전사들인것만큼 그들의 조직생활은 수령의 혁명사상에 엄격히 의거하여야 한다. 당원들의 조직생활이 수령의 혁명사상에 립각하여 전개될 때라야만 그들의 사업과 생활에서 혁명적이고도 건전한 기풍을 세울수 있고 전당이 하나의 사상, 하나의 규률에 의하여 움직이는 조직된 부대로 될수 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은 또한 인민대중을 수령의 두리에 하나로 굳게 묶어세움으로써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을 강화하고 당의 대중적지반을 공고히 할수 있게 하는 기본문제로 된다.

당은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활동하는 혁명조직이다. 당은 오직 대중과의 튼튼한 련계를 맺음으로써만 령도적역할을 높일수 있고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그러므로 당의 대중적지반을 공고히 하는것은 언제나 맑스-레닌주의당활동에서 근본문제의 하나로 나섰으며 또 나서고있다.

맑스-레닌주의당의 대중적지반은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에 기초한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이 통일이 강화되면 될수록 그것은 더욱 굳건히 다져지게 된다.

대중속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워 그들을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수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울 때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은 무엇으로써도 깨뜨릴수 없는 불패의것으로 되며 당의 대중적지반은 반석같이 다져지게 된다.

다음으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은 당의 사상적기초를 공고발전시킴으로써 모든 당원들을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전당에 수령의 혁명사상이 꽉 들어차게 하는 기본문제로 된다.

수령의 사상은 곧 당의 사상이며 당안에는 오직 수령의 사상 하나가 있을뿐이다. 만약 당을 창건하고 강화발전시킨 수령의 사상외에 그 어떤 만 사상이 당안에 있다면 그것은 벌써 원래의 당이 아니라 변질된 당이다. 이렇게 되면 당의 혁명적립장을 철저히 지킬수 없고 당을 기회주의의 진흙탕속에 빠뜨릴수 있다.

오직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워 모든 당원들이 당을 창건하고 강화발전시킨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것을 견결히 옹호하여 투쟁할 때라야만 당내에서 온갖 이색적인 사상조류들을 철저히 뿌리빼고 그것이 다시 생겨나지 않도록 할수 있으며 수령의 혁명사상을 유일한 기초로 하는 당의 사상의지적통일을 강화할수 있다.

우리 당에 있어서 영원히 고수하고 옹호하며 지침으로 삼아야 할 유일한 사상은 우리 당의 창건자이시며 령도자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이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은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으로 일관된 가장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지도사상이다.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온갖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고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며 자본주의사상을 비롯한 온갖 반동적이며 반혁명적인 사상조류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는 가장 높은 당성과 로동계급성, 인민성으로 일관된 혁명사상이다. 따라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은 국내외의 반동들과 기회주의를 반대하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위업을 위하여 투쟁하는데서 유일하게 정확한 지도적지침으로, 강유력한 무기로 된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워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모든 당원들을 튼튼히 무장시킬 때 온갖 반당, 반혁명적 사상들을 제때에 극복청산하고 전당에 하나의 지도사상,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이 꽉 들어차게 할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힘있게 촉진할수 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은 또한 당의 리론적기초를 공고발전시킴으로써 수령이 내세운 전략전술적원칙에 기초한 당의 행동상 일치성을 보장하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실현할수 있게 하는 기본문제로 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은 매우 간고하고도 복잡한 투쟁이다. 로동계급과 그 혁명적당이 이 벅찬 투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의 지도사상과 지도리론을 지침으로 하여 행동의 일치성을 보장해야 한다. 그래야만 전당의 힘과 지혜를 최대한으로 합쳐 혁명과 건설을 세차게 다그칠수 있으며 혁명위업의 승리를 촉진할수 있다.

혁명적당의 지도사상, 지도리론은 오직 인민대중의 리익을 가장 철저히 대표하며 계급가운데서 누구보다도 멀리 내다보며 혁명의 진리를 가장 폭넓고 깊이있게 체득하고있는 탁월한 정치적 수령에 의해서만 제시될수 있다. 로동계급의 수령은 탁월한 지도사상, 지도리론을 제시하여 인민대중에게 사회발

전법칙과 계급투쟁에 관한 원리, 과학적인 전략전술을 가르쳐주며 그들을 혁명승리에로 정확하게 이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워 모든 당원들을 혁명발전의 매 단계에서 수령이 내놓은 과학적인 전략전술,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 관철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할 때 전당이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한사람같이 움직일수 있게 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다.

이렇듯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우는것은 당의 조직, 사상, 리론적 기초를 공고발전시켜 수령의 두리에 전당과 전체 인민을 하나로 묶어세우며 로동계급과 근로대중의 선봉적, 조직적 부대로서의 당의 역할을 원만하게 하도록 하는 기본문제로 된다.

2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은 커다란 리론실천적의의를 가진다.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사상은 우리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히 하는데서 결정적의의를 가지는 강령적지침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을 밝히심으로써 조선공산주의운동의 통일을 빛나게 실현하시였으며 그것을 항구하고도 공고한것으로 되게 하시였다.

종파주의, 자유주의, 사대주의, 교조주의 등 반당반혁명사상은 조선공산주의운동의 초시기로부터 내려오는 력사적고질로서 우리 나라에서의 맑스-레닌주의당건설과 혁명발전에 막대한 해독을 끼쳤다. 종파주의를 비롯한 반당, 반혁명적 사상을 극복하고 조선공산주의운동의 통일을 실현하는것은 우리 나라에서 혁명적당의 창건과 그 강화발전을 위하여, 간고하고 복잡한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력사적과업이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공산주의운동과 우리 혁명실천에 맞는 가장 과학적인 맑스-레닌주의적지도사상을 창시하시고 그것을 당건설과 혁명투쟁의 유일한 지침으로 제시하심으로써 공산주의운동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할수 있게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특히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의 주체적현실과 맑스-레닌주의당건설의 근본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을 내놓으심으로써 당의 통일단결을 위한 투쟁을 주동적이며 적극적으로 진행할수 있게 하시였으며 또한 당원들의 높은 자각성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에 기초하여 진행되게 함으로써 당의 통일과 단결이 가장 항구하고도 공고한것으로 되게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관한 사상은 또한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릴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되고있다. 그이께서 제시하신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관한 사상은 교조주의, 사대주의를 극복하고 주체적립장에서 당대렬을 꾸리며 당사상교양사업을 전개할수 있는 명확한 길을 밝혀줌으로써 우리 당 조직사업과 사상사업의 기초로, 총적방향으로 되고있다.

우리 당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을 당조직사업의 확고한 기초로 삼음으로써 수령의 두리에 모든 당원들과 군중을 묶어세우고 수령을 견결히 옹호보위할수 있었다. 또한 당대렬의 순결성을 보장하고 간부대렬의 질적구성을 높일수 있었으며 전당에 수령의 교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철저히 옹호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울수 있었다.

우리 당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을 당사상사업의 기본방향으로 확고히 틀어쥐고나감으로써 사상전선의

모든 분야에서 교조주의, 사대주의, 부르죠아사상, 봉건유교사상 등 온갖 반당반혁명사상조류들을 단호히 물리치고 주체를 확고히 세울수 있었다. 우리 당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 그이에 의하여 이룩된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깊이 체득시키는것을 당사상사업의 가장 중심적인 과업으로 내세움으로써 그들을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열렬한 공산주의적혁명가로 키우고있으며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한 장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참으로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사상은 우리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다져진 전투적부대로 꾸릴수 있게 하는 믿음직한 담보로 되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관한 사상은 또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수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며 당과 대중과의 불패의 통일을 이룩하는 확고한 기초로 되고있다. 우리 당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울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사상을 지침으로 하여 모든 근로자들을 그이의 교시와 당정책으로 철저히 무장시키고 그와 배치되는 온갖 그릇된 사상을 반대하는 투쟁을 전군중적운동으로 벌림으로써 그들을 수령의 혁명사상이외에는 그 어떤 다른 사상도 모르며 그이의 명령지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어김없이 해내는 견결한 혁명가로 훌륭히 키우고있다. 그리하여 오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전사회의 정치사상적통일은 반석같이 다져졌으며 이것은 우리 당의 대중적지반의 공고한 기초로 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관한 사상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확고히 보장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승리를 촉진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되고있다.

우리 당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그이의 유일적인 령도를 확고히 보장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의 매 단계와 모든 분야에서 자랑찬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다.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발전의 매 단계에서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부문의 발전을 위한 가장 정확한 로선과 정책을 작성하시고 그 관철에로 전당과 인민을 힘있게 이끄시였으며 또 이끄시고계신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어느 분야, 어느 부문에 대해서나 지금 당정책이 똑똑히 서지 않은데는 없습니다. 공업정책, 농업정책, 상업정책, 교통운수를 발전시킬데 대한 정책, 교육, 문화 정책, 반혁명과의 투쟁방침 등 어느것 하나 똑똑치 않은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체계적으로 틀어쥐기만 하면 어떠한 관문도 열수 있으며 모든 일에서 확신성있게 나아갈수 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532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그것을 파악하기만 하면 어떤 분야, 어떤 부문에서 제기되는 문제든지간에 막히는데 없이 풀어나갈수 있는 강유력한 무기이며 정확한 자막대기이다.

그이께서는 모든 분야, 모든 부문의 정책을 작성하시였을뿐아니라 모든 단위들에서 이를 철저히 관철할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를 뚜렷이 가르쳐주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음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그 어떤 편향도 범하지 않고 곧은 길로 나아갈수 있었으며 그이께서 제시하신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전진을 이룩할수 있었다.

실로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사상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실현함으로써 혁명위업의 확고한 승리를 보장하여주는 위대한 지도사상이다.

천재적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밝

히신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관한 사상은 맑스-레닌주의당건설리론을 발전풍부화시키고 완성하는데 탁월한 기여를 한 가장 창조적이며 독창적인 사상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건설의 특성과 경험, 국제공산주의운동의 경험과 교훈에 대한 심오한 분석에 기초하시여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을 새롭게 내놓으시였다. 이것은 당건설분야에서 나타난 온갖 기회주의에 대한 결정적타격으로 되며 맑스-레닌주의 당건설리론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고 완성하는데 탁월한 기여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을 맑스-레닌주의당건설의 모든 원칙들과 당활동의 제반 문제들에 관통되고있는 기본원칙으로 제시하심으로써 당건설에 관한 리론의 근본초석을 새롭게 마련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을 내놓으심으로써 전당의 통일과 단결,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이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을 유일한 중심으로 하고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 당의 유일사상에 기초할 때에만 가장 완전하고도 무조건적인것으로 될수 있다는것을 과학적으로 밝혀주시였으며 로동계급의 당이 자기의 대오를 어떻게 결속하고 대중을 어떻게 묶어세울것인가에 대하여 완벽한 해답을 주시였다.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사상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의 승리적전진을 이룩할수 있는 가장 정확한 길을 밝혀주는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사상이다.

참으로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천재적사상은 로동계급의 당이 당건설과 혁명투쟁에 대한 령도에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유일하게 정확한 지도적지침이다.

*　　　　*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은 당이 자기 존재의 전기간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당건설의 근본문제이며 맑스-레닌주의당의 강화발전과 혁명승리의 결정적담보이다. 이것은 우리 혁명의 실천적경험에 의하여 확증된 진리이며 혁명과 건설의 전행정에서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심장마다에 깊이 뿌리박힌 신념이다.

혁명과 건설이 심화발전되고 내외의 온갖 계급적원쑤들과의 날카로운 투쟁이 벌어지고있는 현실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을 더욱 절실한 요구로 내세우고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정책, 그이께서 몸소 이룩하신 빛나는 혁명전통을 깊이 학습하여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며 수령의 혁명사상과 어긋나는 온갖 반당, 반혁명적 사상조류를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전당과 전사회의 통일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며 그이의 유일적령도밑에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오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조선혁명발전에서 거대한 력사적사변으로 될 당 제5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하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력사적인 당 제5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로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하고도 영예로운 과업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워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전당과 전사회의 통일단결을 더욱 반석같이 다지는것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는데 계속 큰 힘을 넣음으로써 전당과 전사회가 수령을 중심으로 굳게 단결하고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의 기치밑에 힘있게 전진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워야 하며 우리 당을 영원히 전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되게 해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과 그 빛나는 실현

방 문 권

오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력사적인 우리 당 제5차대회전으로 7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어김없이 점령하기 위한 눈부신 투쟁을 벌리고있는 장엄한 환경속에서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의 빛나는 결실인 조국광복회창건 서른네돐을 뜻깊게 맞이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창건된 조국광복회는 우리 나라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에서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았다. 조국광복회가 창건됨으로써 외래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전민족의 단합을 실현할데 대한 조선인민의 력사적인 숙망이 빛나게 실현되였으며 우리 나라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은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섰다.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 구현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이의 령도밑에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과정에서 이룩된 불멸의 업적과 고귀한 경험은 해방후 우리 당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발전되였으며 우리 혁명발전의 귀중한 밑천으로 되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직전개된 영광스러운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의 빛나는 실현을 커다란 민족적긍지와 높은 혁명적자부심을 가지고 돌이켜보면서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그이께 끝없이 충실할 불같은 결의에 충만되어있다.

* *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력사상 처음으로 독창적인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을 제시하시고 그를 빛나게 실현하시였다.

통일전선문제는 혁명승리를 담보하는 근본문제의 하나로서 맑스-레닌주의당의 전략전술에서 매우 중요한 구성부분을 이룬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의 승패는 결국 누가 대중을 더 많이 전취하는가에 달려있으며 당의 모든 활동은 대중을 묶어세우며 대중을 혁명에 끌어들이는데 돌려져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164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혁명의 승패는 결국 피아간의 계급적력량관계에 의하여 규정되며 누가 대중을 더 많이 전취하는가에 달려있다.

통일전선운동은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전취하여 하나의 혁명력량에 묶어세워 반혁명세력을 고립시키고 피아간의 계급적력량관계를 최대한으로 혁명에 유리하게 전변시킬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따라서 통일전선운동은 혁명투쟁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더우기 외래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식민지민족해방투쟁에서 통일전선문제는 더욱 절박한 요구로 제기된다.

식민지민족해방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혁명의 주력군을 튼튼히 꾸리는

것과 함께 이 혁명에 리해관계를 가지는 모든 계급과 계층들을 망라하는 통일전선을 이룩하여야만 제국주의침략자들을 성과적으로 물리칠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전민족적범위에서의 반일력량의 단합과 행동통일을 실현할데 대한 요구는 일제의 조선강점을 전후한 시기 특히 1920년대말, 1930년대초에 이르러 보다 절박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조선혁명의 객관적요구와 민족의 력사적숙망은 오직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혁명의 진두에 나서시여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운동과 공산주의운동을 통일적으로 령도하심으로써 빛나게 실현될수 있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0년 여름 카륜에서 있은 공청 및 반제청년동맹 지도성원들의 회의에서 조성된 정세 특히 민족해방운동과 공산주의운동내부의 실태와 계급적제관계 그리고 조선혁명의 당면과업과 전망 등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시여 조국을 해방하는 투쟁에 광범한 반일력량을 묶어세울데 대한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요지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조선혁명은 소수 공산주의자들의 힘만으로는 결코 성취할수 없다.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군중을 혁명조직에 묶어세워 우선 그들을 일제를 타도하고 조국을 해방하기 위한 투쟁에 조직동원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은 그이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빛나는 구현으로서 조선인민의 절절한 념원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으며 강도 일제를 철저히 고립시키고 적아간의 력량관계를 혁명의 편에 유리하게 전변시켜 혁명승리를 이룩할수 있게 하는 가장 정확한 로선이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통일전선형성에서 제기되는 원칙적문제들에 대하여서도 가장 정확하게 밝혀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통일전선운동에서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확고히 보장하며 통일전선의 확고부동한 정치적 및 사회적 기초로 되는 로농동맹을 강화하고 그에 기초하여 단결할수 있는 모든 계급, 계층과의 단결을 강화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요지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광복회에 반일대중들을 광범히 집결시킴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공산주의자들과 로동계급의 조직사상적단결을 강화하며 통일전선체내에서 그의 령도적역할을 확고히 견지하는 문제이다.…

통일전선운동에서 로동계급의 확고한 령도는 통일전선운동발전의 합법칙적요구이며 그 성과의 확고한 담보이다.

통일전선운동에서 로동계급의 령도가 확고히 보장되여야만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대중의 리익에 맞게 통일전선운동을 가장 정확한 길로 이끌어나갈수 있으며 로동계급은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다할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통일전선운동에서 로동계급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면서 농민대중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이에 기초하여 단결할수 있는 모든 계급, 계층과의 단결을 이룩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로동계급과 농민대중은 식민지민족해방투쟁에서 기본동력이며 혁명승리의 결정적력량이다. 따라서 로동계급과 농민과의 동맹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각계각층군중과의 통일전선은 형성될수도 없으며 공고발전될수도 없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반일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함에 있어서 하층통일을 기본으로 하고 상층통일과 하층통일을 옳게 결합하며 단결을 목적으로 단결과 투쟁을 밀접히 결부시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와 같이 독창적인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과 통일전선형성에서 제기되는 원칙적문제들을 천재적으로 밝히시였을뿐만아니라 몸소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조직전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미 초기혁명활동시기에 합법적 및 비합법적 혁명조직들을 무으시고 여기에 청소년학생들과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결속하시는 한편 민족주의자들의 분렬책동과 공산주의대렬내에서의 파쟁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유격대를 창건하시고 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심으로써 민족적단합과 행동통일, 전민족적범위에서의 반일민족통일전선의 실현을 위한 투쟁을 새로운 단계에로 더욱 발전시키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항일무장투쟁과 밀접히 결부시킬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우선 무장대오를 부단히 확대강화하는 사업을 힘차게 조직전개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유격대는 조선혁명의 주도적력량이였으며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발전의 기본담보였다. 따라서 항일유격대를 확대강화하는것은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체를 결성하기 위한 기초를 축성하는것으로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두만강연안의 넓은 지역에 창설된 유격근거지에 《반제동맹》, 《부녀회》, 《아동단》, 《농민위원회》, 《반일회》 등 각종 대중단체들을 조직하시였으며 여기에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결속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세우신 인민혁명정부는 공산주의자들의 령도밑에 로농동맹에 기초하여 모든 반제반봉건계층들을 망라하는 통일전선에 의거한 정권이였다. 따라서 유격근거지에 창설된 인민정권은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의 빛나는 구현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유격근거지에서뿐아니라 전국각지에 수많은 정치공작원들을 파견하시여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넓히시였다.

1930년대 후반기에 들어와서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은 조직적으로 전국적규모에서 더욱 급속히 확대발전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6년 2월 력사적인 남호두회의에서 각계각층 반일군중을 전국적규모에서 조직결속할수 있는 상설적인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체를 결성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이 방침은 그이께서 초기혁명활동시기와 그후 수년간의 항일무장투쟁행정에서 이룩하신 투쟁성과와 고귀한 경험에 토대하여 구상하신 현명한 방침이였으며 국내외정세의 변화에 따르는 혁명발전의 객관적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위대한 구상을 실현하시기 위하여 친히 조국광복회강령과 그 창립선언 및 규약을 손수 작성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처럼 면밀한 준비사업과 풍부한 경험에 기초하시여 1936년 5월 5일에 우리 나라에서 첫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체인 조국광복회창건을 온세상에 선포하시였다.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광복회 회장으로 추대되시였다.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창건된 조국광복회는 자체의 독자적인 조직체계와 조직형식을 가진 상설적인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체인 동시에 그이의 직접적인 령도밑에 공산주의자들을 핵심으로 하는 혁명조직이였다.

조국광복회의 창건은 조선혁명을 어디까지나 우리 인민이 책임지고 자체의 힘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이 빛나는 구현이였으며 그이께서 장기간에 걸쳐 무르익혀오신

구상과 그 실현을 위한 피어린 투쟁의 고귀한 결실이였으며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의 발전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인 사변이였다. 조국광복회가 창건됨으로써 외래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전민족의 단합을 실현할데 대한 조선인민의 력사적인 숙망이 빛나게 실현되였으며 우리 나라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은 보다 높은 발전단계에 들어섰다.

혁명의 천재적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빛나는 구현인 조국광복회10대강령은 반제반봉건적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로동계급의 기본요구와 각계각층 인민의 리해관계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그것을 가장 정확히 반영한 강령인 동시에 이 혁명단계에서 제기되는 맑스-레닌주의당의 최저강령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반영한 혁명적강령이였다.

이 강령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을 철저히 수행함으로써 사회주의혁명과업수행에 유리한 국면을 열어놓을것을 전제로 하였으며 당면하게는 반제민족해방의 과업을 수행하는데로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 모든 반일대중을 총동원할것을 목적으로 한 혁명적강령이였다.

실로 조국광복회의 창건과 그 10대강령은 조선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운동대렬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위에 굳게 결속시키며 그 통일단결을 확고히 보장하는 정치사상적 및 조직적기초로 되였으며 조선혁명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기치로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광복회가 선포하고 또한 집행한 정치적로선은 조선인민의 근본적인 민족적리익에 부합되였다.》(《김일성선집》, 제4권, 293페지)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서 조선혁명의 앞길을 휘황히 내다본 전체 조선인민은 김일성동지를 위대한 수령으로 모시게 된것을 더없는 긍지와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그이께 절대적인 신뢰를 표시하였으며 조국과 자신의 운명을 전적으로 그이께 의탁하고 수령께서 높이 추켜드신 조국광복의 기치하에 하나로 굳게 뭉쳐 싸웠다.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나라 첫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체인 조국광복회를 창건하신후 그를 전국적판도에서 확대강화하시기 위한 투쟁을 가장 정확히 조직령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강도 일제를 반대하여 싸우려는 모든 남녀, 로소들을 직업, 종교, 지방, 빈부, 당파 등에 관계없이 조국광복회조직에 결속시켜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정황과 계층별 대상에 알맞는 능숙한 군중공작방법을 몸소 창조하시고 그 위대한 모범으로 정치공작원들을 무장시키시였다. 그이께서는 또한 국내공산주의자들을 직접 지도하시면서 조국광복회조직망을 전국에 확대하시기 위하여 구체적인 지도를 주시였다. 그이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정치공작원들과 국내공산주의자들은 인민들속에 깊이 침투하여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군중을 조국광복회에 굳게 결속시켰다.

조국광복회조직망은 여러가지 명칭을 띠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계시는 혁명의 사령부, 백두산혁명근거지를 중심으로 함경남북도, 평안남북도,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를 비롯한 전국각지와 만주의 광활한 지역들에 정연한 체계를 가지고 급속히 확대되였다.

이리하여 조국광복회가 창설된후 불과 수개월동안에 수십만의 각계각층 군중이 그 회원으로 망라되여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하나로 굳게 결속됨으로써 조선인민의 강력한 주체적혁명력량이 꾸려지고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조선혁명은 일대 앙양을 일으켰다.

⁂ ⁂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밑에 조직전개된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과정에서는 우리 인민의 민족해방투쟁력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과 고귀한 경험이 이룩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광복회는 우리의 민족해방투쟁의 목적과 과업을 광범한 인민대중에게 해설하며 조국해방을 위한 공동투쟁의 기치밑에 조선의 모든 애국적력량을 동원집결하는데 있어서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우와 같은 책, 293~294페지)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은 우선 조선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의 주도적력량인 항일유격대를 강화하고 무장투쟁의 확대강화발전을 촉진시켰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밑에 항일무장투쟁의 혁명적영향이 전국에 파급되고 조국광복회조직망이 급속히 확대됨으로써 항일유격대에 대한 인민대중의 지지성원은 더욱 커갔다. 인민들은 자기들의 아들딸들을 혁명에 바치였다. 조국광복회조직들은 항일유격대에 입대할것을 탄원한 수많은 애국청년들을 조직생활에서 더욱 단련시켜 조직적으로 항일유격대에 파견하였으며 그 대렬 보충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였다. 뿐만아니라 조국광복회조직들은 적들의 삼엄한 경계속에서도 항일유격대를 물심량면으로 적극 지지성원하였으며 그의 군사정치활동의 비밀을 보장하고 적의 군사기밀을 탐지하여 통보하며 일제의 주구를 청산하는 등의 사업도 능숙하게 조직진행하였다.

조선혁명의 주도적력량인 항일유격대는 인민대중의 이러한 적극적인 지지성원밑에 자기 대오를 더욱 급속히 확대하고 그 전투력을 일층 제고하였으며 이르는곳마다에서 적들에게 치명적타격을 주고 빛나는 승리를 달성하였다.

항일무장투쟁이 세차게 전개되고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이 확대강화됨으로써 조선인민은 그 영향하에 일제의 수탈과 강제징집 및 징용을 반대하는 각종 형태의 반일투쟁을 힘차게 벌리였으며 선진적인 로동계급과 청년학생들 속에서는 비밀결사를 조직하고 결정적시기에 김일성동지께서 령도하시는 항일유격대와 합세하기 위한 무장폭동준비를 힘차게 추진시켰다. 각계각층 인민들의 이 모든 반일투쟁은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끝없는 신뢰와 기대에 깊이 뿌리를 박고있었으며 그이께서 조선혁명을 령도하시는 한 민족적독립과 사회적해방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확고한 신심을 안고 일떠선 투쟁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밑에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과정에서는 또한 조선공산당창건을 위한 준비사업이 보다 조직적으로 더욱 활발히 추진되여갔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요지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특히 국내에서는 분산된 공산주의자들을 단합시키면서 혁명적군중들을 반일민족통일전선체의 각이한 명칭을 가진 대중단체들에 광범히 망라시켜 키워내는 방법으로써 장차 창건될 당의 조직적기초를 준비하여나가야 한다.…

김일성동지의 강령적인 교시를 높이 받들고 전국각지에 꾸려진 조국광복회조직들은 조직생활과 실천투쟁을 통하여 선진적인 로동자, 농민들을 공산주의자로 교양육성하였으며 당창건을 위한 조직적골간을 튼튼히 꾸려나가게 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서 밝히신 주체적인 혁명로선에 기초하시여 공산주의대렬의 사상의지적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시였다. 장차 창건될 조선공산당의 최저강령의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조국광복회10대강령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을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탁월한 전략전술로 무장시키며 사대주의와 종파주의를 극복청산하고 공산주의대렬의 사상의지 및 행동상의 통일을 보장할수 있게 하였다. 이리하

여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의 발전과정에서 조선공산당창건을 위한 조직사상적 준비가 확고히 이루어졌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통하여 당창건의 대중적지반을 다지는 사업을 강력히 추진시키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산주의자들은 광범한 군중속에 들어가 적들의 반공선전을 짓부시며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함으로써 인민들로 하여금 공산주의자들이야말로 조선의 진정한 애국자들이며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여 투쟁하는 참다운 혁명가들이라는것을 인식하고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하여 나섰다. 이리하여 일제와 반동세력은 인민대중으로부터 더욱더 고립되고 혁명과 반혁명간의 계급적력량관계는 혁명의 편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전변되였으며 당창건을 위한 대중적지반이 튼튼히 꾸려지게 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정세발전의 요구에 적응하게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항일무장투쟁과 밀접히 결합하여 조직전개하심으로써 국제파시즘의 주력의 하나였던 일제침략자들에게 군사정치적으로 치명적타격을 주었으며 국제적으로 반제통일전선운동의 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확대발전시키는 과정에서 풍부하고도 고귀한 경험을 쌓아올리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의 경험은 혁명의 주력군을 튼튼히 꾸리고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여야만 통일전선을 확고한 지반우에서 형성발전시킬수 있으며 혁명의 편에 전취할수 있는 모든 력량을 최대한으로 묶어세울때 주되는 적을 철저히 고립, 약화시키고 그를 능히 타승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또한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의 경험은 이 운동이 정확한 통일전선전술에 기초하여 진행될 때 광범한 반일력량을 통일전선에 묶어세울수 있으며 통일전선운동을 건전하게 강화발전시킬수 있다는것을 가르쳐주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민족주의자들의 무장조직들과 종교세력들과의 통일전선을 실현함에 있어서 상층과 하층을 엄격히 구분하시였으며 하층통일에 기본을 두시고 상층통일을 이에 밀접히 결합시키시였다. 또한 민족자본가들과 광범한 중간계층들과의 통일전선을 실현함에 있어서 그들의 2중성을 통찰하시고 반일적인 측면은 조장발전시키고 동요성을 철저히 극복하면서 단결을 목적으로 단결과 투쟁을 밀접히 결합시키는 원칙을 견지하도록 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밑에 이러한 전술적원칙이 정확히 적용됨으로써 조선독립군 등 무장한 민족주의세력과의 통일전선을 실현하고 민족자본가들과 종교인들을 비롯한 중간계층들을 조국광복회조직에 광범히 결속할수 있었으며 그들을 일제를 반대하는 공동투쟁에로 확고하게 이끌고나갈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중간계층들에 대한 로동계급의 령도를 강화하는 기초우에서 그들의 독자성의 존중과 인내성있는 교양, 합법적활동과 비합법적활동의 능숙한 결합 및 통일전선대상의 특성에 따르는 군중공작방법 등의 풍부한 경험이 창조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이 항일무장투쟁, 조선공산당창건준비사업 등과 호상 밀접히 결합되고 가장 정확한 전술적원칙에 기초하여 전개됨으로써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조선혁명은 전례없이 앙양되어갔다.

우리 나라 력사상 처음으로 민족적단합과 행동통일, 전국적인 반일민족통일전선의 빛나는 실현, 그 행정에서 이룩된 불멸의 업적과 고귀한 경험은 오직 혁명의 천재적인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

명한 령도의 결과이며 그이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빛나는 결실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직전개된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의 력사적경험은 현시기 우리 나라 혁명발전에서 거대한 리론실천적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조선혁명의 보루이며 강력한 혁명기지인 공화국북반부에서 전당과 전체 인민을 수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움으로써 우리의 혁명력량을 부단히 강화하며 남반부에서 혁명의 주력군을 튼튼히 꾸리고 혁명에 리해관계를 가지는 모든 군중들을 반미구국통일전선에 굳게 결속시키는데 있어서 귀중한 밑천으로 된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직전개된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의 고귀한 경험은 또한 세계혁명발전에 있어서도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외래제국주의자들과 그와 결탁한 국내 반동세력을 격멸소탕하기 위한 식민지나라들에서의 민족해방투쟁에서 민족통일전선운동의 선구자적역할을 빛나게 수행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과 그이께서 견지하신 전략전술적원칙들은 통일전선운동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강령적지침으로서 조선인민과 아세아 및 세계피압박인민들의 원쑤였던 간악한 일제의 멸망과 국제무대에서 혁명력량의 확대강화를 비상히 촉진시키였다.

실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과 그 실현을 위한 투쟁행정에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과 고귀한 경험들은 통일전선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창조적으로 발전시키고 그 보물고를 풍부히 함에 있어서 탁월한 기여로 된다.

* *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밑에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과정에서 이룩된 불멸의 업적과 고귀한 경험은 해방후 우리 당의 통일전선정책의 확고한 기초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서 밝히신 반제반봉건적민주주의혁명과업은 해방후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화국북반부에서 빛나게 실현되였다. 그리하여 공화국북반부는 강력한 혁명기지로 전변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에서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침략자들을 때려부시고 영광스러운 자기 조국과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지켜낼수 있었다.

오늘 우리앞에는 미제의 침략책동에 대처하여 공화국북반부의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철옹성같이 다지며 조국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겨야 할 숭고한 혁명과업이 나서고있다. 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공화국북반부의 혁명기지를 반석같이 다지고 우리의 혁명대오를 더욱 튼튼히 꾸려야 한다. 이와 함께 남반부에서 혁명의 주력군을 튼튼히 꾸리고 반미구국통일전선을 강력히 형성하여 혁명을 힘있게 추진시켜야 한다.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국해방을 위한 빛나는 혁명투쟁, 특히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시기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과정에서 이룩된 불멸의 업적과 고귀한 경험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전체 인민이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점령못할 요새란 없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그이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나아가는 조선인민의 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

가금업부문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자

장 국 찬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에 의하여 얼마전에 진행된 전국가금업일군대회에서는 지난 기간 가금업발전에서 이룩된 빛나는 성과와 경험을 총화하고 알과 고기 생산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 인민들의 식생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데서 우리 나라 가금업이 해결하여야 할 전투적과업을 토의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번 대회에서 현시기 우리 나라 가금업의 획기적발전을 위한 강령적인 교시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우리 당 가금업정책과 그 실현을 위한 모든 방침들에는 지난날 착취받고 압박받던 우리 인민을 하루빨리 남부럽지 않게 잘 살게 하시려는 그이의 위대한 구상과 고매한 덕성이 깃들어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앞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신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우리 나라 가금업을 더 한층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군중적투쟁을 힘있게 벌려 알과 고기 생산에서 획기적전환을 일으켜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 *

오늘 우리 나라에서 가금업을 급속히 발전시키는것은 인민들의 생활을 빨리 향상시키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며 인민경제의 전반적발전을 촉진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고기를 비롯한 축산물에 대한 근로자들의 수요는 빨리 늘어나고있습니다. 우리는 축산업을 빨리 발전시켜 이 수요를 충족시켜야 할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317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 나라에 기계제작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강력한 중공업과 현대적경공업, 튼튼한 알곡생산기지를 가진 위력한 자립적민족경제토대가 마련됨으로써 우리 인민의 생활은 날로 향상되고있다. 인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고기와 닭알을 비롯한 축산물에 대한 수요는 빨리 늘어나고있다.

알과 고기에 대한 인민들의 날로 늘어나는 수요를 빠른 시일안에 충족시키는 길의 하나는 현대적가금업을 급속히 발전시키는것이다. 공업적방법으로 닭을 기르는것은 많은 알과 고기를 낼수 있게 한다. 가금업발전에서 혁신을 일으켜 알과 고기를 대대적으로 생산하여야만 그에 대한 근로자들의 장성하는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으며 그들의 식생활을 더욱 개선할수 있다. 현대적가금업을 발전시키는것은 인민생활을 빨리 향상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며 먹는 문제 특히 부식물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 기본방도의 하나로 된다.

그것은 또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인민들의 실제생활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낼수 있게 한다.

현대적가금업을 빨리 발전시켜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유족하게 하면 그들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사회주의건설에서 더 큰 혁신과 기적을 창조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더욱 헌신적으로 일하게 될것이다.

현대적가금업을 급속히 발전시키는것은 또한 알곡, 과수, 남새를 비롯한 농업생산을 촉진하고 식료 및 일용 공업

의 발전에 필요한 원료를 보다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이 가금업을 발전시키는것은 인민생활을 높이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전반적으로 촉진하며 우리의 혁명기지를 더욱 강화하여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는 짧은 기간에 현대적가금업이 창설되였다. 축산업의 기초가 원래 없었고 이 부문에 대한 경험과 기술, 원종조차 없었던 우리 나라에서 축산업 특히 가금업을 창설하고 발전시키는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의 하나였다.

우리 나라 축산업의 력사적락후성을 청산하며 현대적가금업을 창설하고 발전시키는 문제는 오직 우리 인민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서만 해결될수 있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혁명발전의 매 단계마다에서 축산업발전의 명확한 방향과 방도를 제시하시고 그 관철에로 우리 당과 인민을 령도하시였다.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우리 나라의 자연경제적조건에 맞는 축산업을 발전시킬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무엇보다먼저 축산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꾸리도록 온갖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조국해방전쟁의 그 준엄한 나날에도 승리를 확신하시고 전후 가금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킬것을 구상하시면서 친히 가금목장들의 터전과 종자알까지 마련하여주시고 이 부문 기술간부들을 예견성있게 양성하는 조치를 취하시는 등 우리 나라 가금업의 토대를 몸소 꾸려나가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후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상응하게 국영축산업과 협동농장의 공동축산을 기본으로 하고 개인부업축산을 배합하며 축산업을 전문화, 집약화, 현대화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도록 하시였다.

우리 당의 총비서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1963년 9월에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7차확대전원회의를 소집하시고 우리 나라 축산업의 물질기술적토대가 비할바없이 확대강화된 조건에서 축산물생산을 전문화, 집약화할데 대한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특히 1965년 8월에 가금업을 현대화하고 대대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하여 주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강령적인 교시는 우리 나라 가금업발전에서 획기적전환의 계기로 되였다.

가금업을 발전시키는것은 다른 집짐승에 비하여 먹이가 적게 들고 번식률이 빠르며 기계화, 자동화를 받아들이기 쉽고 적은 로력으로 많은 닭을 집약적으로 길러 값눅은 닭알과 고기를 더 많이, 더 빨리 생산할수 있는 가장 옳은 길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현대적가금업발전의 넓은 길을 펼쳐주시였을뿐만아니라 전인민적운동으로 극히 짧은 기간에 대규모의 현대적가금업을 창설하도록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또한 가금업에 대한 통일적이며 전문적인 지도체계를 세워주시고 이 부문의 관리간부들과 기술일군 대렬을 튼튼히 꾸려주시였으며 혁명과 건설을 조직령도하시는 그 바쁘신 나날에도 가금업전반을 직접 장악지도하시면서 그 발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 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 나라에는 로동계급이 집중되여있고 근로자들이 사는 모든 곳에 믿음직한 후방공급기지로서의 현대화된 닭공장과 오리공장들이 수많이 건설되였으며 그 수는 1965년에 비하여 오늘은 3.2배이상, 그 생산면적은 4.4배, 닭알생산능력은 12배, 고기생산능력은 5.8배로 각각 장성하였다.

우리 나라의 가금업은 위력한 중공업의 지원밑에 그 규모가 웅대할뿐아니라 기계화, 자동화 수준이 매우 높은 현대적가금업으로 강화발전되였다. 닭공장

들에서는 닭에 먹이와 물을 주며 닭똥을 치는 일을 비롯하여 알을 모으는 일에 이르기까지 모두 자동화되였으며 관리공 한사람이 자동조종판을 통하여 만마리가 넘는 닭을 관리할수 있게 되여있다.

알과 고기 생산의 모든 공정이 기계화, 자동화 됨으로써 지난 기간 닭목장, 오리목장으로 불리여오던 기업소들이 오늘은 닭공장, 오리공장으로 전변되고 그 관리운영체계도 공업관리체계로 개편되였다.

또한 우리의 가금업은 현대과학기술의 최신성과에 기초한 배합먹이공업과 좋은 계통의 종자 닭과 오리를 가지게 되였으며 가금과학연구기관들이 창설강화되여 그 역할이 높아졌으며 선진적인 사양관리방법이 전면적으로 도입되였다. 먹이소비기준은 점차 낮아지고 큰 암탉 한마리당 년평균 알낳는수는 230개이상에 이르고있으며 닭과 오리의 도살일령은 줄어들고 마리당 무게도 현저히 높아졌다.

이처럼 대규모의 닭우리들과 기계화, 자동화된 설비 그리고 종금체계, 배합먹이체계, 위생방역체계 등 모든것이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가장 선진적인것으로 꾸려지고 현대적가금업의 확고한 기초가 마련되였다. 이것은 우리 나라 가금업발전에서 위대한 전환을 의미하며 우리 인민의 오늘의 생활을 유족하게 할뿐아니라 후대들에게 넘겨줄 훌륭한 밑천으로 된다.

최근년간 알과 고기 생산량은 해마다 그 전해에 비하여 2배이상씩 높아졌으며 특히 닭알생산량은 1965년에 비하여 1969년에는 무려 8.5배로 늘어나 1965년 한해동안에 생산하던 량을 오늘은 단 40일동안에 생산하고있다.

국영가금업에서 닭고기와 닭알을 집중적으로 생산하는것과 함께 농촌집들에서도 닭을 치는 운동을 널리 벌림으로써 오늘 우리는 식료품매대마다에 그득히 쌓여있는 닭알과 닭고기 무지를 어데서나 볼수 있게 되였으며 근로자들의 식생활은 날을 따라 향상되고있다.

우리 나라 가금업발전에서 이룩된 이 모든 자랑찬 성과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40여년동안 오직 우리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워오신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높은 덕성, 우리 인민에 대한 극진한 배려의 결과이다.

일찌기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시기 이국땅에서 눈물겨운 생활을 하고있던 한 농막집주인에게 돈을 주시며 **…적은 돈이지만 보태쓰십시오. 그리고 닭도 사다가 기르시면서 아이들에게 고기도 먹일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신 그이, 해방된 조국땅우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락원을 건설하며 우리 인민에게 모두가 다 기와집에서 이밥에 고기국을 먹으며 비단옷을 입고 사는 부유한 생활을 마련하여주시기 위하여 그토록 심혀하여오신 그이, 바로 그이께서 계심으로 하여 지난날 착취와 압박 밑에서 집짐승 한마리 제대로 기를수 없었던 우리 인민들은 오늘 세계 1등급의 현대적대규모가금업을 가질수 있게 되였으며 자기들의 식생활을 근본적으로 개선할수 있게 되였다. 오늘 우리 나라의 곳곳마다에 수많이 건설된 현대적 가금공장들과 우리의 가금업부문 일군들이 다루고있는 모든 기계설비들에는 우리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따뜻한 손길이 잇닿아있으며 그이의 깊은 배려가 스며있다.

오늘 가금업발전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는것은 우리 인민을 더 잘 먹이고 후대들을 튼튼히 키우며 세상에 남부럽지 않게 잘 살게 하시려는 어버이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구상을 훌륭히 실현하기 위한 보람차고 영예로운 혁명사업이며 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임무이다.

* *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가금업발전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

기 위한 과학적인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명백히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오늘 가금업발전에서 나서는 선차적과업은 이미 지어놓은 가금공장들을 잘 정비보강하고 현존설비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생산을 정상화하며 원가를 떨구어 인민들에게 닭알과 고기를 더 값눅게, 더 많이 공급하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생산물의 원가저하는 공업의 내부축적을 형성하는 원천이며 상품가격인하의 기초이며 인민의 물질적생활수준을 계통적으로 높이는데 있어서 불가결의 조건으로 됩니다.》(《김일성선집》, 제4권, 1960년판, 123페지)

오늘 인민들의 식생활을 더욱 푸짐하게 하는데서 알과 고기 생산의 원가를 낮추는것은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원가를 떨구어 알과 고기 값을 낮추어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 짧은 기간에 그처럼 많이 일떠선 현대적 가금공장들과 설비들이 인민들의 식생활을 더욱 개선하는데서 실제로 은을 낼수 있다.

현시기 가금업에서 원가저하의 가장 중요한 고리의 하나는 배합먹이의 생산을 늘이고 그 질을 높이며 먹이의 효률을 백방으로 높임으로써 보다 적은 먹이를 가지고 많은 알과 고기를 생산하는것이다.

현대적가금업은 닭이나 오리에 먹이를 먹여서 높은 형태의 각종 아미노산을 비롯한 단백질과 지방, 비타민들이 많이 들어있는 알 및 고기를 얻어내는 공업화된 생물학적공정이다. 그러므로 공업화된 현대적가금업에서 먹이문제는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우리는 우리 나라 먹이원료원천에 기초하여 배합먹이공업을 더욱 강화발전시켜 여러가지의 단백질과 탄수화물, 비타민류와 지방산, 광물질, 미량원소들이 들어있는 질높은 완전가배합먹이를 정상적으로 더 많이 생산하는데 커다란 관심을 돌려야 한다.

가금업발전에서 제기되는 다른 모든 문제에서와 마찬가지로 먹이문제해결에서도 전인민적지원을 강화하는것이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특히 수산부문과 화학공업부문에서 어분과 화학먹이를 더 많이, 정상적으로 생산보장할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질이 높은 완전가배합먹이를 더 많이 생산공급하는것과 함께 먹이를 절약하고 그 효률을 백방으로 높여 먹이소비기준을 낮추는것이 원가저하의 중요고리로 된다.

모든 가금공장들에서는 먹이소비기준을 극력 낮추고 먹이를 준것만큼 알과 고기를 내기 위한 과학기술적대책들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이와 함께 가금의 알깨우기률을 높이고 죽는률을 결정적으로 낮추어야 한다.

닭과 오리를 죽이지 않고 그 알깨우기률과 키우는률을 응당한 수준에서 보장하여야만 투자의 효과성을 높일수 있으며 따라서 값눅게 알과 고기를 더 많이 생산할수 있다.

닭과 오리를 죽이지 않고 그 키우는률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사양관리, 위생방역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축산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방역사업입니다. 그러므로 방역규률을 엄격하게 지키고 위생문화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417페지)

가금업의 규모가 크고 그 집약화수준이 매우 높은 오늘의 조건에서 수의방역사업을 강화하는것은 닭과 오리를 죽이지 않고 알과 고기 생산을 늘이며 그 원가를 낮추는데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현대가금업에서는 첫째도 위생, 둘째도 위생, 셋째도 위생이다.

전체 가금업부문일군들은 가금치료에 예방을 앞세울데 대한 당의 일관한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모든 가금공장들에서는 수의방역사업에서 일군들이 제정된 질서와 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그들속에서 교양사업을 강화

하는것과 함께 이에 엄격한 통제를 배합하며 특히 닭공장주변 10리어간에서 닭을 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외부인원들의 출입을 엄격히 경계하며 누구나를 물론하고 위생규률을 엄격히 지키도록 하는데 중요한 관심을 돌릴것이 요구된다. 동시에 가금업에서 전국적인 계역방지대책, 방역신호체계 등 방역사업체계를 세워 방역사업의 철저성을 보장하며 가금업의 위생방역에 필요한 제약공업을 발전시키고 농민들에게도 요구되는 약품들을 공급하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모든 가금공장들에서는 나라의 가금업이 집약화, 현대화된 새 환경과 조건에 맞게 표준조작법을 만들고 기술관리사업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특히 사양관리에서 최신과학기술의 성과를 널리 받아들이기 위한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어 진행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규화된 모범기준공장을 잘 꾸리고 선진적경험들을 일반화함으로써 모든 공장들의 전반적관리운영수준을 한계단 더 높이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또한 관리공들과 농장원들에게 텔레비존, 방송, 소책자 등을 통하여 수의방역지식과 관리기술을 배워주며 가까운 년간에 닭한마리당 년간 알생산량을 250개이상으로 늘이며 닭살찌우는 기간을 1주일이상 줄이면서 증체량은 지금보다 140%이상으로, 오리는 130%이상으로 각각 늘여야 한다.

사양관리, 위생관리를 잘하는 동시에 가금공장들의, 수리거지를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

수리거지를 강화하는것은 이미 지어놓은 공장들의 생산을 정상화하고 능력을 높이게 하며 원가를 낮추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매개 가금공장들에는 튼튼한 수리거지를 꾸려야 한다. 매개 가금공장들에 수리거지를 더욱 튼튼히 꾸리는 한편 가금공장근방에 있는 공장들이 담당하여 수리정비사업을 철저히 보장함으로써 있는 설비, 있는 로력, 있는 생산면적으로 더많은 알과 고기를 생산하도록 하여야 한다.

알과 고기의 생산을 늘이고 그 원가를 낮추기 위하여서는 로동행정사업을 개선하고 특히 기술혁신운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모든 가금공장들과 배합먹이공장들에서는 기술혁신을 대중적운동으로 힘차게 벌림으로써 현존생산능력을 완전히 발휘할수 있도록 하며 가까운 년간에 생산공정의 기계화, 자동화를 종합적인 기계화, 자동화 수준에로 끌어올리여 관리공 한사람당 관리마리수를 현재보다 닭은 2배, 오리는 4배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미 마련된 생산토대를 가장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생산을 정상화하고 원가를 결정적으로 낮춤으로써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알과 고기를 눅은 값으로 생산공급할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빛나게 관철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알과 고기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를 더욱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하여서는 앞으로 알과 고기 생산능력을 더 조성하는 동시에 당면해서는 닭기르는 사업을 전군중적운동으로 벌려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국영가금업을 발전시켜 닭고기와 닭알을 집중적으로 생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국영목장들에서 닭을 치는것만 가지고는 고기와 닭알 수요를 충족시킬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영목장들에서 닭을 집중적으로 치도록 하는것과 함께 농촌집들에서도 닭을 치는 운동을 벌리 벌려야 하겠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정미소와 탈곡장 등을 거지로 하여 닭을 더 많이 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심으로써 큰 밑천을 들이지 않고도 닭알과 고기 생산을 늘일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주시였다.

국영정미소들과 협동농장들에서는 정미소와 탈곡장, 돼지우리들에서 나오는 먹이원천을 최대한 리용하여 더많은 닭을 치며 모든 농촌집들에서 7마리이상의 암닭을 기르는 사업을 힘있게 벌려

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녀맹조직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는것은 가금업의 급속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과학연구기관들에서는 우리 나라 가금업발전에서 나서는 모든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다방면적인 연구사업을 진행하며 특히 종금을 개량하고 그 생산성을 높이며 우리 나라에 풍부한 원료원천에 기초하여 완전가배합먹이를 해결하는데 주되는 힘을 넣는것이 필요하다.

가금업을 발전시키는것은 결국 인민들에게 더 많은 알과 고기를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렇기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공급사업을 담당한 상업기관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상업기관들에서는 알과 고기를 제때에 수매하고 운반도중에 알이 깨여지지 않도록 하며 가공 및 보관 대책들을 철저히 세우는 등 상업조직을 더욱 개선하여야 한다.

가금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는것과 함께 토끼기르는 운동을 전군중적운동으로 벌리는것이 필요하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토끼는 고기도 좋고 가죽도 좋다. 토끼털가죽으로 외투도 해입을수 있으며 솜을 대용하여 이불도 해덮을수 있다.

토끼새끼를 원만히 공급할수 있는 튼튼한 밑천이 마련되고 토끼기르는 경험도 쌓아진 조건에서 학교, 기관, 협동농장 그리고 매개 농촌집들에서 토끼기르는 사업을 전군중적운동으로 벌린다면 고기와 털, 가죽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를 더잘 충족시킬수 있다.

가금업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정치, 기술, 실무적으로 준비된 가금전문기술일군들을 더 많이 길러내는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가금전문기술일군들을 대대적으로 육성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급속히 발전하는 우리나라 가금업의 현실적조건에 맞게 지도관리수준을 높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금업의 새로운 획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제시하신 모든 방침들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전체 가금업부문일군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고 그들을 철저히 로동계급화, 혁명화하여야 한다. 모든 가금업부문일군들을 당의 유일사상체계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철저히 로동계급화, 혁명화하는것은 생산장성과 원가저하의 예비를 더 많이 찾아내고 부닥치는 모든 난관과 애로를 성과적으로 극복하며 수령께서 제시하신 방침들을 훌륭히 관철해나갈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이다.

가금업부문의 각급 당조직들은 유일사상체계확립을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더욱 실속있게 짜고들어 진행함으로써 모든 근로자들을 오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이외에는 그 어떤 다른 사상도 모르며 그이의 교시관철을 위해서는 물불을 헤아리지 않고 뛰여들어 끝까지 투쟁하는 수령의 참된 혁명전사로 키워야 한다. 또한 근로자들속에서 당 및 근로단체 조직생활을 강화함으로써 그들을 철저히 로동계급화, 혁명화하여야 한다.

수령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여 가금업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는데서 이 부문 지도일군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모든 지도일군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과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여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우고 아래에 내려가 걸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며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철저히 실현함으로써 경제를 더욱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우리의 모든 가금업부문일군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현명한 방침을 높이 받들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여 가금업발전에서 새로운 혁신적성과를 이룩함으로써 그이의 높은 기대와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하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힘차게 나아가는 총련

재일 조선동포들의 의사와 리익을 대표하는 민주주의적민족적조직체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권위있는 해외공민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가 결성된 때로부터 열다섯해가 된다.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결성 열다섯돐에 즈음하여 전체 조선인민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수호하며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빛나는 성과를 달성한 총련일군들과 재일 조선동포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혈육의 뜨거운 인사를 보내고있다.

1955년 5월 25일 총련이 결성된 때로부터 지난 15년간은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에게 있어서 실로 간고한 투쟁과 빛나는 승리로 아로새겨진 자랑찬 나날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힘차게 싸워나감으로써 지난 기간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사업과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였으며 우리 혁명위업에 고귀한 기여를 하였다.

*　　　　*

총련은 지난 15년간 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을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단결시키고 총련조직을 튼튼히 꾸려놓았으며 그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옹호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촉진, 조국의 륭성발전과 민족의 번영을 위한 투쟁에서 실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총련의 지도밑에 모든 간부들과 재일동포들이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되고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쳤으며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의 계승자된 영예를 빛내이고 총련조직을 더욱 튼튼히 다졌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재일동포들을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을 수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는것은 총련의 애국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 기본담보로 된다.

지난 기간 총련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일군들과 동포들을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을 첫째가는 과업으로 내세우고 힘찬 투쟁을 벌려왔다.

총련의 이와 같은 줄기찬 투쟁에 의하여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정치사상생활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재일동포들속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연구체득하며 그것을 끝까지 관철해나가는것이 하나의 철칙으로 되고있다.

총련조직이 있는 모든 곳에 《김일성원수연구실》이 정중히 꾸려져있으며 그것을 거점으로 재일동포들은 수령의 교시와 천재적로작들, 그이의 40여년간에 걸친 영광찬란한 혁명투쟁력사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있다.

그리하여 재일동포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 그이를 령도자로 모시고 나아가는 크나큰 긍지와 행복감에 휩싸여있으며 그이께 끝까지 충성하려는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일편단심 그이께 충성하려는 결의는 오늘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사업과 생활의 확고한 신조로 되고있다. 이것은 지난 15년간 총련의 사업성과에서 가장

고귀한것이다.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됨으로써 총련의 사업은 더욱 성과적으로 진척되여나아갔다.

우리 당의 유일사상,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에 기초한 총련일군들의 사상의지 및 행동의 통일이 확고히 이루어졌으며 총련일군대렬이 더욱 확대강화되였다.

총련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무한히 충직하며 실천활동에서 단련된 견실한 일군들을 중심으로 대렬을 튼튼히 꾸렸다. 총련은 중앙학원과 지방학원을 통하여 간부교양육성사업을 강화함으로써 간부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렸으며 그들의 정치실무수준을 한층 높였다.

총련일군대렬이 튼튼히 꾸려짐으로써 총련의 조직체계가 확대강화되고 그 기능과 역할이 비상히 제고되였다.

오늘 총련은 48개의 지방본부와 300여개의 지부, 2천여개의 분회 그리고 조청, 녀맹, 상공회를 비롯하여 13개의 대중단체와 13개의 사업체를 가지고있는 권위있는 조직으로 강화발전하였다.

총련일군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적인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전면적으로 구현하여 하부조직들에 대한 지도방조사업을 강화함으로써 재일동포들을 애국과업수행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였다.

특히 총련은 재일동포들속에서 모범창조운동을 광범히 조직하여 동포대중들을 수령의 두리에 더욱 튼튼히 묶어세우고있으며 애국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고있다.

총련의 지도밑에 재일동포들속에서의 모범창조운동은 총련의 분회를 비롯하여 조청반, 녀맹분회, 학교교육회, 교원들과 학생소년집단, 상공회, 신용조합, 류학생동맹지부, 《조선신보》분국 그리고 과학자협회반, 문예창조집단, 체육단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사업분야에서 활발히 전개되고있다.

이 운동과정에서 재일동포들의 정신도덕적풍모는 날을 따라 달라지고있으며 그들속에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은 더욱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애국투쟁에서 총련이 이룩한 성과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지키고 각계각층 동포들의 민족적단합을 강화하며 남조선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을 지원하는 사업에서도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습니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이 자기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벌리는것은 주권국가의 해외공민으로서 응당한것이며 그들의 생활과 생존권을 위한 날카로운 투쟁이다.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단합된 힘으로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빼앗으려는 일본반동정부의 온갖 책동을 짓부시면서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권을 굳게 지켜내였다.

일본반동들과 박정희괴뢰도당이 공모하여 벌리고있는 악명높은 《한국국적》과 기만적인 《영주권신청》강요책동은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완강한 투쟁에 의하여 파탄되였으며 재일동포들속에서 공화국공민된 긍지와 자부심은 더욱 높아가고있다.

총련의 지도밑에 재일동포들은 생활권과 사회활동의 자유를 짓밟으려는 파쑈적인 《출입국관리법안》과 민족교육의 권리를 빼앗으려는 《학교교육법일부개정안》을 단호히 물리쳤다.

그리하여 오늘 재일동포들은 일본반동정부의 파쑈적폭압이 강화되고있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당당한 자주독립국가의 공민된 영예를 빛내이고있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강력한 투쟁을 벌려 조선대학을 비롯한 많은 조선학교들의 법적인가를 획득하였으며 돈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을 내여 민주주의적민족교육사업을 활발히 발전시켜나아가고있다. 지금 총련

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교육사상을 높이 받들고 재일동포들이 사는 모든 곳에 정연한 민족교육체계를 갖춘 150여개의 각급 정규학교들을 설치하였으며 여기에서는 4만여명에 달하는 재일동포자녀들이 우리 말과 우리 글로 민족교육을 받고있다. 각급 학교들에서 조청 및 소년단 사업이 힘있게 진행됨으로써 재일동포자녀들은 수령의 충직한 아들딸로, 사회주의조국의 유능한 일군으로 믿음직하게 자라나고있다. 그리하여 자본주의 이국땅에서도 우리 나라의 찬란한 민족문화는 계속 꽃피여나가고있다.

일본반동정부의 끊임없는 파괴책동을 반대하는 힘찬 투쟁속에서 재일동포상공인대렬은 더욱 튼튼히 꾸려졌으며 그들속에서의 상부상조운동과 동포신용조합사업은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총련은 재일동포들의 희망의 등대이며 행복의 보금자리인 조국에로의 귀국사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렸다. 그리하여 8만 8천여명의 동포들이 오매에도 그리던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귀국하여 4천만 조선인민의 어버이 수령 김일성동지의 자애로운 품속에 안기게 되였다. 재일동포들의 조국에로의 귀국, 이것은 실로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민족의 대이동》으로서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승리였으며 세계인민들을 감동시킨 커다란 사변이였다. 일본반동정부의 악랄한 파괴책동으로 말미암아 귀국의 배길이 막힌 뒤에도 재일동포들은 귀국의 재개와 조국에로의 자유래왕을 위하여 완강한 투쟁을 벌리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관한 전략전술적방침을 높이 받들고 총련은 각계각층의 광범한 애국력량을 결속하여 남조선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을 지원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사업에서도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총련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방침을 재일동포대중속에 널리 해설선전하는 한편 《민단》산하 동포들과의 민족단합사업을 강화하여 광범한 재일동포들을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로 힘차게 조직동원하였다.

총련은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때려부시고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고있는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였다.

조국통일을 위한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힘찬 투쟁은 미제와 그 앞잡이 박정희괴뢰도당의 민족분렬책동과 새 전쟁도발책동을 저지파탄시키며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남조선재침책동을 짓부시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자주적이며 원칙적인 대외정책을 빛나게 관철해나감으로써 총련은 지난 기간 우리 공화국의 국제적 위신과 영향력을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총련은 특히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전기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을 광범히 출판보급함으로써 일본인민들과 세계각국 인민들속에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영광찬란한 혁명투쟁력사, 그이의 령도의 혁명성과 높은 덕성을 널리 소개선전하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그리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전기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은 일본인민을 비롯하여 세계의 127개 나라의 인민들속에서 널리 보급애독되고있으며 그들속에서 세계혁명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신뢰의 정이 더욱 높아가고있다.

총련의 적극적인 대외활동을 통하여 재일동포들과 일본인민들 및 세계진보

적인민들과의 국제주의적련대성은 더욱 강화되고있으며 총련의 애국사업에 대한 그들의 지지와 성원은 날로 강화되고있다.

참으로 지난 15년간 총련이 이룩한 성과와 업적들은 총련의 애국사업에서 귀중한 재부로 되며 그것은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　　*

총련이 이룩한 자랑찬 성과는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의 구현이며 재일동포들에게 베풀어주시는 그이의 극진한 배려와 따뜻한 사랑의 결실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60만 재일동포들을 비롯하여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공민들을 보호하며 그들의 민족적권리를 옹호하는것을 자기의 신성한 의무로 간주하고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80페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자본주의 이국땅의 어려운 조건에서 투쟁하고있는 재일동포들이 나아갈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시고 그들에게 뜨거운 사랑과 육친적배려를 다 돌려주심으로써 총련과 재일동포들을 언제나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주고계신다.

그이께서는 지난날 이국땅에서 나라없는 인민으로서 온갖 멸시와 수모를 받아오던 재일동포들에게 친히 그들의 의사와 리익을 대표하는 민주주의적민족적단체인 총련을 무어주시고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정확하게 령도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일 조선공민단체로서의 총련의 결성은 재일 조선공민들의 생활과 애국사업발전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된 력사적사변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재일 조선공민들의 애국운동과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위한 정확한 투쟁방향을 제시하심으로써 그들이 일본반동세력의 파쑈적 탄압과 박해를 물리치고 승리의 한길로 힘차게 싸워나갈수 있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재일동포들은 비록 이국땅에서 살고있지만 조국을 위해 애국사업을 하여야 하며 중요한것은 자기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지키며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이 방침은 그이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구현으로서 모든 애국적민주주의력량을 반미구국투쟁에 묶어세워 조국통일위업을 앞당겨 이룩할뿐만아니라 미일반동들의 탄압책동을 물리치고 재일동포들의 애국사업을 줄기차게 발전시킬수 있게 한 가장 정확한 방침이다.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법을 제정공포하심으로써 해외동포들에게 공화국공민의 법적지위를 확고히 보장하여주시였으며 그들이 자주독립국가의 떳떳한 해외공민으로서 자기의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치따라 힘차게 싸워나갈수 있게 하여주시였다. 뿐만아니라 그이께서는 재일동포들의 각계대표들이 직접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영예를 지니고 나라일에 직접 참여할수 있게 하여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재일 조선공민들의 후대교양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그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사업의 발전을 위한 정확한 방향을 제시하여주시였을뿐만아니라 막대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심으로써 재일 조선공민들이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하시였다. 수령께서 보내주신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은 실로 서른다섯번에 걸쳐 무려 91억 1,731만 7천여원(일본돈으로)의 막대한 금액에 달한다. 어버이수령의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재일동포자녀들은 이국땅에서도 아무런 구김없이 마음껏

떨치고있으며 조국과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훌륭한 일군으로 자라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재일 조선공민들과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의사를 깊이 헤아리시고 재일 조선공민들의 귀국을 실현케 하시였다. 그리하여 1959년 12월부터 재일 조선공민들은 오매에도 그리던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귀국하기 시작하였으며 조국의 품에 안긴 귀국동포들은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베풀어주시는 육친적인 배려밑에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총련일군들과 애국적인 재일 조선공민들에게 국가수훈과 표창 그리고 교수, 부교수의 학직을 비롯하여 공훈교원, 공훈예술가, 공훈배우, 공훈체육인, 체육명수 등 각종 칭호를 수여하여주시였다.

참으로 세계에는 나라도 많고 지도자도 많지만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같이 해외동포들을 육친의 정으로 보살펴주시고 그들에게 승리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는 자애롭고 위대한 수령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러기에 재일 조선공민들은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모시고 그이의 령도를 받들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으로 살며 싸우는것을 더없는 영광으로, 행복으로 여기면서 이국땅에서도 높은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자기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전개하고있다.

실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극진한 배려가 있음으로 하여 총련은 자기 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하고 나라의 번영과 통일을 위한 애국사업에서 자랑찬 성과를 거둘수 있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지난 15년간에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오늘 60만 재일 조선동포들은 총련의 지도밑에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위하여 용감히 싸우고있으며 조국의 통일과 민족의 번영을 위하여 계속 억세게 싸우고있다.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투쟁은 그 누구도 빼앗을수 없는 그들의 당당한 권리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공민으로서의 지극히 정당한 투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사또반동도당은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정당한 투쟁을 탄압말살하기 위하여 온갖 악랄한 책동을 다하고있다.

일본사또반동도당은 재일 조선공민들에게 《영주권신청》과 《한국국적》을 강요하며 그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탄압말살하려고 집요하게 책동하고있으며 인도주의적원칙마저 짓밟고 재일 조선공민들의 귀국사업을 2년이 넘도록 중단시켜놓고 끝내 파괴하려 하고있다. 놈들은 또한 재일 조선상공인들의 기업활동을 악랄하게 방해하고 그들의 재산을 함부로 침범하고있으며 수많은 재일동포들을 남조선으로 강제추방하려는 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고있다. 일본사또반동도당은 총련일군들을 부당하게 체포투옥하고 무장경찰들을 동원하여 총련과 그 산하 기관들을 습격하며 재일 조선공민들과 그 자녀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지어 그들을 무참히 살해하는 비인간적죄행까지도 꺼리낌없이 저지르고있다. 재일 조선공민들에 대한 탄압과 총련조직에 대한 파괴책동을 감행함에 있어서 놈들은 있지도 않은 그 무슨 《간첩사건》을 꾸며내는 등 각종 비렬하고 교활한 음모적수법에 매달리고있다.

총련과 재일 조선공민들에 대한 일본사또반동도당의 악랄한 탄압박해책동은 외국공민들의 생존권과 민족적권리를 보장할데 대한 공인된 국제법의 규범과 인도주의원칙에 대한 란폭한 유린이며 재일 조선공민들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하여 광범한 대중운동을 벌리고있는 일본인민들과 세계진보적인민들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사또반동도당의 탄압과괴책동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의 일환으로서 미제의 침략정책에 복무하며 박정희군사파쑈악당과의 정치, 군사적 결탁을 강화하기 위한것이다.

사또반동도당은 재일 조선공민들에 대한 온갖 박해와 탄압행위를 당장 걷어치워야 하며 일본당국은 응당 그들을 외국인으로서 대우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본당국의 어떠한 탄압과 박해도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조국통일을 위한 재일 조선공민들의 정당한 투쟁을 결코 멈춰세울수 없습니다.》(우와 같은 책, 580폐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재일 조선공민들에 대한 일본반동당국의 박해와 탄압 책동은 오직 전체 조선인민의 더 큰 민족적격분을 자아낼뿐이며 결국 놈들의 부당한 책동은 저지되고야말것이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현명의 탁월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그이의 가르치심을 심장으로 받들고 나아가는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앞길에는 오직 빛나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오늘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정당한 투쟁은 조국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고있을뿐만아니라 일본공산당과 일본의 광범한 인민들, 그리고 세계진보적인민들의 한결같은 지지를 받고있다.

총련일군들과 재일 조선동포들은 총련결성 열다섯돐과 총련 제9차대회를 계기로 대오를 믿음직하게 꾸릴것이며 자기앞에 나서는 모든 성스러운 과업을 훌륭히 수행할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일본반동세력의 온갖 박해와 탄압책동을 용감히 물리치고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더욱 큰 승리를 이룩하리라는것은 의심할바 없다.

근로자 제 5 호 (루계 338 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소 • 평양시 중구역 남문동
인쇄소 • 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 • 1970년 4월 25일 발행 • 1970년 5월 1일
ㄱ—03194 값 50전

전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6 호

평 양 근로자사 1970

근로자

전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제 6 호 (339)

차 례

미제침략자들이 조선에서 또다시 침략전쟁의 불길을 일으킨다면 더욱 큰 참패를 당하고야말것이다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쑤 미제국주의자들은 20년전, 1950년 6월 25일 우리 공화국과 우리 인민을 반대하는 강도적인 침략전쟁을 도발함으로써 우리 인민에게 영원히 씻을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

놈들은 조선전쟁에서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을 대신에 계속 남조선에 둥지를 틀고앉아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새로운 침략전쟁도발책동에 더욱더 미쳐날뛰고있다.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새 전쟁 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은 오늘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있으며 우리 나라에서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또다시 터질수 있는 위험이 항시적으로 드리워져있다.

조선에서의 미제의 미친듯한 새 전쟁 도발책동은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에 더욱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고있으며 아세아와 세계평화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

그러므로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내며 놈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을 짓부시는 것은 우리 인민의 한시도 미룰수 없는 가장 선차적인 혁명과업이며 세계사회주의력량과 모든 진보적력량의 반제반미투쟁에서 중요한 문제로 된다.

조선전쟁도발의 흉악한 범죄자

100여년전부터 우리 나라에 대하여 끊임없는 침략과 략탈만행을 감행하여온 미제국주의자들은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불의의 무력침공을 감행함으로써 청소한 우리 공화국을 요람기에 없애고 북반부에 수립된 인민민주주의제도와 민주건설의 성과를 말살하며 전조선을 강점하고 그것을 발판으로 하여 아세아와 그리고 모든 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한 침략야망을 실현하려고 하였다.

우리 나라에 대한 미제의 강도적침략전쟁도발은 놈들의 세계제패계획의 직접적산물이며 그 일환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자본주의체계의…위기로부터의 출로를 찾으려고 새 세계전쟁을 준비하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이러한 목적에서 그들은 발광적인 군비경쟁을 실시하고있으며 예속국가들의 경제를 군사화하며 전쟁정신병을 조장하고 쏘련과 중화인민공화국 기타 인민민주주의나라들을 반대하는 선전을 강화하며 가능한 지역들에서 전쟁을 도발하려고 날뛰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 대한 미국의 무력침공도 미제국주의자들이 벌써부터 추구하여온 침략과 전쟁방화정책에서 나온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356페지)

제2차대전후 사회주의력량의 급속한 확대와 그 위력의 장성, 민족해방운동의 전례없는 앙양 그리고 자본주의나라들에서의 로동운동의 강력한 진출, 날로 커가는 제국주의렬강간의 모순 등으로 하여 제국주의 특히 미제국주의의 위기는 더욱더 심각화되여갔다.

대전후 세계제국주의의 우두머리로 등장한 미제국주의는 제놈들이 겪고있는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출로를 대대적인 군비경쟁의 강화와 세계제패를 위한 침략과 전쟁 정책에서 찾으려고 망상하면서 모험적인 전쟁의 길로 나아갔다.

제2차대전에서 세계의 수천수백만 인민들의 피의 대가로 살찐 미제국주의자들은 아직 전쟁의 참화가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새로운 세계전쟁을 획책하였으며 세계를 제패하려고 날뛰였다. 놈들은 새로운 세계전쟁과 세계제패의 길을 조선에서 찾으려 하였으며 조선에

서 침략전쟁의 불길을 일으키고 전조선을 강점함으로써 세계침략에 대한 제놈들의 강도적인 야욕을 실현하려 하였다. 당시 미제의 전쟁미치광이며 조선전쟁의 도발자인 맥아더란놈은 《전조선을 강점함으로써…우리는 울라지보스또크로부터 싱가포르의 전지역을 통제할수 있게 될것이다.…그런 연후에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달성하지 못할것이 없을것이다.》라고 공공연히 침략적야망을 드러내놓았다. 이것은 미제침략자들이 세계제패의 야망에 얼마나 혈안이 되고있었으며 그것을 실현하는데서 무엇보다 조선에서의 침략전쟁도발에 큰 의의를 부여하고있었다는것을 잘 말하여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이러한 침략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남조선을 강점한 첫날부터 전쟁준비를 다그쳐왔다. 놈들은 만고역적 리승만괴뢰도당을 내세워 괴뢰정권을 조작하고 동족상쟁의 이른바 《북진통일》을 《국시》로 고창케 하였으며 침략전쟁의 눅거리대포밥으로 될 괴뢰군을 조작하였다. 미제는 1948년 8월에 《국방경비대》와 《해안경비대》를 《국방군》으로 통합개편하고 괴뢰군사단들을 증가하는 한편 그 무장장비를 증강하였다. 놈들은 남조선괴뢰군을 현대적전투기술기재로 무장시키기 위하여 막대한 《군사원조》를 제공하였는데 1949년 한해동안에만도 1억 9천만딸라에 해당하는 무기를 남조선에 들이밀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침략전쟁도발에 대비하여 제놈들의 군사지휘체계를 개편하고 극동지역에 미제침략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였으며 군용도로, 비행장, 항만 등을 신설확장하였다.

놈들은 전쟁준비를 다그치면서 한쪽으로는 38연선에서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무장침습사건을 체계적으로 감행하였다. 1949년 1년동안에만도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놈들의 무장침습사건은 근 2,000회에 이르렀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전쟁도발준비는 급속히 추진되였으며 전쟁의 불길이 일어나는것은 눈앞의 시간문제로 되었다. 도화선에 불을 지르는 일만이 남게 되였던 1950년 6월 17일에 악명높은 전쟁방화자 덜레스란 놈이 이른바 대통령의 특사라는 명목밑에 남조선에 기여들어 38선일대를 싸다니면서 전호속에서 《북벌》계획을 최종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놈은 《시찰》을 끝내고 리승만도당에게 《북한에서 먼저 침입하였다는 역선전과 동시에 북한에 대하여 공격을 개시하라…만약 2주일간만 견디여낸다면 이 동안에 미국은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였다고 제소하여서 유엔으로 하여금 그 이름으로 륙해공군을 동원하지 않을수 없게끔 하여서 모든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할것이다.》라는 최후지령을 주었다.

이러한 사실은 조선전쟁이 미제에 의하여 벌써 오래전부터 준비되여왔으며 미제야말로 전쟁도발의 범죄자이며 원흉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제놈들의 흉악한 침략의 야욕을 실현하기 위하여 처음부터 방대한 침략무력과 모든 전쟁수단들을 다 동원하였으며 가장 야만적인 전쟁 방법과 형태들을 적용하였다.

그러므로 미제에 의하여 강요된 전쟁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준엄한 시련이였으며 조국의 독립과 영예를 고수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미제의 식민지노예가 되느냐 하는 판가리싸움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의 조국해방전쟁은 미제를 비롯한 세계반동의 련합세력을 반대하는 치렬한 반제반미투쟁이였으며 인민의 원수들을 반대하는 준엄한 계급투쟁이였습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18폐지)

우리 인민은 미제를 비롯한 세계반동의 련합된 세력을 매려부심으로써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수호할뿐아니라 사회주의진영의 안전과 세계평화 그리고 전

세계인민들의 안전을 수호하여야 하였다.

당시 우리 공화국은 아직 청소하였다. 우리 인민은 일제의 기반에서 해방되지 불과 5년밖에 되지 않았고 우리의 인민군대도 창건된지 2년밖에 되지 않았으며 현대전의 경험도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한편 미제는 100여년의 피묻은 침략력사와 자본주의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지고있었다. 놈들은 저들의 수적우세와 기술적우세를 믿으면서 우리 공화국을 단숨에 삼키려하였다.

전세계의 선량한 인민들은 조선전쟁의 결말이 과연 어떻게 될것인가를 우려하였고 그들의 이목은 싸우는 조선에로 쏠리였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신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우리 인민은 이 준엄한 시기에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한사람같이 튼튼히 뭉치여 모든 난관과 희생을 무릅쓰고 영웅적으로 싸움으로써 미제침략자들에게 전쟁의 첫순간에 벌써 심대한 패배를 안겨주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국들은 전쟁을 일으킨지 불과 며칠동안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멀리 남쪽으로 패주하지 않을수 없었다. 결정적인 참패에 이르게 되자 미제침략자들은 추락된 제놈들의 위신을 만회하며 전쟁의 불길을 아세아의 넓은 지역에 확대하기 위하여 더욱 발악적인 모험의 길에 들어섰다. 놈들은 유엔의 간판밑에 세계에서 15개의 추종국가 반동세력을 긁어모아 조선전선에 대병력을 투입하였으며 저들의 태평양함대는 물론 지중해함대와 추종국가함대 그리고 방대한 항공무력을 동원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실로 조선전선에 미제침략군 륙군의 3분의 1과 공군의 5분의 1, 태평양함대의 대부분 그리고 15개추종국가군대들과 남조선괴뢰군을 포함한 200여만의 대병력, 태평양전쟁시기의 11배나 되는 7천 300만톤이 넘는 막대한 량의 군수물자와 최신전투기술기재들을 투입하였다.

그러나 미제침략자들은 어떠한 악랄한 전쟁방법과 수단으로써도 조국의 독립과 자유,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하여 일떠선 우리 인민을 굴복시킬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친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미제침략자들이 호언장담하던 이른바 《크리스마스총공세》도, 《하기 및 추기 공세》도 그리고 미제의 전쟁두목 아이젠하워의 악명높은 대규모적인 《신공세》도 그때마다 여지없이 녹아나고말았다. 그리하여 미제침략자들은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의 강력한 타격을 받고 련속 패배에 패배를 거듭하였으며 마침내 우리 인민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수 없었다.

놈들은 3년간의 조선전쟁에서 39만 7,500여명의 미제침략군을 포함한 109만 3,800여명의 병력과 1만 2,200여대의 비행기와 250여척의 각종 함선을 비롯한 막대한 전투기술기재를 손실당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이 3년동안의 조선전쟁에서 입은 손실은 병력과 전투기술기재에서 제2차세계대전시기 태평양전쟁 4년동안에 입은 손실의 거의 2.3배에 달하였다.

미제침략자들자신도 고백한바와 같이 조선전쟁에서의 놈들의 참혹한 패배는 100여년의 침략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것이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전쟁에서 군사적으로 참혹한 패배를 당하였을뿐아니라 전쟁의 진행정을 통하여 인간백정으로서의 야수성과 잔인성을 그대로 드러내놓음으로써 정치도덕적으로도 돌이킬수 없는 패배를 당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지난 어느 한 시기에 엥겔스는 영국군대를 가장 야수적인 군대라고 불렀다. 제2차세계대전시기에 독일파쑈군대는 그의 야수성

에 있어 영국군대를 롱가하였다. 사람의 두뇌를 가지고서는 그 당시 히틀러악당들이 감행한 만행보다 더 악독하고 더 무서운 만행를 상상할수 없었던것이다.

그러나 조선에서 양키들은 히틀러도배들을 더 훨씬 롱가하였다.》(《김일성선집》, 제4권, 1954년판, 170폐지)

패전을 거듭한 미제야수들은 전쟁법규에 관한 국제협정들을 란폭하게 위반하면서 도시와 농촌들을 무차별폭격하며 비군사적목표들인 주민지구와 보건, 문화, 교육 시설들을 야만적으로 파괴하는 범죄적행위를 감행하였다. 놈들은 전쟁기간 8,700여개의 공장, 제조소 건물들과 설비들을 파괴하였으며 2,800만평방메터의 주택, 5,000여개의 학교, 1,000여개의 병원과 진료소, 260여개의 극장 및 영화관과 수천개소의 문화후생시설들을 파괴하였다. 미제야수들은 평양시에만도 전쟁3년간에 인구 1인당 한개에 해당하는 폭탄을 퍼부어 완전히 재더미로 만들었다.

미제야수들은 인류력사의 어느 한 폐지에서도, 지어 인류의 가장 암흑의 시대에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러한 잔악한 방법으로 우리 인민들을 학살하였다. 놈들은 무차별 폭격과 기총사격으로 주민들을 마구 죽였으며 전야에서 일하는 농민들과 학교마당에서 뛰노는 어린이들에게 따라다니면서 기총사격을 퍼붓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놈들은 일시적강점지역에서 어린아이들, 부녀자들과 로인들 할것없이 닥치는대로 잡아 방공호나 창고 속에 몰아넣고 휘발유를 끼얹어 집단적으로 불태워죽였으며 산사람을 생매장하며, 코와 귀를 꿰여 끌고다니다 죽이며, 사람의 가죽을 벗기고 눈알을 뽑고 유방을 도려내여 죽이는 등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뼈를 갉아먹으며 자라난 인간백정이 아니고서는 감히 할수 없는 잔악무도한 범죄적만행을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놈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신천군에서만도 군내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무려 3만 5,300여명의 무고한 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하였다.

이것은 미제국주의자들이야말로 인간증오사상과 인간도살의 야수성이 뼈속까지 배인 두발가진 승냥이들이라는것을 말해준다.

우리 인민은 미제침략자들을 타승함으로써 놈들의 취약성과 부패성을 여지없이 드러내놓았으며 미제가 결코 불패의 적이 아니며 인민들이 자기의 정당한 위업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한다면 놈들을 능히 때려부시고 승리할수 있다는것을 힘있게 보여주었다.

우리 인민은 력사상 처음으로 날강도 미제를 타승함으로써 놈들의 《강대성》에 대한 신화를 산산이 마사버리고 미제가 내리막길에 들어서는 시초를 열어놓았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우리 인민의 위대한 승리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백전백승의 탁월한 군사사상의 승리였으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를 받는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는 필승불패이라는것을 더욱 힘있게 보여주었다. 또한 그것은 우리 공화국과 우리 인민민주주의제도의 무궁무진한 생활력과 불패의 위력을 온 세상에 시위하였다.

우리 인민은 미제침략자들을 때려눕힘으로써 사회주의나라들의 안전과 세계평화를 수호하는데 거대한 기여를 하였으며 전세계인민들의 반제반미투쟁의 발전에 새로운 전환점을 열어놓았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우리 인민의 승리를 계기로 세계도처에서 반제반미투쟁의 불길은 더욱 거세차게 타올랐으며 오늘 미제는 더욱더 헤여나올수 없는 멸망의 구렁텅이에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다.

불을 즐기는자들은 불에 타죽고야 말것이다

조선전쟁에서 참혹한 군사정치적패배를 당하여 내리막길에 들어선 미제침략자들은 이 전쟁의 참패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은 대신 더욱더 모험적인 전쟁

정책에 매달렸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정전협정을 계통적으로 위반하고 전후 남조선에서 자기의 군사적잠재력을 끊임없이 강화하여왔으며 특히 최근년간에 그것을 더욱 격증하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미제가 남조선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새로운 침략전쟁을 발광적으로 준비하고있는것과 관련되여있습니다.》(핀란드공산당중앙기관지 《간산 우우티세트》를 위하여 핀란드민주청년동맹대표단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미제국주의자들은 정전협정이 조인된 첫날부터 그것을 란폭하게 유린하면서 남조선괴뢰도당과 《한미호상방위조약》을 체결하였으며 남조선에서 제놈들의 침략군대와 남조선괴뢰군병력을 계통적으로 증강하여왔다.

미제침략자들은 모든 적대행동의 재발을 금지한 정전협정의 조항들을 짓밟고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군사도발행위를 끊임없이 감행하였으며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격화시켜왔다.

전후 남조선을 제놈들의 완전한 군사침략기지로 전변시키고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도발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여온 미제는 1966년 10월 악명높은 전쟁두목 존슨놈이 남조선에 기여들어 남조선괴뢰들과 전쟁모의를 하고 돌아간것을 계기로 조선에서 새 전쟁 도발책동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특히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와 대형간첩비행기 《이씨—121》을 우리 나라 령해와 령공에 불법침입시켰다가 호된 징벌을 당한 이후 그것을 더욱 광란적인 단계에로 끌어가고있다.

미제의 전쟁두목 닉슨이란놈은 《3차대전은 구라파에서가 아니라 아세아에서 발생할것》이라느니 《조선반도는 쉽사리 세계의 다음번 폭발점으로 될수 있다.》고 뇌까리면서 공공연히 전쟁소동을 일으키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에서 새 전쟁을 도발하기 위하여 제놈들의 병력을 계속 증강하는 한편 남조선에 원자무기와 유도무기를 비롯한 대량살륙무기를 대대적으로 끌어들이고있으며 남조선괴뢰군을 대폭 증가하고 그 군사장비를 현대화하고있다. 놈들은 6만여명의 제놈들의 병력과 70여만의 방대한 괴뢰군병력을 항시적으로 유지하고있으며 그것도 부족하여 《향토예비군》이라는것을 조작하고 여기에 200만이 훨씬 넘는 남조선의 청장년들을 강제로 끌어넣고있다. 이와 함께 남조선의 이르는곳마다에서 군용비행장, 항만, 로케트기지, 전략도로를 비롯한 군사기지와 군사시설들을 대대적으로 신설확장하고있다.

실로 남조선은 말그대로 방대한 군사력이 집결되고 모든것이 전쟁정책을 위하여 복무하는 일대 병영으로, 새 전쟁도발을 위한 련병장으로 전변되고있다.

미제와 그 주구들은 매일과 같이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공격을 가상한 《상륙작전》, 《공중투하작전》 등 도발적인 군사연습을 벌리고있다. 지난 3월과 4월에만도 남조선의 전반적해역에서 《한미련합대잠수함훈련》이라는것을 벌려놓고 이른바 《해상에서의 전투태세완비》소동을 일으켰으며 남조선의 소위 동부전선일대에서는 《반공》의 구호밑에 도발적인 대규모적《야진군춘기대기동훈련》을 벌리였다. 놈들이 끊임없이 일으키는 이러한 전쟁소동은 남조선을 침략전쟁을 위한 전략적인 군사활동지대로 철저히 전변시키고 임의의 시각에 전투행동에 들어갈수 있도록 《림전태세》를 완성하기 위한 범죄적책동이다.

미제와 그 주구들은 새 전쟁 준비에 남조선의 모든 인적 및 물적 자원을 다 징발하고있으며 전쟁정책수행에 장애로 되는 사회정치적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각종 파쑈악법들을 조작하고 파쑈적탄압체제를 전례없이 강화하고있다. 놈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에 따르는 무거운 군사비부담과 파쑈적폭압으로 하여 남조선인민들의 빈궁과 무권리는 극도에 이르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에서 새 전쟁도발책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어 되살

아난 일본군국주의세력까지 남조선에 적극 끌어들이고있다.

미제는 남조선에 일본군국주의자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여 박정희괴뢰도당과 군사정치적으로 결탁케 하고있다. 미제와 사또도당과 박정희괴뢰도당간에는 쌍무적군사협정을 통하여 사실상 3각군사동맹이 형성되였다.

력사적으로 큰놈을 등에 업고 《횡재》하는데 비릇된 일본군국주의세력은 특히 지난 시기 저들의 충실한 번견이였던 남조선의 박정희도당이 괴뢰정권에 들어앉은것을 기화로 남조선괴뢰들과 범죄적《한일조약》을 맺고 침략의 마수를 대대적으로 뻗치고있으며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이루어보려고 날뛰고있다.

이미 세상에 구로된바와 같이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세개의 삼삭진》, 《날아가는 룡작전》, 《날리는 황소사건》 등 작전계획을 짜놓고 조선에서 미제가 도발하려는 새로운 조선침략전쟁에 끼어들어 식민지통치의 옛지위를 되찾으려고 망상하고있다. 놈들은 매를 기다리면서 작성한 전쟁계획에 따라 저들의 침략무력인 《자위대》병력을 증강하고 그 장비를 현대화하고있으며 조선을 작전지역으로 가상한 각종 도발적인 군사연습을 빈번히 벌리고있다. 심지어 놈들은 가종《대표단》의 간판밑에 남조선에 기여들어 군사분계선일대와 남조선괴뢰군부대들을 《시찰》하고있으며 박정희괴뢰도당과 《공동작전》음모까지 꾸미고있다.

일본의 사또도당은 최근 국회에서 미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조선에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그것을 《강건너 불보듯 할수 없다.》고 하였으며 지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선제공격》도 해야 한다고 떠벌이있다. 사또도당의 이 악명높은 넉두리는 조선에서의 새 전쟁 도발을 위한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간의 공모결탁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가 하는것을 잘 보여준다.

오늘 일본군국주의세력까지 끌어들이면서 강화하고있는 조선에서의 미제의 새 전쟁 도발책동은 이미 엄중한 단계에 이르렀으며 놈들의 모험적인 전쟁도발소동으로 하여 우리 나라의 정세는 극도로 첨예화되고있다.

이 모든것은 미제침략자들이야말로 조선정전협정의 계통적인 파괴유린자이며 우리 나라에서 또다시 전쟁이 터질수 있는 험악한 정세를 조성한 장본인이며 새 전쟁을 일으키기 위하여 미쳐날뛰는 전쟁광신자라는것을 잘 말하여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에서 전쟁의 근원은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를 반대하는 그들의 침략정책에 있으며 따라서 조선에서 전면전쟁이 터지는가 안터지는가 하는것도 전적으로 미제국주의자들에게 달려있습니다.》
(우와 같은 문헌)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오늘 조선에서 정세가 극도로 첨예화되고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다시 터질수 있는 위험이 조성된것은 바로 미제국주의자들이 제놈들의 소굴로부터 수만리 떨어진 우리 나라에 와서 우리 인민을 반대하는 침략과 전쟁 정책을 감행하고 있는데 있다.

그러나 미제는 조선에서의 긴장상태의 원인이 마치도 그 어떤 《북으로부터의 위협》에 있는듯이 사태를 전도함으로써 어리석게도 긴장상태의 책임을 우리에게 들씌우려 하고있으며 제놈들의 침략적정체를 가리워보려 하고있다. 놈들이 있지도 않은 《북으로부터의 위협》에 대하여 떠들면서 남조선의 《안전을 보호》한다느니, 《한국의 방위》를 위한것이라느니 하는것은 남조선강점을 영구화하고 제놈들의 침략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한 강도적구실에 지나지 않는다. 미제와 같은 파렴치한 침략자들이 무슨 《보호》요, 《방위》요 하고 떠벌이는것자체가 황당무계한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은 그 언제 어느때도 미제국주의자들에게 《보호》와 《방위》를 요구한 일이 없으며 있다면 그것은 오

적 한줌도 못되는 남조선의 매국역적무리들뿐이다. 남조선의 박정희도당은 조국과 민족의 리익을 미일제국주의자들에게 팔아먹고 상전의 부추김이 없이는 단 하루도 연명할수 없는, 인민들로부터 철저히 버림을 받은 인간쓰레기들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어떤 구실로써도 제놈들의 남조선강점과 전쟁정책을 합리화할수 없으며 조선에서의 긴장상태의 책임을 회피할수 없다. 미제침략자들은 남조선에 남아있을 아무런 근거도 없으며 남조선에서 지체없이 물러가야 한다.

만일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을 비법적으로 강점하지 않고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가로막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벌써 오래전에 조국의 통일을 이룩하였을것이며 4천만 조선인민이 다같이 통일된 3천리 강토우에서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되였을것이다.

우리 나라가 일제의 식민지기반에서 해방된지 25년, 정전협정이 체결된지도 17년이 되는 오늘까지 남북으로 분렬되여있으며 우리 인민의 민족적숙원인 조국통일이 이룩되지 못하고있는것은 바로 미제가 남조선을 강점하고 침략과 전쟁 정책을 끊임없이 감행하고있는데 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에서 새 전쟁준비와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도발책동을 걷어치우며 침략무력과 살인무기를 걷어가지고 남조선에서 물러간다면 우리 나라에서 전쟁의 위험은 가셔질것이며 평화는 유지공고화될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오늘 조선에서의 평화는 오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의 최대의 참을성과 완강한 투쟁 그리고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투쟁에 의해서만 유지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시종일관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투쟁하지만 제국주의자들이 무력으로 우리에게 덤벼드는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만일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와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한결같은 규탄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새로운 전면전쟁을 일으킨다면 우리는 단호히 전면전쟁으로 대답할것이며 침략자들을 철저히 섬멸할것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조선인민은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결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만일 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에서 또다시 전쟁을 도발한다면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은 공화국북반부의 위대한 사회주의전취물을 수호하며 조국의 완전한 해방과 통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 어떤 희생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 최후승리를 달성하고야 말것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그 어떤 침략책동으로써도 남조선에서 뒤흔들리고있는 제놈들의 식민지통치지반을 수습할수 없으며 전조선과 아세아에 대한 침략적 야망을 실현할수 없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전쟁에서 당한 참패의 교훈을 잊고 또다시 모험적인 전쟁의 길로 나간다면 놈들은 지난 조선전쟁때보다도 몇배의 더 큰 참패를 당하리라는것을 각오해야 한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미제의 코대를 꺾어놓고 놈들의 내리막길의 시초를 열어놓은 우리 인민은 오늘 원쑤들의 어떠한 불의의 침공도 일격에 격파하고 혁명의 전취물과 조국의 독립을 수호할수 있는 강력한 정신적 및 물질적 준비를 갖추고있다.

우리에게는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천재적인 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으며 간고한 혁명투쟁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단련되고 세련된 위대한 맑스-레닌주의 당인 조선로동당이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백전백승

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이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친 우리 인민은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에 대한 치솟는 적개심을 가지고 원쑤들의 침공으로부터 사회주의조국과 혁명의 전취물을 목숨으로 지키며 원쑤들에게 짓밟히고있는 남녘땅형제들을 구원하며 조국통일을 이룩하고야만 불같은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위대한 혁명적로선이 철저히 관철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현대전에 필요한 모든 물질적수요를 장기적으로 원만히 보장할수 있는 위력한 경제력과 현대적인 전투기술기재로 장비되고 선진적인 군사과학기술로 무장된 강력한 국방력을 가지고있다.

우리 당의 자위적군사로선이 철저히 관철된 결과 우리 나라의 방위력은 철벽으로 다져졌으며 하늘과 땅, 바다 그 어디로부터 기여드는 원쑤도 일격에 쳐물리칠수 있는 강력한것으로 되고있다.

조선혁명의 기지인 공화국북반부의 위력이 불패의 력량으로 강화되였을뿐만아니라 남조선의 혁명력량도 급속히 장성되였다.

미제를 남조선에서 몰아내며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정당한 위업은 사회주의나라들과 세계진보적인민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 조성된 첨예한 정세는 우리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에게 그 어느때보다도 혁명적경각성을 높이며 원쑤들의 어떤 불의의 침공도 일격에 때려부실수 있도록 모든 분야에서 만단의 준비를 더욱 철저히 갖출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먼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확립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의 지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수령의 부름이라면 목숨도 서슴없이 바쳐싸우는 근위대, 결사대로 자신을 확고히 준비하여야 한다.

우리는 자신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하는것과 함께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가며 우리 당의 군사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우리의 혁명기지를 철벽으로 다져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미제와 그 주구들의 전쟁도발책동을 성과적으로 분쇄할수 있으며 덤벼드는 원쑤들을 그자리에 매장하여버릴수 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침략적야욕에 사로잡혀 조선에서 기어이 새 전쟁을 도발한다면 우리 인민은 미제침략자들을 이 땅우에서 영영 쓸어버리고 100여년에 걸친 피맺힌 원한을 풀며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반드시 성취하고야 말것이다.

천재적인 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신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이의 두리에 굳게 뭉쳐 힘차게 싸워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정당한 위업은 필승불패이다.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철석같이 뭉친 전사회의 위대한 정치사상적통일

조선인민은 오래지않아 력사적인 우리 당 제5차대회를 맞이한다.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혁명력사에서 새로운 단계를 열어놓게 될 당 제5차대회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 이룩된 위대한 전변과 빛나는 성과를 드높은 긍지를 가지고 돌이켜보게 된다.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 기간 특히는 당 제4차대회이후 우리 나라에서는 력사에 일찌기 없었던 거대한 변혁들이 일어났다.

그중에서 가장 귀중하고 가장 위대한 전취물은 수령께서 창시하신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초우에서 그이를 유일중심으로 하는 조선인민의 철통같은 정치사상적통일이 이룩된것이다.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위대한 정치사상적통일, 이것은 조선인민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민족해방혁명, 민주주의혁명, 사회주의혁명 그리고 사회주의건설의 가장 보람있는 결실이며 우리 사회경제관계와 계급관계 그리고 우리 인민의 정신적풍모에서 일어난 변화의 가장 집중적표현이다.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전당과 전체 인민이 한마음한뜻으로 철석같이 통일단결된것은 조국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하여, 조선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커다란 기쁨이며 행복이며 자랑이다.

우리는 전사회의 정치사상적통일을 더한층 강화함으로써 우리 나라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정치적지반을 보다 튼튼히 다지고 사회주의제도의 거대한 우월성과 그 무궁무진한 생활력을 더 높이 발양시켜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이 기쁨, 이 자랑을 더욱 빛내여야 할것이다.

⁂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에 이룩되여있는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끝남으로써 사회주의적토대우에서 로농동맹은 더욱 강화되였으며 이 동맹을 기초로 하여 전체 인민대중의 반석같은 정치사상적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로동계급과 협동농민, 근로인테리들이 사회주의경제체계에 망라되여 당과 혁명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자기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다같이 일하며 서로 긴밀히 협조하는 동지적관계가 온 사회를 지배하고있으며 전체 인민이 당과 정부의 주위에 굳게 뭉쳐 우리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물불을 헤아리지 않고 투쟁하고있습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34페지)

지금 우리 나라에 이룩되여있는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은 사회주의적토대우에서 이루어진 통일단결이며 그 무엇으로써도 깨뜨릴수 없는 확고부동한것이다.

오늘 우리 나라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일하며 배우며 즐겁게 사는 모든 근로자들의 화목하고도 단란한 대가정으로, 혁명적투지와 지향이 넘쳐흐르는 생기발랄한 하나의 붉은 대집단으로 되고있다. 북반부 전체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그 어느때보다도 철석같이 뭉쳐 그이께서 환히 밝혀주신 혁명의 한길을 따라 서로 돕고 이끌면

서 집단과 전사회의 리익을 위하여,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억세게 일하며 생활하며 투쟁하고있다.

우리 조국의 남반부인민들도 4천만 조선인민의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를 무한히 흠모하며 그이께서 령도하시는 공화국북반부를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면서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탁월한 전략전술을 높이 받들고 미제와 그 충실한 개 박정희괴뢰도당을 쓸어버리기 위하여, 남조선혁명을 수행하고 조국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시와 농촌, 지하와 산중에서 반미구국투쟁을 힘차게 벌리고있다.

60만 재일동포들을 비롯한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동포들도 조선민족의 태양 김일성동지의 따사로운 빛발아래 자기의 사랑하는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떳떳한 재외공민으로서 행복하게 살며 일하며 싸우는 끝없는 민족적자부심과 긍지를 깊이 간직하고 공화국정부의 모든 정책을 열렬히 지지하고있으며 공화국의 공민된 의무를 실행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있다.

세계혁명적인민들과 우리의 벗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철석같이 뭉쳐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에 대한 굳은 신심을 가지고 수령께서 밝혀주신 혁명의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고있는 우리 인민의 장엄한 투쟁모습에 대하여 끝없는 부러움을 표시하고있으며 거기에서 커다란 힘을 얻고있다.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유일중심으로 그이의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전체 인민의 확고부동한 통일단결, 그 무엇으로써도 허물수 없는 전사회의 철통같은 정치사상적통일—이것은 우리 인민이 내외의 계급적원쑤들을 반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진행한 간고한 투쟁속에서 이룩된것이다.

수령의 두리에 그 어느때보다도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은 가장 포악하고 음흉한 미일제국주의와 그 앞잡이들인 지주, 예속자본가들을 때려부시고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에 기초한 자본주의적경리와 소상품경리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여 온갖 착취계급과 착취제도를 영원히 청산하며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강화하여 전복된 착취계급잔여분자들의 준동을 철저히 진압하는 치렬한 계급투쟁속에서 그리고 종파분자들, 각종 이색분자들의 악랄한 반당반혁명적책동을 철저히 마스고 온갖 기회주의, 사대주의, 부르죠아사상 및 봉건유교사상을 없애며 근로대중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뿌리뽑는 간고한 투쟁행정에서 이루어졌다.

전사회의 확고부동한 정치사상적통일은 무엇보다도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당안에서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이룩되였다.

전체 조선인민의 지도적 및 향도적 력량인 당을 강화하고 그 전투적기능을 끊임없이 높여야만 대중을 교양개조하고 그들을 당주위에 튼튼히 묶어세울수 있으며 전사회의 확고부동한 정치사상적통일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다.

우리 당은 조선혁명의 기지인 공화국북반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튼튼히 다지기 위하여 혁명과 건설을 계속 힘차게 추진시키면서 당의 통일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완강히 전개하였다. 당은 밖으로부터의 온갖 반동적부르죠아사상의 침습과 당안의 종파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 등 반맑스주의적, 반당적 사상요소들을 반대하며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확립하기 위한 사상투쟁을 견결히 진행함으로써 오랜 기간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에 막대한 해독을 끼쳐온 종파를 뿌리채 청산하고 우리 당의 통일과 단결을 결정적으로 강화하였다.

당의 강철같은 통일단결, 당안에서의 유일사상체계의 전면적확립은 당의 전투력을 강화하고 대중속에서의 당의 위신과 영향력을 비상히 높였다.

우리 당은 혁명의 참모부인 당대렬의 통일단결을 백방으로 공고히 하면서 당과 대중의 련계를 더욱 강화하고 각계각층의 모든 군중을 다 교양개조하여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기 위한 투쟁을 세차게 벌렸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혁명한 방침,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정확히 관철하고 적대분자들을 반대하는 계급투쟁과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을 옳게 결합시키며 각계각층의 군중을 포섭교양개조할데 대한 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우리 당은 전체 인민들속에서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더욱 두텁게 하고 그들을 수령의 주위에 더욱 철석같이 뭉치게 하였으며 군중의 정치적 및 로력적 열의를 결정적으로 높였다.

지난 시기 특히는 당 제4차대회이후 당사업에서의 전환, 그중에서도 청산리정신,청산리방법의 관철은 군중과의 사업에서 근본적혁신을 가져오게 하였다. 청산리방법을 관철하는 과정에서 관료주의와 형식주의의 낡은 틀은 무너졌으며 혁명적사업방법, 인민적사업작풍이 전당과 전사회에 확립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당사업은 더욱 철저히 사람과의 사업으로 되였고 당조직들과 당원들은 각계각층군중속에 깊이 들어갔다. 당과 대중과의 련계는 더한층 강화되였다.

공화국북반부 전체 인민의 확고부동한 정치사상적통일은 인민대중속에서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려 모든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고 전사회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우기 위한 투쟁속에서 이룩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주신바와 같이 사회주의제도의 확립은 전사회의 범위에서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고 그들을 하나로 굳게 단합시킬수 있는 객관적조건을 마련한다. 그러나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하고 생활이 향상된다고 하여 사람들의 사상개조와 단결이 저절로 이루어지는것은 아니다. 사회주의건설의 진척과 함께 사상혁명을 강력히 전개하여 모든 사람들을 수령의 혁명사상, 맑스-레닌주의적세계관으로 확고히 무장시켜야만 그들을 위대한 수령의 주위에 튼튼히 묶어세우고 전사회의 확고부동한 통일단결을 이룩할수 있다.

우리 당은 전체 근로자들을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확고히 무장시키고 그이께 무한히 충직한 조선의 열렬한 혁명가로, 참된 공산주의자로 키우기 위하여 혁명반전의 매시기 구체적조건에 맞게 정치사상교양사업을 정력적으로 진행하였다.

사상사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서 우리 당이 무엇보다도 튼튼히 틀어쥐고 나간것은 근로자들속에서 당정책교양을 강화한것이다. 우리는 근로자들에게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해석침투하고 그 본질과 정당성을 똑똑히 인식시킴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온갖 불건전하고 반혁명적인 사상요소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적극 나서게 하였으며 어떠한 환경과 시련 속에서도 오직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리키시는 혁명의 한길을 따라 확신성있게 나아가도록 하였다.

사람들을 혁명화하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움에 있어서 거대한 성과를 거두게 한 주되는 요인의 하나는 혁명전통교양을 널리 진행한것이다. 혁명전통교양이 광범히 진행됨으로써 인민들속에서는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령도의 혁명성, 고매한 덕성을 더욱 깊이 체득하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무한히 충실하며 언제나 혁명적으로 살며 일하려는 열렬한 지향과 열의가 넘쳐흐르게 되였다.

또한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과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이 심화됨에 따라 근로자들속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혁명을 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자부

심, 그이께서 마련하여주신 사회주의제도를 열렬히 사랑하고 그것을 어떠한 원쑤의 침해로부터도 굳건히 지키며 조국의 륭성과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견결히 싸우려는 혁명적열의가 비상히 높아졌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중을 교양개조하는 목적과 방도를 천명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상혁명은 적대분자들과의 투쟁처럼 폭력적방법으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설복과 교양의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근로자들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51페지)

우리 당은 인민대중속에서 해설과 설복, 긍정적모범에 의한 감화교양을 광범히 전개함으로써 극소수의 적대분자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교양개조하고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전체 인민의 통일단결을 더한층 강화하여나아갔다.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발기에 의하여 창조된 천리마작업반운동은 근로대중을 교양개조하여 전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함에 있어서 혁명적전환의 계기로 되였다.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당의 총로선인 천리마운동과 그 심화발전된 형태인 천리마작업반운동이 고조됨으로써 사람들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이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모든 천리마기수들의 일상사업으로 전환되였으며 락후분자가 선진분자로, 소극적인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으로 되고 모든 사람들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무한히 충직한 열렬한 혁명가로, 참된 공산주의적투사로 자라났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들은 당이나 또는 어떤 사회단체의 조직생활에서 집단주의사상을 길러야 하며 조직에서 혁명과업에 대한 엄격한 분공을 받고 그것을 어김없이 실천하는 혁명적기풍을 가져야 합니다.》(《사회과학의 임무에 대하여》, 415페지)

우리 당은 당 및 근로단체 조직생활을 강화하고 비판과 자기 비판을 널리 전개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들을 쓸어버리고 그들을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킴으로써 전사회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고 모든 사회성원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촉진하게 하였다.

오늘 북반부 전체 인민들의 사상의식과 정신도덕적풍모에서는 커다란 변혁이 일어났으며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우리 인민의 존경과 흠모의 정은 무한히 커졌다.

조선혁명의 최고뇌수이시며 심장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유일중심으로 하는 전체 조선인민의 위대한 통일단결이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되였다. 수령의 위대한 구상, 전체 북반부인민을 하나의 사상, 하나의 의지로 단합하고 북반부를 붉은 일색으로 튼튼히 꾸릴데 대한 웅대한 구상은 빛나게 실현되였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은 우리의 모든 승리의 확고한 담보이다.

사회가 적대적계급으로 분렬되여있고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는 계급사회에서는 모든 사회성원들의 정치사상적통일이란 있을수 없다. 계급적대립과 적대, 사회적반목이 기본특징으로 되는 이 사회에서는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간의 비타협적인 투쟁이 있을뿐이며 그것이 사회발전을 떠미는 기본동력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적대적계급이 청산된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사회계급들사이의 일치한 리해관계, 공통된 목적과 지향, 친선과 협조의 토대우에서 사회의 정치사상적통일이 이루어지며 그것이 사회발전의 기본동력으로 된다.

도시와 농촌에서 착취계급이 청산되

고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졌을뿐아니라 모든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방침이 관철되여 전사회에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그 어느때보다도 확고히 세워진 현시기에 있어서 우리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은 우리 사회발전에서 위대한 힘을 발휘하고있다.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의 확고부동한 정치사상적통일이 혁명과 건설에서 나타내고있는 위대한 생활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바로 이와 같은 우리 인민의 반석같은 통일단결이 우리 국가와 사회제도의 공고한 기초로 되고있으며 우리의 불패의 힘의 원천으로 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29페지)

《우리의 불패의 힘의 원천, 우리 사회의 공고성의 기초도 바로 이와 같은 통일에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367페지)

우리 인민의 철통같은 통일단결의 위대한 생활력, 그 무궁무진한 힘은 우선 우리 나라의 국가사회제도가 반석같이 다져지고있는데서 나타나고 있다.

공화국북반부 전체 공민들은 1967년에 있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실시된 지방주권기관 대의원선거에 100% 참가하고 100% 찬성투표함으로써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친 조선인민의 반석같은 정치사상적통일을 다시한번 시위하였다. 북반부 전체 공민들은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우리 당과 정부에 대한 자기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또다시 내외에 널리 과시하였으며 위대한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조국통일의 혁명위업을 기어코 완수하려는 굳은 결의를 표명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전체 인민이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치고 그것이 더욱더 불패의것으로 강화발전됨에 따라 우리 인민의 사업과 생활의 모든 령역에서는 프로레타리아민주주의가 더욱 높이 발양되였다. 북반부 전체 인민들은 누구나 다 자기 소질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보장받고있으며 모두가 국가 및 경제 관리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며 적극적인 사회정치활동을 벌리고있으며 자기가 가지고있는 모든 힘과 재능과 정열을 마음껏 발휘하고 있다.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의 확고부동한 정치사상적통일의 위대한 힘이 천리마운동의 발전에서 주요하게 표현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의 발전은 우리 당 정책의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증명하는것이며 당과 인민의 확고부동한 통일을 시위하는 것입니다.》(《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와 농업근로자동맹사업에 대하여》, 42페지)

전체 인민의 위대한 정치사상적통일은 모든 사람들을 교양개조하여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힘있는 공산주의학교이며 사회주의건설을 힘차게 다그치는 대중적혁신운동인 천리마운동이 더욱더 고조되고있는데서 그 무궁무진한 힘, 위대한 생활력을 집중적으로 표현하고있다.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 전체 인민의 확고부동한 통일, 빨리 전진하려는 우리 인민의 비상한 각오에 기초하여 발생한 위대한 천리마운동은 사회주의건설의 심화발전과 우리 사회의 정치사상적통일의 가일층의 공고화, 전체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의 앙양에 따라 더욱더 세차게 고조되였으며 그 위대한 힘은 모든 분야에서 더욱 높이 발양되고있다.

전체 근로대중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모든 령역에서 높은 의식성, 창발성, 혁명적기백, 호상협조와 방조,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고있으며 새것의 장성과 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불굴의 완강성과 헌신성을 나타내고있다. 또한 그들은 사회주의조국, 사회주의제도, 인민의 재부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표시하고있다.

수령의 부름을 높이 받들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은 새로운 천리마속도 《강선속도》를 창조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우리의 전진운동을 힘차게 촉진하고있으며 전국의 협동농장원들은 《청산리사람들의 일솜씨》로 올해의 모든 농사일을 본때있게 해제끼고있다.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과학연구에서 주체를 세울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우리 나라의 풍부한 원료와 연료로써 주체공업을 성과적으로 창설해나가고있으며 그이의 따뜻한 보살핌속에서 교육부문일군들은 프로레타리아정권을 위한 교육, 혁명을 위한 교육, 로동계급선이 뚜렷한 교육을 힘있게 발전시키고있다. 또한 우리의 붉은 보건일군들은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적으로 돌볼데 대한 수령의 교시를 관철하는 성스러운 사업에서 온갖 재능과 정성을 다 바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 그이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위대한 창조력, 천리마운동의 발전속에서 우리 당 제4차대회가 내놓은 사회주의건설의 높은 고지는 빛나게 점령되고있으며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당면한 최대의 민족적과업인 조국의 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는 앞당겨지고있다. 또한 이 투쟁속에서 우리 나라는 현대적공업과 발전된 농촌경리, 튼튼한 자위적국방력을 가진 더욱 부강하고 위력한 사회주의강국으로 급속히 전변되고있으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공산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한 우리의 전진운동이 힘차게 촉진되고있다.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기초우에서 강화되고있는 우리 사회의 정치사상적통일은 사업과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무궁무진한 힘, 위대한 생활력을 나타내고있으며 또 계속 나타낼것이다.

혁명의 천재적수령이시며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이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위대한 생활력을 나타내는 불패의 힘의 원천이라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착취사회에서는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간의 계급적대립과 투쟁이 사회관계의 기본으로 되지마는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한 우리 사회에서는 로동계급과 협동농민, 근로인테리의 단결과 협조가 사회관계의 기본을 이루고있습니다. 우리의 로동자, 농민들과 인테리들은 사회경제적처지의 공통성, 목적과 리해관계의 공통성으로 하여 동지적으로 결합되고 서로 긴밀히 협조하며 우리 당의 령도밑에 다같이 공산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366페지)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이 우리 사회의 불패의 힘의 원천으로서 위대한 힘, 무궁무진한 생활력을 나타내게 되는것은 그것이 동지적 협조와 단결을 기본으로 하는 사회주의사회관계에 기초를 두고 있기때문이다.

우리 나라의 도시와 농촌에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완성됨으로써 우리의 인민경제는 사회주의적토대우에 확고히 서게 되였으며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소유는 우리 사회의 유일한 경제적기초로 되였다.

지난 시기 특히는 당 제4차대회이후 생산력의 급속한 장성과 더불어 우리 사회의 생산관계는 더욱 강화발전하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소유가 인층 공고히 되였으며 그 기초우에서 생산과정에서의 사람들간의 관계와 생산물의 분배관계가 더욱 발전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적생산관계가 형성되고 그것이 공고발전함에 따라 우리 사회의 계급관계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지주, 예속자본가를 비롯한 온갖 착취계급들은 완전히 없어지고 로동계급과 농민, 근로인테리로써 이루어진 사회주의건설자들은 자기들의 면모를 새롭게 하였다. 우리 나라 로동

계급은 생산수단을 잃은 피착취계급으로부터 전체 인민과 함께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회의 령도적계급으로 전환되였다. 어제날의 소생산자였던 수백만의 농민들은 영예로운 협동농장원으로, 사회주의근로자로 전변되였으며 사회주의건설에서 로동계급의 믿음직한 전우로 되였다. 인테리들의 면모도 변하였다. 오랜 인테리들을 교양개조하면서 로동자, 농민 출신의 새 인테리들을 대대적으로 길러낼데 대한 당의 방침이 관철됨으로써 붉은 인테리대렬이 꾸려졌다.

우리 나라의 계급구성과 그 면모의 변천에 기초하여 계급관계의 성격도 변하였다. 우리 사회의 계급관계는 지난날의 사적소유와 련결된 지배와 예속의 관계로부터 오늘은 동일한 사회주의적소유와 련결된 통일과 단결, 친선과 협조의 관계로 전환하였다. 우리 나라 계급관계의 이러한 성격은 사회계급들의 면모가 발전하고 그들간의 차이가 적어지며 계급, 계층들간의 동맹이 강화됨에 따라 더한층 공고히 되였다.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적생산관계의 형성과 발전, 우리 사회의 계급관계의 변화발전은 국가의 프로레타리아독재기능을 강화하여 적대분자들의 준동을 진압하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함으로써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전체 인민이 한마음한뜻으로 그 어느때보다도 굳게 통일단결할수 있게 하는 객관적조건과 가능성을 마련하였다.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이 우리 사회의 불패의 힘의 원천으로서 무궁무진한 생활력, 거대한 힘을 나타내게 되는것은 그것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과 그이의 고매한 덕성에 기초한것이기때문이다.

우리 나라 사회경제관계와 계급관계의 변화에 상응하여 우리 인민들의 사상의식, 도덕적풍모도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우리 나라에서는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 그리고 사회주의건설을 통하여 낡은 사회에서 넘겨받은 온갖 불건전하고 반동적인 사상들이 뿌리뽑아지고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이 전사회를 확고히 지배하게 되였다. 혁명의 천재적수령이시며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을 위한 확고한 지도사상으로, 모든 사회성원들의 행동의 유일한 지침으로, 우리 사회의 정치사상적통일의 사상적기초로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당의 유일사상은 오늘 전당과 전사회의 확고부동한 사상으로, 우리 나라 모든 근로자들의 뼈와 살로 되고있으며 전국적범위에서 모든 인민들을 수령의 두리에 굳게 통일단결시키는 위력한 힘으로 되고있다.

전사회의 철통같은 정치사상적통일의 기저에는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매한 덕성이 놓여있다. 그이께서는 우리 조국땅우에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와 튼튼한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를 마련해주시였을뿐만아니라 이 선진적인 제도와 이 튼튼한 밑천이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우리의 모든 근로자들에게 최대한의 복리를 베풀도록 깊은 배려와 세심한 관심을 돌리시였다.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모든 혁명활동은 인민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그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지는 육친적인 배려로 일관되여있다. 어버이수령께서 지니고계시는 고매한 덕성은 우리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을 더욱 위력하고 불패의것으로 되게 하는 원동력으로,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으로 되고있다.

우리 나라에 이루어져있는 인민의 정

치사상적통일이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과 그이의 높은 덕성, 령도의 현명성에 의하여 공고화된 위대한 통일이며 그이를 유일중심으로 한 전체 인민의 통일단결이기에 그처럼 확고부동하며 그 무엇으로써도 허물수 없는 불패의것이다.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한 통일이며 그이의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한 통일이므로 그것은 우리 사회의 발전을 떠미는 기본동력으로서,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는 결정적요인으로서 작용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생활력을 나타낼수 있는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이룩된 위대한 전변과 빛나는 성과는 우리 당과 조선인민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더욱 철석같이 뭉쳐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힘차게 달려나갈 때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뚫고 혁명과 건설을 계속 승리적으로 추진해나갈수 있으며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민족적임무와 국제적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갈수 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그리고 단결과 협조를 기본으로 하는 사회주의사회관계의 지반우에서 이루어지고있는 전사회의 정치사상적통일은 지난날에 그러했던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불패의 힘의 원천으로서, 우리 국가 사회제도의 공고한 정치적기초로서 무궁무진한 힘, 위대한 생활력을 나타내게 될것이다.

* *

오늘 우리 당과 우리 인민앞에는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빨리 다그침으로써 우리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철옹성같이 다지며 조국의 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달성하여야 할 숭고한 민족적임무가 나서고있다. 더우기 우리 인민은 영광스러운 우리 당 제5차대회를 앞두고 우리 당 제4차대회가 제시한 모든 과업을 빛나게 완수하기 위하여 그 어느때보다도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의창발성을 발휘하여야 하며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높여야 한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앞에 나서고있는 이 무겁고도 영예로운 혁명과업은 무엇보다도 수령의 주위에 굳게 뭉친 우리의 혁명대오를 정치사상적으로 더욱 튼튼히 꾸리며 그 전투력을 일층 높일것을 요구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옳게 결합시켜 극소수의 적대분자들을 고립시키고 진압하는 동시에 광범한 대중을 교양개조하여 당주위에 더욱 굳게 단결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부단히 높이는 동시에 농민과 인테리들을 혁명화하고 로동계급화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정치사상적통일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369페지)

우리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을 더욱 강화하고 우리의 혁명대오를 더 튼튼히 꾸리는데서 중요한것은 모든 근로자들을 철저히 교양개조하여 전사회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확고히 세우고 전체 인민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로작들,그이께서 내놓으신 당정책들을 더 진지하게 학습함으로써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 령도의 현명성, 탁월한 전략전술을 깊이 체득하고 그것을 사업과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확고한 지침으로, 행동의 준칙으로 삼아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이와 함께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

의 40여년간에 걸친 영광찬란한 혁명투쟁력사를 더 깊이 연구함으로써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자신을 철저히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한층 확고히 세워야 한다.

당조직들과 지도일군들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높은 자각성을 가지고 조직생활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도록 지도함으로써 그들을 정치적으로 단련하고 사상적으로 교양하여야 하며 전사회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워야 한다.

이리하여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꽉 들어찬 조선의 참다운 공산주의자로, 어떠한 역경속에서도 추호도 동요없이 일편단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충직한 열렬한 혁명가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싸워나가는 견결한 투사로 되여야 한다.

우리 사회의 정치사상적통일을 더욱 강화하고 우리의 혁명대오를 더욱 튼튼히 꾸리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 사업과 적대분자들을 반대하는 계급투쟁을 옳게 결합하는것이다.

모든 지도일군들은 당의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정확히 관철하여 적대분자들을 반대하는 계급투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원쑤들의 준동을 철저히 진압하는 동시에 광범한 대중을 교양개조하여 그들의 정치적열의를 더욱 높이고 수령의 주위에 더욱 철석같이 묶어세워야 한다.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담보로 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과 기술, 문화 혁명을 힘차게 다그치는것이다.

나라의 경제건설을 촉진하여 생산력을 더욱 발전시킴으로써만 공업과 농업간, 정신로동과 육체로동간의 차이를 없애며 모든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더욱 높여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 똑똑히 보여줄수 있다. 또한 높은 생산력의 기초우에서만 근로자들의 의식을 더욱 빨리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할수 있으며 전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보다 훌륭히 실현할수 있다.

모든 지도일군들은 사회주의경제건설과 기술, 문화 혁명을 힘있게 다그쳐 생산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근로자들의 기술문화수준을 높임으로써 그들을 공산주의적으로 더 빨리 개조하여 사람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고 전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더 급속히 촉진하여야 한다.

전사회의 정치사상적통일을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은 우리의 혁명대오를 철통같이 꾸리고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이며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정치적지반을 강화하고 사회주의제도의 위대한 생활력, 그 불패의 힘을 높이 발휘하기 위한 투쟁이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의 혁명대오를 더욱 튼튼히 꾸리여 우리 국가사회제도의 정치적지반을 더한층 튼튼히 다지고 그 거대한 우월성과 무궁무진한 생활력을 높이 발양시킴으로써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통일 및 전조선에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겨나갈것이다.

자력갱생은 혁명과 건설의 근본원칙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원칙의 하나는 자력갱생이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력갱생의 원칙은 혁명발전의 객관적법칙을 반영한것으로서 민족적해방과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당과 인민들이 반드시 견지하여야 할 혁명적원칙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해방투쟁시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혁명을 령도하여오시는 전기간에 걸쳐 이 혁명적원칙을 견지하심으로써 우리 인민으로 하여금 위대한 승리와 성과를 이룩하게 하시였다. 이 원칙의 거대한 생활력은 우리 혁명과 건설에서 남김없이 증명되였다.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은 그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으로 하여 전세계 혁명적인민들의 한결같은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으며 그들을 혁명투쟁에로 고무하는 위대한 힘으로 되고있다.

오늘 우리앞에는 혁명과 건설을 더욱 촉진시켜 우리의 혁명기지를 철벽으로 다지고 혁명의 전국적승리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겨야 할 영예롭고도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지금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긴장된 정세밑에서 당과 수령의 호소를 심장으로 받들고 7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우리 당 제5차대회전으로 어김없이 점령하기 위한 장엄한 투쟁을 벌리고있다.

조성된 정세와 제기된 혁명과업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그 어느때보다 높이 발양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쥐여주신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천리마의 대진군을 더한층 다그침으로써 우리 당 제4차대회가 제시한 모든 강령적과업을 빛나게 완수한 승리자의 영예를 안고 력사적인 우리 당 제5차대회를 맞이하여야 하며 혁명의 전국적승리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더욱 앞당겨야 할것이다.

1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력갱생, 이것은 자기 나라 혁명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주체적력량에 의거하여 완수하려는 철저한 혁명적립장이며 자기 나라 건설은 자기 인민의 로동과 자기 나라의 부원으로 진행하려는 자주적립장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37페지)

자력갱생이란 자기 인민의 힘과 자기 나라의 부원을 최대한으로 동원하며 자체로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여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끌데 대한 혁명적립장이다.

그것은 자기 나라 혁명에 대하여서는 어디까지나 자신이 책임을 지며 자체의 힘을 믿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주로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데 대한 원칙적립장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력갱생의 원칙은 혁명발전의 객관적합법칙성을 정확히 반영하고있다.

원래 혁명은 매개 나라 내부의 계급적 및 민족적 모순에 의하여 일어나는것이다. 혁명이란 착취받고 억압받는 인민이 착취자, 억압자를 때려엎고 자신의 자유와 해방을 이룩하며 새 생활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류력사는 아직 어떤 통치계급이 자기의 지배권을 순순히 양보한 일을 알지 못하며 어떤 반동계급이 반혁명적폭력을 쓰지 않고 공순히 정권에서 물러선 실례를 알지 못한다.》(《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위대한 반제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 10페지)

《피압박인민들은 오직 투쟁에 의해서만 자기자신을 해방할수 있다. 이것은 력사에 의하여 확증된 단순하고도 명백한 진리이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21페지)

력사상에는 인민의 원쑤들이 자기의 지배권을 피착취, 피압박 인민들에게 순순히 양보한 례가 없으며 그들에게 유족한 생활을 가져다준 례도 없다.

착취와 략탈은 착취자, 침략자의 본성이며 그들이 멸망하기 전에는 이 본성을 버리지 않는다. 놈들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착취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발악적으로 책동하며 인민대중에 대한 야수적탄압으로써 혁명운동을 짓눌러버리려 한다.

그러므로 피착취, 피압박 인민들은 착취자, 침략자들에 대하여 추호의 환상도 가질수 없다. 오직 자체의 폭력적 투쟁으로써만 착취자, 억압자들을 타도하고 자신을 해방할수 있으며 자체의 로력에 의해서만 행복한 새 생활을 창조할수 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수 없는 명백한 객관적진리이다.

피착취, 피압박 인민들은 국제적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자체의 힘으로 자신을 해방하고 자체의 로력으로 새 생활을 창조하는것이 필연적요구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에서 국제적인 지지성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주인인 우리자신이 노력하고 투쟁하여야만 혁명을 전진시킬수 있으며 승리에로 이끌수 있는것이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219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수행에서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적친조와 단결은 원칙적 의의를 가지는 문제이다. 모든 나라 로동계급은 자기 나라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세계혁명의 발전을 위하여 호상협조하고 단결하며 민족적해방과 사회적진보를 위하여 투쟁하는 모든 피압박인민들을 적극 지지성원하는것을 자기의 의무로 삼는다.

국내반동들과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이러한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적지원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그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어디까지나 보조적역할을 하는데 지나지 않으며 결정적역할을 하는것은 그 나라의 내부력량, 주체적력량이다.

외부적지원은 그것이 아무리 적극적인것이라 하여도 제한성을 면치못하며 다른 나라의 원조로써는 자체의 요구를 제때에 원만히 충족시킬수 없다. 또한 주체적력량이 준비되여있지 못한 조건에서는 외부의 지원이 응당한 효력을 나타낼수도 없다. 반대로 주체적력량이 튼튼히 준비되여있을 때에는 비록 외부적조건이 어느정도 불리하더라도 혁명투쟁에서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불리한 정세를 유리하게 전변시켜 혁명의 승리를 달성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은 이상에서 보는바와 같이 혁명의 원쑤들이 피압박대중에게 해방을 선사할수 없고 혁명과 건설에서 외부의 지원이 주체적력량을 대신할수 없다는 객관적합법칙성에 기초를 두고있다.

혁명하는 당과 인민은 응당 자체의 힘을 믿고 주로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해나가는것을 하나의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공산주의자들은 언제나 이 원칙을 견지하고 자기 나라 인민의 힘을 동원하여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야 하며 어떠한 난관도 자체의 힘으로 뚫고 새 사회를 건설할줄 알아야 한다.

자력갱생의 원칙을 관철하자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혁명적기풍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정신, 이러한 기풍은 혁명을 위하여 투쟁하는 로동계급과 공산주의자들에게 고유한것이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기풍은 자체로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지 않고 남에게만 의존하려는 사상, 사대주의사상과 근본적으로 대립되며 안일해이하고 보수, 침체와 소극성에 빠지는 경향과도 근본적으로 대립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혁명적기풍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력갱생의 정신이란 자기의 힘으로 혁명을 하자는 정신입니다. 우리는 없는것은 만들어내고 모자라는것은 더 찾아내며 모르는 문제는 배우고 연구하여 알도록 하며 모든 난관과 시련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용감하게 뚫고 나아가는 굴할줄 모르는 혁명정신으로 무장해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434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혁명기풍은 적의 멸망을 앉아서 기다리는것이 아니라 일떠서서 적을 치며 앉아서 일을 기다리는것이 아니라 일을 찾아서 하고 만들어서 하는 진공적정신이며, 없는것은 만들어내고 부족한것은 찾아내여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창조적정신이며, 곤난앞에서 주저앉는것이 아니라 그것을 맞받아나가 극복하고야마는 불요불굴의 혁명정신이며 기풍이다. 그것은 또한 달성한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최후의 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계속 투쟁, 계속 전진하는 전투적정신이며, 부화와 안일을 배격하고 언제나 긴장되고 검박하게 생활하는 혁명적기풍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자체의 힘으로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쟁취하기 위하여 싸우는 사람들인것만큼 인민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원쑤들이 멸망할것을 기다리고 있을수 없으며 또한 앉아서 일감이 생길것을 기다리고만 있을수 없다. 그들은 자체의 능동적인 투쟁으로써 적들의 멸망을 촉진하며 자기의 머리를 써서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일감을 찾아내고 만들어내여 그를 진공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

공산주의자들은 혁명과 건설에서 조건과 수단이 저절로 마련되기를 바랄수도 없다. 그들은 처음에는 맨주먹으로 일떠서서 혁명에 필요한 조건과 수단들을 자체의 투쟁으로 마련해나가며 빈터우에서도 락원을 건설할줄 아는 혁명가들이다. 모든 조건이 저절로 갖추어지기를 기다리고만 있거나 팔짱을 끼고 앉아서 모든 수단들이 다 마련되기를 바라고만 있다면 도대체 혁명을 할수도 없고 제힘으로 새생활을 건설할수도 없다.

혁명이란 간고한 투쟁이며 혁명투쟁에서는 수많은 난관에 부닥치게 마련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아무리 크고 어려운 과업앞에서도 주저를 모르며 아무리 간고한 시련앞에서도 동요를 모른다.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난관과 시련을 맞받아나가 그것을 끝내 극복해내고야 마는것, 이것은 자체의 힘으로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여야 할 공산주의자들에게 필수적인 혁명적기풍이다.

뿐만아니라 공산주의자들은 전진도상에서 이룩한 성과에 자만하거나 그로 하여 안일에 빠져서는 혁명을 할수 없다. 혁명은 투쟁으로 시작되고 투쟁으로 끝난다. 공산주의자들이 혁명을 시작하여 혁명을 완수하기까지에는 멀고먼 길을 싸워나가야 한다. 그들은 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긴장성을 늦추지 말고 계속 전진, 계속 투쟁하여야 한다.

공산주의자들의 이러한 혁명적기풍,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은 혁명투쟁에 있어서나 건설사업에 있어서나 그리고 자체의 투쟁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나 그를 실천하는 과정에 있어서나 언제나 필수적인것이다.

자력갱생의 원칙을 견지하고 그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승리를 위한 결정적담보의 하나이다.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 혁명정신은

우선 자기 나라의 혁명과 건설을 최대한 성과적으로 촉진시킬수 있게 한다.

혁명하는 당과 인민은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원칙에서 출발하여야 언제나 자기앞에 적극적이고 동원적인 투쟁목표를 제기할수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투쟁에서 모든 사람들의 지혜와 정력을 남김없이 동원하고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력을 최대한으로 발휘시킬수 있다.

또한 자력갱생의 원칙을 견지하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살아야만 자기나라의 내부원천을 최대한으로 찾아내고 그를 효과있게 리용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촉진시킬수 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매개 나라를 단위로 하여 진행되는 조건에서 그 성과와 속도는 자기 나라 인민의 힘과 내부원천을 어떻게 조직동원하며 리용하는가에 크게 달려있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있어야만 자기 나라의 내부원천과 모든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탐구동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게 되며 그것을 위해 과학과 기술도 더 빨리 발전시키게 된다.

또한 자체의 힘으로 인민의 락원을 건설하려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있어야만 모든 근로자들이 소극성과 보수주의를 짓부시고 계속 전진, 계속 혁신할수 있으며 국가사회재산, 인민의 재부를 극력 애호절약하고 나라의 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꾸려나갈수 있다.

자력갱생하는것은 나라의 경제력과 국방력을 최대한으로 강화함으로써 나라의 정치적독립과 자주성도 공고히 할수 있게 한다.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을 견지하고 그 정신을 높이 발양하여야 민족경제의 자립적토대를 튼튼히 닦고 나라의 경제력과 국방력을 최대한으로 강화할수 있다. 나라의 경제력과 국방력이 튼튼해야 정치적독립이 공고해지고 당과 국가는 자주성을 견지할수 있으며 결국 혁명과 건설을 더잘 할수 있다.

자력갱생하는것은 이와 같이 자기 나라의 혁명과 건설을 최대한 촉진할수 있게 할뿐아니라 세계혁명발전에도 훌륭히 기여할수 있게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자력갱생하여 조선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잘 건설하면 우리의 민족적임무를 다하는것인 동시에 이것은 곧 국제적임무에도 충실하는것으로 되며 세계혁명발전에도 이바지하게 될것입니다.》 (아랍《다르 알타흐리르》출판사 총국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매개 나라 혁명은 세계혁명의 한부분을 이루며 로동계급의 민족적임무와 국제적임무는 유기적으로 통일되여있다. 따라서 자력갱생하여 매개 나라에서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면 그것은 곧 세계혁명의 한 초소, 한고리를 불패의 력량으로 다지여 계급적형제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전체 사회주의력량을 강화하는것으로 되며 다른 나라들에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적지원을 줄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을 튼튼히 마련하는것으로 된다.

이와 같이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은 로동계급의 민족적임무를 최대한 성과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동시에 그것을 통하여 국제적임무도 가장 잘 수행할수 있게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은 많은 나라들의 혁명실천, 특히는 조선혁명의 실천적경험에 의하여 그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이 확증되였다.

이 원칙은 전세계공산주의자들과 혁명적인민들, 착취받고 압박받는 모든 인민들의 한결같은 공명을 불러일으키고있으며 반제반미투쟁, 민족적해방과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 정치적독립의 공고화와 민족적번영을 위한 투쟁에로 그들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강력한 무기로, 혁명적기치로 되고있다.

2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은 지난기간

우리 인민이 이룩한 모든 성과와 승리의 근본요인의 하나였으며 오늘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더욱 촉진하기 위한 튼튼한 담보로 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주체를 세우고 자력갱생한 결과 우리는 우리 나라의 혁명을 가장 빠른 길로 전진시킬수 있었고 중중첩첩한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승리와 성과를 이룩할수 있었습니다.》 (우와 같은 문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외세의존은 망국의 길이며 우리의 혁명은 우리자신의 힘으로 해야 한다는 확고한 혁명적립장을 견지하시고 조선혁명승리의 길을 개척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주체사상과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에서 출발하시여 조선혁명의 주체적로선, 항일무장투쟁로선을 비롯한 모든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어떤 외부의 지원도 없는 조건에서 인민들의 해방투쟁력사에 찬란한 빛을 뿌리는 위대한 항일무장투쟁의 력사적승리를 이룩하시였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신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세계력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간고하고도 장기적인 혁명투쟁인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행정에서 자력갱생의 빛나는 전통을 이룩하시였으며 조선혁명을 조선인민자신의 힘으로 끝까지 수행할수 있는 튼튼한 밑천을 마련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자력갱생의 전통은 해방후 우리 혁명의 발전에서 무한히 귀중한 혁명적재부로, 지침으로 되고있다.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준비된 정치군사적력량은 해방후 우리의 주체적혁명력량을 꾸리는데 있어서 귀중한 골간으로 되였으며 자력갱생의 전통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위대한 힘의 원천으로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우리 인민의 주체적혁명력량을 육성강화하여 조선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혁명기지로선을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 제시하신 혁명기지로선을 견지히 관철함으로써 오늘 우리 당과 인민은 공화국북반부에 조국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한 결정적요인으로 되는 혁명력량을 철옹성같이 꾸릴수 있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을 경제와 국방분야에 구현하시여 자립, 자위의 혁명로선을 제시하시였다.

경제분야에서 자립로선은 우리 당의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하에 우리 인민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하여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견결히 관철함으로써 우리 나라를 뒤떨어지고 가난하였던 식민지농업국가로부터 가장 짧은 기간에 당당하게 제발로 걸어나가는 부유하고 문명한 사회주의공업국으로 전변시켰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경험은 오직 주체를 철저히 세우고 자력갱생을 기본으로 하여야만 자립적민족경제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고 나라의 부강발전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우와 같은 문헌)

지난 기간 우리 인민은 혁명발전의 매 시기마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훌륭히 발휘함으로써 민족경제의 자립적토대를 튼튼히 다질수 있었다. 실로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전과정은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의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을 실물로써 생동하게 보여주었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 인민생활에 필

요한 모든 중공업, 경공업 제품들과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충족시킬수 있는 종합적이며 자립적인 우리의 민족경제—이것으로 하여 오늘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구상대로 자기의 밑천으로 유족한 생활과 나라의 부강발전을 이룩할수 있게 되였다.

이 귀중한 자립적민족경제는 결코 쉽게 이루어진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인민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중중첩첩한 애로와 난관을 극복하고 천리마로 달리고 또 달리도록 확고히 령도하여주신 결과이다.

민족경제의 튼튼한 자립적토대는 우리 당과 국가의 확고부동한 정치적자주성의 물질적기초로 되고있으며 철벽같은 자위적국방력을 위한 전제로 되고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위로선을 받들고 우리 당과 인민은 국방분야에서도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을 훌륭히 구현하였다. 오늘 우리의 자위적국방력은 그 어떤 환경에서도 혁명의 전취물과 우리 인민의 창조적로동과 행복한 생활을 굳건히 보위할수 있으며 우리 민족의 권리와 존엄을 고수할수 있다.

실로 전후의 재더미우에 일떠세운 우리 나라의 웅대한 사회주의적대건물, 혁명적대고조와 장엄한 천리마의 대진군속에서 이룩한 모든 기적적성과들은 혁명의 탁월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한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의 빛나는 승리이다. 그것은 또한 수령의 현명한 령도에 무한히 고무되변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하여 없는것은 만들어내고 모자라는것은 더 찾아내며 있는 지혜와 창조력을 다 바친 우리 인민의 영웅적투쟁의 고귀한 열매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참으로 위대한 업적을 쌓아올렸으며 길지 않은 기간에 멀리 달려왔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잠시도 투쟁과 전진을 멈출 권리가 없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남조선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고 전국적으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위업을 완수하여야 할 무거운 임무를 지니고있으며 형제적맑스-레닌주의당들과 함께 온 세계에서 공산주의승리를 위하여 투쟁할 임무를 지니고있습니다. 우리는 승리에 자만하지 말고 새 승리를 향하여 쉽없이 전진하여야 하며 혁명을 계속하여야 합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310～311페지)

우리 인민이 이룩한 성과는 실로 거대하다. 그러나 우리가 해온 일보다 해야할 일은 더 많으며 걸어온 길보다 가야할 길은 더 멀다. 조성된 정세와 우리 앞에 제기된 과업은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을 더욱 철저히 관철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는 남조선혁명을 완성하고 전민족적숙망인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을 때려부시고 세계혁명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력갱생의 기치를 계속 높이 추켜들고 전진하여야 한다.

조국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오늘 사회주의건설을 더한층 촉진시키고 우리의 혁명력량을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튼튼히 꾸리는것이다.

우리 조국 남반부를 강점한 세계반동의 원흉 미제침략자들은 오늘 더욱 발광적으로 침략과 새 전쟁 도발책동을 감행하고있다. 전조선을 제놈들의 식민지로, 군사전략기지로 전변시키려는 야망을 버리지 않고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이러한 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에서는 임의의 시각에 다시 전쟁의 불길이 일어날수 있는 긴박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우리는 혁명과 건설을 촉진하여 공화

국북반부의 주체적혁명력량을 더욱 튼튼히 꾸려야만 적들의 온갖 침략책동을 분쇄하고 조국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달성할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앞당길수 있다.

우리의 주체적혁명력량을 강화하는데서 당면하게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것은 수령의 호소를 심장으로 받들고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인 7개년계획을 우리 당 제5차대회전으로 빛나게 완수하는것이다.

당 5차대회전으로 7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누구나가 다 두몫, 세몫씩 일을 해제낌으로써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이 새로운 천리마속도 《강선속도》로 계속 힘차게 달려나가야 한다.

지난날 세상사람들이 경탄을 금치못했던 《평양속도》, 《비날론속도》를 훨씬 뛰여넘는 새로운 천리마속도 《강선속도》로 달려나가야 할 오늘 우리에게는 일을 찾아 하고 만들어서 하는 진공적정신, 없는것은 만들어내고 부족한것은 찾아내는 창조적정신, 만난을 극복하고 계속전진, 계속혁신하는 불요불굴의 전투적정신을 그 어느때보다도 더욱 높이 발양할것이 요구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있는 설비, 있는 자재, 있는 로력으로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건설하기 위하여 내부에 숨어있는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찾아내고 동원하여야 하며 집단적으로 사고하고 지혜를 합치며 기술혁신을 더욱 다그쳐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기계설비들을 더욱 철저히 정비보강하고 그에 만부하를 걸어 낡은 《공칭능력》을 대담하게 마스고 훨씬 높은 새 기록, 새 기준을 창조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전에 하나를 만들던 자재로 두개 세개씩 만들어내면서 모든 원료, 자재들을 극력 아껴써야 한다.

특히 로력조직을 더욱 합리적으로 하고 480분로동시간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한사람당 생산량을 훨씬 높여야 한다.

력사적경험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우리의 승리는 결코 순탄하게만 이루어질수 없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물론 우리앞에는 많은 난관과 애로가 가로놓여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앉아서 뭉개는 곤난도 아니고 후퇴하는 난관도 아니며 전진하는 도상에 있는 곤난과 난관들입니다.

곤난앞에서 실망할줄 모르고 난관앞에서 굴할줄 모르며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계속 혁신하며 계속 전진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혁명적기개입니다.》 (아랍《마르 알라흐리르》출판사 총국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오늘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7개년계획의 높은 령마루를 단숨에 점령하며 우리 조국의 부강발전과 우리 인민의 보다 행복한 생활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의 앞길에는 많은 난관들이 제기될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난관에 부닥친다 하여도 우리의 천리마진군을 멈출수 없으며 휘황찬란한 목표를 지향하는 우리의 투쟁을 결코 늦출수 없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승리에 자만하지 않으며 난관에 굴할줄 모르는 영웅적조선인민의 기개를 남김없이 발휘하여 우리의 전진속도를 더욱 높이기 위한 조건과 수단을 주동적으로 마련하며 계속 달리고 또 달려나가야 한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양하여 우리의 전진속도를 더욱 높이자면 모든 근로자들이 자기의 정치적임무와 기술적임무를 잘알고 그 수행에서 높은 자각적열성을 내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매개 단위, 매개 근로자들은 자기가 맡은 과업이 우리의 혁명과 건설에서 어떤 중요한 의의를 가지며 그를 수행함으로써 자기가 혁명에 어떻게 이바지하게 되는가를 깊이 인식하여야 한다. 또한 자기의 혁명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설비와 자재를 어떻게 리용하고 생산을 어떻게 높이겠는가를 잘 알아야 한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기의 정치적임무와 기술적임무를 똑똑히 알아야 높은 자각적열성과 책임성을 발휘하여 전진도상에서 제기되는 온갖 난관과 시련을 용감하게 이겨낼수 있으며 소극성, 보수주의, 기술에 대한 신비주의를 철저히 짓부시고 불리한 조건을 유리하게 전변시키면서 천리마의 대진군을 더욱 다그쳐 계속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이룩할수 있다.

우리는 우리앞에 제기된 과업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투쟁이 긴장되면 될수록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보다 철저히 무장하여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김일성동지의 로작과 교시, 그이의 40여년에 걸치는 위대한 혁명투쟁력사를 심오히 학습하여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사업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하여나가야 한다.

또한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행정에서 발휘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적극 본받아야 한다. 위대한 수령의 가르치심따라 맨주먹으로 적의 무기와 탄약을 빼앗아 자체를 무장하고 적과의 결사적인 투쟁을 통하여 식량과 피복을 해결하였으며 령하 4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과 키를 넘는 눈길속에서 며칠씩 굶으면서도 원쑤와 싸워이겼으며 베와 집게, 보잘것없는 쇠쪼각을 가지고도 《연길폭탄》을 만들어 원쑤를 족친 항일유격대원들의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싸워나갈 때 우리에게는 못해낼 일이란 없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기 맡은 초소는 자기가 당과 혁명 앞에 완전히 책임지는 립장에 튼튼히 서서 자기 단위에서 모든 예비와 가능성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맡겨진 혁명임무를 빛나게 완수 및 초과완수해야 한다.

우리는 지난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모든 난관과 애로를 박차고 이 땅우에 세기적인 변혁을 이룩하여놓은 그 기세, 그 기백으로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야 한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쥐여주신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그이께서 제시하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전략적로선을 따라 새로운 천리마속도 《강선속도》로 더욱더 힘차게 내달림으로써 7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우리 당 제5차대회전으로 기어코 점령하여 수령의 크나큰 기대와 신임에 어김없이 보답하여야 하며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더욱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근로단체건설의 빛나는 전통

황 승 혁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해방을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 특히 영웅적항일무장투쟁시기에 근로단체건설의 빛나는 전통을 이룩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초기혁명활동시기와 항일무장투쟁시기 근로단체 건설에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과 풍부한 경험은 오늘 우리의 근로단체들이 계승하고있는 력사적뿌리로, 고귀한 재부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당을 창건하신데 뒤이어 이 빛나는 전통에 토대하시여 근로단체들을 몸소 조직하시고 그를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내에서 당과 인민대중을 련결시키는 강력한 인전대로, 당의 믿음직한 방조자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근로단체들은 근로대중들과 청소년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우고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촉진하며 그들을 당의 로선과 정책 관철에로 조직동원함에 있어서 실로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고있다.

우리의 근로단체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를 받고있음으로 하여, 그이께서 이룩하신 빛나는 혁명전통을 계승하고있음으로 하여 오늘과 같은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조직으로 강화발전될수 있었으며 자기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근로단체건설의 빛나는 전통을 깊이 연구하고 그를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키는것은 근로단체들을 강화하고 그의 역할을 더욱 높이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촉진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1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광범한 군중을 대중조직에 묶어세우는 사업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고 확고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대중단체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독창적으로 해결하여나가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요지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단결되고 조직된 대중의 력량이 없이는 우리 혁명은 한 걸음도 앞으로 전진할수 없으며 승리할수도 없는것이요. 인민대중을 하나의 조직된 력량으로 어떻게 결속하는가 하는것은 혁명승리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요. 때문에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항상 어디서나 군중을 조직하고 지도하며 그들을 하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하오.…

온갖 낡은것을 쓸어버리고 새것을 창조하기 위한 혁명투쟁에서 대중을 조직에 묶어세우고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는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대중을 혁명조직에 튼튼히 결속하여야만 그들을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켜 그이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울수 있으며 수령께서 내놓으신 혁명로선과 방침의 관철에로 군중들을 적극 조직동원할수 있다.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혁명적대중단체는 당을 둘러싸고있는 외곽단체이며

당과 대중을 련결시키는 인전대이다. 맑스-레닌주의당이 자기 주위에 광범한 군중을 망라한 대중단체를 가지고있어야만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하고 그의 전투력을 높일수 있다.

또한 당은 대중조직들을 가지고있어야만 조직을 통하여 단련되고 검열된 핵심들로 자기의 대렬을 부단히 보충해나갈수 있다.

광범한 군중을 대중단체들에 묶어세우는 사업을 강화하는것은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더욱 중요하게 제기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요지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광범한 인민대중이 굳게 뭉치여 일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여 조직적으로 일어난다면 그 힘은 아무도 막을수 없는것이다.…

때문에 지금 중요한것은 혁명조직을 튼튼히 꾸리며 일제를 반대하는 각계각층 인민들을 한사람이라도 더 많이 조직에 묶어세우는데 있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이 방침은 조선혁명의 당면한 임무, 항일무장투쟁의 특성 등을 가장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한것으로서 대중단체들을 조직하고 확대하여 혁명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한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방침이다.

당시 조선혁명의 성격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으로서 혁명의 대상은 강도 일제와 그 주구들이였다. 따라서 반일민족해방투쟁의 성과적 수행을 위해서는 민족의 모든 반일애국력량을 수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 주체적인 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려야만 하였다.

대중단체들을 조직하고 그를 확대발전시킬 때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모든 군중을 조선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결속시키고 그들을 강도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로 힘차게 조직동원할수 있었던것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의 간고성과 장기성은 대중단체조직사업을 더욱 중요한 문제로 제기하였다.

항일무장투쟁은 그 어떤 국가적후방도, 정규군의 지원도 전혀없는 극히 어려운 조건에서 강도 일제를 대상하여 1~2년도 아닌 15성상에 걸쳐 진행된 간고한 투쟁이였다. 혁명적대중단체를 조직하고 그에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묶어세워 무장투쟁의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함으로써만 항일유격대를 부단히 확대강화할수 있었으며 인민대중의 적극적인 지지성원에 의거하여 강도 일제를 성과적으로 격멸소탕하고 항일무장투쟁의 확고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다.

대중단체조직사업은 또한 조국해방투쟁시기에 당창건의 준비를 튼튼히 마련하기 위하여서도 중요하게 제기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요지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혁명적군중들을 반일민족통일전선체인 각이한 명칭을 가진 대중단체들에 광범히 망라시켜 키워내는 방법으로써 장차 창건될 당의 조직적기초를 준비하여 나가야한다.…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혁명군중을 대중조직들에 굳게 결속하고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혁명실천속에서 그들을 단련하는것은 당의 조직적골간으로 될수 있는 공산주의자들을 길러내며 당창건의 사상적준비를 이룩해나감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또한 대중단체들을 조직하고 그에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대중을 묶어세우는것은 군중을 혁명화하고 당창건의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다지는데서도 절실한 문제로 나섰다. 당창건의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꾸려야만 일제의 반동공세로부터 공산주의대렬을 보위하면서 당창건을 위한 사업을 확고한 기초우에서 밀고나아갈수 있었다.

이처럼 대중단체의 조직사업은 조선혁명의 성과적수행과 특히 항일무장투쟁의 위대한 승리를 이룩함에 있어서 실로 절실한 문제였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일찌기 조선혁명의 진두에 나서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혁명발전의 이와 같은 절박한 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선행시기 우리 나라 대중운동의 형편 등을 가장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대중단체의 조직사업을 강화발전시킬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들을 제시하시고 몸소 조국해방투쟁의 전기간에 걸쳐 각종 대중단체들을 조직령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초기혁명활동시기에 진정한 맑스-레닌주의적혁명조직들인 《타도제국주의동맹》, 《새날소년동맹》, 《조선인길림소년회》, 《반제청년동맹》,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 등 혁명적인 조직들을 무으시고 그에 광범한 청소년학생들을 묶어세우시였으며 그들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을 통하여 혁명사상으로 교양하시는 한편 일제를 반대하는 실천투쟁속에서 열렬한 혁명가들로 키우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특히 조선혁명에 관한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제시하신후 혁명조직들에 대한 일제의 탄압이 더욱 강화되는 간고한 조건에서 일신의 위험을 무릅쓰시고 파괴된 대중조직들을 복구하고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군중들을 혁명화하며 반일대중단체들에 묶어세우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전개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불면불휴의 투쟁에 의하여 선진적인 청소년학생들과 광범한 혁명군중들이 여러가지 혁명조직들에 결속되여 급속히 조직화되고 혁명화되여나갔으며 이 행정에서 조선혁명의 주체적력량이 튼튼히 꾸려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초기혁명활동시기에 이룩하신 고귀한 경험에 기초하시여 항일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시는 과정에서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를 축성하며 항일유격대를 강력한 혁명적무장력으로 강화발전시키는 사업과 밀접히 결부시켜 대중단체들을 조직확대하는 눈부신 투쟁을 전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항일유격대와 혁명근거지 및 적통치구역에 당단체들을 조직확대하는 동시에 각종 대중단체들을 조직하시고 그 대렬을 부단히 확대하시였다.

그리하여 항일무장투쟁초시기에 벌써 두만강연안의 혁명근거지들을 중심으로 넓은 지역에 반일회, 반제동맹, 농민협회, 공청, 부녀회 등 혁명적대중단체들이 조직되여 활동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특히 조선인민의 첫 반일민족통일전선체인 조국광복회를 창건하신후 그 조직망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시는 행정에서 대중단체를 조직확대하는 사업을 더욱 힘차게 밀고나가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수한 정치공작원들을 국내외의 각지에 파견하시여 조국광복회조직망을 확대함과 함께 그 산하에 각종 대중단체들을 널리 조직하도록 하시였다.

이리하여 조국광복회하부조직과 대중단체들이 전국각지에는 물론 만주의 광활한 지역에 급속히 확대되였으며 거기에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청년학생, 지식인, 민족주의자, 민족자본가, 애국적인 종교인 등 각계각층의 반일군중이 굳게 결속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해방투쟁시기 대중단체들을 조직확대하시는 한편 그에 대한 통일적인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시였으며 매 시기 대중단체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방향과 방도들을 명확히 제시하여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특히 1933년에 있은 왕청공청확대회의와 왕청 제2구의 부녀회열성자회의를 비롯한 대중단체회의들에 친히 참석하시여 공청, 부녀회를 비롯한 대중단체조직들을 확대하고 그 대렬을 튼튼히 꾸리며 광범한 군중들을 혁명화하여 반일투쟁에 힘차게 조직동원할데 대한 강령적인 교시를 주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조선혁명을 조직령도하시는 그 분망하신 가운데서도 늘 대중조직들을 찾으시여 사업형편을 알아보시고 어비이심정으로 모든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혁명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정치사업을 하여야 한다》, 《부녀회사업에 대한 그이의 강령적교시》 등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들에서 우리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대중단체사업을 어떻게 지도하시였으며 일군들과 조직성원들을 어떻게 혁명에 무한히 충실한 혁명가들로 키워주시였는가를 감명깊이 보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와같이 조국해방을 위한 빛나는 혁명투쟁의 진행정에서 대중단체조직사업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고 그를 가장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였다. 이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시기에 근로단체건설의 빛나는 전통이 이룩되였다.

2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해방을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근로단체건설의 빛나는 전통에는 근로단체의 조직과 활동에서 견지하여야 할 기본원칙들과 근로단체를 어떻게 지도하며 근로단체조직들이 어떤 형식과 방법으로 대중을 혁명화하고 혁명투쟁에 조직동원하여야 하는가 등 근로단체건설에서 근본적의의를 가지는 원칙적문제들에 전면적해답을 주는 귀중한 내용이 담겨져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근로단체건설의 빛나는 전통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모든 대중조직들이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유일한 지침으로 삼는, 수령께 무한히 충실한 혁명적대중단체로 조직되고 활동한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어떠한 혁명운동에서나 거기에 참가하는 인민대중의 의식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들이 더 조직화되면 될수록 인민대중은 더욱 큰 힘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대중에게 계급의식을 불어주고 그들을 선진사상으로 깨우쳐주는것은 인민대중의 리익을 대변하는 계급의 선각자이며 대중을 혁명운동에로 조직하고 동원하는것도 계급의 령도자입니다.》

로동계급의 위대한 수령은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에서 최고뇌수이며 그 총체를 지도하는 유일한 령도자이다. 따라서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대중단체들이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에 의해 지도되며 그의 령도에 충실하지 않는다면 자기의 역할을 옳게 수행할수 없게 된다.

오직 근로단체들이 위대한 수령의 혁명사상과 그이의 령도에 충실함으로써만 자기의 사명을 다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커다란 역할을 수행할수 있다.

우리 나라 대중운동의 력사적경험은 이것을 잘보여주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1920년대에 들어와서 로동운동과 농민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이 벌어짐에 따라 여러가지 대중조직들이 나왔으나 그것들은 모두다 위대한 수령의 령도를 받지 못하고 탁월한 수령의 혁명사상에

의하여 지도되지 못했기때문에 우여곡절을 면치 못하였으며 결국 일제의 탄압과 종파분자들의 죄악적책동으로 인하여 파괴되고말았다.

우리 나라에서는 오직 민족의 위대한 태양 김일성동지를 혁명의 수령으로 모시게 된 때로부터 비로소 진정한 혁명적인 대중단체들이 조직되고 강화발전될수 있었다.

오늘 우리 나라 근로단체들의 력사적뿌리로 되는 혁명적인 대중조직들은 그 모두가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령도밑에 조직되고 강화발전되였으며 그이의 혁명사상을 유일한 지침으로 자기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 혁명적인 대중단체들은 조직내에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유일사상이 꽉 들어차게 하는것을 자기의 첫째가는 과업으로 삼았으며 그 모든 활동은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으로 일관되였다.

혁명적대중단체조직들과 그 성원들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그이를 목숨으로 보위하며 그이께서 제시하신 혁명로선과 방침을 옹호관철하는데서 결사대, 근위대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모든 사실은 대중단체들이 오직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유일한 지침으로 삼고 수령께 무한히 충직할 때에만 당의 인전대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다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대중단체건설의 빛나는 전통은 또한 대중단체들이 혁명투쟁에 나설수 있는 모든 군중을 최대한으로 묶어세운 조직으로 확대발전한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해방투쟁시기 대중단체는 광범한 반일군중을 망라하는 혁명적대중조직으로 되여야 한다는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시고 그를 실천과정에서 빛나게 실현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요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가 일본놈들을 때려부시고 나라의 독립을 찾자면 우선 나라를 사랑하는 군중들을 묶어세워야 한다. …앞으로 청년들은 청년조직에, 소년들은 소년조직에, 부녀자들은 부녀조직에 다 망라되여 일제와 계급적원쑤들을 반대하여 더 견결히 싸워야 한다. …

김일성동지의 이 가르치심은 우리 혁명의 성격과 임무를 가장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한것으로서 대중단체가 바로 어떤 조직으로 되여야 하는가를 명백히 밝힌 대중단체건설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이다.

대중단체는 광범한 군중을 망라한 혁명적조직으로 되여야만 당의 인전대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옳게 수행할수 있다.

더우기 일제를 반대하여 투쟁에 나설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수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 주체적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려야 하였던 당시의 조건에서 대중단체에 보다 광범한 군중을 망라하는 것은 더욱 절실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시 조성된 정세와 계급관계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시여 대중단체를 여러가지 방법과 다양한 형태로 조직하고 확대하시였다.

혁명적군중들은 계급, 계층과 성별, 년령 그리고 직업 등이 서로 다르며 그들의 의식수준도 서로 같지 않다. 이것은 대중단체를 여러가지 형식과 다양한 형태로 조직할것을 요구하며 특히 일제의 탄압이 강화되는 당시의 환경에서 이 요구는 더욱 절실하게 나섰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선 계급, 계층별에 따르는 조직을 내오고 거기에 해당한 계급, 계층에 속한 군중들을 결속하도록 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로동자, 농민들과 부녀자들을 비롯한 반일대중을 묶어세우기 위하여 대중단체의 조직형태를 다양하게 규정하시는 한편 대중운동에 대한 일제의 탄압이 강화되는 조건하에서 그에 맞게 합법적조직과 비합법적조직을 옳게 결합하여 광범한 군중을 조직적으로 결속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대중단체를 여러가지 방법과 다양한 형태로 조직하시였을뿐아니라 대중단체조직사업에서 좌경관문주의와 우경적편향을 철저히 경계함으로써 대중단체들을 광범한 군중을 망라하는 혁명적조직으로 강화발전시키시면서도 그 순결성을 확고히 보장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민족주의자들의 영향하에 있던 《조선인며길학우회》를 《조선인류길학우회》로 개칭하시여 혁명적인 대중조직으로 강화발전시켰을뿐만아니라 《며신청년회》등에 몸소 키우신 청년공산주의자들을 파견하시여 그 조직을 혁명적조직으로 발전시키시였으며 광범한 군중을 혁명의 편에 확고히 전취할수 있게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근로단체건설의 빛나는 전통에서 또한 중요한것은 대중단체내에 핵심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하나가 열, 열이 백을 움직여 대중단체의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도록 한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근로단체들의 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핵심대렬을 튼튼히 꾸리는것입니다.…

핵심을 먼저 꾸려야 모든 일이 다 잘되여나갈수 있습니다.》

혁명적대중단체건설에서 핵심대렬을 튼튼히 꾸릴데 대한 사상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처음으로 제시하신 주체적이며 독창적인 혁명사상이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핵심대렬을 튼튼히 꾸려야만 대중단체들을 확대강화하고 광범한 군중을 혁명화하여 수령의 두리에 묶어세우기 위한 사업도 그리고 그들을 수령께서 제시하신 혁명로선과 방침의 실현에로 조직동원하기 위한 사업도 다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해방을 위한 빛나는 혁명투쟁의 전기간에 우선 핵심들을 키워내시고 그들에 의거하시여 대중단체들을 조직확대하며 대중조직들의 활동을 통하여 핵심대렬을 부단히 늘여나감으로써 이 조직들을 더욱 강화발전시키는 확고한 원칙을 견지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핵심대렬을 튼튼히 꾸리기 위하여 무엇보다도먼저 계급적립장이 확고하고 혁명을 위하여 끝까지 투쟁할수 있는 사람들을 핵심으로 료해장악하시고 그들을 조선혁명의 주체적로선과 전략전술로 튼튼히 무장시키시였다.

그이께서는 또한 일제를 반대하는 각종 군중투쟁을 비롯하여 항일유격대의 원호사업, 대중정치사업 등 실천투쟁을 통하여 조직성원들을 단련시킴으로써 핵심대렬을 끊임없이 확대강화하도록 하시였다.

이와 같이 핵심대렬이 튼튼히 꾸려짐으로써 대중단체는 광범한 군중을 망라한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대중조직으로 강화발전되였으며 자기앞에 부과된 혁명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되였다.

이것은 광범한 군중을 망라한 대중단체들이 진실로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조직으로 되게 하자면 무엇보다도 먼저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핵심들을 키우고 그들의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조국해방을 위한 빛나는 혁명투쟁시기에 대중단체들은 반드시 광범한 군중에 대한 사상교양단체로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시고 대중단체들을 통하여 대중을 혁명화하는 귀중한 경험을 창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소지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일제를 반대하여 투쟁하자면 대중을 혁명적으로 각성시키고 그들을 조직에 튼튼히 결속시켜 단결된 힘으로 원쑤와 싸워야 합니다.

대중의 혁명화—여기에 혁명의 승패가 달려있습니다.…

광범한 인민대중을 혁명화하여 수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는것은 혁명승리의 기본담보이며 이는 대중조직들의 기본사명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투쟁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광범한 인민대중을 묶어세운 혁명적인 대중단체들을 조직확대하시였을뿐아니라 대중단체들이 자기 사명에 맞게 군중을 교양하여 그들을 열렬한 혁명가로 육성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당시의 조성된 정세와 대중의 계급적처지, 사상의식정도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대중을 혁명화하는 방도, 형식과 방법 등을 창조적으로 해결하시였으며 몸소 그 위대한 모범을 창조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선 사상교양사업을 대중혁명화의 기본방도로 규정하시고 대중조직들의 특성에 맞는 사상교양사업의 형식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소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들의 선전선동이 주로 어떻게 진행되여야 할것인가?…우선 그들의 절박한 문제를 미리 옳게 파악하고 그 문제 해결의 구체적 방책을 강구하여주며 좌담회, 연극, 혁명가요, 강연, 체육회, 문맹퇴치사업, 선전포스타, 격문 등 각종 형식으로써 그들의 비위에 알맞게 선전선동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몸소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들속에 들어가시여 그들의 특성에 맞게 군중교양사업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조직진행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독서발표회, 강연회, 좌담회, 웅변대회, 연극공연, 혁명가요보급, 담화 등 여러가지 방법을 통하여 청소년학생들과 광범한 군중들을 혁명사상으로 교양하시였으며 손수 혁명가요를 지으시고 몸소 연극대본을 쓰시여 연예공연을 조직지도하시는데까지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과 그이께서 보여주신 실천적모범을 따라 대중단체들은 다양한 형식과 방법을 통하여 군중들을 수령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켰으며 그들의 계급의식과 사회주의적애국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켰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대중을 혁명화함에 있어서 또한 조직생활을 강화하는데 깊은 주의를 돌리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소지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부녀회원들과 녀성들을 혁명화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녀성들속에서 조직생활을 잘하도록 하고 조직과 집단을 사랑하도록 하여야 한다.…

혁명적조직생활은 사람들을 단련하고 혁명가로 키우는 용광로이며 학교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초기혁명활동시기부터 대중단체성원들속에서 조직규률을 지키도록 일상적인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며 그들에게 항상 분공을 주어 실천

무쟁속에서 단련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그이께서는 몸소 대중조직에서 일하는 일군들을 늘 만나시여 조직성원들의 조직생활을 어떻게 지도하고있는가를 알아도 보시고 조직생활에 대한 지도방법을 하나하나 세심히 배워주시였을뿐만아니라 친히 개별적조직성원들을 만나시여 활동정형을 료해하시고 조직생활을 잘하도록 교양하시였으며 분공을 주시고 그 수행정형을 지도하여주시기까지 하시였다.

대중단체들은 조직생활을 강화하여 모든 성원들을 혁명가로 키울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과 특히 그이께서 보여주신 위대한 실천적모범을 따라 조직성원들의 조직생활에 대한 지도를 더욱 강화하였다.

공청, 부녀회, 농민협회, 반제동맹 등의 조직성원들은 조직생활과정에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자신을 튼튼히 무장하였으며 비판과 자기비판을 통하여 조직성과 규률성, 집단주의정신을 배양하고 혁명을 위하여 자기의 진생애를 바칠 굳은 각오를 다지게 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대중단체성원들을 일제를 반대하는 혁명실천활동에 적극 인입하고 그 과정을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신도 혁명에 참가한 한 성원이라는 높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도록 하였으며 모든 조직성원들을 백전불굴의 혁명투사들로 키워나가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대중단체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을 대중단체건설의 중요한 원칙으로 밝히시고 대중단체들에 대한 당적지도를 실현하는데서 고귀한 경험을 창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당조직들에서는 마땅히 외곽단체들인 직맹, 농근맹, 사로청, 녀맹과 같은 근로단체조직들을 통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비당원군중속에 침투시키고 이 조직들을 움직여서 당의 로선과 정책을 집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당사업의 기본원칙의 하나이며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입니다.》

로동계급의 수령의 령도밑에 대중단체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은 당과 인전대와의 호상관계로부터 제기되는 필수적요구이다. 위대한 수령에 의하여 령도되는 당의 지도를 강화함으로써만 대중단체들을 공고발전시키고 그 역할을 높일수 있으며 또한 대중단체들이 당의 령도에 충실하여야만 혁명적 대중조직으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다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초기혁명활동과 항일무장투쟁의 진행정에 대중단체지도사업에서 언제나 당조직들과 공산주의자들의 지도적역할을 보장하는 원칙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초기혁명활동시기에는 공산주의자들의 비밀혁명소조와 《조선공산주의 청년동맹》을 통하여, 항일무장투쟁시기에는 대중단체들이 활동하는 곳에 당조직들을 내오시고 그들을 통하여 대중단체들에 대한 유일적지도를 실현하심으로써 대중단체들에 대한 당적지도를 보장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대중단체들에 대한 당적지도방법을 개선하는데 특별한 주의를 돌리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그전에 우리가 지하투쟁을 할 때에는 당조직들은 비밀리에 사업하면서 직접 나서지 않고 모든 군중사업은 다 사회단체들을 통하여 하여나갔습니다.》

대중단체들에 대한 당적지도방법을 개

선하는것은 대중단체들의 전투력과 그의 자립성을 더욱 높이고 모든 사업을 자체의 힘으로 수행하도록 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해방투쟁의 전기간에 대중단체들을 통하여 군중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여나가도록 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조직들로 하여금 대중단체의 자립성을 약화시키는 온갖 현상들을 철저히 경계하고 대중단체들을 튼튼히 꾸리며 그에 사업방향을 명백히 제시한 다음에는 그들이 자체의 힘으로 사업을 전개하여나가도록 하시였다.

이리하여 대중단체들은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그이께서 제시하신 로선과 방침에 따라 자기의 사업들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조국해방투쟁시기에 이룩하신 대중단체건설의 이 모든 업적과 경험은 해방후 근로단체들을 조직하고 그를 강화발전시킴에 있어서 더없이 귀중한 밑천으로 되였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초기혁명활동과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대중단체들을 조직령도하시는 행정에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과 고귀한 경험에 기초하시여 해방후 직업동맹, 농민동맹, 민주청년동맹, 민주녀성동맹 등 근로단체들을 창건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혁명발전의 매 시기마다 대중단체건설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키시여 근로단체들의 조직형태와 임무, 그에 대한 령도문제 등을 독창적으로 해결하시고 근로단체들을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근로단체들은 혁명발전의 매 시기마다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에서의 당의 외곽단체로서, 당과 대중을 련결하는 인전대로서, 광범한 군중에 대한 사상교양단체로서, 당정책의 적극적인 집행자로서 모든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을 수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당을 끊임없이 확대강화하고 당앞에 나선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혁명실천에서 실로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였다.

오늘 우리앞에 나선 혁명임무와 조성된 정세는 근로단체들을 더욱 튼튼히 꾸리고 그의 역할을 끊임없이 높일것을 요구하고있다.

근로단체조직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강령적교시에 철저히 의거하여 자기의 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 자립성을 높이며 근로단체들의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끊임없이 완성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근로단체조직들은 전체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을 당의 유일사상체계로 무장시키고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수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수령께서 제시하신 당의 로선, 정책 관철에로 적극 조직동원하는 자기의 기본사명을 빛나게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근로단체건설의 빛나는 전통을 심오히 연구하고 그것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은 근로단체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게 하며 전체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을 수령께 무한히 충실한 혁명전사로 준비시키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농촌에서의 사상혁명과 농민혁명화

권 진 상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후의 천재적로작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사회주의하에서 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위한 길을 처음으로 명확히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농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려 모든 농민들을 혁명화하며 그들을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농민을 혁명화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사상은 로동계급과 농민사이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고 농민문제를 가장 정확히 해결할수 있는 길을 명시하신것으로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새롭게 발전시킨 탁월한 모범으로 되며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사회주의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반드시 틀어쥐고 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농촌에서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려 농민들을 혁명화할데 대한 수령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촉진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 *

농촌에서의 사상혁명은 로동계급에 비한 농민의 사상적락후성을 없애고 모든 농업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함으로써 농민문제를 해결하고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기 위한 중요한 혁명과업이다.

로동계급에 비한 농민의 사상적락후성은 농민들의 과거생활처지와 관련되여있다. 농민은 수세기동안 락후한 로동도구와 자그마한 땅뙈기를 가지고 소농경리에 얽매여 분산된 마을에서 제각기 일하며 살아왔다. 이리하여 그들은 로동계급과 같이 집단생활과 조직적인 투쟁속에서 단련될수 없었다. 뿐만아니라 자본주의사회에서 농촌은 홀시되고 주로 착취의 대상으로 되여왔다. 지난시기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나라에 대한 제놈들의 식민지통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농민들속에 선진사상이 침투되고 그들이 계급적으로 각성되는것을 극력 억제하였었다.

이러한 사정은 농민들의 머리속에 리기주의, 소소유자적근성, 동요성과 보수주의 등 낡은 사상잔재가 많이 남아있게 하였으며, 이로 말미암아 그들은 선진적인 로동계급에 비한 사상적락후성을 면할수 없었다.

물론 우리 나라 농민들은 혁명과 건설을 위한 실천투쟁속에서, 특히는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 그리고 사회주의건설의 벅찬 투쟁속에서 단련되였으며 또한 사회경제적변혁을 통하여 그들의 사상의식에서는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우리 농민들의 사상의식은 선진적인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에 비하여 뒤떨어지고있으며 과거 사회로부터 물려받은 사상적락후성에서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고 생활이 높아진다고 하여 농민들의 사상의식이 저절로 개조되는것이 아니다. 물론 사회주의제도의 승리는 낡은 사상을 낳는 경제적기초를 청산하며 농민들을 새로운 사상으로 무장시킬수 있는 사회적, 물질적 조건을 지어준다. 그러나 사회주의하에서도 농민들의 의식속에는 낡은 사상 잔재, 특히 소소유자적근성이 오래동안 남아있게 되며 사상사업이 약화될 때에는 그것이 되살아날수도 있고 더욱 조장될수도 있는것이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36페지)

농촌경리의 협동화가 완성된 이후에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농민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은 혁명발전의 객

판적요구이다. 낡은 사상과 낡은 습성은 매우 보수적이며 사회생활의 물질적조건이 변하여도 그것들은 오래동안 남아있으면서 한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퍼지며 계승된다. 그리하여 농민들의 낡은 사상잔재는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여 그들의 사회경제적처지가 변한 이후에도 오래동안 남아있게 된다. 농민들이 가지고있는 낡은 사상잔재는 매우 집요한것이며 그것은 혁명화를 위한 사상사업이 약화될 때에는 되살아날수 있고 더욱 조장될수도 있다.

농민들을 혁명화하기 위한 사업은 또한 그 자체가 사상령역에서의 자본주의를 완전히 극복하는 심각한 변혁과정으로서 그것은 농민들속에서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릴것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사상혁명은 협동화가 완성된후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농민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계속혁명의 중요한 과업으로 제기된다.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농촌에서 사상혁명을 적극 추진시켜 농민을 혁명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만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고 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위한 전반적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사회주의적협동화가 완성된 다음 농촌에서 사상혁명을 계속혁명의 과업으로 제시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강령적교시는 모든 농민들을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가장 훌륭히 개조할수 있는 길을 명백히 밝혀준 위대한 사상이다. 그것은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고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며 나아가서 전반적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추진함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가는 길에서 반드시 점령하여야 할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한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워 농민들을 혁명화하는 것은 농촌에 세워진 사회주의제도를 원쑤들의 온갖 침해로부터 견결히 수호하고 그것을 더욱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과업으로 된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민들의 계급적각성을 높이고 그들속에서 사상투쟁을 강화하지 않고는 농촌에서 사회주의제도를 공고히 할수 없으며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이 제도를 지켜낼수도 없다.》
(우와 같은 책, 35～36페지)

농촌에서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려 농민들의 의식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뿌리빼고 그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은 농촌에서 온갖 적대적요소들이 발붙이고 준동할수 있는 지반을 없애며 사회주의전취물을 믿음직하게 보위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밖으로부터 침습하여들어오는 적대적요소와 전복된 착취계급잔여분자들이 농민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리용하여 농촌에 발을 붙이고 각종 파괴암해책동을 감행할수 있다. 특히 우리 조국 남반부를 강점한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놈들은 새 전쟁도발에 미쳐날뛰는 한편 북반부에 세워진 사회주의제도를 파괴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고있다.

이러한 사정은 무엇보다도 농촌에서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려 농민들의 혁명화를 더욱 다그칠것을 요구한다. 만일 농민들을 혁명화하지 않고 농촌의 혁명진지를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지 않는다면 승리한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를 지켜낼수 없으며 그것을 더욱 공고발전시킬수도 없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상혁명을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워 농민을 혁명화하는것은 농촌에 수립된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켜 사회주의농촌문제해결의 전반적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라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의 우월성, 사회주의의 생활력은 무엇보다도 이 제도하에서는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이 공동의 목적과 리익을 위하여 서로 굳게 단결하며 동지적으로 긴밀히 협조하며 자각적으로 열성을 내여 일한다는데 있다. 농민들의 사상의식수준을 높이지 않고는 농촌에서 사회주의의 이 본질적우월성을 나타낼수 없으며 따라서 농업생산과 기술, 농촌문화도 빨리 발전시킬수 없다.》

(우와 같은 책, 36페지)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농촌에 세워진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며 이에 기초하여 협동경리제도를 부단히 발전시키고 더욱더 완성시켜 나가야 한다.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의 우월성은 농민들속에서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그들의 애국적헌신성과 자각적열성을 불러일으켜야만 높이 발양될수 있다. 농촌에서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농민들을 혁명화하면 할수록 그들은 협동경리제도를 부단히 발전시키고 그것을 더욱더 완성시키기 위하여 자기의 온갖 재능과 정력을 다바쳐 일하게 된다.

물론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는 농민들로 하여금 서로 긴밀히 협조하고 단결하며 자각적열성과 창조적적극성을 내여 일할수 있는 사회경제적조건을 지어준다. 그러나 이것은 농민들의 혁명적열의가 저절로 발휘될수 있다는것을 결코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직 농촌에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농촌건설의 주인인 농민대중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고 그들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튼튼히 결속시키며 그들의 애국적헌신성을 높이 불러일으킴으로써만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이 남김없이 발양될수 있다.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워 농민들을 혁명화하는것은 사회주의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위한 계속혁명의 다른 중심과업인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다같이 잘 수행할수 있는 중요한 요구로 된다.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농민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불러일으켜야 그들은 현대적농업과학과 기술을 성과적으로 도입하여 농업생산을 끊임없이 발전시킬수 있으며 농촌의 문화적락후성을 하루빨리 극복하고 우리의 농촌을 살기좋고 아름다운 사회주의문화농촌으로 전변시킬수 있다.

또한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려 농민들의 혁명화를 촉진하는것은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보내주는 현대적농기계들과 비료, 농약을 비롯한 모든 재부들을 농촌경리발전을 위하여 책임적으로 리용하며 생산조직과 경제관리사업을 끊임없이 개선하여 협동경리의 모든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릴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이와 같이 농촌에서 사상혁명을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워 농민들을 혁명화하는것은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 농촌건설에 나서는 전반적과업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하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기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지난 시기 농촌사상혁명수행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그이께서는 혁명발전의 매 단계마다에서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려 농민들을 혁명화하기 위한 방향을 명백히 제시하시고 농업근로자들속에서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과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잘할수 있는 모든 구체적인 방도들을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농촌사상혁명의 과업을 추진시키는 과정에서 지난 기간 우리의 농업근로자들은 당의 유일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자신의 혁명화를 촉진함으로써 수령의 두리에 굳게 단결하여 사회주의농촌건설을 힘있게 추진시켜왔다.

우리의 농민들속에서는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공동로동에 헌신적으로 참가하며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살며 일하는 공산주의적집단주의정신이 높이 발양되고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농업근로자들은 로동계급의 믿음직한 동맹자로서 수령께서 가리키시는 혁명의 길을 따라 모든것을 다바쳐 싸워나가는 우리 혁명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되고있다.

우리는 농민혁명화를 위한 투쟁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들에 기초하여 농민들속에서의 사상교양사업을 계속 힘있게 벌림으로써 모든 농민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시키며 그들을 로동계급화, 혁명화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그들은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근로자로서의 책임감을 더욱 깊이 간직하고 그 어떤 어려운 조건하에서도 당의 농업정책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혁명적으로 투쟁할수 있다. 농민들이 이와 같이 혁명적으로 투쟁할 때 7개년계획의 알곡고지를 성과적으로 점령하고 나라의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더욱 촉진할수 있으며 우리 인민들의 생활을 보다 향상시킬수 있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상혁명을 힘있게 추진시켜 농민들을 혁명화하기 위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과 수행방도를 명확히 밝혀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농민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그들속에서 당정책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상혁명을 진행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근로자들을 조선로동당의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입니다.》 (우와 같은 책, 549페지)

우리 당의 유일사상,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은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가장 정확한 맑스-레닌주의지도사상이며,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의 구현인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에는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와 더불어 농촌문제해결을 위한 가장 명확한 방향과 방도가 주어져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할 때 농민들은 언제 어디서나 수령의 사상의지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어떤 사나운 풍파속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일편단심 수령께 무한히 충실한 붉은 농업전사로 될수 있으며 수령께서 가리키시는 혁명의 길을 따라 끝까지 싸워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농민들속에서 수령의 로작과 특히 농업부문에 주신 교시, 현지교시를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학습하게 하며 그들이 그것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어 끝까지 관철하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확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농민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무장시키며 그들을 로동계급의 사상으로 개조하기 위하여서는 농민들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줄기차게 진행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전통교양을 심도있게 하는것은 사람들을 혁명화하고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데서 가장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에는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탁월한 전략전술과 고매한 덕성, 강의한 의지와 혁명적인민성,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 등이 구현되여있다.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은 농민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데서 매우 귀중한 량식으로 된다. 농민들속에서 혁명전통학습을 더욱 강화하여야 그들은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높은 덕성을 깊이 체득

할수 있으며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시기 항일유격대원들의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을 따라 배워 그들처럼 수령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바쳐 투쟁할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농민들속에서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실》을 거점으로 혁명전통학습을 강화하며 그들로 하여금 일상적으로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를 비롯한 혁명전통교양자료들을 심오히 학습하고 그것을 사업과 생활에 훌륭히 구현하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농민들을 혁명화하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과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민들을 제국주의와 지주, 자본가 계급을 미워하는 사상으로 무장시키며 착취제도를 반대하고 사회주의제도를 옹호하며 발전시키기 위하여 투쟁하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농민들을 로동계급의 견결한 혁명정신으로, 자기의 향토와 사회주의조국을 사랑하는 열렬한 애국주의정신으로,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한다.》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2페지)

농민들속에서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을 강화하여야만 그들을 확고한 계급적관점과 혁명적세계관, 공산주의도덕을 소유한 혁명가로 키울수 있다. 농민들속에서 계급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의 계급의식을 높여야 그들이 제국주의 특히 미제국주의와 일본군국주의, 박정희괴뢰도당과 세계반동을 극도로 증오하고 그것을 반대하여 견결히 싸워나갈수 있다.

농민들속에서 온갖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키우는 동시에 그들을 사회주의의 전취물인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과 사회주의제도, 사회주의건설물이 있는 사회주의조국을 무한히 사랑하는 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한다.

농민들을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으로 교양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우리나라에서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을 창건하시고 사회주의제도와 사회주의조국을 마련하여주신 혁명의 탁월한 령도자이신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모시고 이 땅에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한다는 높은 긍지와 혁명적자부심을 깊이 간직하도록 하는것이다. 이러한 긍지와 자부심이 높아야만 그들은 수령께서 마련하여주신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를 사랑하고 이 제도의 륭성발전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바쳐 투쟁할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농민들을 집단주의정신으로 교양하는것이 그들을 혁명화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라고 가르치시였다.

농민들속에 오랜 기간에 걸쳐 대대손손 계승되어온 개인리기주의와 소소유자적근성은 집단주의교양을 강화하는 조건에서만 성과적으로 뿌리뽑을수 있다.

오직 농민들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뿌리빼고 그들을 공산주의적집단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킴으로써만 집단주의적원칙에 기초한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고 그것을 더욱 공고발전시켜 전인민적소유에로 부단히 접근시키는 과정을 성과적으로 추진시켜나갈수 있다. 우리는 농촌실정에 맞게 농민들속에서 집단주의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을 개인의 리익보다 집단의 리익을 더 귀중히 여기며 협동경리의 발전을 위하여, 사회와 국가를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는 열렬한 혁명가로 육성해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농민들에 대한 집단주의교양에서 중요한것은 그들속에 로동을 사랑하는 정신을 배양하는것이다. 사회와 집단을 위한 로동을 즐기고 가장 영예로운 일로 여기도록 교양하는것은 농민들로 하여금 공산주의자의 품성을 소유하게 하는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더우기 농업로동이 공업로동과는 달리 생물체를 다루며 로동의 결과가 즉시에 나타나지않는 특성과 관련하여 농민들

속에서 공동로동에 대한 책임성과 자각성을 높이기 위한 교양사업은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된다. 공동로동에 대한 농민들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우선 사회와 집단을 위한 로동이 자기자신을 위한 로동이며 집단의 리익가운데 자기의 몫도 있고 모든 사람이 잘 살아야 자신도 잘살수 있다는것을 똑똑히 인식시켜야 한다. 이리하여 모든 농민들로 하여금 집단경리의 공고발전을 위하여 농장의 모든 일에 자각적으로 성실하게 참가하도록 하며 농사일을 《청산리사람들의 일솜씨》로 더욱 깐지게 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농민들을 미래를 사랑하는 정신으로, 혁명적락관주의로 교양하는것이 또한 농민들을 혁명화하는데서 중요하다고 강조하시였다. 농민들을 미래를 사랑하는 정신으로, 혁명적락관주의로 교양하는것은 농촌의 락후성을 하루빨리 없애고 계속전진, 계속혁신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원대한 구상을 훌륭히 실현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농민들속에서 미래에 대한 열렬한 사랑, 혁명적락관주의로 교양하는것은 그들이 온갖 난관과 시련을 박차고 우리의 농촌을 참말로 살기좋은 지상락원으로 전변시키며 보다 훌륭한 사회주의농촌을 후대들에게 넘겨주기 위하여 몸바쳐 싸워나갈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구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농민들을 혁명화하기 위한 공산주의교양은 반드시 당정책교양 및 혁명전통교양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농민들속에서 공산주의교양을 이러한 원칙에서 진행하는것은 그들을 당의 유일사상,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들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혁명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해나갈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농민을 혁명화하기 위한 사상혁명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을뿐만아니라 그것을 가장 훌륭히 수행할수 있는 구체적방도에 대해서도 명확히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긍정적모범을 보급하며 사람들을 성의껏 도와주고 꾸준하게 설복하여 감화시키는 방법으로 농민들을 새로운 인간으로 교양하고 개조하여야 한다.》(우와 같은 책, 53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긍정적모범으로 감화시키는것은 농민들을 로동계급화, 혁명화하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로 된다. 착취와 압박이 없고 사회악을 낳는 온갖 근원이 영원히 청산된 사회주의하에서는 사람들사이에 서로 돕고 이끄는 긍정적모범이 온 사회를 지배하게 된다. 이 제도하에서 사람들은 아름답고 착한것으로 지향하며 긍정적모범이 사회에서 광명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사회주의적협동경리로 전환된 우리의 농촌에서는 모든 농민들이 사회주의적근로자로서 사회와 집단의 번영을 위하여, 자기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서로 돕고 이끌면서 일하고있으며 이 과정에 새로운 긍정적모범들이 끊임없이 창조되고있다. 이러한 긍정적모범들을 적극 찾아내여 일반화하는것은 농민들의 사상개조과정을 촉진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우리는 농민들속에서 수령의 교시와 당의 농업정책을 어약하게 관철하며 협동농장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는것을 비롯하여 농장의 모든 사업에서 발현되는 긍정적모범들을 적극 찾아내고 그것을 널리 일반화하여 그들자신이 나쁜점을 스스로 고치도록 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근로자들에 대한 공산주의교양은 주로 그들의 실천활동, 집단로동을 통하여, 생산현장을 거점으로 하여 진행하여야 한다.》(우와 같은 책, 53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농촌에서의 사상사업은 생산현장을 거점으로, 주로 농민들이 일하며 생활하는 분조와 작업반을 단위로 하여 진행할 때 농민혁명화를 심속

있게 추진시켜 나갈수 있다. 분조와 작업반을 거점으로 하여 사상사업을 진행하여야 농민들의 특성과 수준에 가장 적합한 교양대책을 세울수 있고 집단의 힘으로 락후한 현상을 성과적으로 극복할수 있으며 사상개조과정을 생산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추진시킬수 있다.

농촌에서 천리마작업반운동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생산현장을 거점으로 사상교양사업을 진행하며 인간개조와 생산발전을 다같이 훌륭히 촉진시키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우리는 농촌에서 천리마작업반운동을 계속 심화발전시키며 사람과의 사업, 설비, 자재와의 사업, 책과의 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농업생산을 끊임없이 앙양시키는 동시에 모든 농업근로자들을 훌륭히 교양개조하여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실한 혁명가로, 붉은 농업전사로 키워내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농민을 혁명화하는데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서는 사상사업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사상교양사업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는것은 광범한 군중의 요구와 수준에 맞게,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된다. 특히 계절에 따라 작업의 성격이 다르며 농민들이 분산되어 일하는 농촌의 특수한 조건은 사상사업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기동성있게 진행할것을 더욱 절실하게 요구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대로 우리는 농촌의 실정에 맞게 강연사업과 해설담화, 학습회를 진행하며 책을 읽히우는 방법, 여러가지 발표모임과 연극을 만들어 출연하게 하는 방법, 노래를 보급하는 방법 등을 옳게 배합하여 사상사업을 조직진행함으로써 농민들로 하여금 수령의 교시와 당정책을 체계적으로 더욱 깊이있게 그리고 신속정확히 알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농촌에서 신문, 잡지, 도서, 방송, 텔레비존 등의 리용률을 높여 그것들이 농민들의 혁명화에 훌륭히 이바지하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농촌사상혁명을 강력히 추진시키기 위하여서는 농촌당조직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한다. 농촌사상혁명의 성과적수행은 결국 농촌의 당조직들이 사상혁명의 과업을 어떻게 목적지향성있게 굳고나가는가 하는데 의존된다. 농촌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에 제1차적인 관심을 돌리고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과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농촌의 실정에 맞게 부단히 심화시킴으로써 농업근로자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당조직들은 근로단체 특히 농근맹조직들의 역할을 높여 이 조직들로 하여금 사상혁명의 과업을 본신사업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동맹원들속에서 혁명화를 위한 사업을 보다 강화하며 모든 군중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묶어세우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농촌사상혁명의 과업을 계속 철저히 관철해나감으로써 농민혁명화를 더욱 다그치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제시된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전반적과업들을 더욱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야 할것이다.

정치사업을 앞세우는것은 우리 당의 가장 위력한 사업방법

박 만 주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앞세우는것은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시고 몸소 실천적모범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보여주신 우리 당의 가장 힘있는 사업방법이다.

정치사업을 앞세우는것은 우리 당의 혁명적인 군중로선을 철저히 구현한 공산주의적인 사업방법이며 청산리방법과 대안의 사업체계의 근본요구의 하나이다.

우리 당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이 힘있는 사업방법을 확고히 틀어쥐고나감으로써 전당과 인민을 수령의 두리에 철석같이 묶어세우고 대중의 무궁무진한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지혜를 적극 발양시켜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전진을 이룩할수 있었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이룩한 우리 당과 인민의 자랑찬 승리,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한 우리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 온 나라가 어버이수령에 대한 다함없는 충성심에 넘쳐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천리마속도 《강선속도》로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는 오늘의 장엄한 현실, 이것은 그대로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우리 당의 힘있는 사업방법의 빛나는 승리로 되며 그 불패의 생활력에 대한 뚜렷한 과시로 된다.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우리 당 사업방법의 혁명적본질과 그 의의를 깊이 인식하고 그것을 모든 사업에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우리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1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우리 당 사업방법이 공산주의자들의 본성과 사회주의제도의 본질로부터 흘러나오는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사업방법이라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산주의자들은 언제나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여,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투쟁하는것이며 그러자면 광범한 인민대중을 각성시키고 동원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의 본질적우월성의 하나는 이 제도에서는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이 나라와 사회를 위하여, 자기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자각적인 열성과 창발성을 내여 일한다는데 있다.

그렇기때문에 대중속에서 정치사업을 잘하여 그들로 하여금 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 자각적으로 동원되도록 하는것은 공산주의자들의 본성,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에서 흘러나오는 힘있는 사업방법이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226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공산주의자들은 인민대중을 온갖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하고 그들에게 자유롭고 문명하며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투쟁하는 선진투사들이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자들은 착취계급의 반동정권을 때려부시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것을 자기의 숭고한 사명으로 내세운다.

그런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력사적위업은 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인 동시에 인민대중자신의 사업이다. 그것은 결코 몇몇 공산주의자들의 힘만으로는 성취될수 없으며 오직 전체 근로대중이 자각적으로 동원될 때 가장 빨리, 그리고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이로부터 공산주의자들은 대중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자기자신의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수행하는데 온갖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다 발휘하도록 그들을 끊임없이 설복하고 깨우

쳐주는것을 대중지도의 근본원칙으로 삼게 된다.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우리 당 사업방법은 바로 공산주의자들의 본성과 사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대중지도의 이 근본원칙을 확고히 구현한것이다.

정치사업을 앞세우는것은 또한 사회주의제도의 본질로부터 흘러나오는 사업방법이다.

생산수단이 사회적소유로 되어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근로자들사이, 지도하는 사람과 지도받는 사람들사이에 사회경제적처지의 공통성, 목적과 리해관계의 공통성으로 하여 동지적으로 결합되고 서로 긴밀히 협조하는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며 그들은 다같이 조국의 번영과 전체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자각적열성을 내여 일하게 된다. 명령과 호령, 돈과 채찍에 의하여 사람을 움직이는 자본주의사회와는 근본적으로 달리 사회주의제도하에서는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여 그들을 혁명과업수행에로 조직동원하는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사업방법이 대중지도의 기본방법으로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정치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사업방법이외에 대중을 동원하는 그 어떤 다른 방법이란 있을수 없다. 이 사회에서는 오직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에 의해서만 대중을 동원할수 있으며 이 사업을 확고히 앞세워야만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높이 발양시킬수 있고 로동계급의 최고숙망인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이처럼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우리 당 사업방법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질로부터 흘러나오는 근본요구를 구현한 사업방법인 동시에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높이 발양시킬수 있게 하는 사업방법이다.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우리 당 사업방법은 혁명적군중로선을 확고한 초석으로 삼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한것으로 하여 가장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사업방법으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적사업방법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군중의 힘에 의거하는 방법입니다.》(《김일성선집》, 제6권, 516페지)

《대중에 의거하며 광범한 대중을 발동시키는 방법은 혁명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이며 혁명과 건설에서 모든 잠재력과 가능성을 남김없이 동원할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225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혁명적사업방법의 근본요구는 군중의 힘에 의거하고 군중을 발동하여 혁명과업을 수행하는것이다.

력사의 창조자인 인민대중의 힘은 실로 무궁무진하다. 그들이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깊이 깨닫고 그 수행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할 때 자연과 사회를 변혁하고 인간을 개조하는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들이 전면적으로, 원만히 풀려나갈수 있다. 몇몇사람의 소총명에 의거하는 수공업적방법으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한걸음도 전진시킬수 없다. 이것은 혁명적군중로선을 철저히 구현한 사업방법만이 혁명적이며 적극적인 방법으로 된다는것을 힘있게 증시해준다.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우리 당 사업방법은 대중의 무궁무진한 혁명적열의와 창조력을 적극 발양시켜 그들을 혁명과업수행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는 기본방법이다. 정치사업은 다름아닌 대중을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에게 혁명과업의 목적과 의의, 그 수행방도를 철저히 인식시켜 그들로 하여금 혁명과업수행에 자각적으로 떨쳐나서도록 하는 사업이다. 그러므로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사업방법이야말로 가장 혁명적인 사업방법으로 된다.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우리 당 사업방법은 또한 그것이 군중로선을 확고히 구현하고있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사람

들의 사상의식이 결정적역할을 놀게 되는 객관적합법칙성에 토대하고있음으로 하여 가장 과학적인 사업방법으로 된다.

객관적현실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아는것은 다름아닌 군중이며 혁명과업의 구체적인 수행방도를 잘아는것도 역시 군중이며 혁명과업을 직접 책임지고 끝까지 수행할 사람도 바로 군중이다. 군중에 의거하고 군중을 동원할 때 객관적현실을 정확히 파악할수 있으며 혁명과업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옳은 대책을 세울수 있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다. 따라서 정치사업을 앞세워 군중을 동원하는 우리 당의 사업방법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성과를 확고히 담보하여준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대중의 높은 혁명적열의는 생산력발전을 힘있게 추동하는 결정적요인으로 된다.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근로자들의 사상을 개조하고 혁명적열의를 높이면 높일수록 그들은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탐구동원하게 되며 경제관리사업과 생산조직, 로동조직 그리고 기술발전의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는 개선과 혁신을 일으키게 된다.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우리 당 사업방법은 바로 이러한 객관적진리로부터 출발하고있으며 또 그것을 전면적으로 체현한것으로 하여 가장 과학적인 사업방법으로 된다.

2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우리 당 사업방법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혁명을 령도하시는 전기간 확고하게 견지하시고계시는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이며 몸소 실천적모범을 통하여 그 불패의 생활력을 남김없이 보여주신 힘있는 사업방법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미 초기혁명활동시기와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조성된 주객관적정세와 우리 혁명발전의 절박한 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유격대원들과 인민대중 속에서 정치사업을 끊임없이 조직진행하시였다. 그리하여 유격대원들과 인민들을 혁명적으로 각성시키고 동원하시여 중첩되는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조국해방투쟁을 위대한 승리에로 이끄시였으며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사업방법의 고귀한 전통을 마련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또한 해방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 사회주의건설의 전행정에서, 그리고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는 간고한 투쟁에서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하시여 인민대중을 혁명과업수행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시였으며 그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게 하시였다.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특히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한 새로운 력사적환경에 맞게 청산리방법과 그를 경제관리에 구현한 대안의 사업체계와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를 창조하시고 일반화하심으로써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사업방법을 전당적, 전국가적인 사업방법, 사업체계로 확고히 전변시키시였으며 그것이 혁명과 건설에서 더욱 커다란 생활력을 낳게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청산리방법을 보급하는것을 통하여 우리는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작풍을 결정적으로 개선하고 당 및 국가, 경제 기관들의 사업에서 커다란 전환을 일으켰다.》(우와 같은 책, 226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청산리방법이 보급일반화되고 청산리방법의 기본요구의 하나인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사업방법이 철저히 관철됨으로써 당 및 국가, 경제 기관들과 근로단체들의 사업에서는 커다란 전환이 이루어졌다.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우리 당의 혁명적사업방법이 보급되고 철저히 관철됨으로써 당 및 국가, 경제 기관들과 근로단체들의 사업에서는 형식식, 명령식

사업방법이 뿌리뽑혀지고 관료주의, 형식주의, 주관주의의 낡은 틀이 결정적으로 마사지게 되였으며 대중의 힘을 믿고 대중과 문제해결의 방도를 토론하며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발동하여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는 혁명적질서가 확고히 서게 되였다. 그리하여 당과 대중의 혈연적련계는 불패의것으로 더욱 강화되고 당의 의도가 대중속에 거침없이 들어가게 되였으며 당의 령도적역할이 결정적으로 강화되게 되였다.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우리 당 사업방법이 보급일반화되고 당 및 국가, 경제기관들과 근로단체들의 사업에서 전환이 이루어짐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우며 그들을 혁명화하는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게 되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수령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수령의 명령지시라면 무조건 끝까지 해내고야마는 혁명적기풍이 철저히 서게 되였다. 또한 대중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는 사업과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실천투쟁이 밀접히 결합됨으로써 그들을 혁명화하는 사업이 힘있게 추진되게 되였다.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사업방법은 이처럼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고 그들의 혁명화를 추진함으로써 우리의 주체적혁명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위력한 무기로 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우리 당 사업방법이 사회주의경제를 급속히 발전시키는데 있어서도 힘있는 수단으로 되고있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경제의 높은 발전속도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이 모든것은 우리 당이 내세운 방침대로 정치사업을 잘하여 대중의 정치적각성을 높이고 그들의 혁명적열의를 불러일으키며 기술을 끊임없이 개조하여나간다면 경제의 규모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경제를 얼마든지 빨리 발전시켜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줍니다.》(《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 8페지)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우리 당 사업방법은 생산자대중을 정치적으로 각성시키고 그들의 혁명적열의를 높임으로써 그들이 생산활동에서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내게 하며 경제관리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도록 하여 사회주의경제전반의 급속한 발전을 힘있게 추동하고있다.

혁명의 천재적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원칙을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 철저히 구현하시여 경제관리의 모든 고리에서 정치사업을 앞세우는것이 하나의 필수적인 공정으로 되게 하심으로써 생산자대중이 높은 혁명적열의를 가지고 경제관리에 적극 참가하고 생산과 관리운영의 전반적사업을 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키도록 하시였다. 이것은 경제를 가장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운영되게 하고 사회주의경제를 급속히 발전시킬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령도하시는 전기간, 특히 나라의 정세가 복잡하고 우리 혁명의 앞길에 어려운 시련이 가로놓일때마다 로동계급과 전체 근로대중의 힘을 굳게 믿으시고 몸소 그들속에 들어가시어 나라의 형편과 당의 의도, 그들앞에 나선 혁명과업을 자세히 알려주시면서 그들을 혁명과업수행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셨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그이께서 베풀어주시는 뜨거운 배려, 크나큰 믿음에 끝없이 고무된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을 비롯한 전체 근로자들은 수령의 높은 뜻을 받들고 소극성과 보수주의, 기술에 대한 신비주의, 경제규모가 커지면 생산장성속도를 높일수 없다는 따위의 부르죠아적궤변과 우리의 전진운동을 방해하는 온갖 장애물들을 산산이 짓부시고 사회주의

건설에서 세인을 경탄케 하는 자랑찬 기적과 혁신을 일으키셨다.

내외의 온갖 계급적원쑤들의 악랄한 준동과 파괴책동이 계속되고 그를 반대하여 날카로운 투쟁을 벌려야 하는 긴장하고도 복잡한 정세에서도 우리 나라가 천리마의 속도로 세차게 내달려 사회주의건설에서 위대한 비약을 이룩할수 있은것은 오직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그이께서 몸소 보여주신 정치사업의 빛나는 모범이 낳은 고귀한 열매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혁명적사업방법을 창조하시고 실천에서 그 우월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보여주심으로써 대중지도에서 나타난 온갖 좌우경적편향을 극복하고 혁명적원칙성을 확고히 지키며 사업방법, 지도방법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완성하는데 탁월한 기여를 하시였다.

실로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이야말로 혁명과 건설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여주는 가장 힘있는 사업방법이며 혁명발전의 모든 력사적단계에서 맑스-레닌주의당이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항구적이며 보편적인 의의를 가지는 사업방법이다.

3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 나선 어렵고 방대한 혁명과업과 긴장한 정세는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이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우리 당 사업방법을 깊이 체득하고 그를 철저히 관철할것을 더욱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정치를 앞세운다는것은 모든 당원들과 군중에게 당정책을 철저히 인식시키며 그들이 혁명과업수행방도를 대중적으로 토론하며 높은 정치적각성을 가지고 혁명과업을 실천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동원되도록 하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496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정치사업을 앞세우는것은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깊이 인식시키며 혁명과업수행방도를 대중적으로 토론하고 그들이 혁명과업수행에 적극 동원되도록 하는 사업이다.

정치사업을 앞세우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모든 사업에 앞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당원들과 군중에게 철저히 인식시키는것이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정치사업을 선행시키지 않고서는 당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을 보장할수 없으며 군중의 무궁무진한 창조적힘을 동원할수도 없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에는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달성하고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승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들이 전면적으로 명시되여있으며 당면한 혁명과업의 목적과 의의, 그 수행방도까지도 다 명백히 밝혀져있다. 따라서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기앞에 부과된 정치적임무와 기술적임무를 옳게 인식하고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발성을 발휘하여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하는 기본담보로 된다.

그러므로 일군들은 어떠한 혁명과업을 수행하든지간에 무엇보다도먼저 근로자들속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깊이 침투시켜 그 본질과 수행방도를 철저히 인식시키는것을 첫공정으로 삼아야 한다.

이와 함께 일군들은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의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의창발성을 남김없이 발양시키며 이에 기초하여

혁명과업의 구체적수행방도를 대중적으로 토론하는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제기된 혁명과업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켜 그들이 높은 정치적각성을 가지고 문제해결의 정확한 방도를 내세우며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그 수행에 발벗고나서도록 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대중과 의논하면 그들의 정치적열성을 높이 발양시켜 모든 지혜와 창발성, 숨은 예비와 가능성을 남김없이 탐구동원하여 모든 기대에 만부하를 걸며 맡겨진 일을 주인다운 립장에서 알뜰한 일솜씨로 해낼 방도들도 다 세워지게 된다.

대중의 창조적적극성을 불러일으키고 혁명과업의 구체적인 수행방도를 세운 다음에는 대중을 혁명과업수행에 옳게 조직동원하는것이 중요하다. 대중이 움직이지 않고서는 당정책을 관철해나갈수 없다. 그러므로 광범한 군중을 혁명과업수행에 옳게 조직동원하기 위한 분공을 구체적으로 조직하는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분공을 조직하지 않고 일반적인 호소나 지시를 하는것만으로는 모든 사람들을 빠짐없이 혁명과업수행에 동원할수 없고 그들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시킬수도 없으며 군중의 앙양된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혁명과업수행을 위한 실천활동에서 물질적성과로 전환시킬수도 없다. 일군들은 언제나 대중에게 혁명과업의 목적과 의의를 똑바로 알려주고 그 수행방도를 대중적으로 토론한 다음에는 그들을 조직동원하기 위한 세밀한 분공조직을 해야 하며 그를 정상적으로 총화하고 거기에서 얻어진 경험을 일반화하며 새로운 분공을 조직하는 사업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로동자들에 대한 정치사업에는 후방사업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후방사업을 떠난 정치사업이란 있을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정치사업을 잘하려면 후방사업도 잘해야 합니다.》(《김일성선집》, 제6권, 469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후방사업은 대중의 정치적 및 로력적 열의를 높이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정치사업의 한부분이다. 후방사업을 잘하여 수령께서 베풀어주시는 육친적 배려가 대중에게 제때에 정확히 가닿도록 하여야만 그들이 수령께 일편단심 충성을 다할 불같은 결의를 더욱 굳게 다지면서 모든 일에서 있는 열성과 지혜를 다 내게 된다. 일군들은 어머니다운 심정으로 생산자대중이 로동과정에서 소모한 힘을 보충하고 충분히 휴식하며 안착되여 생산에서 계속 능률을 내도록 그들의 생활조건과 휴식조건에 대하여늘 보살피고 필요한 대책을 세워주어야 한다.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혁명적사업방법을 실제사업에 구현하는데서 중요하게 나서는것은 일군들과 당원들이 인민적 사업작풍을 소유하는것이다.

인민적사업작풍을 지니지 않고서는 정치사업을 실속있게 할수 없으며 대중을 혁명과업수행에로 옳게 조직동원할수도 없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군들과 당원들에게 언제나 인민의 충복답게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에게서 배우고 그들을 가르치며 모든 사업에서 이신작칙하며 소박하고 겸손한 품성을 지닐데 대하여 가르치시고계신다. 수령께서 주신 이 간곡한 교시는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이 사업과 생활에서 철저히 관철해야 할 고귀한 지침이다. 일군들은 인민적사업작풍을 지니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함으로써 대중으로 하여금 진심으로 당을 믿고 따르며 수령께서 제시하신 혁명과업수행에 물불을 헤아리지 않고 떨쳐나서도록 해야 할것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군들의 지도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이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우리 당 사업방법의 철저한 관철과 그 성과를 담보하는 중요한 문제로 된다고 가르치셨다.

정치사업이 대중을 각성시키고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실로 다양하고 복잡

한 사업이며 높은 창발성과 기동성을 요하는 능동적인 사업인것만큼 일군들은 지도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야만 당의 정책적요구와 대상의 특성에 맞게 정치사업을 능동적으로, 능숙하게 진행할수 있다.

일군들의 지도수준을 높이는데서 선차적으로 나서는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 특히는 정치사업에 관한 그이의 교시를 깊이 체득하며 그이께서 몸소 보여주신 정치사업의 실천적모범을 따라배우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에는 우리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한 전략전술적방침들과 함께 혁명발전의 매 단계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해야 할 정치사업의 구체적인 방향과 내용, 원칙과 그 수행방도 등 정치사업을 앞세우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들이 전면적으로 완벽하게 해명되여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보여주신 정치사업의 탁월한 모범은 대중지도에서의 위대한 전형이며 정치사업을 앞세우는것을 기본으로 하는 우리 당 사업방법의 빛나는 교범으로 된다.

수령께서 창조하시였으며 혁명투쟁을 령도하시는 전기간 시종일관 견지하시고 실천적모범을 보여주신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우리 당 사업방법을 따라배우는것은 어떤 조건, 어떤 정황에서나 정치사업을 능숙하게, 실속있게 하게 하며 맡겨진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해낼수 있게 하는 근본열쇠로 된다.

일군들의 지도수준을 높이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높은 경제기술지식을 소유하는것이다. 높은 경제기술지식을 소유해야 대중의 혁명실천에서 걸린 문제를 제때에 옳게 포착하고 그것을 푸는 정치사업을 실속있게 조직전개할수 있으며 정치사업과 경제사업을 옳게 결합시켜 혁명과업의 성과적수행을 보장할수 있다.

또한 모든 사업에서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우리 당 사업방법을 철저히 관철하자면 당의 령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당사업을 현실적요구에 맞게 더욱 심화시키며 당의 령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여야만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을 모든 부문에서 전면적으로 심도있게 진행할수 있다.

당조직들은 모든 일군들이 언제 어디서나 정치사업을 하는것을 중요한 당적의무로 여기도록 하며 어떠한 혁명과업을 수행하든지간에 반드시 정치사업을 앞세우는것을 모든 사업의 첫공정으로 삼도록 그들을 일상적으로 지도하고 통제하는것이 필요하다.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천재적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창조하신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우리 당의 위력한 사업방법을 더욱 튼튼히 틀어쥐고나갈 때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계속 높이 발양시켜 7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를 력사적인 당 제5차대회전으로 앞당겨 점령하며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힘있게 촉진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로선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처음으로 제시하시고 그것을 우리 나라에서 빛나게 구현하심으로써 우리 혁명과 건설을 비상히 촉진시키시였으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맑스-레닌주의리론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그이께서 제시하신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가장 올바른 길을 밝혀준 위대한 로선이며 로동계급의 력사적사명에 끝없이 충실한 가장 혁명적인 로선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가장 올바른 길을 밝혀준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은 우리 인민을 세기적락후와 빈궁에서 영원히 해방할수 있게 하였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는 주체적립장,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혁명적원칙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튼튼한 물질적담보를 마련할수 있게 하였다.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의 혁명적본질과 거대한 의의를 더욱 깊이 인식하고 계속 철저히 관철하여나가는것은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기며 세계혁명을 촉진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1

우리 당의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이 경제건설에 구현된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누구를 물론하고 자기의 손으로 더 많이, 더 잘 건설하며 자기의 힘으로 더 빨리 전진하려는 결심을 가져야 합니다. 없는것은 만들어내고 부족한것은 더 찾아내며 무엇보다도 자기 나라에 있는 원천들을 동원리용하여 부강한 나라를 건설하고 더 잘 살도록 해야 합니다. 자기 나라에 있는것을 가지고 공업이나 농업 기타 모든 경제부문들을 발전시키려는 사상을 견지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철저한 자력갱생의 정신을 가지고 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자립적경제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면서 국제분업에도 떳떳이 참가하여야 하며 세계사회주의체계의 위력을 공고히 하는데 기여하여야 할것입니다. 이것은 경제건설에서 주체를 확립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위대한 주체사상은 우리의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가장 정확한 맑스-레닌주의적지도사상이며 경제건설분야에서는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 로선으로 구체화되고있다.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나가는것, 이것은 자기 나라 혁명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주체적력량에 의거하여 완수하며는 철저한 혁명적립장이며 자기 나라 건설은 자기 인민의 로동과 자기 나라의 부원으로 진행하며는 자주적립장이다.

자력갱생의 원칙을 견지하는것은 매개 나라에서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자력갱생은 공산주의자들의 고상한 혁명정신이다.

만약 누구든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없이 남에게 의존하려고만 한다면 아무일도 할수 없다. 의존심이 있으면 자기 나라의 원천들을 동원하기 위하여 잘 노력도 하지 않을것이고 나라의 발전을 크게 지연시킬수 있다. 또한 남에

대한 의존심으로부터 자기를 낮추보고 남을 높이 보는 사대주의가 나올수도 있으며 여러가지 폐단들이 나올수 있다.

오직 자력갱생의 혁명적립장과 혁명적원칙을 견지하여야만 우리는 어떠한 복잡하고 어려운 정세에서도 혁명적전개를 굽히지 않고 투쟁을 계속할수 있으며 전진도상에서 제기되는 모든 난관과 애로를 용감히 이겨내고 혁명투쟁의 승리와 건설사업의 성과를 보장할수 있다.

자력갱생의 이러한 혁명적립장과 혁명적원칙들은 경제분야에서 바로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에 철저하게 구현되여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자립적민족경제의 건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한다는것은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필요한 중공업 및 경공업 제품들과 농업생산물을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생산보장할수 있도록 경제를 다방면적으로 발전시키고 현대적기술로 장비하며 자체의 튼튼한 원료기지를 닦아 모든 부문들이 유기적으로 련결된 하나의 종합적인 경제체계를 이룬다는것을 의미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398페지)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의 목적과 내용들을 전면적으로 완벽하게 해명해주고있다.

그이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 목적은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필요한 생산물을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생산보장하는것이다.

이러한 목적으로부터 자립적민족경제의 건설은 다방면적인 경제부문구조의 확립, 현대적기술에 의한 인민경제의 장비, 공고한 원료기지의 축성, 자체의 민족간부의 육성 등을 기본내용으로 한다.

다방면적인 경제부문구조를 확립하는 것은 하나의 유기적통일체를 이루는 경제부문들을 갖추게 함으로써 나라의 살림살이를 자체로 꾸릴수 있게 하며, 인민경제를 현대적기술로 장비하는것은 일은 헐하게 하면서도 생산물을 풍부히 낼수 있는 높은 로동생산능률을 달성하게 하여 장성하는 인민경제적수요를 국내생산으로 보장할수 있게 하며, 공고한 원료기지를 축성하는것은 자체로 원료, 연료, 동력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어떠한 조건하에서도 자기 나라 경제를 안전한 토대우에서 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하며, 자체의 민족간부를 육성하는 것은 제힘으로 나라의 경제를 건설하고 관리운영할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이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의 목적과 내용에는 남에게 의존함이 없이 주로 자기의 힘, 자기 나라의 부원과 기술에 의거하여 경제를 건설하는 자력갱생의 혁명적립장과 혁명적원칙이 철저하게 구현되여있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모든 방침들을 제시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자력갱생의 원칙,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의 혁명적요구로부터 출발하고있다. 경제건설의 근본방향을 밝혀주고있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 사회주의공업화와 기술혁명과업, 대중적힘에 의거한 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과 지방산업공장들의 대대적인 건설, 전군중적운동에 의한 대자연개조사업 등 경제건설에서 우리 당이 제시한 모든 로선들과 방침들은 자력갱생의 원칙에 기초하고있는것으로서 모두 현대적중공업과 함께 발전된 경공업, 선진적농업을 다 갖춘 종합적으로 발전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함으로써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생활을 더욱 윤족하고 문명하게 만들자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은 그이께서 직접 령도하신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에 그 깊은 뿌리를 박고있으며 맑스-레닌주의를 조선혁명의 구체적실정과 결합시켜 우리 나라 민족해방민주

주의혁명의 기본과업들을 처음으로 규정한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 명백히 반영되여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서 《…민족적 공, 농, 상업을 장애없이 발전시킬것.》을 천명하시면서 민족경제를 자주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방향을 제시하시였다. 이것은 우리 나라를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로 만들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 한다는것을 명시한것이다.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서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이 위대한 경제강령은 해방후 공화국북반부에서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빛나게 구현되였다.

2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에 부합되는 가장 정당한 로선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어떤 민족이든지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만 정치적독립을 보장하고 나라의 부강발전과 민족의 번영을 이룩할수 있습니다.

경제적자립은 정치적독립의 물질적기초입니다. 경제적으로 외세에 의존하는 나라는 정치적으로도 다른 나라의 추종국가로 되며 경제적으로 예속된 민족은 정치적으로도 식민지노예의 처지에서 벗어날수 없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37페지)

자립적민족경제의 건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로 되는것은 우선 그것이 민족적독립을 수호하며 정치적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는데 있다.

어떤 민족이든지 자기의 살림살이를 자신의 힘으로 꾸려나갈수 있는 자립적인 민족경제를 가지지 않고서는 민족적독립과 정치적자주성을 확고히 보장할수 없다. 독립을 쟁취한 민족들은 철저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만 식민지통치에서 넘겨받은 세기적락후성을 청산하고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할수 있으며 진정한 정치적독립을 달성할수 있다. 특히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을 두목으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신식민주의정책이 강화되고있는 조건에서 자립적민족경제의 건설은 진정한 정치적독립의 달성과 부강하고 문명한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필수적조건으로 된다.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만 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적침투와 정치적간섭을 물리치고 이미 쟁취한 독립을 유지공고화할수 있으며 나라의 부강발전과 민족적번영을 이룩할수 있다. 또한 그래야만 자기의 주견과 판단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모든 로선과 정책을 규정하고 관철할수 있으며 다른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 및 호혜의 원칙에서 경제관계를 맺고 당당한 독립국가로서 세계무대에 진출할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은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가장 빨리, 가장 훌륭히 쌓을수 있게 하는 유일하게 정당한 로선이다.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축성에 관한 문제는 이때까지 그 누구도 해명하지 못한 매우 중대하고도 절박한 리론실천적문제이다.

이 문제는 오직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에 의하여서만 완벽하게 해명될수 있었다.

그이께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축성의 합법칙성과 그 구체적내용을 천재적으로 밝히시고 그 실현의 유일한 방도로서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제시하심으로써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에 관한 리론을 완성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지 않고서는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쌓을수 없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없습니다.

사회주의를 건설하려면 반드시 기계제작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위력한 중공업기지를 창설하고 이에 기초하여 경공업, 농업, 운수 등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현대적기술로 장비함으로써 사회주의법칙의 요구에 따라 근로자들의 복리를 전면적으로 높일수 있는 강력한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쌓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는 민족적차이가 남아있고 국가가 존재하는 한 매개 민족국가단위로 쌓아야 하는것입니다. 그러므로 매개 나라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 및 인민생활의 다양하고 부단히 장성하는 중공업 및 경공업 제품과 농업생산물에 대한 수요를 국내생산으로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도록 다방면적으로 발전되고 최신기술로 장비된 그리고 자체의 민족간부와 자기 나라의 자연부원과 원료, 자재에 의하여 움직일수 있는 종합적이며 자립적인 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 튼튼한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쌓아놓았다고 말할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537~538페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 요구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고 있는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쌓는 유일한 길이 바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데 있다는것을 천재적으로 밝혀주고 있다.

사회주의는 온갖 계급적착취의 청산과 함께 전사회의 부단히 장성하는 물질적 및 문화적 수요를 최대한으로 충족시킬것을 요구한다. 또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자면 모든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적어도 지난날 중산계층의 생활수준이상으로 보장할만큼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아야 한다.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는것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며 인류의 최고리상인 공산주의건설로정을 앞당기기 위한 관건적문제의 하나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는 오직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함으로써만 쌓을수 있다.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는 생산물에 대한 사회의 끊임없이 늘어나는 수요를 전면적으로 충족시킬수 있도록 모든 부문을 다 갖출것을 요구하며 현대적기술로 장비된 발전된 경제로 될것을 요구한다. 현대적기술로 장비되고 다방면적이며 종합적인 자립적민족경제만이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의 다양한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다.

그런데 오늘 사회주의건설은 매개 민족국가단위로 진행되고있으며 생산수단의 사회화도 민족국가단위로 이루어지고있다. 이것은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민족국가단위로 쌓게 하는 객관적이며 필연적인 조건이다.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가 매개 민족국가단위로 쌓아져야 하는 조건에서 그것을 쌓는 과정은 곧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 과정으로 되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가 이와 같이 매개 민족국가의 범위에서 종합적이며 자립적인 경제단위로 쌓아져야 인민경제 모든 부문간의 균형을 주동적으로 정확히 유지하고 나라의 모든 자원을 가장 합리적으로 동원리용하여 사회주의경제발전법칙의 요구에 맞게 생산장성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보장할수 있다. 또한 이렇게 하여야만 과학과 기술을 빨리 발전시키고 근로자들의 기술문화수준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으며 그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새형의 인간으로 키울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은 나라의 강력한 국방력을 마련할수 있게 한다.

혁명에서 승리한 매개 민족국가들앞에는 제국주의침략으로부터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여야 할 과업이 나서고있다. 특히 오늘 미제국주의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이 더욱 로골화되고있는 조건에서 자위적국방력을 강화하는것은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매개 나라가 자기의 강력한 국방력을 가지자면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군대와 인민을 최신무기로 무장시키고

전국을 요새화할수 있으며 일단 유사시에 전선과 후방의 물질적수요를 충족시킬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은 민족문제해결의 가장 정확한 길을 명백히 밝혀준 위대한 로선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은 민족들사이의 불평등의 실제적기초로 되는 경제적락후성을 없애고 민족적번영을 이룩하게 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게 하는 기본담보이기도 합니다.》(우와 같은 책, 538페지)

민족적불평등의 실제적 기초로 되는 경제적락후성을 없앨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사회주의하에서의 민족문제의 성격과 내용, 그 해결방도를 명시하여주고있다.

민족적불평등의 실제적기초는 경제적락후성에 있다. 그렇기때문에 민족적불평등은 매개 나라에서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자마자 인차 없어지는것도 아니며 이러저러한 방도에 의한 민족들의 통합에 의하여 없어지는것도 아니다. 사회주의하에서 민족적불평등을 없애고 민족의 최대한의 자유로운 발전과 전면적인 개화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경제적락후성을 청산하고 매우 발전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 한다. 종합적으로 발전된 자립적민족경제는 매개 민족들로 하여금 민족자결의 신성한 권리를 실제적으로 행사하며 어떠한 형태의 민족적차별도 허용하지 않고 민족적번영을 이룩할수 있게 하는 확고한 물질적담보로 된다.

혁명의 탁월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은 매개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적 위력을 강화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앞당기게 함으로써 로동계급의 민족적임무를 충실히 수행할수 있게 할뿐만아니라 국제적임무도 훌륭히 수행할수 있게 하는 가장 혁명적인 로선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매개 나라는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만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할수 있을뿐만아니라 전체 사회주의진영의 위력을 강화할수 있습니다. 매개 사회주의국가들의 경제는 세계사회주의경제체계의 자립적인 하나의 단위로서 서로 긴밀한 련계와 협조 속에서 끊임없이 발전하고있습니다. 사회주의경제체계는 그를 이루고있는 매개 단위가 강력하여질때 그 전반적위력도 강대해집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63~64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것은 매개 나라 혁명뿐아니라 세계혁명발전에도 적극 이바지하는 유일하게 옳은 길이다.

매개 나라에서의 혁명은 세계혁명의 한 구성부분이며 따라서 개별적나라들에서의 혁명의 승리를 떠나서는 세계혁명의 승리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사회주의진영을 형성하고있는 기본단위인 사회주의국가들을 강화함으로써만 전체 사회주의진영의 위력도 강화될수 있다. 세계사회주의경제체계가 매개 사회주의나라들의 민족경제의 자립적단위들로 이루어지고있는 조건에서 사회주의나라들의 자립적민족경제를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진영전체의 경제적위력을 더욱 강화할수 있게 하며 매개 나라 인민들로 하여금 세계혁명앞에 지닌 자기의 국제적임무를 더 잘 수행할수 있게 한다. 매개 나라가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만 형제나라들사이에서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과 완전한 평등 및 호혜의 원칙에서 경제적으로 유무상통할수 있으며 국가들간의 협조와 단결을 더욱 강화하고 세계혁명력량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할수 있다.

이와 같이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은 맑스-레닌주의당들앞에 나서는 민족적임무와 국제적임무를 끝까지 완수하는 철저한 혁명성과 당성, 로동계급성으로

일관되여있다.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은 혁명발전의 새로운 환경에서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처음으로 제시된 전혀 새로운 로선이다. 그것은 세계혁명의 종국적승리가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혁명이 일어나 완전히 승리하고 점차 사회주의진영이 확대강화발전되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혁명발전의 시대적조건에 완전히 부합되는 독창적인 로선이다.

선행 맑스-레닌주의고전가들은 그들이 활동하던 당시의 시대적제약성으로 하여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제시할수 없었다.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제시하심으로써 사회주의나라들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더욱 앞당기며 세계혁명의 종국적승리과정을 더욱 촉진할수 있는 휘황한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였으며 맑스-레닌주의보물고를 더욱 풍부히 하는데 탁월한 기여를 하시였다.

3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은 공화국북반부에서 빛나게 실현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에 완전히 부합되는 철저하게 혁명적인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제시하시였을뿐아니라 우리 인민을 그 실현에로 정확히 령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관철하는데서 제기되는 모든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옳은 방향과 구체적방도들을 가르쳐주시였다.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직후에 벌써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철저히 수행하도록 하심으로써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튼튼히 꾸릴수 있는 사회경제적기초를 마련하여주시였으며 전후에는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전면적으로 추진시키시고 그것을 기술적개조에 앞세워 실현케 하심으로써 생산력의 빠른 발전과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을 위한 넓은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모든것이 혹심하게 파괴되여 무엇부터 어떻게 시작하여야 할지 갈피를 잡을수 없을만큼 어렵고 복잡하였던 전후의 형편에서도 추호의 동요없이 나라의 구체적현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축성과 령락된 인민생활문제를 짧은 기간내에 동시에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 중앙위원회 제6차전원회의는 전쟁의 페허우에서 민족경제의 자립적토대를 닦으며 령락된 인민생활을 짧은 시일에 회복하기 위하여 중공업의 우선적장성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것을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516페지)

당중앙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은 중공업의 우선적장성에 기초하여 경공업과 농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현대적기술로 장비할수 있게 하며 생산수단생산과 소비재생산부문을 다 갖춘 경제구조를 마련하며 인민경제부문들간의 적극적인 균형을 보장하게 함으로써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가장 훌륭히 실현할수 있게 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대규모중앙공업과 중소규모의 지방

공업을 병행하여 발전시키는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심으로써 경공업의 튼튼한 기지를 마련하게 하시였으며 농촌경리의 기술적개조에 경리형태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앞세우게 하시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내놓으심으로써 농촌의 면모를 일신할수 있게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또한 오랜 인테리들을 교양개조하여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인입하는 한편 로동자, 농민 출신의 새로운 인테리들을 대대적으로 육성할데 대한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심으로써 나라의 경제를 자체로 훌륭히 건설하고 관리운영할수 있는 민족간부의 대부대를 마련케 하시였다.

어버이수령께서는 특히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결정적담보를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에서 찾으시고 시종일관 혁명적군중로선을 관철하여오시였다. 그이께서는 언제나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믿으시고 친히 공장과 농촌에 나가시여 대중과 의논하시며 대중의 지혜를 동원하시여 제기되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나가시였으며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혁명적앙양을 일으키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자기의 영웅적투쟁과 창조적로동으로 우리 나라에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쌓아놓았다. 오늘 우리의 중공업기지는 현대적기계제생산의 요구에 맞게 더욱 정비보강되여 대규모적이며 현대적인 공장건설에 필요한 여러가지 종합설비들과 복잡하고 정밀한 기계들을 자체로 생산할수 있게 되였으며 경공업분야에서도 인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자체로 충족시킬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꾸려졌다. 공업의 강력한 지원밑에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가 현저히 강화되고 농업생산은 급속히 장성되였다.

강력한 중공업기지와 현대적인 경공업기지, 다각적으로 발전된 사회주의농촌경리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 및 인민생활에 필요한 모든 생산물들을 기본적으로 자체로 보장할수 있게 되였다. 장구한 식민지통치와 가혹한 전쟁에 의하여 심히 령락되였던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은 급속히 향상되였으며 오늘 우리 근로자들은 4천만 조선인민의 어버이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따뜻한 품속에서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세상에 부럼없는 끝없이 행복하고 희망에 가득찬 생활을 하게 되였다.

공화국북반부의 혁명기지에 튼튼히 쌓아진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는 나라의 국방력을 더욱 철벽같이 다지고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며 조국이 통일된 후 파괴된 남조선경제를 복구하며 령락된 남조선인민들의 생활을 짧은 기간내에 안정향상시킬수 있는 확고한 담보이다.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서 이룩한 위대한 성과로 하여 우리 나라는 자기의 대내외정책을 자주적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더욱 철저히 관철할수 있게 되였으며 사회주의진영의 위력과 민족해방혁명력량을 강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게 되였다.

오늘 우리 나라는 동방일각에 거연히 솟은 사회주의강국으로 자기의 위용을 온 세상에 떨치고있다.

이 모든 성과들은 오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과 그이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무한히 충직한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을 비롯한 전체 근로자들은 그이를 수령으로 모시고 혁명을 하는 높은 영예와 긍지, 혁명적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새로운 천리마속도 《강선속도》로 힘차게 내달림으로써 우리 당 제5차대회전으로 7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승리적으로 점령할것이며 나라의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져나갈것이다.

김일성종합대학 정치경제학강좌

통계사업을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필수적요구

전 영 희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제기된 수많은 리론실천적문제들과 함께 사회주의통계에 관한 문제를 천재적으로 밝혀주심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더욱 힘있게 촉진할수 있는 명확한 길을 열어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통계사업을 강화하는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필수적요구로 되는 과학적근거를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으며 혁명과 건설의 요구에 맞게 통계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하기 위한 구체적방도들을 가르쳐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통계에 관한 사상과 방침들을 철저히 옹호관철하는것은 사회주의건설에 대한 국가의 조직자적역할을 높이고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일군들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통계에 관한 사상을 깊이 체득하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계산통계사업을 개선강화함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앞당기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통계사업을 강화하는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필수적요구로 되는 근거를 전면적으로, 과학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통계사업을 똑똑하게 하지 않고서는 옳은 결론을 지울수 없으며 옳은 결론이 없이는 일을 잘할수 없습니다.》 (《김일성선집》, 제2권, 384페지)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정확한 통계가 사회생활의 실태를 거울같이 반영하는 사회인식의 도구로, 혁명과 건설을 적극 추진시키는 힘있는 무기로 된다는것을 가르치고있다.

통계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예술 등 국가사회생활의 규모와 내용, 그 동태에 대한 전반적실태를 일목료연하게 밝혀주며 객관적현실의 량적측면을 그 질적측면과의 밀접한 련관속에서 정확히 반영하여준다. 이와 함께 통계는 전국적인 수자의 종합과 개괄 및 분석에 기초하여 사회경제발전의 합법칙성을 과학적으로 밝히며 객관적현실에 대한 옳은 결론을 짓고 그에 알맞는 대책을 세울수 있게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국가재산관리에서나 전반적인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통계사업을 강화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

우리의 모든 일군들은 사회주의사회에서 통계와 통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것을 똑똑히 깨달아야 합니다. 생산과 소비에 대한 과학적인 통계와 엄격한 통제가 없이는 인민경제를 계획화할수도 없으며 사회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해나갈수 없습니다.》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통계사업을 강화하는것이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 전행정에서 언제나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요한 문제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필수적요구로 된다는것을 밝혀주고있다.

통계사업을 강화하는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필수적요구로 되는 근거는 무엇보다먼저 그것이 사회주의경제를 계획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힘있는 수단이라는데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계획이 없이는

도대체 경제가 움직일수 없으며 사회주의경제는 오직 계획적으로만 발전할수 있다. 나라의 모든 생산설비들과 자재, 원료가 계획에 의하여 움직이며 생산과 소비를 비롯한 나라의 모든 경제생활이 계획적으로 진행된다.

나라의 경제와 문화 발전을 예견하는 계획의 작성은 현실을 객관적으로 반영하는 통계자료의 장악과 분석으로부터 시작된다. 도달된 경제발전수준, 설비, 자재, 자금, 로력 등의 현실태, 인민경제 부문간, 부문내부간 균형에 대한 실태자료들을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분석하여야만 앞으로의 경제발전속도와 그것에 미치는 요인들을 정확히 타산하고 장래발전을 과학적으로 예견할수 있다. 또한 인민경제의 계획실행정형에 대한 계산과 통계를 잘 조직하고 통계자료를 정확히 분석하여야만 계획수행을 옳게 추진시킬수 있다.

통계를 정확히 장악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의 전반적인 계획적발전에서 필수적인 요구이며 또한 매개 공장, 기업소들의 계획적관리운영의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공장, 기업소들의 계획적관리운영은 생산 및 경영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수자적파악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설비, 자재, 자금, 로력 등에 대한 정확한 수자자료들을 장악하고 객관적현실을 세밀하게 료해한 기초우에서만 정확한 계획을 세울수 있으며 면밀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서야만 기업을 계획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할수 있다.

정확한 통계자료는 또한 경제관리운영에서의 우결함과 내부예비를 찾아낼수 있게 함으로써 기업의 합리화를 보장한다. 과학적인 통계자료에 기초하여야만 경제관리개선의 중심고리를 포착할수 있으며 약한 고리를 추켜세우고 경제관리의 전반적사업을 더잘 해나갈수 있다.

이것은 사회주의하에서 계산통계사업의 강화가 인민경제계획의 작성, 그 실행에 대한 검열통제, 계획실행의 추진, 종합적균형의 옳은 설정 등 계획화사업 전반을 개선하며 경제관리의 합리화를 실현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통계사업을 강화하는것은 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제적기능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장, 기업소들의 관리운영을 개선하고 특히 계산과 통계 사업을 강화하여 물자를 랑비하거나 국가재산을 좀먹는 현상을 근절하여야 할것입니다.》 (《김일성선집》, 제2권, 303페지)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통계사업을 강화하는것이 경제에 대한 국가적통제를 강화하는데서 가지는 의의를 밝혀주고있다.

과도적사회인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아직도 적대분자들의 준동이 있고 사람들의 머리속에 리기주의, 개인주의, 기관본위주의, 지방본위주의 등 낡은 사상잔재들이 남아있는 조건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을 강화하는 동시에 나라의 인적 및 물적 자원과 그 리용에 대한 국가적인 통제가 필요하다. 통계사업을 강화하여야만 나라의 전반적경제생활에서 엄격한 제도와 질서를 세울수 있으며 사회주의적소유를 튼튼히 보위하고 재생산의 전과정을 가장 합리적으로 추진시킬수 있다. 그래야만 또한 근로자들로 하여금 국가와 사회 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효과적으로 리용하는데 습관되도록 할수 있으며 그들속에서 낡은 사상이 되살아날수 있는 틈을 막을수 있다. 이것은 통계사업의 강화가 사회경제생활에 대한 엄격한 국가적 및 사회적 통제를 강화케 함으로써 국가사회재산의 람오랑비현상을 방지하고 그의 가장 합리적이며 절약적인 리용을 보장하며 사람들속에서 낡은 의식, 낡은 관습을 뿌리뽑고 개인의 재산보다 국가사회재산을 더 귀중히 여기는 사상을 키우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것을 말한다.

사회주의하에서 통계사업을 강화하는것은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당의 로

선과 정책의 정당성과 휘황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혁명과업수행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고무추동하는 힘있는 수단이다.

정확한 통계는 당정책의 정확한 관철을 보장할뿐아니라 과학적수자자료로써 당의 령도밑에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된 성과들을 뚜렷하게 보여주며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힘있게 증명한다. 그것은 또한 근로자들로 하여금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정확히 관철할 때 자기들에게 얼마나 행복하고 보람찬 생활이 차례지며 휘황찬란한 미래를 앞당기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할것인가를 수자적으로 밝혀줌으로써 그들의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준다.

오늘 우리 근로자들은 과학적인 통계자료에 의해서도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당이 제시한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깊이 인식하고있으며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 번영하는 사회주의조국에서 행복하게 사는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보다 휘황한 래일,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와 종국적승리를 향하여 날에 날마다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면서 위대한 천리마의 속도, 《강선속도》로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실로 사회주의하에서 통계사업을 강화하는것은 나라의 경제를 가장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관리운영하며 근로자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현시기 통계사업을 개선강화하는것은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경제건설과 정세의 요구로부터 더욱 절박한 문제로 나선다.

경제규모가 비할바없이 커지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이 현대적기술로 튼튼히 장비되였으며 부문간, 기업소간의 생산적련계가 매우 복잡하여지고 밀접하여진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객관적현실은 경제의 지도와 관리운영사업을 더욱 개선하고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릴것을 요구한다.

더우기 오늘 우리앞에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혁명적로선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날로 격화되는 원쑤들의 침략과 전쟁도발 책동에 대처하여 나라의 방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경제건설을 다그쳐 생산을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시키며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야 할 무거운 혁명과업이 나서고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을 더 훌륭히 관철하며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경제의 지도와 관리운영수준을 부단히 높이기 위해서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계산통계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하여 수자 하나, 점 하나에 이르기까지 정확히 맞물리며 모든 사업을 치밀히 짜고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경제 및 재산 관리를 잘할수 있고 예비와 가능성을 옳게 조직동원하여 생산을 계속 빠른 속도로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이 모든것은 통계사업을 개선강화하는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필수적요구로 되며 당면하게 우리앞에 제기된 방대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원화통계체계를 확립하며 통계를 세부화할데 대한 창조적방침을 제시하심으로써 통계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촉진하는 무기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는 가장 정확한 길을 열어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통계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은 사회주의통계의 본질적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는 유일하게 옳은 과학적방침이다.

사회주의하에서 통계는 반드시 객관성과 과학성, 전면성을 띠여야 하며 당성, 로동계급성의 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

만일 사회인식의 강력한 도구로서의 통계가 객관적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고 당적, 계급적 리익의 견지에서 작성되고 리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기의 본래의 사명과 임무를 옳게 수행할수 없게 될것이다. 사회주의통계는 오직 객관적현실을 정확히 반영하는 동시에 철두철미 당적이며 로동계급적인 것으로 되여야만 사회력사발전법칙과 경제발전법칙에 대한 과학적인식의 도구로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추진하는데 옳게 리용될수 있다. 바로 여기에 객관적현실을 수자로 반영하는 거울로서의 사회주의통계가 객관성, 과학성, 전면성과 함께 반드시 당성, 로동계급성을 띠여야 할 근거가 있는것이다.

사회주의통계의 이러한 본질적요구들은 통계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에 가장 정확히 반영되여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원화통계체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통계기관들은 일원화되여 있으며 지방에 있는 통계기관들도 다 오직 중앙통계국에만 복종하게 되여있습니다.… 우리는 통계기관들의 사업에 그 누구도 간섭하지 못하게 하며 그리하여 생산과 소비에 대한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통계를 잡을수 있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일원화통계체계란 전국에 뻗쳐있는 국가통계기관들과 모든 기관, 기업소의 통계부서들이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하나의 통계체계를 이루고 사업함으로써 통계의 중앙집권적인 유일성을 철저히 보장하는것을 말한다. 일원화통계체계는 중앙통계국에 도, 시, 군 통계기관들을 직속시키며 기관, 기업소들에 전문통계부서들을 두어 그것들을 통계기관의 세포로 되게 함으로써 전국의 통계기관과 그 일군들을 하나의 유기체와 같이 움직이게 하며 중앙으로부터 시초보고단위에 이르기까지 당의 정책적요구에 맞게 통계사업을 통일적으로 조직진행하게 하는 가장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체계이다.

통계를 일원화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와 우리 나라 현실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가장 정당한 방침이다.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전반적인 살림살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며 생산, 분배, 류통, 소비를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계획적으로 실현하는 사회주의국가가 경제조직자적 및 문화교양자적 기능을 원만히 수행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더욱 앞당기기 위하여서는 재생산과정의 모든 고리들과 인민경제 모든 부문과 단위들의 구체적실정, 나라의 인적, 물적 자원의 실태를 반영하는 정확한 통계자료를 다 틀어쥐고있어야 한다. 이로부터 통계부문앞에는 사회경제발전의 객관적실태를 반영하는 전국의 자료를 짧은 시간내에 수집하여 종합분석하여야 할 무거운 임무가 나선다. 이것은 일원화된 정연한 통계체계가 없이는 옳게 수행될수 없으며 오직 중앙집권화된 조직을 가지고 유일적인 지표체계와 방법론에 의거하여 통계사업이 진행될 때 비로소 원만히 실현될수 있다.

더우기 오늘 나라의 경제규모가 비상히 커졌으며 지방경제발전의 종합성이 높아지고 인민경제 부문간, 지역간의 경제적련계가 밀접하여진 조건에서 수천수만의 경영단위들의 객관적실태를 국가가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경제발전의 모든 균형과 련계를 능동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통계사업을 유일적인 내용과 절차와 방법으로 조직하지 않으면 안된다. 만일 매개 기관, 기업소들에서 통계사업을 제멋대로 조직한다면 전국적인 통계종합화란 불가능하며 따라서 통계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무기로서의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 사회주의국가는 일원화통계체계를 세우고 중앙집권제적원칙을 철저히 관철하여야만 통계를 유일적으로 틀어쥐고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그를 옳게 리용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통계의 일원화방침은 사회주의건설의 실천행정에서 거대한 우월성과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

일원화통계체계는, 통계사업에서 국가의 통일적이며 중앙집권적인 지도와 군중로선을 밀접히 결합시킴으로써 당의 정책적요구를 철저히 관철할수 있게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진정으로 생동하고 실무적이며 분석적인 지도는 다만 지도일군들이 항상 현장에 접근하고 생산의 주인공인 근로자대중과 일상적인 련계를 가지며 결정, 지시들의 집행에 대한 계통적인 검열을 실시하는 경우에만 보장됩니다.》(《김일성선집》, 제4권, 99~100페지)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지도와 대중의 밀접한 결합이 생산과 건설의 성과를 보장하는 기본담보로 된다는것을 가르치고있다.

국가의 중앙집권적지도는 광범한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야 큰 힘을 낼수 있으며 대중속에서 나오는 개별적이며 단편적인 지혜도 당적 및 국가적 지도가 보장되여야 하나의 종합된 위력한 힘으로 될수 있다.

일원화통계체계하에서는 국가가 모든 통계단위들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할수 있는 정연한 체계가 이루어진만큼 당의 의도가 모든 통계단위들에 거침없이 침투되고 중앙집권적규률이 더욱 강화됨으로써 통계사업에서 당정책적요구가 더잘 관철될수 있다.

또한 통계사업에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과 대안의 사업체계를 구현한 일원화통계체계하에서는 국가통계기관들이 현지에 접근되여있으므로 일상적으로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계산통계사업의 실태를 료해하고 걸린 문제를 풀어주고 도와주며 이 사업에 생산자대중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수 있게 한다.

그리하여 통계의 일원화는 통계사업에서 당의 정책적요구를 관철하며 통계사업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키고 근로자들로 하여금 사회주의건설에 더욱 주인답게 참가하며 생산에서 보다 높은 자각적열의와 지혜를 발휘할수 있게 한다.

일원화통계체계는 또한 통계의 객관성과 과학성, 유일성과 신속성을 철저히 보장할수 있게 하는 우월한 체계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통계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이여야 하며 따라서 통계를 누구도 제멋대로 고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객관성과 과학성, 유일성과 신속성은 사회주의통계의 생명이며 본질적요구이다. 통계사업에서 중앙집권적규률을 강화하는것도 구경은 통계의 객관성과 유일성, 신속성을 보장함으로써 통계가 실질적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복무하게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통계는 아래에서 올라온것을 그대로 종합해야 객관성이 보장된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지 않는 《통계》는 한갖 수자놀음에 지나지 않는다. 만일 통계사업에서 부정확성이 허용된다면 통계의 객관성을 보장할수 없으며 통계의 객관성과 유일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객관적실태를 통일적으로 정확히 파악할수 없으며 따라서 국가 및 경제 관리와 전반적사회주의건설에 커다란 지장을 주게 된다.

일원화통계체계하에서는 국가 통계기관의 현지주재기관인 도, 시, 군 통계기관들이 시초보고단위에 침투하여 밑으로부터 객관적인 통계를 종합하게 되므로 통계의 객관성과 과학성을 철저히 보장할수 있다. 또한 지방의 통계기관들과 통계세포들이 중앙통계국의 통일적인 계획에 따라 통계사업을 조직전개하는만큼 통계의 유일성과 신속성도 더잘 보장할수 있다.

사회주의통계는 그 일원화와 함께 세부화가 철저히 실현되여야만 자기의 위력을 충분히 나타낼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통계를 세부화하여 구체적이며 세분된 통계를 잡아야 하며 특히 성, 관리국, 기업소들에서 완전히 전개된 세부통계를 가지고 사업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통계를 세부화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심으로

써 통계를 어떤 방향과 원칙에서 어떤 방법으로 잡아야 하는가 하는 사회주의통계사업의 근본문제에 대한 보다 과학적인 해명을 주시였다.

통계를 세부화한다는것은 당의 정책적요구와 객관적현실을 옳게 반영한 종합적자료와 함께 모든 부문들과 기업소들의 경영활동을 세부분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반영한 통계를 장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계의 세부화방침의 기본요구는 통계지표를 세분화대하여 종합적자료와 함께 세부자료를 장악함으로써 현실을 완전히 반영할수 있도록 통계의 전면성을 보장하는데 있다.

통계의 세부화방침의 우월성은 사회경제생활의 실태를 정확히 반영할데 대한 사회주의통계의 기능을 충분히 실현할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통계를 세부화하는것은 통계의 전면성과 구체성을 철저히 보장함으로써 사회주의통계의 기능과 역할을 훌륭히 실현할수 있게 하는것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통계관찰 대상과 범위를 세분화대하여 정치, 경제, 문화 생활의 모든 분야에 걸처 현실을 전면적으로 파악할수 있게 함으로써 사회적인식의 도구로서, 사회주의건설에서 계산 및 통제의 수단으로서,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는 힘있는 무기로서의 사회주의통계의 기능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게 한다.

통계의 세부화방침은 그 일원화체계와 함께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할수 있게 하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과 단위들에서 예비를 적극 동원리용할수 있게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국가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통계를 정확히 장악하는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되는, 매개 성적으로 되는 또 각 성산하 매개 공장, 기업소별로 되는 정확한 통계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설비, 자재, 원료, 자금 및 로력에 대한 세밀하고 정확한 통계를 가지지 않고 계획을 작성한다는것은 빈 말공부에 지나지 않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433페지)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사회주의하에서 통계의 세밀하고 정확한 장악이 계획화의 필수적조건으로 된다는것을 가르쳐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통계없이는 계획을 세울수 없으며 세부계획화방침도 관철할수 없다.

복잡한 대규모의 사회주의경리를 국가가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계획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서는 경제계획을 일원화, 세부화하여야 하며 그것은 통계의 일원화, 세부화가 확고히 안받침되여야 원만히 실현될수 있다.

경제발전의 종합적균형을 보장하며 모든 경제활동을 세부에 이르기까지 정확히 맞물린 일원화된 세부계획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 기업소들의 실태와 생산의 제요소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세밀한 통계수자가 있어야만 똑바로 세울수 있다. 또한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에 기초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하며 예비를 동원하는 문제도 한공수의 로력, 한개의 못, 한그람의 세멘트에 이르기까지 계산밖에 두지 않고 모든것을 빠짐없이 장악하여 수자적으로 따지면서 치밀하게 짜고들 때 옳게 해결될수 있는것이다.

이와 같이 통계를 일원화, 세부화하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의 합법칙적요구를 정확히 구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앞당기게 하는 가장 정확한 방침으로 된다.

통계의 일원화, 세부화는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구현으로서 그이께서 우리의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행정에서 쌓으신 실천적경험에 기초하시여 발전풍부화시키신 혁명적통계리론의 핵을 이룬다.

김일성동지께서 통계사업을 일원화, 세부화할데 대한 창조적방침을 제시해주심으로써 우리는 통계의 객관성과 과학성, 유일성과 신속성을 보장하고 그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켜 혁명과 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칠수 있게 되였다.

오늘 우리 나라의 통계는 국가 및 경제 관리의 힘있는 수단으로서 인민경제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대고조를 확고히 견지하고 우리 혁명기지의 정치, 경제, 군사적 위력을 강화하며 인민생활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키는데 훌륭히 복무하고있다.

또한 통계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이 관철됨으로써 통계사업에서 주관주의와 형식주의, 기관본위주의와 지방본위주의, 사대주의, 교조주의 등 낡은 사상요소들을 없애고 사회주의통계의 혁명적원칙과 당성, 로동계급성을 확고히 고수할수 있게 되였다.

실로 김일성동지의 사회주의통계에 관한 창조적 사상과 방침들은 사회주의 통계학을 새로운 높이에로 발전시키고 맑스-레닌주의보물고를 풍부히 한 탁월한 공적으로 된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통계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하기 위한 구체적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사회주의통계에 관한 창조적 사상과 방침들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는것이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워야만 사회주의통계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창조적 사상과 방침들의 진수를 심장으로 파악하고 그를 철저히 옹호관철할수 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일군들과 당원들은 통계부문에 주신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정책을 그이의 모든 로작들과 교시 및 당정책과 밀접히 결부하여 체계적으로 깊이있게 연구하여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며 실천활동에서 언제나 수령의 교시와 당정책을 자로 삼아 통계사업을 조직집행하며 당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통계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일원화통계체계의 요구에 맞게 국가통계기관들과 통계세포들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이며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결정적으로 개선하는것이 중요하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생산과 소비에 대한 과학적인 통계를 잡을수 있도록 통계기관들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생산과 소비가 바로 되도록 엄격한 통제를 실시하여야 하겠습니다.》

통계사업의 직접적담당자는 국가통계기관들과 통계세포들이다. 국가통계기관들과 통계세포들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만 통계사업전반을 튼튼히 틀어쥐고 그것을 당과 국가가 요구하는대로 개선해나갈수 있다.

국가통계기관들은 모든 기관, 기업소들의 통계부서를 잘 움직여 해당 지역과 단위들의 통계사업을 완전히 책임지고 조직집행하도록 하며 통계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를 강화하고 통계규률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통계규률은 전반적국가규률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며 그를 강화하는것은 통계의 본질적요구를 정확히 관철하기 위한 기본담보로 된다. 더우기 오늘 조성된 정세와 사회주의건설의 객관적현실이 통계규률을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할것을 요구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통계작성으로부터 보고제출과 통계자료의 보관리용에 이르는 전행정에서 국가가 제정한 질서와 제도를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해야 한다.

대안의 사업체계와 청산리방법을 구현한 일원화통계체계는 통계사업에서 정치사업을 앞세우며 군중로선을 관철할것을 요구한다.

모든 경제지도일군들과 통계일군들은 관료주의, 주관주의적 사업방법과 작풍을 철저히 없애고 일상적으로 생산현장,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앞세우며 그들의 자각성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으로 통계사업을 조

직진행하여야 한다.

통계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며 통계가 사회주의건설에 효과적으로 복무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작성된 통계자료를 잘 분석리용하며 체계적으로 정비하는것이 중요하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통계 그자체가 우리 사업의 개선방향을 밝혀줄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통계를 세밀히 분석하고 거기에서 일정한 정치적결론을 끄집어내며 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해당한 대책들을 세우는데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314페지)

통계사업의 목적은 통계를 세밀히 분석하여 사업을 총화하고 평가하며 예비를 찾아내여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는데 있다.

모든 기관, 기업소의 지도일군들과 통계일군들은 계산통계사업을 직접 틀어쥐고 조직지도하며 통계숫자들을 구체적으로 총화하고 분석함으로써 과학적인 결론을 찾고 걸린 문제의 해결대책을 제때에 세우는 기풍을 확립하여야 한다. 통계분석에서는 항상 정치적측면과 경제기술적측면을 결합하며 당과 국가의 리익의 견지에서 모든 자료를 호상 련관시켜 따져보고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며 대책을 세우는데서는 자체의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하는 립장에 튼튼히 서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것은 계산사무를 기계화하는것이다. 계산사무의 기계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것은 통계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모든 단위의 지도일군들과 통계일군들은 우리의 튼튼한 자립적공업토대에 의거하여 계산사무를 기계화하는데 필요한 물질적수단의 생산을 적극 추진시키며 계산기지들을 튼튼히 꾸리고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기계화의 효과성을 최대한으로 높이도록 하는데 중요한 관심을 돌려야 할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통계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결정적고리는 이 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통계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에서는 일군들과 당원들 속에서 정치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혁명화, 로동계급화함으로써 통계사업에서 객관성, 과학성 그리고 당성, 로동계급성의 원칙을 확고히 고수하며 통계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해당 당조직들은 또한 통계사업을 직접 틀어쥐고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며 이 사업에 경제지도일군들과 통계일군을 비롯한 광범한 대중을 옳게 조직동원함으로써 통계사업을 전국가적, 전군중적 사업으로 전환시키는것이 필요하다. 통계사업에 대한 사회적인식을 높이고 군중화하여야만 모든 계산단위의 책임성을 높이고 통계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보장할수 있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정책을 높이 받들고 계산통계사업을 결정적으로 강화함으로써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혁명적로선을 성과적으로 관철하며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더욱 빨리 앞당겨나가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근 로 자 제6호(루계 339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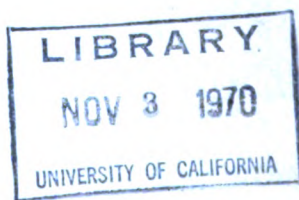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 소 • 평양시 중구역 남문동
인쇄소 • 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 • 1970년 5월 25일 발 행 • 1970년 6월 1일

ㄱ—03224 값 50전

전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7 호

평 양 근로자사 1970

전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제 7 호 (340)

차 례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높이는 것은 생산력발전을 힘있게 추동하는 결정적요인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높여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가시는 원칙을 제시하시고 일관하게 견지하여 오시였다.

그이께서는 천재적로작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에서 사회주의사회에서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보장할수 있는 가능성을 독창적으로 밝히시면서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력발전을 힘있게 추동하는 결정적요인이 사람들의 높은 혁명적열의에 있다는것을 다시금 전면적으로, 과학적으로 해명하시였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력발전을 힘있게 추동하는 결정적요인을 어디에서 찾는가 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맑스-레닌주의적립장과 기회주의적립장을 갈라놓는 시금석으로 되며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성과여부를 좌우하는 근본문제로 된다.

이 문제는 이때까지 그 누구에 의해서도 완전히 해명되지 못한 전혀 새로운 문제이며 특히 기회주의적리론이 대두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커다란 혼란을 조성하고있는 환경에서 그 해결을 결코 미룰수 없는 절박한 문제였다.

오직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천재적수령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서만 이 문제는 비로소 완벽하게 해명될수 있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립장에서 우리 나라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과정에서 쌓으신 풍부한 경험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에 대한 전면적인 분석에 기초하시여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력발전을 힘있게 추동하는 결정적요인이 사람들의 높은 혁명적열의에 있다는것을 과학적으로 밝히심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이 높은 속도를 이룩할수 있는 넓은 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우리 나라의 영웅적로동계급과 전체 근로자들이 어머니당 제5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맞이하기 위하여 새로운 천리마속도 《강선속도》로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는 오늘 생산력발전의 결정적요인에 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리론을 깊이 파악하고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천리마적대진군을 계속 견지하며 더욱 추진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력발전을 힘있게 추동하는 결정적요인이 사람들의 높은 혁명적열의에 있다는것을 전면적으로 완벽하게 해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력발전을 힘있게 추동하는 결정적요인은 사람들의 높은 혁명적열의입니다.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우월성은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이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자각적열성과 창의창발성을 내여 일한다는데 있습니다.》(《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 3페지)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생산의 결정적요인을 사람에게서 찾고 사상에서 찾

아야 한다는것을 가르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생산력에서 제일 중요한것은 생산도구와 사람이며 그중에서 결정적인것은 사람이다. 기계를 움직이는것은 사람이며 그것을 만드는것도 사람이다. 일정한 기술숙련과 사상의식을 가진 사람이 바로 생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아무리 훌륭한 기계설비가 있어도 그것을 다루는 사람의 능력과 열성이 높지 못하면 생산이 발전할수 없다. 여기에서 결정적의의를 가지는것은 사람의 혁명적열의이다. 혁명적열의가 높지 못한 사람에게 있어서 기계와 기술기능은 커다란 힘을 나타낼수 없다. 사람들의 혁명적열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낡은 기술은 새로운 기술로 부단히 바뀌여지고 또한 사람의 기술기능이 더욱더 높아지며 따라서 생산력이 발전하게 된다. 이것은 근로자들의 높은 혁명적열의가 생산력발전에서 결정적역할을 한다는것을 말해준다.

사회주의사회는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발양시킬수 있는 사회경제적조건을 가지고있다.

인민대중이 아무런 정치적권리와 자유를 가지고있지 못한 자본주의사회와는 달리 사회주의제도하에서는 인민대중이 정권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정치,경제, 문화의 모든 부문에서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받고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생산수단이 사적소유로 되여있고 생산의 목적은 자본가, 지주들이 더 많은 리윤을 짜내는데 있으며 근로자들은 오직 실업과 굶주림의 위협에 못이겨 마지못해 일하게 되며 생산과 기술의 발전에 대하여 그 어떠한 관심도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생산수단이 사회적소유로 되여있고 로동의 결과가 근로자들 자신과 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하여 돌려지기때문에 자기들의 온갖 지혜와 창발성을 다 내여 열성적으로 일하게 된다.

사람들의 사상의식수준과 생산열의를 끊임없이 높여 계속 전진하고 계속혁신함으로써 더 많은 물질적 및 문화적 재부를 창조하여나가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건설은 인민대중을 위한 인민대중자신의 사업이다. 언제나 력사를 창조하고 발전시키는것은 인민대중이며 사회주의건설의 직접적담당자가 군중인것만큼 그들의 혁명적열의를 높임으로써만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으며 생산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이룩할수 있다.

혁명의 탁월한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력발전의 결정적추동력은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의 본능적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더욱더 커진다는것을 과학적으로 밝히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프로레타리아 당과 국가가 자기의 본능에 따라 근로자들속에서 사상혁명을 강화하고 그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 잔재를 점차 없애면 없앨수록 그들은 사회주의적생산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온갖 재능과 정력을 다바쳐 일하게 될것입니다. 그리하여 경제관리사업과 생산조직, 로동조직 그리고 기술발전의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는 개선과 혁신이 일어날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3~4페지)

근로자들속에서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낡은 사상잔재를 뿌리빼고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그들의 온갖 재능과 창발력을 높이 발양시키는것은 우선 계획적인 경제관리를 실현하며 생산조직과 로동조직을 합리화하며 생산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기 위한 결정적담보로 된다.

생산의 무정부성과 과잉생산공황으로 말미암아 재생산과정이 주기적으로 중단되며 따라서 많은 사회적로동이 랑비되는 자본주의사회에서와는 달리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인민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법칙이 작용하며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이 객관적경제법칙에 기초하여 인민경제를 계획하고 조직함으로써 나라의 온갖 로력자원과 자연부원을 가장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생산을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프로레타리아독재국

가의 경제조직자적기능이 강화되고 일군들의 경제관리운영수준이 높아져 인민경제부문들사이의 균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나라의 경제가 더 잘 째일수록 더욱 많아진다. 사회주의국가는 이 가능성을 리용하여 인민생활의 당면한 수요를 충족시키면서도 나라의 만년대계를 위한 생산토대의 끊임없는 확대에 더 많은 자금을 돌리며 이미 마련된 생산로대를 가장 합리적으로 리용한다. 이것은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생산장성의 예비를 더욱더 큰 규모로 조성하게 하며 따라서 경제발전의 높은 단계에서도 생산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보장케 하는 중요한 담보의 하나로 된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직접적담당자로서의 인민대중의 높은 혁명적열의를 떠나서는 결코 원만히 실현될수 없다. 인민경제를 계획화하고 조직화하며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사업은 인민대중의 적극적참가하에서만, 그들의 높은 혁명적열의에 의거하여서만 참말로 훌륭히 실현될수 있다.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 그리고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계가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는데서 그처럼 커다란 위력을 발휘하는것도 그것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 당의 전통적인 군중로선을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에 구현하고있으며 무엇보다도 근로자들의 정치적각성과 혁명적열의를 높이는데 기초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참으로 위대하고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사업방법, 경제관리형태이기때문이다.

또한 계획을 일원화, 세부화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에 의하여서만 훌륭히 관철될수 있다. 생산장성의 예비와 가능성이 어디에 있고 그것을 동원하기 위한 방도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있는 인민대중의 적극적인 참가하에서만, 그들의 혁명적열의를 높임으로써만 모두 부문을 세부에 이르기까지 빈틈없이 서로 맞물리고 협동생산을 정확히 보장할수 있으며 진실로 동원적이며 현실적인 그리고 과학적인 계획을 세울수 있으며 그것을 훌륭히 실현할수 있다.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높여 나라의 온갖 로력자원과 자연부원, 생산장성의 모든 예비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할 때 생산과 국민소득의 빠른 장성을 보장할수 있으며 따라서 사회주의국가는 당면한 인민생활의 향상에 많은 몫을 돌리면서도 축적을 계통적으로 더욱 빨리 높이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사회주의적확대재생산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보장하기 위한 밑천을 더욱더 큰 규모로 마련하여나갈수 있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높이는것은 또한 사회주의제도가 지어주는 기술발전의 무제한한 가능성을 원만히 실현하게 하는 긴정적담보로 된다고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로동생산능률을 높이는데 있어서 결정적의의를 가지는것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자기의 온갖 정력과 지혜를 다 바쳐 싸우려는 로동자들의 고상한 사상입니다. 로동자들의 정치적각성이 높아지면 그들은 자기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더 노력할것이며 생산장성의 모든 예비와 가능성을 찾아내기 위하여 더 많은 창발성과 열성과 재능을 발휘할것입니다.》 (《김일성선집》, 제6권, 467페지)

설비는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이며 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무기이다. 군대가 무기없이 적과 싸울수 없는것과 같이 공장에서 설비없이는 생산을 할수 없으며 자연과의 투쟁을 성과적으로 할수 없다. 낡은 기술이 새 기술로 바뀌여지고 새 기술이 보다더 새로운 기술로 바뀌여지며 손로동을 기계화하고 기계화가 반자동화로 발전하며 반자동화가 자동화로 끊임없이 발전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과정이다.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높이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바로 이러

한 합법칙적과정을 추진시키는 결정적인 담보로 된다.

기계설비는 일정한 공칭능력을 가지고있다. 그러나 그것은 고정불변한것이 아니다. 기계의 공칭능력은 기계를 직접 다루며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사상의식수준이 높아지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끊임없이 높아진다. 기술발전이 억제되는 자본주의사회와는 달리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사회적리익과 개인의 리익이 완전히 통일되여있으며 기술발전을 억제하는 그 어떠한 사회적장애도 없다. 근로자들은 기술의 발전에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고있으며 관심을 돌리고있다. 사회주의국가가 근로자들속에서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그들의 정치적각성과 혁명적열의를 높이면 높일수록 그들은 있는 기계설비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리용하고 그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새로운 기계설비들을 만들어내고 선진적인 작업방법과 기술공정을 생산에 도입하기 위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주의사회에서의 기술발전의 합법칙적과정은 가일층 촉진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가 높아져 기술이 빨리 발전하는데 따라 로동생산능률이 끊임없이 높아지고 생산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것은 명백한 진리이다.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높이는 가장 위력한 방도는 그들속에서 사상혁명을 강화하며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이고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이에 경제기술적인 사업을 옳게 결합시키며 근로자들의 정치적각성과 의식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면서 여기에 물질적관심을 옳게 배합하는것, 이것이 사회주의건설에서 군중을 동원하는 우리 당의 기본방법이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227페지)

근로자들속에서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리고 정치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우는 기초우에서 행정기술사업을 이에 밀접히 따라세움으로써만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높여 사회주의제도가 지어주는 생산장성의 모든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와 같이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력발전을 힘있게 추동하는 결정적요인이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높이는데 있다는것을 전면적으로 완벽하게 해명하심으로써 사회주의경제를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는 가장 힘있는 무기를 마련하시였다.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생산력발전의 결정적요인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확고히 견지하고나아가야 할 탁월한 사상이며 맑스-레닌주의보물고를 더욱 풍부히 한 불멸의 혁명사상이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새롭게 밝히신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력발전을 힘있게 추동하는 결정적요인에 관한 사상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실천행정에서 그 정당성이 뚜렷이 확증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하여온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실천적경험을 총화분석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이 모든것은 정치사업의 위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것을 잘 보여주며 우리 당이 내세운 방침대로 정치사업을 잘하여 대중의 정치적각성을 높이고 그들의 혁명적열의를 불러일으킨다면 경제의 규모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빨리 나갈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는것입니다.》

대중의 혁명적열의에 의거하며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키는 방법은 혁명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서 혁명과 건설에서 모든 잠재력과 가능성을 남김없이 동원할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결정적담보는 인민대중의 창조력을 남김없이 동원하며 그들의 열성과 창발성, 재능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키는데 있다는 혁명적립장으로부터 자기의 모든 활동에서 언제나 혁명적군중로선을 확고히 견지하여왔다. 당은 난관과 시련에 부닥쳤을 때마다 언제나 인민대중을 믿고 대중과 협의하며 대중의 힘과 지혜를 동원하여 그것을 이겨나감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전과정에서 생산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확고히 보장할수 있었다.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직후 파괴된 경제를 복구하고 공업의 식민지적편파성과 기형성을 퇴치하며 공업을 개건하고 발전시켜야 할 어렵고 복잡한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인민대중을 발동하며 그들속에서 애국사상을 불러일으킨다면 제기된 모든 난관과 애로를 이겨내고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생활문제를 원만히 해결할수 있다고 확신하시고 대중의 정치적열의를 높이기 위한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경제건설의 난관을 뚫고나가는데서 결정적의의를 가지는것은 광범한 인민대중속에서 건국사상을 발동시키는것입니다. …우리는 애국적열의와 건국사상을 높이 발양하여야만 모든 난관들을 이겨내고 민족경제의 부흥발전을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있다는것을 똑똑히 깨달아야 합니다.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은 민주건국사업을 밀고나가는 강력한 요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건국사상을 어떻게 발양하고있는가에 대하여 늘 스스로 검토하고 동지적으로 서로 비판도 하여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벌려야 할것입니다.》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1권, 4～5페지)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을 벌릴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 방침은 근로자들의 애국적열의를 높이 발양시켜 민족경제의 부흥발전을 급속히 추진시킬수 있게 한 가장 탁월한 방침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을 직접 지도하시는 한편 친히 대중속에 들어가시여 실천적모범을 보여주시고 대중을 새 조국건설을 위한 보람찬 위업수행에 적극 나서도록 이끌어주시였다.

15성상에 걸치는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일제를 패망시키고 조국의 광복을 이룩하신 수령께서는 조국에 개선하신후 그리운 고향 만경대에도 들리시지 않으시고 먼저 강선의 로동계급을 찾으시여 나라의 정사를 의논하시였으며 보통강개수공사의 첫삽을 뜨시여 인민대중을 새 조국건설을 위한 애국운동에로 힘있게 고무하여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현명한 방침과 그이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와 고매한 덕성으로 하여 근로자들의 애국적열의는 비상히 높아졌으며 나라의 경제발전에서는 거대한 비약적성과들이 이룩되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 첫 인민경제계획인 1947년도계획은 빛나게 초과수행되였다. 국영공업총생산액은 102.5%로 초과완수되고 공업제품의 생산은 1946년보다 89%나 늘었다. 그리고 1948년에는 1947년보다 또다시 44%나 높아졌다.

우리 당은 이미 이룩한 거대한 성과에 기초하여 1949～1950년 2개년인민경제계획을 수립하고 전체 인민을 그 수행에로 힘차게 조직동원하였다. 인민대중의 높은 애국적열의에 의하여 2개년인민경제계획은 성과적으로 수행되여나갔으며 사람들은 이 시기를 력사상 일찌기 없었던 번영의 시대, 《황금의 시대》로 부르게 되였다.

해방후 우리 나라에서 새 조국건설을 위한 실천적투쟁과정은 인민대중속에서 정치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의 혁명적열의를 불러일으킬 때 경제건설에서 위대한 비약과 혁신이 이룩되며 생산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보장할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었다.

전후인민경제복구발전 3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사회주의기초건설

을 위한 5개년계획수행에 들어서 우리 인민들앞에는 많은 난관과 애로들이 가로놓였다. 대내외의 계급적원쑤들은 우리 혁명의 전취물을 침해하고 우리 인민의 건설사업을 파탄시키려고 미쳐 날뛰였다. 또한 당안에서는 사대주의에 물젖은 종파분자들이 제각기 자기의 상전을 등에 업고 당의 로선을 반대하여 머리를 쳐들었다. 다른 한편 우리에게는 자재와 자금도 모자랐다.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혁명의 수력부대이며 당의 믿음직한 보위자인 로동계급을 확고히 믿으시고 그들의 힘에 의거하여 조성된 난국을 뚫고나가기로 결심하시고 몸소 강선의 로동계급을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강선의 로동계급에게 나라에 조성된 구체적형편을 하나하나 알려주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오직 우리 혁명의 주력부대인 로동계급을 믿고있으며 당신들밖에 의지할데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 당이 처한 이 엄중한 난국을 뚫고나가기 위하여 당신들이 기세를 올리고 분발하여 생산도 많이 내고 건설도 잘하여 경제건설을 더 힘있게 밀고나가야 하지 않겠는가…》(《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 5페지)

그이께서는 또한 1만톤의 강철을 더 생산해주면 나라가 허리를 펴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강선의 로동계급은 물론 우리 나라 모든 로동계급과 전체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불러일으켰으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위대한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키게 한 위대한 불씨로 되였다.

강선의 로동계급은 수령의 교시를 심장으로 받들고 궐기하여 6만톤 공칭능력의 분괴압연기에서 자기들이 결의한 9만톤이 아니라 12만톤의 강재를 생산하였다.

위대한 천리마운동은 바로 혁명의 탁월한 천재적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강선의 로동계급의 심장속에 심어주신 위대한 혁명적앙양의 불씨에서, 언제나 수령께 무한히 충실한 강선의 영웅적로동계급이 그이의 부르심을 높이 받들고 강재생산에서 새로운 혁신을 이룩하기 위한 줄기찬 투쟁행정에서 발단되였다.

강선의 로동계급이 높이 추켜든 천리마운동의 불길은 전국의 방방곡곡,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 파급되였으며 온 나라는 우람찬 천리마적대진군으로 들끓었다. 우리 인민의 천리마적대진군의 힘찬 발굽아래 온갖 계급적원쑤들의 음흉한 책동도, 소극성과 보수주의, 기술신비주의도 박산났다. 반면에 대중속에서 우리 당의 위신은 전례없이 높아지고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은 더욱더 불패의것으로 강화되였으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은 비상히 빠른 속도로 전진하게 되였다. 공업총생산액을 2.6배로 높일것을 예견하였던 5개년계획은 두해반동안에 끝났으며 주요공업제품의 현물지표별 생산계획도 전반적으로 4년동안에 완수 또는 넘쳐완수되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에서 일어난 혁명적대고조와 위대한 천리마운동은 정치사업의 위력을 보여주는것이며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력발전을 힘있게 추동하는 결정적요인에 관한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의 정당성을 뚜렷이 증명해주는것이다. 그것은 그이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일관하게 견지하여오신 위대한 주체사상과 대중을 믿고 대중에 의거하여 제기된 모든 난관을 뚫고나가시는 그이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방법과 군중로선의 위대한 승리이다.

《강선속도》는 경제규모가 전례없이 방대하여지고 인민경제가 더욱더 째여진 조건에서 일어난 1970년대의 새로운 천리마속도이다. 그것은 경제규모가 커지는 조건하에서도 근로자들속에서 사상혁명을 강화하고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앞세워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높이면 높일수록 생산장성의 예비와 가능성은 더

욱더 많아지며 따라서 생산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는 힘있는 산 증거이다.

새로운 천리마속도 《강선속도》는 우리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시며 혁명의 영명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천리마의 고향 강선의 영웅적로동계급의 심장속에 심어주신 혁명적앙양의 위대한 불씨에서 일어난 전인민적천리마대진군운동의 산물이며 탁월한 수령을 모시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끝없는 영예와 긍지, 그이의 명령이라면 물불을 헤아리지 않고 뛰여들어 그것을 끝까지 해내고야마는, 그이께 끝없이 충실한 우리 인민의 불타는 충성심의 발현이다.

언제나 로동계급을 친어버이의 심정으로 사랑하시고 믿어주시며 그들을 새로운 보람찬 투쟁에로 불러일으켜오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난해 11월 5일과 6일 이틀간에 걸쳐 강선제강소일군들을 부르시여 친히 자리를 같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남조선의 혁명가들이 단두대에 올라서도 《조선로동당 만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를 부르면서 목숨을 바치며 싸우고있는 이때에 우리가 어찌 안일하게 살수 있겠는가, 모든것을 미제를 조국강토에서 몰아내고 우리앞에 나선 최대의 민족적과업인 조국통일의 성스러운 위업을 위하여 바쳐야 하며 그러자면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7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우리 당 제5차대회전으로 점령하기 위한 총돌격전을 벌려야 하며 달리는 천리마에 다시한번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강선의 로동계급이 이 보람찬 투쟁에서 앞장서야 한다고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오늘 조국통일의 위업도,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더욱 높이는 문제도 중요하게는 7개년계획의 강철고지를 빨리 점령하는가 못하는가에 달려있으며 따라서 강선의 로동계급에 대한 우리 당의 기대는 매우 크다고 하시면서 총돌격전에서 견지하여야 할 중요한 원칙들을 명시하여주시였다. 그이께서는 특히 로동자들의 생활에 대하여 참으로 크나큰 관심과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남새와 고기, 알을 늘 떨구지 말고 공급하며 용해공들과 가열공들에게는 두간짜리이상의 문화주택을 보장하며 박문에는 방음장치도 하여 그들이 편히 쉴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새로운 천리마속도 《강선속도》는 바로 우리 인민이 나아갈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는 민족의 위대한 태양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아래, 그이의 크나큰 사랑과 배려속에서, 그이의 전투적호소를 관철하기 위한 장엄한 투쟁속에서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이 창조한 우람찬 천리마적대진군운동이다.

수령의 가르치심과 기대와 사랑에 가슴들먹이며 전국에 사회주의경쟁을 호소한 강선의 영웅적로동계급은 모든 기대, 모든 설비들에 만부하를 걸고 지난해 실적의 2배에 달하는 강철을 뽑아내는 참으로 놀라운 기적과 혁신을 이룩하였으며 새로운 천리마속도 《강선속도》를 창조하였다.

《강선속도》는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담은것으로 하여, 조국통일의 위업을 위하여 달리는 천리마에 박차를 가하면서 더욱더 빨리 힘차게 앞으로 달려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절절한 념원을 담은것으로 하여 료원의 불길처럼 삽시에 전국에 파급되였으며 전인민적천리마대진군운동으로,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달려나가는 1970년대의 새로운 천리마속도로 되였다.

새로운 천리마속도 《강선속도》는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당의 유일사상에 기초한 전사회의 확고부동한 정치사상적통일단결의 불패의 위력을 시위하는것이며 끊임없이 혁신하고 끊임없이 전진하는 영웅적조선인민의 혁명적기상을 보여주는것이다.

우리 당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현명한 방침에 기초하여 근로자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전당적, 전인민적 투쟁을 짜고들어 힘있게 벌렸으며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과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였다. 그리하여 당의 유일사상,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에 기초한 전당과 전체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이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되였으며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전체 근로대중속에서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생활기풍이 더욱 확고히 수립되게 되였다.

오늘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전체 근로자들은 우리 인민의 자애롭고 위대하신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께 끝까지 충실할 불타는 일념을 안고 없는것은 만들어내고 부족한것은 찾아내면서 전진, 전진, 투쟁 또 전진하고있다. 지난해보다 훨씬 장성된 올해 인민경제계획은 매일, 매달, 매분기마다 넘쳐수행되고있으며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는 확고히 보장되고있다.

우리 나라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새로운 천리마속도 《강선속도》로 힘차게 달려나가고있는 오늘의 벅찬 현실은 경제규모가 커지는 조건에서도 근로자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불러일으킬 때 점령못할 요새도, 극복못할 난관도 없으며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욱더 높이 발양시키면서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실로 생산발전의 결정적추동력에 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은 영생불멸의 무궁무진한 힘을 가지고있다. 이 위대한 사상을 높이 받들고 나아갈 때 천리마는 우렁찬 발굽소리 드높이 더욱 힘차게 달려나갈것이며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는 확고히 담보될것이다.

* *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경험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생산력발전을 힘있게 추동하는 결정적요인,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보장하는 결정적담보는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높이며 무엇보다도 인민대중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모든 근로자들의 심장마다에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의 불씨를 심어주는데 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계속 확고히 견지하기 위하여서는 전체 근로자들속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움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오직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이외에는 그 어떤 다른 사상도 모르며 일편단심 수령을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위대하고 탁월한 수령을 모시고 살며 일하는 높은 혁명적자부심과 긍지를 가슴깊이 간직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전체 근로자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며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더욱 힘있게 벌려야 한다.

우리는 수령께서 이미 제시하신 방침대로 사상혁명을 강화하고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앞세우면서 여기에 경제기술적인 사업을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함으로써 전사회를 혁명적정열로 계속 부글부글 들끓게 하며 생산장성에 동원할수 있는 모든 예비와 가능성을 남김없이 찾아내여 효과있게 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경제발전의 새로운 천리마적속도를 확고히 견지하여 7개년계획의 모든 고지우에 승리의 기발을 휘날리고 어머니당 제5차대회를 영광의 대회로 맞이하자!

대안체계의 위력을 발휘시켜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높이자

우리 당과 혁명 발전에서 새로운 리정표로 될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가 열릴 력사적시각이 다가오고 있다.

지금 온 나라는 박두하여오는 어머니당대회를 앞두고 전례없는 혁명적대고조로 들끓고있으며 창조와 혁신의 거세찬 불길이 일터마다에 힘차게 타번지고 있다.

새로운 천리마속도 《강선속도》를 창조하고 계속 천리마의 힘찬 진군을 다그치고있는 강선의 붉은 강철전사들을 비롯한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전체 근로자들은 올해 상반년도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하는데서 빛나는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달리는 천리마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있다.

천리마대안전기공장 전기화초병들과 천리마 6월 15일 기계공장의 기계전사들은 당과 수령께 다진 맹세를 어떤 일이 있어도 기어이 실천하려는 불타는 일념을 안고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지난해 같은 시기의 실적에 비하여 각각 1.5배로 늘어난 올해 상반년도계획을 기한을 훨씬 앞당겨 넘쳐수행하였으며 리원판동무가 일하는 공장의 로동자, 기술자들도 지난해보다 2.6배로 늘어난 상반년계획을 한달이나 앞당겨 훌륭히 수행하였다.

올해 년간계획을 지난 6월초에 빛나게 완수하고 어버이수령께 맨 선참으로 충성의 보고를 올린 정히경동무가 일하는 제염소의 붉은 제염전사들을 비롯하여 이미 년간계획을 완수한 승리자들의 대렬이 수많이 늘어나고있다.

혁명의 수도 평양시를 더욱 웅장하고 아름다운 현대적도시로 일떠세울데 대한 수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밤에 낮을 이어 눈부신 로력투쟁을 벌리고있는 수도건설자들은 주택건설에서 조립식비중을 현저히 높이고 《1인 5세대운동》을 광범히 진행하여 새로운 놀라운 기록들을 창조하고있다.

전력공업, 광업, 석탄공업, 금속공업, 기계공업, 화학공업, 기본건설, 수산업, 철도운수, 지방공업, 가금업 등 인민경제 어느 부문, 어느 공장, 기업소 할것없이 모든곳에서 새로운 천리마의 우람찬 진군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다.

《강선속도》로 달리는 공업에 보조를 맞추어 우리의 붉은 협동농민들도 당대회에 만풍년의 황금가을을 선물하기 위하여 《청산리사람들의 일솜씨》로 이악하게 투쟁함으로써 올해와 같이 례년에 보기드문 혹심한 가물을 성과적으로 이겨내고 모내기전투를 승리적으로 보장하였으며 런이어 나서는 모든 영농사업들을 훌륭히 수행하고있다.

우리의 로동계급과 전체 근로자들의 불굴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지난 상반년동안에 우리 나라 인민경제에서는 또한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더한층 튼튼히 다지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더욱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로동당시대의 새로운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수많이 일떠섰다.

이 기간 우리의 로동계급과 전체 근로자들의 헌신적로력투쟁에 의하여 북창화력발전소 제1계단공사가 성과적으로 완수되였으며 천리마강선제강소의 6천톤프레스직장이 조업하고 2.8세멘트공장의 대형소성로 증설공사가 빛나게 수행되였다. 또한 9월 24일 시료공장에 2개의 직장이 새로 건설되어 조업함으로써 시료공업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게 되였다.

지금 우리 나라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날마다 끊임없이 창조되고있는 새로운 비약과 위대한 기적들은 우리 인민을 언제나 계속혁신, 계속

전진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면서 승리와 영광, 행복과 번영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세련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그것은 또한 수령의 명령, 지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여들어가 끝까지 관철해내고야마는 우리 근로자들의 수령에 대한 불보다 뜨거운 충성심의 집중적발현이다.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을 비롯한 전체 근로자들이 올해의 첫진투를 시작하면서부터 새로운 천리마속도 《강선속도》를 창조하고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를 더욱 앙양시킬수 있은 중요한 요인의 하나는 모든 당원들과 지도일군들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쳐주신대로 대안의 사업체계의 위력을 높이 발휘시켜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이에 빈틈없는 조직사업을 따라세운데 있다.

전체 당원들과 지도일군들은 7개년계획의 전반적고지들을 앞당겨 점령하기 위한 올해 상반년도전투에서 이룩한 귀중한 경험과 성과들을 살려 대안의 사업체계를 더욱 튼튼히 틀어쥐고나감으로써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더한층 높이며 다가오는 당 제5차대회를 보다 높은 정치적열의와 로력적성과로 맞이하여야 할것이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대안의 사업체계의 위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새로운 사업체계의 위력은 단결과 협력의 위력이며 대중의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의 위력이며 당의 지도가 아래에 깊이 틀어가는데서 나오는 위력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423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대안의 사업체계는 사람들을 모두 공산주의적으로 일하며 생활할수 있게 하는 사업체계이다. 그것은 당의 령도밑에 모든 근로자들을 다 기업관리에 적극 참가시키고 그들의 헌신성과 창발성을 높이 불러일으킴으로써 생산에서 대중적영웅주의와 무궁무진한 힘을 낳게 한다.

대안의 사업체계가 생산과 건설에서 위대한 기적과 혁신을 끊임없이 창조할수 있게 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군중로선을 관철하여 경제관리를 참말로 사람과의 산 창조적사업으로 전환시키는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사업체계라는것과 관련되여있다.

다 아는바와 같이 사회주의경제건설은 사람이 자연을 정복하고 개조하는 보람찬 투쟁이며 여기서 주인은 근로자들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기본은 어디까지나 생산의 주인공들인 사람과의 사업 즉 로동자와 기술자들과의 사업, 사무원들과의 사업, 종업원가족들과의 사업에 두어야 하며 이들과의 사업을 잘하는가 못하는가에 따라 사회주의건설의 성과가 좌우되게 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여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불러일으키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것은 정치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우는것이다.

정치사업을 앞세워 군중을 동원하는 방법, 군중로선에 의거한 사업방법은 혁명투쟁에서나 경제건설에서나 대중을 조직동원하는 공산주의자들의 기본적인 사업방법이며 사회주의제도의 본질로부터 흘러나오는 가장 위력한 사업방법이다

원래 혁명가들, 공산주의자들의 본신사업은 사람들을 교양하고 움직이는것이며 바로 정치사업을 통하여 그들의 정치적자각과 혁명적적극성을 불러일으켜 사회와 자연을 개조하여나가는것이다. 또한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우월성, 이 제도의 참다운 생활력은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이 나라와 사회를 위하여, 자기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자각적인 열성과 창발성을 내여 일한다는데 있다.

그렇기때문에 근로자들속에서 정치사

업을 잘하여 그들로 하여금 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 자각적으로 동원되도록 하는것은 당사업에서 언제나 기본으로 되며 또한 여기에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사업체계로서의 대안체계의 혁명적본질이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안체계의 혁명적본질에 대하여 밝히시면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대안의 사업체계에서 중요한것은 정치사업을 앞세우는것이다. 그리하여 매개 사람들이 사상동원이 되여 다 자각적으로 일하고 자기가 무엇때문에 일하며 할 일이 무엇인가, 자기가 어떻게 일하여야 하는가를 알도록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대안의 사업체계는 정치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우고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경제관리를 참말로 사람들과의 산 창조적사업으로 전환시키며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의창발성을 높이 불러일으켜 생산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이룩할수 있게 한다.

지난날 우리 나라 혁명과 건설에서 달성된 모든 승리와 성과들, 사회주의 건설에서 세상사람들을 그처럼 경탄시킨 혁명적대고조와 천리마운동의 계속적인 앙양도 대안사업체계의 이러한 기본정신을 철저히 관철한데서 이룩된 것이며 오늘 새로운 천리마속도 《강선속도》를 창조하고 날에 날마다 더욱더 커다란 기적과 혁신을 이룩하고있는 주되는 요인도 바로 여기에 있다.

올해 우리 나라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첫전투를 시작하면서부터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워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끊임없이 불러일으킨데 대한 대안의 사업체계의 혁명적요구를 철저히 관철하였다.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대안의 사업체계의 혁명적요구대로 근로자들속에서 력사적인 우리 당 제5차대회를 높은 정치적 및 로력적 성과로 맞이할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의도, 우리 인민에 대한 그이의 태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신임과 배려를 철저히 해설침투시키면서 그들을 혁명과업의 성과적수행에로 힘차게 조직동원하였다.

그리하여 우리의 전체 로동계급과 근로자들은 수령의 기대와 당의 의도를 더욱 깊이 명심하고 7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앞당겨 점령하기 위한 보람찬 최후돌격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강선의 붉은 천리마기수들을 비롯한 수많은 우리의 로동계급들은 어버이 수령께 다진 맹세를 실현하기 전에는 혁명초소를 물려서지 않겠다는 비상한 결의를 굳게 다지고 새해 첫날 첫전투부터 그야말로 불꽃튀는 눈부신 투쟁을 벌려나갔으며 《충성의 붉은 수첩》을 만들어 품에 간직하고 다니면서 그날의 자기 계획은 물론 자기의 교대, 자기의 작업반, 자기의 직장 계획을 반드시 넘쳐수행하고야 집으로 돌아가는 높은 공산주의적생활기풍과 집단적영웅주의를 발휘하였다. 어버이수령의 부르심을 높이 받들고 또한 사무원, 학생, 군인, 가정부인 할것없이 모든 사람들이 영웅적로동계급의 장엄한 증산투쟁을 힘있게 지원하여나섰다.

우리의 모든 공장과 기업소들, 모든 로동자지구들과 농촌마을들은 그야말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관철을 위한 치렬한 전투장으로 전변되였으며 온 나라는 새로운 혁명적기백과 창조적열의로 부글부글 들끓었다.

지난 상반년간의 전투에서 우리의 로동계급과 전체 근로자들이 창조한 위대한 기적과 혁신들은 이처럼 그 모두가 설비나 자재, 자금의 추가적인 증대에 의한것보다도 정치사업의 위력에 의하여 모든 사람들의 사상이 발동되고 그들이 자기들앞에 맡겨진 정치적임무와 기술적임무가 무엇인가를 명확히 알고 일한데서 이룩된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대안의 사업체계가 생산과 건설에서 위대한 혁신과 기적을 끊임없이 창

조할수 있게 하는것은 또한 그것이 정치사업에 의하여 앙양되는 대중의 혁명적열의에 치밀한 조직사업, 경제기술사업과 보장사업을 밀접히 따라세움으로써 대중의 창조적열정을 더욱 커다란 물질적힘으로 전환시킬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모든 사업에서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근로자들에 대한 공산주의교양을 당정책교양과 결부하여 힘있게 진행하는 동시에 행정실무사업과 물질기술적보장사업을 이에 옳게 결합시키는 원칙을 계속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야 하겠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396폐지)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이에 경제기술적인 사업을 옳게 결합시키며 근로자들의 정치적각성과 의식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면서 여기에 물질적보장사업을 옳게 배합하는것은 사회주의건설에서 군중을 동원하는 우리 당의 기본방법이며 대안의 사업체계의 중요한 요구이다.

대안의 사업체계에서는 군중로선에 기초한 계획화사업으로부터 생산에 대한 지도, 자재의 보장, 후방공급사업 등에 이르기까지 경제관리의 모든 고리들을 우가 책임지고 통일적으로, 집중적으로 보장하며 지도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 실정을 구체적으로 요해하면서 걸린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참말로 우가 아래를 도와주는 사업체계이다. 그렇기때문에 대안의 사업체계가 관철되는 모든 단위들에서는 례외없이 대중의 높은 혁명적열의가 커다란 물질적성과로 뚜렷이 나타나고있으며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이 계속 힘차게 타번지고있다.

달마다 분기마다 계획을 매번 지표별, 품종별로 꼭꼭 넘쳐수행하면서 새 기록, 새 기준을 련이어 창조한 올해 상반년도의 전투경험은 그것을 더욱 힘있게 보여주고있다.

지난 상반년전투의 전기간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대중속에서 정치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 한편 우가 아래를 책임지고 도와줄데 대한 대안체계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면서 제반 물질기술적보장사업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갔다.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생산지휘부를 대담하게 대중이 들끓고있는 기대앞으로, 수천척지하막장과 채벌장으로, 어로진투가 벌어지는 바다 한가운데로 옮기고 생산을 전투적으로, 기동적으로, 통일적으로 능숙하게 지휘하였다. 또한 대안체계의 요구대로 계획화사업에서 군중로선과 당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고 로동행정사업과 기술혁신, 자재공급사업을 구체적으로 짜고들었다. 우리 일군들은 걸린 문제가 제기되면 팔짱끼고 앉아 해결될것을 기다린것이 아니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로동자들과 함께 혁명적으로 풀어나갔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특히 우리 나라의 매개 공장, 기업소들이 전반적인민경제의 한개 부문, 직장과 같다고 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련접부문, 련접공장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협동생산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였다.

이리하여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련대적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고 기술관리, 설비관리 사업이 개선되었으며 자재공급사업이 성과적으로 보장되였다 이것은 매개 공장, 기업소들에서 모든 설비, 모든 기대들에 만부하, 만가동을 걸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 정규화할수 있게 한 결정적요인의 하나로 되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또한 근로자들에 대한 후방공급사업을 강화하는데 각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근로자들에 대한 후방공급사업은 경제지도일군들과 공장관리일군들이 늘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할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공장에서 후방공급사업을 잘하여 인민생활

에 대한 당과 국가의 배려가 제때에 미치도록 하며 로동자들이 잘 먹고 푹 쉴수 있는 모든 조건을 잘 지여준다면 그들은 사회와 집단을 위한 공동로동에 자기의 모든 능력과 재능을 다 바칠것이며 생산에서 높은 열성과 창발성을 낼것입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2권, 114페지)

어버이수령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지난 상반년전투의 전기간 근로자들의 생활조건과 휴식조건을 세심하게 돌보는데 커다란 힘을 넣었다.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후방부문일군들과 편의봉사일군들은 《생활봉사돌격대》, 《편의봉사돌격대》를 뭇고 로동자들과 같이 생산현장에 달려나가 그들의 일손을 도우면서 로동계급의 증산투쟁을 물질적으로 힘있게 뒤받침하여주었으며 매 가정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근로자들의 생활조건을 적극 돌봐주었다.

이리하여 로동계급을 비롯한 모든 근로자들은 자기들에게 돌려지는 어버이수령의 육친적배려를 더욱 몸가까이 느끼면서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생산에 전심전력하게 되였다.

실로 지난 상반년전투의 전기간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일어난 눈부신 성과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대안의 사업체계를 튼튼히 틀어쥐고 그 요구를 철저히 관철할 때 근로자들은 그야말로 태산도 허물고 바다도 가르는 무서운 힘을 발휘하게 되며 생산과 건설에서 위대한 기적과 혁신을 끊임없이 일으킬수 있다는것을 다시금 확증하여준다.

* *

오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다가오는 당 제5차대회전으로 7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기어이 점령하고 승리자의 긍지 드높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충성의 보고를 올릴 그 시각을 앞당기기 위하여 달리는 천리마에 더욱 박차를 가하며 장엄한 행군을 한층 더 다그치야 한다.

우리 당 제5차대회가 열릴 시각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전투는 이미 마지막고비에 들어섰으며 우리 인민은 7개년계획의 높은 령마루에 육박하였다.

영웅적 우리 로동계급과 전체 근로자들이 그처럼 방대했던 올해 첫달, 첫분기 계획을 빛나게 넘쳐수행함으로써 7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점령하기 위한 최후돌격전의 첫 돌파구를 열어놓았다면 이제 우리는 상반년도계획을 빛나게수행함으로써 7개년계획의 높은 령마루를 눈앞에서 매우 가깝게 바라보게 되였다.

우리의 전망은 확고하며 승리는 이미 약속되여있다.

전체 당원들과 지도일군들은 지난 시기에 그러하였던바와 같이 앞으로도 계속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계를 튼튼히 틀어쥐고 그 위력을 백방으로 높이 발휘시킴으로써 최후의 돌격전에서 영예로운 승리를 쟁취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여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서는 모든 당원들과 지도일군들이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혁명적투쟁정신을 발휘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새로운 사업체계를 받아들이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혁명적투쟁정신입니다.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이악하게 달라붙어야 하며 여러가지 난관을 용감하게 뚫고 나가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432페지)

높은 사상적각오와 혁명적투쟁정신은 가장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경제관리체계인 대안의 사업체계를 관철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며 모든 승리의 중요한 요인이다. 혁명적으로 살고 혁명적으로 사고하며 혁명적으로 일하는 여기에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담보가 있으며 또한 그러한 정신, 그러한 기세만이 혁명하기 좋아하고 전진하기

좋아하며 투쟁하기 좋아하는 영웅적조선로동계급의 혁명적기개에 완전히 부합되는것이다.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지도일군들은 무엇보다먼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온갖 낡고 침체한 사상잔재의 표현을 견결히 배격하고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끊임없이 높여 자신을 더욱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 하며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의 구현인 우리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고야마는 혁명가적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오직 이렇게 할 때만이 일군들은 우리 당의 기본핵심력량이며 혁명과업수행의 지휘성원으로서의 무거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여나갈수 있으며 전진도상에서 제기되는 온갖 애로와 난관들을 용감하게 이겨내고 대안의 사업체계의 혁명적요구를 철저히 관철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를 계속 견지하여나갈수 있다.

전체 당원들과 지도일군들은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안일성과 해이성, 보수성, 침체 등 일체 낡은 사상잔재들을 철저히 짓부시면서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 불굴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전체 당원들과 지도일군들은 또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없는것은 만들어내고 부족한것은 찾아내면서 제기된 모든 혁명과업을 대중의 힘에 철저히 의거하여 혁명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대안의 사업체계의 위력을 높이 발휘시키기 위하여서는 또한 모든 지도일군들이 공산주의적 사업작풍과 사업방법을 철저히 확립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새로운 사업체계는 한마디로 말하여 공산주의적사업체계입니다. 모든 일군들이 공산주의적 사업작풍과 사업방법을 배우지 않고서는 새로운 사업체계를 운영할수도 없으며 더욱 발전시킬수도 없습니다.》(우와 같은 책, 432~433페지)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정치적각성이 높이 발양되면 될수록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개선하는 문제는 혁명적대고조를 계속 견지하는데서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우리의 모든 지도일군들은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지도를 아래에 더욱 접근시키며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생산에 대한 지도와 모든 물질기술적보장사업, 로동자들에 대한 후방공급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지도일군들은 또한 당이 제시한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며 대중적기술혁신운동과 로동행정사업 그리고 협동생산을 빈틈없이 짜고들어야 한다.

일군들은 현실을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걸린 문제를 제때에 풀어나가며 대중의 앞장에 서서 아래일군들을 실속있게 도와주면서 필요한 모든 대책들을 예견성있게 풀어나가야 한다.

오직 이렇게 하여야만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대중의 혁명적기세를 더욱 앙양시킬수 있으며 기계설비들에 계속 만부하, 만가동을 걸고 생산을 끊임없이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 정규화해나갈수 있다.

대안체계의 위력을 높이 발휘시켜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서는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당위원회의 집체적령도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대안의 사업체계에서 기업관리는 전적으로 당의 령도에 의거하고있다. 때문에 당위원회의 집체적령도를 철저히 보장함으로써 경제에 대한 당적지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당위원회의 집체적령도를 확고히 보장함으로써 경제관리의 집체성을 철저히 보장하는 사업체계이다.

대안의 사업체계에서 생산에 대한 모든 문제들은 어느 개인이 책임지는것이

아니라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책임지며 무엇보다도 집체적령도기관인 공장당위원회가 책임진다.

공장, 기업소의 당위원회들은 경제사업에 대한 지도에서 키잡이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매개 단위의 당위원회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에 철저히 의거하여 경제사업의 중요한 문제들을 빠짐없이 집체적으로 로의하고 그 수행방향과 방도들을 제때에 옳게 제시해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당사업의 기본인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튼튼히 틀어쥐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힘차게 벌려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당위원회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강화하며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과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실속있게 진행하여야 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당조직들은 혁명적대고조에 알맞게 근로자들속에서의 정치사업을 생동한 자료를 가지고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전투적이며 기동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끊임없이 높이 불러일으켜야 한다.

근로자들속에서의 정치사업을 벌리는데 있어서 당조직들은 사회단체들을 적극 발동하며 그 역할을 높이도록 하는데 큰 주목을 돌려야 한다.

직맹과 농근맹, 사로청, 녀맹 등 사회단체들은 각계층 군중의 특성에 알맞게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가며 그들속에서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확대발전시켜야 한다.

오늘 우리에게는 할 일이 많으며 1분 1초도 결코 헛되게 보낼수 없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긴장된 태세를 조금도 늦추지 말고 지난 시기 발휘한 그러한 혁명적기세, 그러한 혁명정신으로 분초를 다투어 계속혁신, 계속전진함으로써 새로운 천리마속도 《강선속도》에 더욱 박차를 가하며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더한층 높여야 한다. 난관에 굴하지 않고 승리에 자만하지 않으며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앞으로 내닫리는것은 영웅적조선인민의 혁명적기상이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지도일군들과 전체 당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계의 위력을 높이 발휘시켜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더욱 힘있게 불러일으킴으로써 7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에 승리의 붉은기를 하루속히 휘날리며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가 진행되는 1970년도를 우리 당과 혁명의 력사에서 새로운 승리와 성과들로 가득찬 영광의 해, 승리의 해로 되게 하여야 한다.

모두다 우리 당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혁명의 한길을 따라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천리마의 기세, 일당백의 기세로 전진, 전진, 투쟁 또 전진하자!

우리 당의 혁명적군중관점과 인민적사업 작풍의 빛나는 전통

김　복　현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로선과 정책이 옳게 수립되고 그의 집행대책이 바로 세워진 다음에는 사업의 성과여부는 당원들의 옳은 혁명적관점과 군중적사업작풍에 전적으로 달려있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당의 로선과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일군들의 혁명적군중관점과 인민적사업작풍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일군들이 혁명적군중관점과 인민적사업작풍을 철저히 확립하고 그것을 실천활동에서 구현할 때만이 대중을 혁명과 건설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해방을 위한 투쟁 특히 항일무장투쟁행정에서 혁명적군중관점과 인민적사업작풍의 빛나는 전통을 이룩하시였다.

모든 당원들과 간부들이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이 빛나는 전통을 깊이 체득하고 실천에서 훌륭히 구현하는것은 대중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단결시키고 혁명력량을 반석같이 다지며 혁명과 건설의 성과적수행을 보장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1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해방을 위한 장기간의 간고한 혁명투쟁 특히 영웅적항일무장투쟁시기에 혁명적군중관점과 이에 기초한 인민적사업작풍의 빛나는 전통을 이룩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적군중관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적군중관점은 대중과의 관계에 관한 맑스-레닌주의적관점입니다. 다시말하면 인민대중의 력량을 믿고 군중속에 들어가 군중을 위해서 복무하고 군중이 옳은 길로 나가도록 인도하며 군중이 자기의 요구를 자기의 투쟁으로써 견지하고 관철하도록 하는 관점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혁명적군중관점을 옳게 세우는가 못세우는가 하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의 승패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군중에 대한 혁명적관점, 혁명적군중관점은 인민적사업작풍의 기초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업작풍은 일군들의 능력이나 성격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사업행정에서 나타나는 그들의 사상관점의 표현이다.

혁명적군중관점의 구현으로 되는 인민적사업작풍은 군중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그들의 리익을 위해 충실히 복무하며 어디까지나 그들을 믿고 그들과 한덩어리가 되여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사업태도이며 기풍이다.

혁명적군중관점과 인민적사업작풍은 공산주의자들에게 고유한것이며 이를 확립하는것은 그들의 혁명위업을 위하여 필수적인 요구로 된다.

공산주의자들, 혁명가들은 바로 이러한 혁명적군중관점과 인민적사업작풍을 확고히 소유하여야만 광범한 군중의 지지와 신임을 받을수 있고 그들을 수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워 당과 대중과의 련계를 불패의것으로 만들수 있으며 그들을 훌륭히 조직동원하여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수 있다.

혁명은 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이며 인민대중자신의 사업이다. 공산주의자들과 맑스-레닌주의당들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전체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며 인민의 행복한 새 생활을

위하여 투쟁한다. 이 위대하고 숭고한 사업은 결코 소수 공산주의자들의 힘만으로는 할수 없다.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전체 인민대중이 일떠서고 자각적으로 참가하여야만 혁명에서 승리하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할수 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자들은 오직 인민대중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며 언제나 인민대중을 믿고 그들에 의거하여 사업하며 그들의 힘을 동원하여 혁명과 건설을 추진시키는 혁명적군중관점과 인민적사업작풍을 견지하여야 한다.

항일유격대에 있어서 혁명적군중관점과 인민적사업작풍을 확고히 세우는것은 항일유격대자체의 성격과 사명, 항일무장투쟁의 간고성과 장기성, 복잡성과 관련하여 절실한 문제로, 사활적인 의의를 가지는 원칙적문제로 나섰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유격대의 성격과 사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항일유격대의 사상은 맑스-레닌주의사상이였으며 그 목적은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는 인민정권을 수립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이였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66페지)

항일유격대는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지침으로 하고 조선인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적해방을 위하여 일제를 반대하여 싸우는 혁명의 군대였으며 압박받고 착취당하는 로동자, 농민의 아들딸들로 구성된 인민의 군대였다.

항일유격대가 온갖 착취계급의 군대, 침략적군대들과는 달리 철저하게 혁명적군중관점으로 무장하고 인민적사업작풍을 확고히 세우는것은 그자체의 본질과 사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원칙적이며 필수적인 요구였다.

또한 항일유격대의 모든 활동이 류례없이 준엄하고 간고한 조건에서 진행되였던 사정은 혁명적군중관점과 인민적사업작풍을 확고히 세우는 문제를 각별히 날카롭게 제기하였다.

국가적후방도 없고 정규군의 지원도 없이 싸운 항일유격대는 인민과의 련계를 떠나서는 도대체 그자체를 유지할수도 없었으며 적과 싸워이길수도 없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수 없는것처럼 유격대는 인민을 떠나서 살수 없었다.

압박받고 착취당하는 근로인민의 아들딸들로 구성되고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싸운 항일유격대는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의 전행정에서 오직 혁명적인민의 지지와 원호를 받는 이외에 그 누구의 지원도 받을수 없었다.

그런것만큼 항일유격대에 있어서 인민과의 련계는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귀중한것이였다.

항일유격대가 대오를 부단히 확대강화하고 원쑤와 승리적으로 싸워나가기 위해서는 인민을 교양하고 각성시켜 수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워야 하였다. 이를 위하여 혁명적군중관점과 인민적사업작풍을 세우는것은 사활적인 문제였다.

항일유격대의 모든 활동은 대원들의 고도의 자각성과 의식성이 없이는 일보도 전진할수 없는 준엄하고도 엄혹한 투쟁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만약 우리에게 끝까지 혁명을 하겠다는 높은 혁명적각오가 없었더라면 15년동안이나 산에서 돌아다닐수 없었으며 통강냉이를 삶아먹고 그것도 없을 때에는 풀을 뜯어먹으면서 싸워나갈수 없었을것입니다.》

항일유격대는 모든것을 제힘으로 해결하면서 15성상이란 기나긴 세월 발톱까지 무장한 강대한 일제침략자를 반대하여 간고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실로 그것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준엄한 시련으로 가득찬 투쟁이였으며 오직 혁명을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칠 각오가 되여있고 필요하다면 목숨도 서슴없이 바칠 혁명적의지로 무장된 사람들만이 할수 있는 투쟁이였다. 그러므로 항일유격대원들에게는 고도의 자각성이 필요하였으며 그들의 의식성과 자각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들을 혁명동지로서 뜨거운 정으로 사랑하고 보살

펴주며 일깨워주는 군중적사업작풍을 확고히 세우는것이 필요했다.

항일유격대에 있어서 혁명적군중관점과 인민적사업작풍을 확립하는것이 필요하였던것은 또한 다음과 같은 사정과도 관련되여있다.

항일유격대가 창건되기 이전에 《조선독립》을 표방하여나섰던 《독립군》, 《의병대》 등 자산계급의 민족주의군대들은 그 본질상 인민적인 작풍과 도덕품성을 지닐수 없었으며 인민들과의 혈연적련계를 맺을수 없었다. 인민들은 항일유격대가 나오기전에 오직 이러한 군대들만을 보아왔던 관계로 항일유격대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그들과 같은 군대인가 하면서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

그러므로 항일유격대는 혁명적군중관점과 인민적사업작풍을 확립함으로써 자체가 이러한 자산계급의 무장부대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군대이며 오직 인민의 리익을 위한 군대라는것을 대중에게 철저히 리해시켜야만 하였다.

또한 당시 력사적으로 내려오던 종파분자들과 행세식공산주의자들의 반인민적작풍은 항일유격대와 인민들과의 련계를 강화발전시키는데 큰 장애를 조성하였다. 이와 관련하여서도 항일유격대에서 혁명적군중관점과 인민적사업작풍을 확고히 수립하는것이 긴절한 문제로 나섰다.

항일무장투쟁의 승리를 위하여 사활적의의를 가지였던 혁명적군중관점과 인민적사업작풍에 대한 문제는 오직 천재적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에 의해서만 훌륭히 해결될수 있었다.

류례없는 혁명적가정에서 탄생하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에 벌써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을 확고히 세우시였으며 철저한 혁명적군중관점을 소유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해방을 위한 혁명투쟁 특히 영웅적항일무장투쟁시기에 혁명적군중관점과 이에 기초한 인민적사업작풍을 확립하는것이 필수적요구로 된다는것을 그 누구보다도 깊이 통찰하시였으며 몸소 혁명적군중관점과 인민적사업작풍의 위대한 모범을 창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유격대원들을 위대한 혁명적군중관점과 인민적사업작풍의 모범으로 꾸준히 교양하시였으며 대원들은 그이의 모범을 따라 혁명적군중관점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인민적사업작풍을 훌륭히 발휘하였다. 이리하여 우리 당의 혁명전통에서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혁명적군중관점과 인민적사업작풍의 빛나는 전통이 이룩되게 되였다.

2

조국해방투쟁 특히 영웅적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우리 당의 혁명적군중관점과 인민적사업작풍의 빛나는 전통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고매한 덕성의 구현이며, 그이께서 이신작칙하시고 대원들을 꾸준히 교양하심으로써 이룩된 고귀한 결실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혁명적군중관점은 무엇보다도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그들의 리익을 위해 몸바쳐 싸워야 한다는 관점,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그에 튼튼히 의거하여 사업하며 군중을 각성시켜 그들자신의 투쟁으로 혁명과 건설을 추진시켜야 한다는 사상관점을 내용으로 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요지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공산주의자는 오직 인민의 리익을 위해서 몸바쳐싸우고 인민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인민을 믿고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싸울 때만이 승리할수 있다는것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된다. 인민에게서 배우고 인민을 잘 교양하고 조직하여 옳게 발동시킨다면 어떤 일이건 못해낼것이 없다.…

공산주의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립장에서 사고하고 행동하여야 하며 인민의 리익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모든것을 바쳐 싸울줄 알아야 한다. 인민의 리익에 무관심하거

나 그를 침해하는것은 혁명의 리익과 배치될뿐만아니라 군중을 리탈시킴으로써 혁명에 엄중한 손실을 준다. 공산주의자, 혁명가들은 인민의 충복이라는것을 한시도 잊지말아야 한다.

인민대중은 력사의 창조자이며 자연과 사회를 변혁하는 기본력량이다. 그들의 힘과 지혜는 무궁무진하며 그 힘은 그들의 의식성과 조직성이 높아지면 질수록 더욱 커진다.

공산주의자, 혁명가들은 언제나 인민대중에 의거하고 그들의 지혜에서 배울줄 알아야 하며 그들을 교양하고 각성시켜 수령의 주위에 굳게 묶어세우며 그들의 힘을 동원하여 혁명을 승리에로 이끄는 립장에 튼튼히 서야 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유격대원들을 군중에 대한 옳은 관점을 가지도록 꾸준히 설복, 교양하시였다. 이리하여 항일유격대내에 혁명적군중관점을 확립하시였으며 몸소 이에 기초한 인민적사업작풍의 모범을 창조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혁명적군중관점에 기초한 인민적사업작풍은 군중을 대함에 있어서 겸손하고 소박하며 사업과 생활에서 이신작칙하며 인간성과 문화성을 소유하는것을 기본내용으로 한다.

이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겸손성과 소박성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일군들은 겸손하고 소박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고유한 품성으로 되여야 한다. 겸손하고 소박해야 대중과 한덩어리로 될수 있고 군중관점이 확립된 일군으로 될수 있다.》

작풍에서 겸손하고 소박한것은 공산주의자들의 고유한 품성이다.

공산주의자들, 일군들은 언제나 자기를 내세우지 말고 군중을 존중할줄 알아야 하며 까다롭지 않고 소탈하여야 하며 례절이 바르고 허심하여야 하며 생활에서 검박하여야 한다.

일군들이 이와 같이 작풍에서 겸손하고 소박해야만 군중들과 쉽게 어울릴수 있으며 군중의 아픔과 기쁨을 제때에 알고 그들의 요구와 소원을 풀어줄수 있으며 이리하여 언제나 군중의 사랑과 존경을 받을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공산주의자들이 반드시 지녀야 할 겸손성과 소박성의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유격대원들과 군중들 속에서 항상 소박하고 겸손하시였으며 부드럽고도 인자하시였으며 어린이들을 사랑하시고 로인들을 존경하시였으며 인민들과 고락을 같이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상적으로 대원들과 복장도 같이 하시고 식사도 똑같이하시며 인민들속에 들어가셔서는 《사령관도 인민의 아들》이라고 하시면서 손수 나무도 패시고 물도 길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좋은 의복이나 맛있는 음식이 생겨도 먼저 로인들과 어린이들을 생각하시고 그들에게 돌려주시였다.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상 겸손하고 소박한 공산주의적품성을 소유하도록 대원들을 꾸준히 교양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요지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우선 인민들속에 깊이 들어가서 그들과 한덩어리가 되여야 한다. 그러자면 그 지방 인민들의 언어, 행동, 생활풍습에 익숙해져야 하며 늙은이들을 존경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며 례절이 밝아야 한다. 그래야 인민들과 친부모형제처럼 친숙해질수 있다.…

수령께 끝없이 충실한 항일유격대원들은 그이의 가르치심을 심장에 새기고 그이께서 보여주신 위대한 모범을 따라 사업과 생활에서 겸손하고 소박한 작풍을 훌륭히 발휘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인민적사업작풍의 전통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이신작칙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일에서 군중의 앞장에 서고 군중이 어려워하는 일에는 먼저 뛰여들어가 실천하며 일에서나 학습에서나 모범이 되여야 합

니다. 그리하여 군중속에서 혁명투쟁의 기수가 되여 군중을 교양하여 이끌고나가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389페지)

이신작칙하는것은 사업과 생활에서 대중의 앞장에 서서 실천적모범으로 그들을 교양하며 이끌고나가는 공산주의적작풍이다. 공산주의자들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위한 투쟁에서 항상 군중을 교양하고 각성시켜 자각적으로 발동되게 하여야 한다. 이에 있어서 가장 힘있는 수단은 자신의 실천적모범으로 그들을 감화시키는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사업과 생활에서 이신작칙함으로써 제기된 혁명과업수행에로 대중을 보다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해방투쟁 특히 영웅적항일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시는 전행정에서 이신작칙의 위대한 모범을 창조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15성상에 걸친 영웅적항일무장투쟁의 간고한 나날 모든 면에 걸쳐 항일유격대원들에게 몸소 실천적모범을 보여주심으로써 그들을 훌륭한 공산주의자, 혁명가로 교양육성하시였으며 혁명과업수행에로 그들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혁명의 리익을 위해서라면 일신의 위험도 돌보지 않으시는 숭고한 자기희생성과 불요불굴의 투쟁정신의 빛나는 모범으로 항일유격대원들을 이끌어주시였다.

항일무장투쟁의 초시기 반일부대와의 통일전선을 실현하는 문제, 종파분자, 좌경분자들에 의하여 극단적으로 진행되던 반《민생단》투쟁을 바로잡는 문제 등은 실로 조선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며 그 해결을 위해서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나서야 할 매우 첨예하고도 심각한 문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일신의 위험을 돌보지 않으시고 준엄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투쟁의 진두에 나서시여 혁명의 위기를 한몸으로 막아내신 그 숭고한 자기희생적투쟁정신이야말로 항일유격대원들과 혁명적인민들을 무한히 격동시키고 혁명에 끝없이 충실하도록 그들을 고무추동하는 위대한 힘으로 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언제나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학습은 첫째가는 의무이다.**》, 《**어렵고 복잡한 때일수록 학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가르치시면서 항일무장투쟁과 전반적조선혁명을 령도하시는 전기간에 혁명적학습기풍의 위대한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적학습과 조직생활, 원칙적단결과 혁명적동지애, 관병일치, 군민일치 등 혁명실천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에서 위대한 실천적모범을 창조하시였다.

그이께서 창조하신 이신작칙의 모범은 항일유격대원들을 교양하고 그들의 전투사기를 높이며 어떠한 난관과 시련도 이겨내고 혁명의 최후승리를 달성할수 있게 하는 담보로 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인민적사업작풍의 전통에서 중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는것은 또한 인간성과 문화성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산주의자들의 인간성과 문화성에 대하여 요지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대중의 심정을 정확히 파악할수 있는 사람은 오직 공산주의자들뿐이며 대중의 리익을 위하여 자기 개인의 리익을 희생할줄 아는 사람도 역시 공산주의자이며 인류사회의 가장 문명한 도덕을 소유한 진정한 인도주의자도 역시 공산주의자들인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풍부한 인간성과 높은 문화성을 지닌 진정한 인도주의자로 되는것은 그들이 혁명적세계관과 혁명적군중관점으로 무장된 사람이며 로동계급의 력사적사명을 자각한 진정한 혁명가들이기때문이다. 공산주의자들의 인간성과 문화성 이것은 착취자, 침략자들, 인민의 원쑤들에 대한 불타는 증오와 잇닿아있는것이며 그들의 계급성, 당성을 전제로 하는것이다.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해방을 위한 간고하고도 장기적인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공산주의적 인간성과 문화성의 가장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대원들을 무한히 사랑하신 어버이

수령께서는 언제나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과 침식을 같이하시였으며 그들의 심정, 그들의 고통을 깊이 헤아려주시고 그들의 학습과 건강,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극진히 보살펴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상 항일유격대내 지휘관들에게 요지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대원들을 잘 보살펴야 한다. 자신이 춥고 배고플 때뿐만아니라 자신이 덥고 배부를때에도 대원들은 춥고 배고플수 있다는것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

그이께서는 사령부와 멀리 떨어져 활동하는 대원들을 한시도 잊지 않으시였으며 추운 밤에 공작나간 대원들을 위하여 물을 끓여놓으시고 밤새워 기다리시였으며 대원들이 앓을 때면 그이의 건강을 위하여 소중히 간직해오던 귀중한 약재마저 돌려주시고 손수 약을 달여먹이시기도 하시였다. 어버이수령의 대원들에 대한 이 지극한 사랑에서 우리는 더없이 숭고한 공산주의적인간성의 귀감을 보게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산보다도 높고 바다보다도 깊은 어버이사랑속에서 자라난 항일유격대원들은 수령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서슴없이 바치는 충성의 일념으로 가슴을 불태웠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들을 항상 혈육처럼 사랑하시고 그들의 아픔과 기쁨을 자신의 아픔과 기쁨으로 여기시며 그들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고 그들의 소원을 풀어주기 위해 언제나 세심한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들의 어려운 생활형편을 념려하시여 설날은 앞두고 부대의 숙영지를 옮기여 산중에서 설을 맞이하게 하시였으며 하나의 전투를 조직하실 때에도 먼저 인민들과 부락의 안전을 고려하시여 비록 작전상 불리하다할지라도 적을 유인하여 딴 곳에서 치시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부모를 잃고 갖은 고초와 풍상을 겪으면서 혁명대오를 찾아온 어린이들이 추위에 떨고있는것을 보시고는 몇해를 두고 가슴깊이 간직해오신 강반석어머님의 깊은 사랑이 깃든 돈으로 그들에게 옷을 해입히시였다. 어버이수령의 이러한 끝없는 사랑과 육친적인 배려는 인민들을 무한히 격동시켰으며 그들로 하여금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수령과 혁명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투쟁하는 고귀한 혁명정신을 발휘하게 하였다.

공산주의자들이 풍부한 인간성과 함께 높은 문화성을 소유하는것은 혁명승리를 위한 필수적요구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적과 싸워야 할뿐만아니라 대중을 교양하고 조직동원해야 하며 장차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해야 할 항일유격대원들은 맑스-레닌주의의 진수를 체득하고 높은 과학지식과 문학예술적소양 그리고 고상한 례의도덕을 소유하여야 한다고 항상 가르치시였다.

높은 문화성을 소유하여야만 인민대중의 생활감정과 정신세계에 깊이 침투할수 있고 대중과 잘 어울릴수 있으며 그들을 더 잘 교양하고 혁명과업수행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제를 반대하는 간고한 싸움의 나날 전투와 행군으로 날이 새고 날이 저무는 어려운 투쟁속에서도 항상 대원들을 조선혁명의 지도리론과 맑스-레닌주의사상으로 교양하시였으며 혁명적출판물을 발간하시고 몸소 시와 각본도 쓰시며 노래도 지으시여 전체 대원들이 항상 명랑하고 락천적으로 생활하도록 지도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부대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리며 몸단장을 비롯한 모든 생활을 규률있고 절도있게 하도록 조직지도하시였다.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교양육성된 항일유격대원들은 그이의 실천적인 모범을 따라 휴식하거나 숙영할 때에는 물론 어려운 행군과 치열한 전투때에도 노래와 춤으로 사기를 돋구고 락천적으로 살고 싸웠으며 군중속에 들어가면 연예공연도 하고 체육경기도 조직하여 군중을 교양하고 그들을 투쟁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혁명적군중관점과 이에 기초한 인민적사업작풍은 항일유격대원들과 혁명적인민들을 수령의 두리에 철석같이 묶어세우고 항일유격대와 인민들간의 혈연적련계를 불패의것으로 만들며 그들을 투쟁에로 힘차게 불러일으키는데서 위대한 힘의 원천으로 되였다.

항일유격대에서는 혁명적군중관점에 기초한 인민적사업작풍이 전면적으로 구현됨으로써 원칙적단결과 혁명적동지애, 관병일치, 군민일치의 혁명적기풍이 높이 발양되였으며 항일무장투쟁과 당창건을 위한 준비,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이 줄기차게 발전할수 있었다.

* *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혁명적군중관점과 인민적사업작풍의 빛나는 전통은 해방후 우리 당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발전되였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창건 첫날부터 일군들속에서 혁명적군중관점과 인민적사업작풍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꾸준히 전개하여왔다.

오늘 일군들속에서는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혁명적관점과 어디까지나 군중에 의거하고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를 동원하는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이 확고히 수립되였다.

우리 일군들이 혁명적군중관점을 더욱 철저히 체득하며 인민적사업작풍을 더욱 높이 발휘하는것은 오늘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한 요구로 제기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국가, 경제 기관 일군들은 우리 당의 혁명적사업방법을 소유할뿐아니라 국가의 법령들과 결정, 지시들을 집행하는데서 언제나 앞장서며 모든 일에서 이신작칙하며 겸손하고 소박하고 례절이 바른 인민적품성을 가짐으로써 실지행동으로 대중의 모범이 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53~554폐지)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이 인민적사업작풍의 빛나는 전통을 계승발전시킴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이의 높은 덕성을 깊이 체득함으로써 혁명적세계관, 혁명적군중관점을 확립하는것이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은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이의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따라배움으로써만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바쳐 싸우는 혁명적세계관을 확립하고 혁명적군중관점과 인민적사업작풍을 소유한 수령의 충직한 전사로, 인민의 충복으로 될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된 혁명전사로서, 인민의 충복으로서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은 대중을 훌륭히 조직동원하여 우리 당 제5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장엄한 투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일반적지도와 개별적지도를 결합시키는것은 우리 당의 혁명적사업방법

김 동 익

일반적지도와 개별적지도를 결합시키는것은 혁명의 천재적수령이시며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혁명을 령도하시는 초시기부터 일관하게 견지하여오신 공산주의적사업방법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반적지도와 개별적지도의 본질, 그 결합의 필요성과 의의 및 결합의 방도 등에 대하여 전면적인 해답을 주시였을뿐 아니라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에서 이 사업방법을 훌륭히 구현하는 위대한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지난 시기 일반적지도와 개별적지도를 결합시키는 힘있는 사업방법을 확고히 틀어쥐고나감으로써 인민대중을 혁명과업수행에로 능숙하게 조직동원할수 있었으며 중첩되는 난관과 시련을 대담하게 이겨내고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전진을 이룩할수 있었다.

모든 일군들이 수령께서 가르쳐주신 일반적지도와 개별적지도를 결합시키는 우리 당 사업방법을 깊이 체득하고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우리앞에 나선 어렵고 방대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혁명위업의 승리를 촉진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 *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령도방법에 있어서 중요한것은 사업에서 일반적지도와 개별적지도를 결합시키는것입니다.

일반적지도라는것은 해당사업에서 당의 정치적목적을 대중에게 침투시키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당의 일반적호소와 지도를 말하는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일반적호소와 지도가 없다면 우리의 모든 사업은 목적의식성과 방향을 잃게 되며 사업에 대한 당의 통일적지도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사업은 일반적지도에 그치는것이 아니며 여기에 개별적인 지도가 결합되여야만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습니다. 개별적지도라는것은 해당사업을 실천함에 있어서 그 사업의 구체적조건과 대중의 의식수준과 동향을 깊이 연구하여 그 특수한 조건에 가장 적합한 구체적실천대책을 취하는것을 말합니다. 만약 어떤 일군들이 일반적지도에 치우치고 개별적지도를 무시한다면 그 사업은 다만 말공부로 되고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말것입니다.

일반적지도에 개별적지도를 결합시켜야만 당의 결정과 지시를 집행하는데서 구체적조건과 대중에게 적합한 투쟁형태를 발견할수 있으며 사업의 중심방향을 명확히 알고 력량을 옳게 배치할수 있는것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527～528페지)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명제에서 일반적지도와 개별적지도의 본질과 그것을 밀접히 결합시키는것이 가지는 의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일반적지도는 당정책의 본질과 의의를 대중속에 침투시키고 그 집행을 호소함으로써 해당사업에 목적의식성과 방향을 주며 사업에 대한 당의 통일적지도를 보장할수 있게 한다. 개별적지도는 해당사업의 구체적조건을 깊이 연구하여 그에 가장 적합한 실천대책을 세움으로써 매개 단위의 특수한 조건에 맞게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수 있게 한다.

어떤 사업에서나 반드시 일반적지도에 개별적지도를 옳게 결합시켜야만 사업에 목적의식성과 방향을 주고 통일적지도를 보장할수 있으며 구체적인 조건과 대중의 준비정도에 적합한 투쟁방도를 찾아내여 제기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이와 같이 일반적지도와 개별적지도를 결합시키는것은 맑스-레닌주의당의 령도방법에서 뗄수 없는 두 측면이며 당이 혁명과 건설에 대한 지도에서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중요한 원칙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반적지도와 구체적지도를 결합시키는것은 맑스-레닌주의적변증법적방법입니다. 경제사업지도에서나 군사사업지도에서나를 막론하고 혁명사업을 지도하는데 있어서는 반드시 일반적지도와 구체적지도를 배합하는것을 철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일반적지도와 개별적지도를 결합시키는것은 당정책관철을 위한 실천투쟁에서 매개 부문, 매개 단위의 사업이 일반적인 공통성과 함께 구체적인 특성을 가지게 되는 객관적현실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사업방법이다.

혁명과 건설의 매개 부문, 매개 단위들은 일련의 공통성을 가지면서도 그 위치와 역할, 그 앞에 나서는 임무와 과업이 다르며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구성상태와 준비정도, 자연경제적조건 등에서도 일정한 차이점을 가지고있다. 이러한 객관적현실은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사업에 대한 지도에서 일반적지도와 개별적지도를 밀접히 결합시킬것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일반적지도와 개별적지도가 결합되여야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이 당과 수령의 의도를 똑바로 알고 당과 수령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목적지향성있게 나갈수 있는 동시에 매개 부문, 매개 단위의 특수한 조건에서 제기된 혁명과업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다.

일반적지도와 개별적지도를 결합시키는것은 다음으로 맑스-레닌주의당의 사명과 임무, 공산주의자들과 로동계급의 당의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기본사업방법이다.

맑스-레닌주의당은 혁명의 참모부이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사업을 책임지고 통일적으로 지도한다. 당은 혁명과 건설을 통일적으로 지도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먼저 혁명발전의 요구와 인민들의 지향, 그들의 념원을 정확히 반영한 로선과 정책을 세우며 당이 그 문제를 왜 제기하는가, 그것을 해결함으로써 얻으려고 하는것이 무엇인가, 그를 관철하기 위하여 어떻게 투쟁하여야 하는가를 인민대중에게 가르쳐준다.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자면 반드시 이러한 일반적지도가 선행되여야 한다.

그러나 인민대중을 동원하여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것을 확고한 사명으로 삼고 싸우는 로동계급의 당은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그것을 일반적으로 인식시키는데 머무를수 없다. 일단 로선과 정책이 수립된 다음에는 그것을 대중의 생활과 투쟁에 결부시켜 철저히 관철해나가야 한다.

로동계급의 당은 철저한 혁명성과 높은 공산주의적 당성, 인민성으로 하여 구체적이며 세밀한 지도를 일반적인 구호나 호소로 대치하거나 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이 없이 내려먹이는식의 관료주의, 형식주의, 주관주의 등 일체 낡은 사업작풍, 낡은 사업태도를 단호히 배격한다. 일반적인 지도방침을 세운 다음에는 반드시 인민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 관철을 위한 구체적방도를 그들과 함께 토론하여 찾아내는것이 바로 당적사업기풍이며 사업태도이다.

이렇듯 일반적지도와 개별적지도를 결합시키는 우리 당 사업방법은 맑스-레닌주의당활동의 근본원칙과 고유한 사업기풍, 사업태도를 정확히 구현한것이다.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한 단위에 모범을 만들고

그것을 일반화하는 사업방법을 창조하심으로써 일반적지도와 개별적지도를 결합시키는 가장 훌륭한 길을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은 현지지도에서 반드시 중요한 한 고리를 틀고 그 한점에서 모범을 창조하였으며 거기에서 얻은 구체적인 경험과 교훈을 전반적으로 일반화하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일반적지도와 개별적지도를 결합시켰으며 지도에서 주관주의와 형식주의를 성과적으로 극복하여왔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162페지)

한점에서 모범을 창조하는 과정은 개별적단위에 대한 구체적지도과정이며 그것을 일반화하는 과정은 구체적인 지도과정에서 얻은 성과와 경험을 다른 단위에 보급하여 전반적인 사업을 심화시켜나가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한점에서 모범을 창조하고 거기에서 얻은 구체적인 경험과 교훈을 전반적으로 일반화하는것은 일반적지도와 개별적지도를 능숙하게 결합시키는 가장 훌륭한 형식으로 된다.

한점에서 모범을 창조하고 일반화하는 방법은 전형적인 대상에서 제기된 문제를 성과적으로 풂으로써 일군들에게 그 해결의 구체적인 방도를 가르쳐주며 그들로 하여금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의 로선과 정책을 원만히 해결할수 있게 하는 가장 우월한 사업방법이다.

일반적지도와 개별적지도를 결합시키는 우리 당 사업방법은 혁명적군중로선을 철저히 구현한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사업방법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반적지도와 개별적지도를 옳게 결합시켜 당의 정책을 인민대중의 실지생활과 투쟁에 결부시키며 인민대중이 창발성을 발휘하도록 조건을 지어주며 대중의 투쟁경험을 다시 일반화하는것이 당의 진정한 령도방법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528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일반적지도와 개별적지도를 결합시키는 방법은 대중의 무궁무진한 힘과 창조적지혜를 당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게 하는 참다운 방법이다.

인민대중은 력사의 창조자이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끝까지 책임지고 수행할 직접적담당자이다. 인민대중은 당의 로선과 정책의 본질과 의의 및 그 수행방도를 똑바로 알게 될 때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지혜를 최대한으로 발양하여 그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게 된다.

일반적지도와 개별적지도를 결합시키는것은 당의 로선과 정책의 본질과 의의를 침투시키는 일반적조치사업에 매개 부문, 매개 단위의 구체적특성에 맞는 정확한 실천대책을 세우는 사업을 밀접히 결합시킴으로써 대중으로 하여금 당의 로선과 정책을 자신의것으로 확고히 받아들이고 그 관철에 적극 동원되게 하는 혁명적인 사업방법이다.

이 모든것은 일반적지도와 개별적지도를 결합하는 우리 당 사업방법이 혁명과 건설의 근본요구를 정확히 구현한 맑스-레닌주의적령도방법이며 공산주의적사업방법이라는것을 힘있게 확증해준다.

* *

일반적지도와 개별적지도를 결합시키는 사업방법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시고 일관하게 견지하여오신 우리 당의 전통적사업방법이며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생활력을 나타낸 힘있는 사업방법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 유격대의 각 부대들과 혁명조직들이 서로 다른 정황에서 활동한 조건에서 일반적지도와 개별적지도를 결합시키는 사업방법에 특별한 의의를 부여하시고 그처럼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 사업방법을 빛나게 구현하시였다.

수령께서는 련일 계속되는 가렬한 전

루와 간고한 행군속에서도 항상 사업을 일반적으로 포치하신 다음에는 하부에 내려가시여 각 부대의 구체적조건을 깊이 료해하시고 개별적지도대책을 세우심으로써 모든 사업에서 훌륭한 성과를 달성하게 하시였다. 특히 그이께서는 모범중대, 모범련대를 창조하시고 그 경험을 일반화하도록 지도하심으로써 항일유격대오를 규률있고 전투력이 강한 강철의 대오로 발전시키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 이룩하신 이러한 혁명적사업방법은 우리 당 사업방법의 빛나는 전통으로 되였으며 해방후 우리 당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발전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하신 고귀한 경험에 기초하여 해방후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전행정에서 일반적지도와 개별적지도를 결합시키는 혁명적사업방법을 더욱 발전시키고 완성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해방직후 조성된 복잡한 정세하에서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련이어 제기되는 어렵고 방대한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포치하신 다음에는 몸소 공장과 농촌, 광산과 어촌, 교육문화기관과 인민군부대들을 친히 찾으시고 그들에게 제기된 혁명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방도들을 가르쳐주시였다.

참으로 정확한 로선과 방침을 제시하시고 일반적사업을 포치하신다음에 아래에 내려가시여 대중에게 구체적인 수행방도를 가르쳐주시고 그들을 혁명과업수행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며 그 경험을 다시 전당과 전국에 일반화하시는것은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관하게 견지하고계시는 위대한 혁명적령도방법이다.

우리 인민이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에서 그리고 사회주의건설에서 달성한 거적적인 성과들은 그 어느것을 막론하고 김일성동지의 이러한 현명한 령도방법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수령께서는 특히 당앞에 새로운 과업이 제기되거나 난관이 조성될 때마다 그것을 타개하는 옳바른 방침을 내놓으시고는 군중속에 들어가시여 직접 대중과 그 해결방도를 의논하시였으며 대중의 자각적열성과 창조적힘을 최대한으로 조직동원하시였다. 우리 인민이 전후시기 특히 5개년계획수행에 들어서던 시기에 중첩되는 난관과 시련을 뚫고 위대한 천리마운동을 일으켜 비약적인 속도로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 새 시대를 열어놓은것은 그이께서 보여주신 이러한 혁명적령도의 뚜렷한 실례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과 인민 앞에 수많은 난관과 시련이 가로놓이고 정세가 매우 복잡하고 어려웠던 그때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1956년 12월전원회의를 소집하시고 조성된 난국을 진공적으로 타개하기 위한 혁명적방침과 전투적호소를 내놓으신데 뒤이어 강선제강소를 찾으시고 로동계급에게 나라의 형편과 혁명의 요구, 당의 결심을 알려주시고 그들을 투쟁에로 힘차게 불러일으키시였다.

이와 같이 과학적인 로선과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를 관철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도사업을 따라세우시는 수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일대 전변이 일어나고 새로운 기적들이 련이어 창조되였으며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가 발단되였던것이다.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60년 2월 강서군 청산리를 현지지도하시고 거기에서 몸소 창조하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전당과 전국에 일반화하심으로써 새 환경에 맞게 당 및 국가, 경제 기관들의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개선하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일대 혁명적전환을 가져오게 하신것은 한점을 뚫고 모범을 창조하여 일반적지도와 개별적지도를 가장 훌륭히 결합시킨 위대한 전형으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1959년 12월전원회의에서 새 환경에 맞게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고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신후

몸소 농촌의 한점인 청산리에 내려가시여 15일간이나 사업을 깊이 료해하시고 군중들과 구체적으로 상론하시였으며 당 및 국가, 경제 기관 일군들이 새 환경에 맞게 어떻게 일하며, 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 실태를 어떻게 료해분석하며, 당정책관철을 위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는가 하는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그리고 여기에서 얻으신 구체적인 지도경험을 전당에 일반화하심으로써 당 및 국가, 경제 기관들의 사업에서 일대혁신을 일으키시고 정치, 경제, 문화, 군사 사업 등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거대한 앙양을 불러일으키시였다.

강서군과 청산리에 대한 김일성동지의 현지지도는 한점을 뚫고 모범을 창조하여 그것을 일반화하는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을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진 새로운 환경에 맞게 더욱 구체화하고 발전완성시킨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도하신 1962년 지방당및경제일군창성련석회의와 1961년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북청확대회의도 한점을 뚫고 모범을 창조하여 일반화함으로써 일반적지도와 개별적지도를 가장 훌륭히 결합시킨 빛나는 모범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창성군에 대한 여러차례에 걸치는 현지지도를 통하여 산간지대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며 지방공업과 농업 및 교육문화 등을 발전시키며 사회주의건설에서 군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산 모범을 창조하시였으며 북청군에 대한 현지지도를 통하여서는 우리 나라에서 과수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훌륭한 경험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일반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2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인민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문제를 혁신할데 대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시고 곧 대안전기공장에 대한 현지지도를 통하여 실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신후 사회주의경제를 가장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계를 창조하시여 모든 부문에 일반화하심으로써 사회주의경제관리운영에서 근본적전환을 가져오게 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최근년간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력사적인 우리 당 대표자회에서 제시하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혁명적로선을 튼튼히 틀어쥐고 혁명과 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킬것을 전당에 호소하시고 함흥지구 공장, 기업소들을 친히 현지에서 지도하시였으며 거기에서 얻은 지도경험을 일반화하심으로써 나라의 경제규모가 방대하고 내부적련계가 복잡해진 조건에서도 인민경제를 비상히 빠른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게 하시였다.

실로 공업, 농업, 군사, 교육,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의 세기적 변혁, 기계가 기계를 낳고 공장이 공장을 낳는 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과 지방공업을 창설하고 대대적으로 발전시킨 전인민적투쟁 등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된 빛나는 승리들은 모두다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령도방법인 일반적지도와 개별적지도를 결합시키는 사업방법이 가져온 위대한 결실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 제5차대회전으로 7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점령하기 위한 긴장한 투쟁을 전개하고있는 오늘 또다시 강선제강소사업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그곳 로동자들에게 대고조의 앞장에 서서 싸워나갈 투쟁과업을 제시하심으로써 새로운 천리마속도 《강선속도》를 창조하시였다.

새로운 천리마속도 《강선속도》가 전국에 일반화됨으로써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놀라운 기적과 혁신이 련이어 일어나고 온 나라가 전투적기백과 혁명적열정으로 들끓고있으며 7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우리 당 제5차대회전에 점령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펼쳐지게 되였다.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

동지께서는 이와 같이 일반적지도와 개별적지도를 결합시키는 맑스-레닌주의 당의 혁명적사업방법을 빛나게 구현하시고 그를 더욱 발전풍부화하심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혁명과 건설이 끊임없이 빠른 속도로 전진하도록 령도하시였다.

경험은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시고 실천적모범을 보여주신 일반적지도와 개별적지도를 결합시키는 사업방법을 철저히 관철해나갈 때 전진도상에서 부닥치게 되는 그 어떠한 난관도 물리치고 혁명과 건설에서 부단히 새로운 승리를 달성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 *

우리 나라에서 혁명과 건설이 심화발전되고 우리앞에 방대한 혁명과업이 나서고있는 현실은 모든 일군들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시고 몸소 그 모범을 보여주신 일반적지도와 개별적지도를 결합시키는 우리 당의 혁명적사업방법을 더욱 철저히 관철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일반적지도와 개별적지도를 결합시키는 우리 당의 혁명적사업방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먼저 일군들이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그이의 불후의 로작들을 심오히 학습함으로써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특히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 주신 김일성동지의 현지교시를 력사적으로, 체계적으로 연구하며 혁명적사업방법과 사업작풍에 관한 그이의 강령적교시들을 깊이 연구체득하는것이 중요하다. 혁명적사업방법과 사업작풍에 관한 교시들에는 그이께서 40여년간 혁명을 령도하시면서 쌓으신 맑스-레닌주의적사업방법의 고귀한 경험들이 풍부히 담겨져있으며 지도방법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이 전면적으로 심오하게 체계화되여있다.

우리 일군들은 수령의 교시와 로작들 특히 거기에 담겨져있는 지도방법에 관한 그이의 사상과 리론을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깊이 연구체득함으로써 어떤 복잡한 정황속에서도 일반적지도와 개별적지도를 능숙하게 결합시키는 세련된 지도방법을 확고히 소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얼마전에 또다시 일반적지도와 개별적지도를 결합시키며 모든 단위, 모든 부문들에서 모범공장, 모범단위들을 잘 꾸려놓고 그것을 본보기로 하여 사업을 전면적으로 정규화, 규준화해나갈데 대하여 간곡히 가르치시였다.

그이께서 주신 이 강령적교시는 한점에서 모범을 창조하고 그를 일반화하여 사업전반을 추켜세우게 하는 가장 혁명적인 지도방법을 가르친것이다.

개별적단위에서 모범을 창조하는것은 결코 그자체에만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다. 문제는 창조된 모범을 일반화하여 전반적사업을 다같이 추켜세우고 발전시키는데 있다.

한점을 뚫고 거기에서 모범을 창조하며 그 경험을 보급하는 사업방법은 일반적지도와 개별적지도를 가장 밀접히 결합시키는 창조적인 형태이며 일군들로 하여금 당정책을 침투하는 일반적사업조치에 그치지 않고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게 함으로써 모든 부문에서 당이 내세운 과업들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사업전반을 추켜세우는 힘있는 사업방법이다.

일반적지도와 개별적지도를 결합시키는 혁명적사업방법을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과 그이의 현지지도방법을 따라배워 세련된 지도방법을 깊이 소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은 수령께서 창조하신 청산리방법과 그이의 현지지도방법이 가르치는대로 우선 늘 아래에 내려가 실정을 전면적으로 료해장악하고 그 단위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날 때까지 실속있게 철저히 지도하며 그 경험을 다른 단위들에 일반화함으로써 일반적지도와 개별적지도를 훌륭히 결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청산리방법과 그이의 탁월한 현지지도방법은 맑스-레닌주의당이 아래에 대한 지도에서

나서는 모든 근본요구들을 가장 훌륭히 구현하고있는 혁명적령도방법의 전형이며 과학적사업방법의 산 표범이다.

거기에는 지도사업을 시작하고 진행하는 절차와 방법으로부터 실정을 료해분석하는 방법, 아래를 도와주고 대중을 발동하여 모범을 창조하며 그것을 일반화하는 방법 등 모든것이 전면적으로 담겨져있으며 우리 일군들이 그대로 하기만 하면 일반적지도와 개별적지도를 결합시키는 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할수 있다.

우리의 모든 지도일군들은 청산리방법과 수령의 현지지도방법의 초석을 이루는 혁명적군중관점으로 자신을 튼튼히 무장하고 관료주의, 형식주의 등 온갖 낡은 사업작풍을 근본적으로 청산하며 언제나 겸손하고 소박하며 어려운 일에 앞장서 어떤 역경속에서도 당정책을 끝까지 관철하고야마는 '혁명가적풍모를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군중에게 튼튼히 의거하고 대중속에서 창조되는 성과와 경험들을 일반화하여 혁명과업을 더 잘 수행할수 있다.

일반적지도와 개별적지도를 결합시키는 우리 당의 혁명적사업방법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다음으로 모든 사업에서 구체성과 과학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사업을 일반적이며 일률적으로 지도할것이 아니라 분석적으로, 구체적으로 지도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351페지)

객관적현실은 그지없이 폭넓고 복잡하며 부단한 변화와 발전과정에 있다.

그러므로 일군들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지 않거나 현실을 과학적으로 파악하지 않을 때에는 현실과 유리되고 주관주의에 떨어질수 있다. 오직 현실을 구체적으로 깊이 료해분석할 때에만 객관적현실을 있는 그대로 파악할수 있으며 대상의 특성에 알맞는 정확한 지도대책을 세울수 있고 일반적지도와 개별적지도를 옳게 결합시킬수 있다. 실로 사업에서 구체성과 과학성을 보장하는것은 일반적지도와 개별적지도를 결합시키는 중요한 조건의 하나로 된다.

일군들은 모든 사업을 포치할 때 먼저 실정을 구체적으로 료해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과학적인 대책을 세우는것을 철칙으로 삼아야 한다. 현실은 부단히 변화하며 혁명과 건설은 끊임없이 심화발전한다. 일군들은 현실발전의 객관적요구에 맞게 일단 포치한 사업을 따져보고 재포치함으로써 지도를 부단히 심화시켜야 한다.

이렇게 할 때 모든 사업에서 구체성과 과학성을 보장하고 일반적지도와 개별적지도를 결합시키는 사업방법을 옳게 구현할수 있으며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당정책을 실속있게 관철해나갈수 있다.

우리 일군들은 일반적지도와 개별적지도를 결합시키며 한점에서 모범을 창조하여 일반화하는 혁명적사업방법을 깊이 체득하고 관료주의, 주관주의, 형식주의를 철저히 없앰으로써 일반적지도와 개별적지도를 결합시키는 혁명적지도방법의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령도방법인 일반적지도와 개별적지도를 결합시키는 령도방법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그를 사업에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7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우리 당 제5차대회진으로 앞당겨 점령하고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우리 당의 자위적인 군사로선의 정당성

리 시 원

사회주의국가의 방위력과 혁명적무장력을 강화하는것은 나라의 운명과 관련되는 관건적문제이며 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이다.

우리 시대의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전쟁과 현대전쟁의 특성과 법칙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혁명투쟁과 군사분야에서 쌓으신 불멸의 업적과 풍부한 경험에 토대하시여 필승불패의 위력한 혁명적군사강령인 우리 당의 군사로선을 창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이미 우리의 군사력을 강화할데 대한 명확한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그것을 몇마디로 말하면 인민군대의 간부화, 무장의 현대화, 군사진지의 요새화, 전체 인민의 무장화, 온 나라의 요새화라고 말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86페지)

전군간부화와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와 전국의 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우리 당의 군사로선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군사분야에 구현한 것으로서 철저한 반제적립장과 로동계급의 민족적 및 국제적 임무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으로 일관된 가장 혁명적인 자위로선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당의 군사로선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우리 인민군대를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실한 일당백의 혁명대오로 강화하였으며 이 땅우에 군사전략상 가장 위력한 전인민적방위체계를 확립하고 그 어떤 강적도 단매에 때려눕힐수 있는 충분한 군사적 힘을 마련하여놓았다.

지난 조선전쟁에서 력사상 처음으로 참혹한 패배를 당한 미제국주의자들은 력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오늘 또다시 모험적인 새 전쟁 도발에 미쳐날뛰고있다.

나라의 정세가 극도로 첨예화된 조건에서 우리 당 군사로선의 혁명적본질과 그 정당성을 깊이 체득하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미제의 분별없는 전쟁도발책동을 짓부시고 사회주의전취물을 믿음직하게 보위하며 조국통일과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1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우리 당의 군사로선은 가장 혁명적인 자위로선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 군사로선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전군간부화와 전군현대화 방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군대를 간부화하고 현대화하는것은 우리의 군대를 불패의 무력으로 강화하는 중요한 담보로 됩니다. 우리는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단련하여 일단 유사시에는 전사로부터 장령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한등급이상의 높은 직무를 담당수행할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책, 363페지).

군대의 간부화와 현대화 방침은 우선 모든 군인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켜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열렬한 공산주의투사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유능한 군사간부로 육성할것을 요구한다. 모든 군인들을 정치군사적으로 튼튼히 무장된 간부군대로 육성하는것은 인민군대로 하여금 적들을 완전히 제압하고 침략자들을 성과적으로 격파분쇄할수 있게 하는 믿음직한 담보로 된다.

이 방침의 불패의 위력은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현대적군사과학과 군사기술로 튼튼히 무장시켜 전투력의 질

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동시에 수많은 군사간부들을 길러냄으로써 인민군대로 하여금 현대전의 그 어떤 정황과 요구에도 대처할수 있게 하며 유사시에는 우리의 무장력을 급속히 확대할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와 함께 전민무장화와 전국의 요새화 방침은 우리 당 군사로선의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민무장화와 전국의 요새화는 적들의 어떠한 침공도 막아낼수 있는 군사전략상 가장 위력한 방위체계입니다. 이것은 국방에서 우리 당의 군중로선을 관철하며 자위의 원칙을 철저히 실현하기 위한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364페지)

전선과 후방이 따로 없이 온 나라가 하나의 전투마당으로 전변되는 현대전의 조건에서 전쟁의 승패는 인민대중을 어떻게 준비시키고 동원하며 전투행동지대와 후방을 어떻게 꾸리는가에 크게 달려있다.

우리 당의 전민무장화와 전국의 요새화방침은 인민군대와 함께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전체 인민이 현대적무기를 가지고 요새화된 진지에 의거하여 싸우게 함으로써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로 기여드는 적들을 모조리 잡아치우게 하며 불의의 타격으로부터 사람과 전투기술기재들을 철옹성같이 보위할수 있게 한다.

이 방침의 우월성은 온 나라를 혁명무력의 숲으로 뒤덮게 함으로써 안전한 조건에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다같이 힘있게 밀고나아가 군사력을 강화하면서도 인민생활을 계통적으로 높일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전군간부화와 현대화, 전민무장화와 전국의 요새화는 서로 밀접히 련관되어있으며 하나로 통일되여있다. 이것은 사람들의 정치사상적준비상태와 군사적요인, 나라의 경제력과 후방의 공고성등 전쟁승리의 모든 요인들을 훌륭히 마련할수 있게 하는 우리 당 군사로선의 필수적요구이며 이 로선의 혁명적본질과 우월성을 반영한것이다.

우리 당의 군사로선은 어디까지나 우리 인민의 힘과 투쟁에 의하여 사회주의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보위하며 조국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달성하여야 한다는 주체사상과 자위의 원칙으로 일관된 가장 혁명적인 로선이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군사로선은 바로 주체성의 원칙, 혁명적인 자위의 원칙에 기초한것이며 국방에서 이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방침이라고 가르치시였다.

국방에서 주체성의 원칙, 혁명적인 자위의 원칙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국방분야에 구현한것으로서 우리 당 군사로선의 확고부동한 초석을 이루고있다.

국방에서의 주체성의 원칙, 자위의 원칙은 주권을 잡은 맑스-레닌주의당과 공산주의자들이 국방분야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독자적으로,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그리고 주로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군사분야에서 교조주의를 극복하고 맑스-레닌주의군사리론의 일반적원리와 전쟁경험을 자기 나라의 구체적조건에 맞게 적용하여나가는 창조적립장이며 남에 대한 의존심을 버리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양하여 군사분야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어디까지나 자신이 책임지고 풀어나가는 자주적립장이다.

국방분야에서의 주체성의 원칙, 자위의 원칙은 로동계급의 력사적위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맑스-레닌주의당과 공산주의자들이 튼튼히 견지하여야 할 혁명적립장이다.

주권을 잡은 맑스-레닌주의당과 공산주의자들은 자기 힘으로 혁명과 건설을 진행할뿐아니라 사회주의조국과 혁명의 전취물을 자체로 튼튼히 보위할 임무를 지니고있다.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고 전쟁의 근원이 없어지지 않는한 공산주의자들은 반드시 주체적인 정치경제적력량과 함께 자위적군사력을 강화해야 한다. 자위적군사력을 튼

튼히 마련하지 않고서는 조국과 인민을 보위할수 없으며 혁명을 전진시킬수도 없다.

물론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형제나라들의 국제적인 지지와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역할을 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제국주의반동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승리의 결정적요인은 그 나라 내부력량이다. 매개 나라의 주체적력량이 준비되여있지 않는 조건에서는 외부의 지원이 아무리 커도 혁명투쟁은 승리할수 없다. 만일 공산주의자들이 자체의 주체적인 정치경제적력량과 함께 자위적군사력을 준비하지 않고 외부로부터의 지원과 원조만 바란다면 조국의 안전과 혁명의 전취물을 제국주의침략으로부터 믿음직하게 수호할수 없다.

그러므로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과 공산주의자들은 국방분야에서 주체성의 원칙, 자위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여야 자기에게 맡겨진 력사적사명을 끝까지 다할수 있다.

국방분야에서의 주체성의 원칙, 자위의 원칙은 또한 세계혁명정세의 객관적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오늘 제국주의자들 특히 미제국주의자들은 멸망하여가는 저들의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세계도처에서 침략전쟁도발에 미쳐날뛰는 한편 큰 나라들과는 될수록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주로 분렬된 나라들과 작은 나라들을 하나하나 먹어들어가려는 전략에 매여달리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이러한 흉악한 전략을 단호히 저지파탄시키기 위해서는 매개 나라에서 반드시 자위적군사력을 강화해야 한다. 매개 나라들에서 자위적군사력을 강화하여야 세계의 모든 지역,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인민들이 달라붙어 미제국주의자들이 함부로 날뛸수 없게 손발을 얽어매놓고 각나리를 뜯어내며 머리도 잘라버릴수 있다. 오직 이렇게 하여야만 미제의 흉악한 전략을 저지파탄시키고 나라의 정치적자주성과 민족의 존엄, 사회주의조국과 혁명의 전취물을 철옹성같이 수호할수 있으며 전반적세계혁명운동발전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수 있다.

국방분야에서의 주체성의 원칙, 자위의 원칙은 가장 철저한 반제적립장을 반영하고있을뿐아니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를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세계혁명의 종국적승리는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혁명이 일어나 완전히 승리하고 점차 사회주의진영이 확대강화발전되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것입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58페지)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조건에서 혁명이 먼저 승리한 사회주의나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무력침공의 위협을 면하[illegible] 수 없으며 또한 이 나라들에서는 [illegible]의 원쑤들과의 치렬한 계급투쟁의 환경속에서 매개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과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조건에서 매개 나라는 반드시 자체의 자위적군사력을 마련해야 하며 그것을 부단히 강화해야 한다. 매개 나라가 주체성의 원칙을 튼튼히 견지하고 자위적군사력을 강화할으로써만 제국주의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전취물을 믿음직하게 보위할수 있을뿐아니라 인민들이 안전한 조건에서 혁명과 건설을 다그쳐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이렇게 매개 사회주의나라들이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건전하게 발전하여야만 사회주의진영을 확대강화발전시킬수 있으며 사회주의국가를 포위하고있는 제국주의의 장벽을 허물고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세계적체계에로의 전환의 길을 열어놓을수 있으며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와 전반적세계혁명의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2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혁명의 천재적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우리 당의 군사로선은 사회주의

조국과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지키며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가장 정당한 로선이다.

우리 당 군사로선의 정당성은 우선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사회주의전취물을 믿음직하게 보위할다는데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적무장력은 반혁명세력을 때려부시고 혁명의 승리를 보장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군사력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적들의 침공으로부터 혁명의 전취물을 지킬수도 없으며 정치적력량과 경제적력량을 보호할수도 없고 그것을 더욱 강화발전시킬수도 없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85페지)

우리 당의 군사로선은 자위적군사력을 튼튼히 마련함으로써 정치적력량을 철옹성같이 보위할수 있게 한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혁명적무장력을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국가의 기본기능의 하나이다. 사회주의국가가 혁명무력을 강화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정치적력량을 믿음직하게 보위하자는데 있다. 혁명무력은 혁명의 탁월한 수령과 정치식참모부인 당과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을 보위하는 강력한 수단이마.

혁명적무장력이 정치적력량을 군사적으로 믿음직하게 보위하여야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수 있고 경제건설을 잘하여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높일수 있으며 그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수할수 있을뿐아니라 혁명무력자체를 강화할수 있는것이다.

우리 당의 군사로선은 정치적력량을 철옹성같이 보위할뿐아니라 경제적력량을 강화할수 있게 한다.

나라의 경제적력량은 혁명무력이 필승불패의 위력을 발휘할수 있게 하는 힘의 원천이다. 경제적력량을 강화하는것은 곧 국방력을 강화하는것으로 된다. 나라의 군사적위력을 강화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무력으로 튼튼히 보위함으로써만 조국의 륭성발전과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보장할수 있으며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잘하여 군사력강화에 필요한 방대한 물질적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다.

이리하여 우리 당의 군사로선은 나라의 정치적자주성과 경제의 자립성을 강화하여 공화국북반부를 조선혁명의 믿음직한 기지로, 강력한 군사적보루로 다지게 함으로써 조국통일과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확고히 담보해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우리 당 군사로선의 정당성은 또한 강력한 군사력을 마련하게 함으로써 전쟁의 결정적승리를 달성하게 하는 가장 위력한 로선이라는데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실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된 우리 인민군대가 튼튼한 방어시설에 의거하여 현대적무기를 가지고 싸울 때 우리 인민군대 한명이 침략군대 100명을 얼마든지 당해낼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사람과 무기와 진지를 더 잘 준비하여 우리 인민군대를 일당백의 군대로 만들라는 당의 구호를 실천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책, 87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람과 무기와 진지는 전쟁승리의 필수적요소이다. 전쟁의 승리는 결국 이 세가지 요소들을 어떻게 마련하는가에 크게 달려있다고 말할수 있다.

현대전쟁은 립체전으로서 전선과 후방, 싸우는 사람, 싸우지 않는 사람이 따로 없으며 따라서 사람과 무기와 진지의 역할을 비상히 증대시킨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포악한 미제국주의자들과 직접 맞서있는 우리의 형편에서 전쟁승리의 필수적요소들을 굳건히 마련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전쟁승리의 필수적요소들 가운데서도 사람은 주되는 요소이다.

우리 당 군사로선의 위력은 전쟁에서 사람이 노는 역할 특히 사상의식과 전투의식이 노는 역할에 결정적의의를 부여한다는데 있다.

군대와 인민의 높은 사상의식과 전투의식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요인이다. 사상의식과 전투의식은 사람들의 정신적 및 육체적인 모든 능력과 힘 그리고 자각성과 인내성, 용감성과 대담성을 발휘케 하는 원천이다. 전체

인민들과 군인들이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최후의 승리를 달성할때까지 투쟁할 견결한 의지를 가지고 싸운다면 그 어떤 강적이 덤벼들어도 일격에 격멸소탕하고 전쟁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우리 당의 군사로선은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철저히 준비시킬뿐아니라 무기를 현대화하고 진지를 요새화함으로써 전쟁승리의 필수적요소들을 빈틈없이 마련하게 한다.

사람과 함께 무기와 진지는 전쟁승리의 중요한 요소이다. 현대전쟁에는 강력한 타격력을 가진 최신무기와 위력한 군사기재들이 대량적으로 동원되며 특히 원거리타격수단의 출현은 불의에 전선신연뿐만아니라 후방의 종심깊이에 있는 임의의 지점에 타격을 가할수 있는 가능성을 준다. 따라서 현대전쟁은 무기와 전투기술기재들을 자기 나라의 자연지리적환경, 경제발전수준, 자기 민족의 체질에 맞게 현대화하며 진지를 요새화하고 군사행동지대를 잘 꾸릴것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우리 당의 군사로선은 현대전에 대처하여 인민군대를 현대적무기와 전투기술기재로 무장시키고 진지와 군사행동지대를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잘 꾸림으로써 무장장비의 모든 가능성과 예비를 동원하여 현대화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높일수 있게 할뿐아니라 인적 및 물적 자원을 믿음직하게 보호하고 전쟁에 필요되는 수요를 장기적으로 충분히 생산보장할수 있게 한다.

다음으로 우리 당 군사로선의 정당성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에 기초한 가장 현명한 로선이라는데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이러한 방위체계는 우리의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과 나라의 튼튼한 경제토대에 기초해서만 수립할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364~365페지)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착취계급과 온갖 착취제도가 청산되고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되였으며 당의 유일사상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확고부동한 정치사상적통일이 이루어졌다. 우리의 로동자, 농민, 인테리들은 사회경제적처지의 공통성, 목적과 리해관계의 공통성으로 하여 동지적으로 결합되고 서로 긴밀히 협조하며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경제와 문화를 계획적으로 비상히 빠른 속도로 발전시키고있다. 이리하여 사회주의제도는 군사력을 계획적으로 급속히 증대시킬 광활한 길을 열어준다.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는 우선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군대와 인민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확립하고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려 그들을 모두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실한 공산주의투사로, 유능한 정치군사간부로 육성하게 한다. 이것은 우리 당의 군사로선을 전면적으로 구현할수 있게 하는 결정적담보로 된다. 사회주의제도는 또한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적적극성과 혁명적열의에 의거하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다같이 힘있게 벌림으로써 군사력강화의 물질기술토대를 훌륭히 마련한다.

우리 당의 군사로선은 수령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 나라의 강력한 자립적민족경제에 기초한 가장 공고한 로선이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현대전쟁에서의 승패는 전쟁수행에 필요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장기적으로 원만히 보장하는가 못하는가에 많이 달려있다. 그러므로 군사력은 반드시 강력한 자립적민족경제에 토대하여야만 위력한것으로 될수 있다.

자립적민족경제는 현대전쟁에 대처할수 있는 무기와 전국을 요새화하는데 필요한 방대한 수요를 원만히 생산보장하며 특히 전시에 증대되는 거대한 국방상의 물질적수요를 충분히 해결할수 있게 한다. 따라서 혁명적무장력은 강력한 자립적민족경제에 의거하여야 전국이 요새화되고 전체 인민이 무장한 공고한 후방, 잘 꾸리진 군사전략상 중요지대와 충분한 물자예비를 조성하

며 전시수요를 장기적으로 원만히 보장받을수 있는 강력한 후방을 가질수 있다.

우리 당의 군사로선은 이와 같이 전쟁의 결정적승리를 이룩하고 사회주의 조국과 혁명의 전취물을 철옹성같이 보위하며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에 기초하여 당의 군사적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하는 가장 위력하고 정당한 방침이며 필승불패의 혁명로선이다.

3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우리 당의 군사로선은 우리 혁명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이 전면적으로 확증되였으며 계속 불패의 위력과 위대한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고있다.

우리 당의 군사로선이 그처럼 불패의 위력과 위대한 생활력을 발휘할수 있게 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으며 수령께서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에 깊은 뿌리를 박고있기때문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나라와 인민이 생사존망의 위기에서 모대기던 그 준엄한 시기에 확고한 주체적립장과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에 서시여 정확한 맑스-레닌주의적혁명로선 — 항일무장투쟁로선을 제시하시고 상비무력인 항일유격대를 창건하시였다. 수령께서는 일제침략자들의 무기를 빼앗아 항일유격대원들을 무장시키고 그에 정통하도록 하시였으며 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준비된 유능한 정치군사간부로 육성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항일무장투쟁의 군사전략적기지이며 조선혁명의 책원지인 유격근거지를 창설하시고 항일유격대의 전투력을 부단히 강화하도록 하시였으며 독창적인 전민무장화와 근거지요새화방침을 제시하시고 근거지내에 전인민적방위체계를 수립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친히 교양육성하신 공산주의자들을 골간으로 하여 인민군대를 창건하시였으며 군수공업을 발전시키시여 나라의 방위력과 군사력을 급속히 강화하시였다. 이것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때려부시고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게 한 튼튼한 밑천이였다.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체 인민들을 미제와 그 주구들을 격멸소탕하는 성전에로 불러일으키시여 조국해방전쟁의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심으로써 미제침략자들에게 력사상 처음으로 가장 수치스러운 군사정치적패배를 주고 미제가 내리막길에 들어서는 시초를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우리 인민의 승리는 제국주의침략무력에 대한 혁명군대의 승리였으며 그 어떤 원쑤도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기의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자유와 독립과 진보를 위하여 궐기한 인민을 결코 정복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또한 세계피압박인민들에게 미제가 결코 강한 적이 아니며 이놈들과 능히 싸워이길수 있다는것을 력사상 처음으로 힘있게 확증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전후시기에 나라의 정치경제적력량과 함께 혁명무력을 강화하는데 커다란 력량을 돌리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전체 인민의 확고부동한 정치사상적통일과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에 기초한 위력한 전인민적방위체계가 서있습니다. 이리하여 우리는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발악적책동을 성과적으로 물리치고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보위할수 있게 되였습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33페지)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군대는 혁명의 폭풍우속에서, 전복된 착취계급의 반항을 진압하는 치렬한 계급투쟁의 시련속에서, 외래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물리치는 가렬한 전쟁의 환경속에서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

으로 더욱 세련되고 단련되였으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일당백의 혁명무력으로 자라났다. 오늘 인민군대내에는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꽉 들어차있으며 모든 군인들이 김일성동지를 정치사상적으로 옹호하고 목숨으로 보위하며 수령의 명령지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수행하려는 혁명적열의로 충만되여있다.

필승불패의 혁명무력으로 자라난 우리 인민군대는 최근시기에만 하여도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를 단숨에 나포하고 《이씨-121》대형간첩비행기를 단방에 요정내는 등 미제국주의침략자들에게 호된 징벌을 가하여 뼉다구도 추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원쑤들의 발광적인 전쟁도발책동을 짓부시고 사회주의조국과 혁명의 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였으며 우리 당 군사로선의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실제행동으로 보여주었다.

우리 당은 수령의 가르치심따라 인민군대를 강화하는 동시에 로농적위대를 비롯한 전체 인민을 무장시키고 전국을 요새화함으로써 이 땅우에 군사전략상 가장 위력한 방위체계를 굳건히 세워놓았으며 그 어떤 강적도 단매에 요정낼수 있는 충분한 군사적힘을 마련하여놓았다. 이리하여 공화국북반부는 조국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군사적보루로, 강력한 혁명기지로 전변되였으며 사회주의동방초소를 굳건히 지키는 군사적요새로 다져졌다.

이 모든 성과들은 장구한 기간 오직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가장 포악한 미일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여 불요불굴의 투쟁을 전개하시여 이 땅우에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와 금성철벽의 방위체계를 마련하여주신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써만 이룩될수 있었다.

우리 당의 군사로선은 거대한 리론실천적의의를 가진다.

혁명무력건설과 사회주의조국의 방위문제는 맑스-레닌주의의 혁명리론과 군사리론에서 가장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한다.

위대한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국가의 군사력강화와 방위력건설에서 제기되는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통일적으로 완벽하게 해결하심으로써 맑스-레닌주의군사리론을 창조적으로 발전시키시고 완성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유격투쟁과 현대전에서, 가장 포악한 미일제국주의자들과의 투쟁에서 이룩하신 고귀한 경험에 기초하시여 주체성의 원칙, 자위의 원칙을 사회주의나라들이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기본원칙으로 천명하시였으며 국방건설과 혁명무력건설에 관한 전일적인 체계를 가진 독창적인 군사로선을 창시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수령께서 창시하신 군사로선과 같은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를 가지고있음으로 하여 지난날 외래제국주의자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온갖 천대와 멸시를 받아오던 민족으로부터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힘있고 존엄있는 민족으로, 주권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자기 힘으로 조국을 굳건히 보위하는 자위적인 독립국가의 영웅적인민으로 되였다.

우리 당의 군사로선은 제국주의를 매장하는 투쟁의 시대, 혁명이 세계적판도에서 승리하여가는 폭풍우의 시대의 투쟁전략을 실현하며 세계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것으로 하여 국제적으로 매우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우리 당의 군사로선은 사회주의국가의 방위력과 혁명무력건설의 기본원칙과 군사력강화의 방침과 방도에 대하여 완벽한 해답을 줌으로써 주권을 잡은 맑스-레닌주의당과 공산주의자들이 지구상에서 제국주의가 종국적으로 멸망하고 세계혁명의 완전한 승리를 달성하는 긴 기간에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군사강령으로 된다.

이 로선은 또한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과 끝까지 싸워이기려는 가장 철저한 반제적립장, 로동계급의 민족적임무와 국제적임무에 무한히 충실하려는 혁명적립장을 정확히 반영한것으로

하여, 그것이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세계혁명의 승리를 촉진하는데서 나타내고있는 위대한 생활력으로 하여 반제반미투쟁에 일떠선 모든 나라 인민들에게 더욱더 커다란 혁명적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 당의 군사로선은 군사문제해결의 가장 원칙적이며 유일하게 옳은 방도를 가르쳐주고있으며 로동계급의 력사적위업에 끝까지 충실하려는 립장과 태도의 모범을 보여줌으로써 온갖 기회주의적군사리론에 결정적타격을 주었다.

실로 김일성동지께서는 현대전쟁과 그에 대처할수 있는 군사력과 방위력건설의 방침과 방도 등 오늘의 혁명적폭풍우의 시대가 제기하는 절박한 군사리론문제에 대한 천재적인 해답을 주심으로써 맑스-레닌주의보물고에 불후의 공헌을 하시였다.

※ ※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더욱 로골화되는 미제의 새 전쟁 도발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사회주의조국과 혁명의 전취물을 철옹성같이 수호하며 조국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나라의 방위력과 혁명적무장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긴절한 과업이 나서고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우리 당의 군사로선을 관철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363페지)

우리 당의 군사로선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먼저 군대와 인민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우는것이 중요하다. 군대와 인민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인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하며 그들에게 수령의 군사사상, 그이께서 내놓으신 우리 당의 군사로선의 혁명적본질과 정당성을 깊이 인식시켜야 한다. 모든 군인들과 인민들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외에는 그 어떤 다른 사상도 모르는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우리 당의 군사로선을 전면적으로 훌륭히 구현할수 있다.

이와 함께 전체 인민들과 군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우리 인민의 칠천지원쑤인 미제국주의와 일본군국주의, 박정희괴뢰도당과 온갖 세계반동을 끝없이 증오하고 계급적원쑤들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 높은 계급적각오와 불굴의 혁명정신으로 무장시킴으로써 사회주의조국과 사회주의제도를 철옹성같이 보위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쳐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동시에 전쟁에 대한 옳은 관점을 가지도록 하며 고도의 혁명적경각성을 견지하고 적들의 침략책동을 예리하게 감시하며 계급적원쑤들이 한놈도 준동할수 없게 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군사로선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서는 또한 국방력의 핵심인 인민군대를 백방으로 강화해야 한다. 모든 군인들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정치사상적으로 옹호하고 목숨으로 보위하는 그이의 충실한 혁명전사로, 유능한 군사정치간부로 육성하는 동시에 군대내에서 상하일치, 군민일치의 전통적기풍을 더욱 발양하며 강철같은 군사규률을 확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전군간부화와 현대화 방침을 훌륭히 실현할수 있다.

전체 근로자들이 새로운 천리마속도인 《강선속도》와 《청산리사람들의 일솜씨》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다같이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은 우리 당의 군사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잘하여야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의 요새화 방침을 훌륭히 구현할수 있으며 군사력강화에 필요한 모든 물질적수요를 원만히 생산보장할수 있고 전쟁물자의 예비를 조성할수 있으며 인민생활도 계통적으로 높일수 있다.

우리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우리 당의 군사로선에 담겨져있는 수령의 심오한 군사사상과 이 로선의 정당성과 우월성을 심장깊이 체득하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해야 한다.

농촌에서의 기술혁명

조 근 경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웅대한 강령인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농업협동화이후 농촌기술혁명이 가지는 의의와 그 실현방도에 대한 과학적인 해명을 주시였다.

농촌기술혁명의 의의를 과학적으로 밝히며 그 수행방도들을 옳게 찾아내는것은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고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는데서 근본문제의 하나로 나선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주체사상과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건설을 령도하시여 쌓으신 풍부한 경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에 대한 전면적인 분석에 기초하시여 이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답을 주심으로써 우리 인민들에게 사회주의농촌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는 강력한 리론실천적무기를 안겨주시였으며 맑스-레닌주의보물고를 더욱 풍부히 하는데 커다란 공헌을 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농촌기술혁명에 대한 사상을 깊이 체득하고 그를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앞당기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사상혁명, 문화혁명과 함께 농촌기술혁명을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다음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계속혁명의 중심적과업의 하나로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기술혁명, 문화혁명, 사상혁명, 이것은 사회주의적협동화가 완성된 다음 농촌에서 수행하여야 할 중심적인 혁명과업이다.》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34~35페지)

김일성동지께서 주신 이 교시는 승리한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고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는데 있어서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반드시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다.

농업협동화가 완성된 다음에도 농촌문제는 의연히 남아있게 된다. 그것은 도시에 비한 농촌의 락후성에 기인되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쳐주신바와 같이 도시에 비한 농촌의 락후성은 우선 농업이 공업보다 물질기술적토대가 약하며 농촌주민들의 문화수준이 도시주민들보다 낮으며 농민들이 로동자들보다 사상의식이 뒤떨어져있는데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락후성으로 하여 농촌경리에서는 협동적소유가 지배적형태로 남아있게 되며 따라서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가 남아있게 된다.

사회주의하에서 농촌문제는 뒤떨어진 농촌을 도시의 수준에로 끌어올리며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를 없애야만 종국적으로 해결된다.

그렇기때문에 농촌에서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은 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위한 필수적인 중심적과업으로 나선다. 사회주의공업과 도시의 빠른 발전에 기초하여 무엇보다 농촌에서 기술혁명, 문화혁명, 사상혁명의 과업을 철저히 수행하여 이 세가지 분야에서 농촌의 락후성을 없애야만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

를 공고발전시키고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를 없애는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수 있으며 따라서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할수 있다.

농업협동화이후 농촌에서 계속 수행하여야 할 세가지 과업중에서 농촌기술혁명은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테제에서 우리 당이 내놓은 방침은 농촌에서 기술혁명을 빨리 하여 어디서나 다 기계와 전기, 화학비료, 농약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수 있도록 하며 농촌에서의 소유관계도 개인농민의 사적소유를 협동적소유로 만든데 그치지 말고 그것을 전국가적, 전인민적 소유로 발전시키려는데 있습니다. 그리하여 농민들도 지난날의 개인농민을 사회주의적근로농민으로 만든데 그칠것이 아니라 그들을 모두 선진적인 농업로동자로 만들자는것입니다.》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3권, 412~413페지)

김일성동지께서 주신 이 교시는 농촌에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정을 독창적으로 해명한것이며 이 과정을 앞당기는데서 농촌기술혁명이 가지는 거대한 의의를 천재적으로 밝혀준것이다.

수령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농민문제와 농업문제로써 이루어지는 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과정은 농업을 공업화하고 농민을 로동계급화하는 과정이다.

농업을 공업화한다는것은 농업생산을 완전히 공업적방법으로 진행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농업을 공업화하는것은 협동농민들을 농업로동자로 전환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농촌기술혁명의 수행은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선진적인 공업의 수준에 따라세움으로써 농민들도 로동자들과 같이 현대적기계기술에 의거하여 농사를 지을수 있게 한다. 기술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농업을 완전히 공업화할 때 사회에는 공업로동자와 함께 농업로동자만이 있게 될것이다. 그리하여 이 량자사이에는 공업로동자는 공장에서 일하고 농업로동자는 전야에서 일한다는 로동조건의 차이가 있을뿐이다. 또한 농업을 공업화하여야만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 상응한 높은 생산력을 이룩하고 인민경제의 가장 큰 두 부문인 공업과 농업간의 균형적발전을 보장할수 있으며 농민들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하고 그들의 생활을 더욱 높일수 있다.

농촌기술혁명은 또한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공업의 선진적관리운영수준에 끌어올리며 협동적소유의 전인민적소유에로의 점차적전환과정을 촉진하는데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사회주의농촌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는 기본방향은 농업협동경리의 관리운영방법을 공업의 선진적인 기업관리방법에 끊임없이 접근시키는것이다.

농촌기술혁명이 촉진됨에 따라 농업은 더욱더 하나의 기술공정으로 되며 그를 훌륭히 관리운영하자면 반드시 공업에서와 같이 기업적방법으로 지도해야 한다.

소유문제해결에서 제기되는 근본문제는 협동적소유와 전인민적소유간의 직접적인 생산적련계를 강화하며 협동적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는데 있다. 농촌기술혁명은 국가소유의 물질기술적수단들이 농업생산에 더욱더 많이 참가하는 과정을 통하여 촉진된다. 따라서 우리 나라에서 농촌기술혁명이 촉진되는 과정은 곧 협동적소유와 전인민적소유간의 직접적인 생산적련계가 강화되는 과정이며 농업생산에서 국가소유의 역할이 더욱더 높아지는 과정이다. 그리하여 협동적소유의 전인민적소유에로의 점차적전환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나

갈수 있게 한다.

농촌기술혁명은 사상혁명과 문화혁명을 촉진하는데서도 커다란 작용을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는 사상혁명은 매우 중요한 혁명과업이며 마땅히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워야 한다. 그러나 사람들의 사상의식은 사회생활의 물질적 조건에 의하여 규정된다. 농촌에서 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것은 농민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그렇기때문에 농민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 잔재를 뿌리뽑고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하여서는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리는 동시에 반드시 농촌에서 기술혁명을 촉진하여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여야 한다.

농촌기술혁명은 사상혁명과 함께 농촌문화혁명을 촉진한다. 현대적기술의 도입과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의 강화는 농촌기술인재의 양성과 농민들의 기술문화수준의 제고에 강력한 작용을 한다.

이 모든것은 농촌기술혁명이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인 혁명과업이라는것을 잘 말해준다.

농촌기술혁명은 우리 나라와 같이 지난날 식민지농업국가였던 나라들에서, 특히는 기술적개조에 앞서 경리형태의 개조가 실현된 조건에서 매우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기술혁명이 가지는 의의를 과학리론적으로 심오히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그 수행을 위한 명확한 방향과 방도들을 제시하시고 그 수행에로 우리 당과 인민을 조직동원하심으로써 농촌기술혁명에서 거대한 성과를 이룩할수 있게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를 농촌기술혁명의 기본과업으로 규정하고 여기에 커다란 힘을 돌렸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44페지)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농촌기술혁명의 방침은 기술혁명의 목적과 농업생산의 특성에 부합되는 가장 과학적인 방침이다.

수리화는 큰물과 가뭄의 피해를 이겨내고 농업생산을 끊임없이 장성시킬수 있게 하며 기계화는 손로동을 기계로동으로 교체함으로써 농민들로 하여금 일을 헐하게 하면서도 높은 생산능률을 낼수 있게 하며 학습과 문화생활에 충분한 시간을 돌릴수 있게 한다. 전기화는 수리화, 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촌문화혁명을 수행하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농촌경리의 화학화는 농작물의 단위당 수확고를 높이며 농민들을 힘들고 품이 많이 드는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이다.

농촌기술혁명의 이 네가지 과업들은 공업의 발전정도와 농촌의 구체적형편에 따라 그 선후차가 있을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반드시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수행해나가야 한다. 오직 이렇게 함으로써만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참말로 튼튼히 쌓을수 있으며 농업의 공업화와 농민의 로동계급화를 촉진할수 있으며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를 실시하면서 농업과학의 성과와 선진영농기술을 널리 받아들이며 집약적영농방법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현대적과학기술에 기초한 집약적농법은 가장 선진적인 영농방법이며 농사에서 다수확의 기본이다. 영농사업에서 우리 당의 기본방침은 바로 농촌경리를 집약화하는데 있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농촌기술혁명의 방침에 따라 우리 당은 농촌에서 수리화를 앞세우고 이에 기계화, 전기

화, 화학화를 따라세우며 집약적농법을 널리 받아들임으로써 농촌경리발전에서 거대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오늘 우리 나라 농촌에서 기술혁명의 첫공정인 수리화는 이미 기본적으로 끝났다. 우리 나라 농촌은 조밀한 현대적관개망으로 뒤덮였다. 그리하여 우리의 농업은 어떤 왕가물이나 홍수에도 끄떡없이 높고 안전한 수확을 낼수 있게 되였다. 기계화에서도 거대한 전변이 일어났다. 농촌의 전야에서는 강력한 기계화의 대부대가 농민들의 힘들고 품이 많이 드는 일을 대신하고있으며 농업로동의 생산능률은 부단히 높아지고있다.

또한 전기화, 화학화에서도 혁신적성과가 이룩되였다. 농촌리에 이미 전기가 다 들어가 농민들의 문화생활이 훨씬 높아졌으며 한자리에서 진행되는 거의 모든 작업들이 전기의 힘으로 수행되고있다. 여러가지 화학비료와 농약의 공급량도 훨씬 늘어났다.

농촌기술혁명이 추진됨으로써 우리 나라 농업생산은 공업생산과 마찬가지로 사회주의경제법칙의 요구에 따라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장성하고있다.

실로 이 모든 성과들은 전적으로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농촌기술혁명의 현명한 방침들과 그이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 *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난 기간 우리 나라 농촌기술혁명에서 이룩된 성과들을 전면적으로 총화분석하시고 농촌기술혁명을 더욱 완성하기 위한 독창적인 방침들과 그 실현방도들을 과학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이르는곳마다에서 뜨락또르로 밭갈이를 하고 후치질을 하며 살초제로 김을 죽이고 병해충도 농약으로 죽이며 가을걷이도 기계로 하고 전기로 낟알을 털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농촌에서 등짐과 손로동을 없애고 농민들을 힘든 로동에서 완전히 해방하며 농민들도 로동자와 같이 하루에 8시간로동을 하고 일요일에는 쉴수 있게 되여야 농촌에서 기술혁명이 실현되고 농촌경리가 공업화되였다고 말할수 있습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3권, 436페지)

김일성동지께서 주신 이 교시는 농촌경리를 공업화하며 농촌기술혁명을 완성하기 위한 방도를 완벽하게 밝혀준 탁월한 고신지명제이다. 그것은 우리가 오늘 농촌기술혁명을 더욱 다그쳐서 반드시 실현하여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며 물질기술적측면에서 사회주의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명확한 전망을 안겨주는 휘황한 공대이다.

우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농촌건설의 위대한 강령인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높이 받들고 농촌기술혁명의 완성을 위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더욱 완강히 투쟁하여야 한다.

농촌경리의 수리화는 농촌기술혁명의 중요내용의 하나이다. 현시기 수리화에서 제기되는 근본문제의 하나는 밭농사에 분수식관수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수리화를 전면적으로 완성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난해 2월에 소집되였던 전국농업일군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만일 우리가 절약하여 얻은 물을 가지고 밭관개를 하게 되면 논농사뿐아니라 밭농사에서도 영원히 흉작을 모르게 될것이며 밭곡식의 정당수확고도 훨씬 높일수 있을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431~432페지)

밭관개에서 분수식을 도입하는것은 우리 나라 농업발전의 절실한 요구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경지면적이 제한된 우리 나라에서 새 땅을 얻어내며 정당농산물수확고를 높이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분수식관수체계를 도입한다면 작물의 성장에 요구되는 영양물질을 제때에 충분히 보장하고 2모작을 할수 있다. 분

수식관수는 경사도에 관계없이 도입할수 있으며 논관수에 비하여 훨씬 적은 물로 할수 있다.

그리하여 분수식관수체계의 도입은 더 많은 땅을 새로 얻어내는것과 같은 의의를 가지며 주어진 경지면적에서 더 많은 농산물을 낼수 있게 한다. 오늘 밭관수에서 분수식체계를 도입하는 바로 여기에 알곡증산과 고기, 남새, 닭알을 비롯한 부식물문제를 더욱 원만히 풀어나가기 위한 중요한 담보의 하나가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분수식관수체계의 커다란 우월성을 과학적으로 통찰하시고 그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을 제시하심으로써 우리 나라 농업발전에서 새로운 획기적전환을 가져올수 있는 휘황한 앞길을 열어주시였다.

우리의 모든 농업부문일군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분수식관수체계도입의 거대한 의의를 명확히 인식하고 수령의 교시를 대중속에 철저히 침투시키며 면밀한 준비밑에 분수식관수를 대대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할것이다.

이와 함께 강하천건설과 치산치수사업을 잘하며 물랑비를 결정적으로 없애고 관개시설들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함으로써 수리화에서 이미 거둔 성과들이 더욱더 큰 은을 내도록 하는데 중요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현시기 농촌기술혁명에서 중요한 문제의 다른 하나는 농촌경리의 기계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오늘 농촌경리의 기계화를 더욱 다그치는데서 제기되는 절박한 과업이 토지건설사업을 결정적으로 추진시키는데 있다는것을 강조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아직까지 기계가 들어가지 못하고있는 지대들에 기계가 들어갈수 있도록 하며 나라의 모든 지역에서 전면적으로 기계화를 하려면 결정적으로 토지건설사업을 하여야 합니다.

토지건설사업의 목적은 모든 포전들에 기계가 들어가 일할수 있도록 만드는데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433페지)

우리 나라에서 농촌경리의 기계화는 상당한 정도로 추진되였다. 경지정보당 뜨락또르대수와 농기계의 생산능력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다. 농촌경리의 기계화를 더욱 촉진시키는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산간지대와 비탈진밭에서도 완전히 기계로 농사를 지을수 있도록 하는것이다.

벌방지대뿐만아니라 비탈이 심한 땅과 산간지대에서도 완전히 기계로 농사를 짓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뜨락또르와 농기계의 대수를 늘이는 동시에 그것이 제대로 일할수 있도록 토지건설사업을 적극 추진시켜야 한다. 토지건설사업을 하지 않으면 농기계를 많이 만들어보내여도 기계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할수 없는것이다.

우리의 모든 농업부문일군들은 토지건설사업을 힘있게 추진시킬데 대한 수령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이 분야에서 혁신적성과들을 이룩함으로써 농촌경리의 전면적기계화를 더욱 촉진하여야 한다.

농촌경리의 기계화에서 또한 중요한것은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여러가지 농기계들과 련결농기계들, 부속품들을 더 많이 생산공급하며 농기계의 정비보수사업을 강화하여 그 리용률을 백방으로 높이도록 하는것이다. 여기에서 특히 분수식관수체계를 도입하고 2모작을 대대적으로 실시하는 조건에 맞게 밀보리가을과 말리우는 작업을 기계화할수 있도록 필요한 농기계를 연구완성하는것이 절실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그것은 우리 나라 농업생산의 특성과 자연기후적조건에서 제기되는 필수적요구이다. 밀보리가을과 말리우는 작업을 기계화해야 애써 지은 곡식을 허실없이 제때에 거두어들일수 있으며 따라서 2모작을 하고 분수식관수체계를 도입하는 보람도 있게 된다.

농촌경리의 기계화와 함께 농촌전기화도 더욱 다그쳐야 한다.

우선 모든 농가들에 다 전기가 들어

가게 해야 한다.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집들과 산골안에 널려있는 집들을 알맞춤한 규모로 한곳에 옮기지어 전기가 더 들어가게 하며 전기를 끌어가기 힘든 마을에는 소형발전기를 설치하여 자체로 전기를 생산하여 쓰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모든 협동농장들에서 낟알털기, 분쇄, 물푸기 같은 작업을 완전히 전기동력으로 하도록 하며 더 많은 농산작업과 축산작업을 전기동력으로 하여야 한다.

화학화는 농촌기술혁명의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현시기 농촌경리의 화학화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비료 한가지만으로 농촌화학화가 다 되는것은 아닙니다. 비료와 함께 살초제를 많이 생산하여 농민들이 김을 매지 않게 만들어야 하며 농약도 더 많이 농촌에 보내주어 여러가지 병충해로 말미암아 입는 손실을 없애도록 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435~436페지)

최근 몇해동안에 우리 나라에서는 화학비료생산이 빨리 늘어나고 그 품종도 늘었다. 그리하여 농촌에 여러가지 비료를 더 많이 보내줄수 있게 되였다. 그러나 비료를 많이 주는것만으로써는 농촌경리의 화학화가 다 되였다고 말할수 없다. 화학비료를 많이 줄뿐만아니라 살초제로 김을 죽이고 농약으로 병충해까지 완전히 막을수 있게 되여야 농촌화학화가 전면적으로 실현되는것이다.

농약으로 김을 죽이는 문제는 오늘 농민들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하고 일은 헐하게 하면서도 더 많은 소출을 내도록 하는데서 절실한 의의를 가진다.

어버이수령께서는 어떻게 하나 살초제를 더 많이 생산하여 농촌에 충분히 보내줌으로써 농민들이 무더운 여름에 땀을 흘리며 김매는 일을 완전히 없애도록 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농촌기술혁명의 다른 모든 과업들과 함께 화학화를 실현할데 대한 그이의 교시에는 농민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담겨져있다. 농촌경리의 화학화에 복무하는 모든 부문 일군들은 여러가지 질좋은 화학비료와 함께 살초제와 농약들을 농촌에 더 많이 생산공급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림으로써 농민들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하고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장성시킬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간곡한 교시를 반드시 실현하여야 한다.

농촌기술혁명을 힘있게 추진시키는데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는것은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오늘의 세계는 과학의 세계이고 지금은 과학적으로 농사를 짓는 때이다. 현시기 농업과학분야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워 우리 나라 농업생산과 자연 및 기후 조건에 맞는 여러가지 농기계, 화학비료, 농약, 살초제 등을 연구완성하고 생산에 도입하며 특히는 종자개량사업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는것이다. 알곡, 사료 및 집짐승 종자들을 개량하며 우수한 품종들을 우리 나라 풍토조건에 맞게 받아들이는 사업을 적극 추진시킬것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농업부문의 모든 일군들은 선진영농기술을 널리 받아들이며 모든 농사일을 과학적리치에 맞게 하여야 한다.

농촌기술혁명을 완성하는 사업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 공산주의 농촌건설의 위대한 강령을 실현하는 보람찬 사업이며 농업생산을 빨리 장성시킬뿐만아니라 우리 농민들을 고되고 힘든 로동에서 영원히 해방할데 대한 그이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는 영예로운 사업이다.

그렇기때문에 농촌기술혁명에 대한 당의 방침들을 관철하는데서 결정적의의를 가지는것은 농업부문의 모든 일군들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당의 유일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는것이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그이께서 내놓으신 우리 당 정책들, 특히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비롯한 불후의 로작들에 담겨져있는 농촌경리발전에 관한 그이의 위대한 사상과 방침들, 농업부문에 주신 교시들을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깊이 연구하여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어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는 우리 나라 농촌에서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강령이며 그 구절구절마다에는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그이의 심오한 사상이 담겨져있다. 우리는 테제의 매 문장을 놓고 한글자한글자 따져가면서 그 진수를 똑똑히 파악할 때까지 연구를 심화시켜야 한다.

사회주의농촌건설을 촉진할데 대한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할 때에만 우리는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치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 적극 나서게 되며 그이께서 제시하신 농촌 기술혁명의 모든 과업들을 실현하는데서 자신의 힘과 지혜를 다 바칠수 있다.

농촌기술혁명수행에서 농업부문 지도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것은 매우 큰 의의를 가진다.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우리 일군들은 인민들을 잘살게 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공산주의자들이다. 우리 일군들은 인민의 충복이 되라고 하신 그이의 가르치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농민들의 어렵고 힘든 일을 덜어주는데 가장 큰 관심을 돌려야 하며 그것을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고 창발성을 내여 농촌기술혁명을 적극 밀고나가야 한다.

특히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일군들은 협동농장들의 모든 경영활동을 훌륭히 조직지도하며 농업기술자들과 농촌경리에 직접 복무하는 국가기업소들의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높임으로써 농촌기술혁명을 보다 힘있게 촉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농촌기술혁명은 어렵고 방대한 과업이며 그것은 로동계급과 도시의 지원하에서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모든면에서 농촌을 지원하는 사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우리에게는 농촌기술혁명을 적극 추진시킬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우리 인민을 언제나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고있다. 또한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는 농촌경리를 공업화하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농기계들과 화학비료, 농약 등을 생산할수 있는 튼튼한 공업토대가 마련되여있다. 또한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우리 나라에서는 농촌기술혁명이 농민들의 힘든 로동을 덜어주고 긴장한 로력문제를 풀며 더 많은 농산물을 생산하여 근로자들을 더 잘살게 하는데 이바지하기때문에 농민은 물론 로동계급과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농촌기술혁명에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고있다.

전체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높이 받들고 농촌기술혁명을 더욱 힘있게 촉진시킴으로써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경리를 완전히 공업화하며 우리의 농촌을 더욱 살기좋고 문명한 지상락원으로 꾸리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

농촌문화혁명을 더욱 심화발전 시키기 위하여

박 웅 학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문화혁명은 사상혁명, 기술혁명과 함께 사회주의적협동화가 완성된 다음 농촌에서 수행하여야 할 중심적인 혁명과업의 하나로 된다고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촌에서 혁명을 계속하지 않고는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킬수 없고 그 우월성을 발양시킬수 없으며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없앨수 없다.

기술혁명, 문화혁명, 사상혁명, 이것은 사회주의적협동화가 완성된 다음 농촌에서 수행하여야 할 중심적인 혁명과업이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34~35페지)

농촌에서 문화혁명은 착취사회가 남겨놓은 농촌의 문화적락후성을 없애고 모든 농업근로자들의 문화수준을 선진적인 로동계급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새로운 사회주의적문화를 건설하기 위한 중요한 과업이다.

농촌은 자본주의하에서 경제, 기술면에서뿐만아니라 문화면에서도 도시에 비하여 훨씬 뒤떨어져있었으며 농민들은 오래동안 현대문명에서 벗어나 무지와 몽매 속에서 살아왔다. 자본주의하에서 농촌은 주로 도시의 착취대상으로 되여왔으며 착취계급들은 농촌의 문화적발전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돌리지 않았다. 특히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식민지통치의 리해관계로부터 우리 나라 농촌에 봉건적관계를 그대로 남겨두면서 농촌의 문화적발전을 극도로 억제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농민들로 하여금 문화생활에서 더욱더 뒤떨어지지 않을수 없게 하였다.

해방후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 그리고 사회주의건설을 통하여 우리 농민들의 사회경제적처지는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되였다. 사회경제생활에서의 변화는 농민들의 사상, 문화 생활에서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협동화이후 우리 농민들은 사회주의적근로자로 전변되였으며 농촌에서도 사회주의적문화가 개화발전할수 있는 광활한 길이 열리게 되였다.

그러나 이것으로써 도시와 농촌간의 문화적차이가 완전히 극복되는것은 아니다. 과거사회가 남겨놓은 농촌의 문화적락후성은 협동화가 실현된 조건에서도 인차 없어지지 않으며 그것은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를 조건짓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서 오래동안 남아있게 된다. 그리하여 농촌에서의 문화혁명은 협동화가 실현된후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사회주의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요한 계속혁명과업의 하나로 제기된다.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농촌에서 문화혁명을 힘있게 다그쳐 과거사회가 남겨놓은 농촌의 문화적락후성을 철저히 극복해나가야만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를 점차 없애고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전반적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다.

농촌문화혁명은 또한 농촌자체의 문화적락후성을 없애는데서뿐만아니라 새로운 사회주의적문화를 창설하고 개화

발전시키기 위한 전반적문화혁명을 촉진시키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생산력의 높은 발전수준을 요구하며 근로자들의 높은 문화수준을 요구한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는것은 결국은 전체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며 그들의 부단히 높아가는 물질적, 문화적 수요를 더욱더 완전히 충족시키기 위한것이다.》 (우와 같은 책, 36페지)

정권을 잡은 로동계급은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완성한 다음 사회주의제도가 요구하는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는 동시에 사회주의적생산방식에 상응하는 사회주의적문화를 창설하고 도시와 농촌 주민들에게 전반적으로 높은 문화생활을 보장하여주며 그들을 진정한 문화의 주인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제도는 발전된 생산력에 기초한 물질문화와 다방면적으로 개화된 사회주의적정신문화를 가져야만 자체의 우월성을 보다 충분히 발휘할수 있으며 인류의 리상인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다.

새로운 사회주의적문화를 창설하고 개화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먼저 농촌의 문화적락후성을 급속히 퇴치하여야 한다. 농촌의 낡은 면모를 문화적으로 개조하지 않고서는 그리고 수백만 농민대중의 문화수준을 높이지 않고서는 새로운 사회주의적문화를 성과적으로 창설할수 없으며 나라의 전반적문화를 급속히 발전시켜나갈수 없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새로운 사회주의적문화를 창설함에 있어서 특히 농촌문화혁명에 중요한 관심을 돌려야 하며 농촌주민들의 문화수준을 하루빨리 선진적인 로동계급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농촌에서 문화혁명을 힘있게 다그쳐 농민들의 기술문화수준을 일층 높이고 그들을 훌륭한 사회주의적근로자로 만들며 농촌의 문화수준을 도시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야만 사회주의적민족문화를 전면적으로 개화발전시킬수 있고 공업과 함께 사회주의적농촌경리제도에서도 그 우월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킬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농촌에서 문화혁명을 적극 추진시키는것은 그자체가 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위한 계속혁명의 과업으로 되는 동시에 기술혁명과 사상혁명을 더잘 수행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요구로 된다고 밝히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은 밀접히 련관되여있으며 문화혁명을 하지 않고는 기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109페지)

《문화혁명을 수행하지 않고는 근로자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일수 없으며 사상혁명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50페지)

문화혁명이 기술혁명수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놀게 되는것은 우선 현대적인 과학기술과 선진적인 영농방법을 농업생산에 도입하는 기술혁명이 광범한 농민대중의 높은 기술문화수준을 요구한다는 사정과 관련되여있다.

농촌기술혁명의 과업도 다른 모든 혁명과업과 마찬가지로 광범한 농민대중이 창조적지혜와 재능을 높이 발휘하여야 훌륭한 성과를 거둘수 있다. 대중의 이러한 창조적지혜와 재능은 그들의 기술문화수준에 많이 의존된다. 일정한 수준의 기술문화지식을 가지지 않고서는 우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며 영농방법을 개선하는데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수 없고 이 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할수 없다.

또한 농촌에서 선진영농방법에 의하여 농사를 지으며 현대적농기계를 직접 다루는것은 농민대중이다. 아무리 훌륭

한 농기계와 선진영농방법을 도입하여도 그것을 직접 다루며 적용하는 농민들의 기술문화수준이 높지 못하면 그러한 과학기술이 자체의 우월성을 충분히 나타낼수 없다. 특히 농업의 기계화, 화학화가 급속히 실현되고있는 오늘의 우리 나라 농촌현실은 농민들의 기술문화수준을 높여야 할 요구성을 그 어느때보다도 절박하게 제기하고있다. 오늘 당과 국가는 농민들의 로동을 쉽게 해주며 농업생산을 급속히 증대시킬 목적으로 농촌에 많은 농기계들과 여러가지 화학비료와 살초제를 공급해주고 있다. 우리 농민들의 기술문화수준이 높아지면 질수록 농기계들의 능력과 각가지 화학비료와 살초제의 효능을 더욱 높여 농업생산을 급속히 늘일수 있다.

농촌에서의 문화혁명은 이와 같이 기술혁명과 밀접한 련관을 가진다. 농촌에서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려 농업근로자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부단히 높이며 그들을 높은 과학과 기술의 소유자로 만들어야만 현대적농기계와 비료, 농약 등을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으며 기술발전을 추진시켜 농업생산을 급속히 증대시킬수 있다.

문화혁명은 또한 농촌에서 사상혁명을 힘있게 다그쳐 농민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는데서도 중요한 작용을 한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문화혁명은 사상혁명의 첫공정으로 된다. 사상혁명은 농민들의 의식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뿌리빼고 그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는 과정인것만큼 그것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농민들이 반드시 일정한 수준의 일반지식을 가져야 한다.

농민들은 그들자체가 근로계급으로서 일반적으로 혁명사상을 쉽게 받아들일수 있다. 그러나 농민들도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하자면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을 체계적으로 리해할수 있는 일반지식의 기초가 있어야 한다. 농민들은 생활을 통하여 다같이 우리 당 정책의 정당성을 확신하고있는 것만큼 그들의 일반지식수준이 높아지는데 따라 당정책의 본질을 더욱 깊이 리해할수 있게 되며 따라서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는데서 더 높은 창조적지혜를 발휘할수 있는것이다.

문화혁명을 적극 추진시켜 농민들의 일반지식수준을 부단히 높이는것은 이와 같이 농민들의 사상의식을 더 빨리 개조하여 그들을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것을 훌륭히 관철해나갈수 있게 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한다.

지난 기간 우리 나라 농촌문화혁명수행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그이께서 농민들에게 돌려주신 육친적인 배려에 의하여 이미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그이께서는 혁명발전의 매 단계마다에서 농촌문화혁명의 과업과 그것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방도들을 명확히 제시해주시였으며 농민들의 문화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극진한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문화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되는 교육의 발전에 깊은 배려를 돌리시고 우리 나라를 전체 인민이 공부하는 가장 선진적인 교육의 나라로 되게 하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동방에서 처음으로 초등 및 중등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1967년부터는 도시에서뿐만아니라 농촌에서도 일반교육과 기초기술교육을 배합하는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이 실시되게 되였다.

또한 농촌에서 성인교육을 계속 힘있게 추진시킨 결과 지난날 일제의 식민지통치밑에서 배우지 못했던 우리 농민들이 오늘은 누구나 다 높은 일반지식과 기술지식을 가지게 되였다. 당은

록히 수많은 기사, 기수들을 양성하여 농촌에 파견하였으며 그들의 대렬을 계속 늘임으로써 농촌기술간부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끊임없는 배려밑에 우리 농민들은 세기적인 문화적락후성으로부터 문명에로의 비약을 이룩하고있다. 오늘 우리 농촌에는 리마다 진료소와 아동병동이 설치운영되고 농민들은 무상치료를 받고있으며 사람마다 무병장수를 노래하고있다. 농촌에도 아이들이 있는곳이면 그 어디에나 유치원, 탁아소가 있고 어린이들의 양육조건들이 훌륭히 갖추어져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특히 농촌문화혁명을 급속히 추진시키기 위하여 나라의 비용으로 농촌문화주택을 대대적으로 건설하는 가장 현명한 조치를 취하시였다. 그러한 결과 오늘 우리 나라 농촌에서는 낡은 사회로부터 물려받은 오막살이가 자취를 감추고 현대적인 문화주택과 각종 편의봉사시설이 즐비하게 일떠섰으며 산간오지에 이르기까지 부락마다 전기가 들어가고 사람마다 방송과 각종 출판물을 리용하여 자기들의 문화수준을 급속히 높일수 있게 되였다.

농촌문화혁명에서 이미 이룩한 이와 같은 성과들은 우리 농촌을 더욱 아름다운 사회주의적문화농촌으로 꾸리며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고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훌륭한 밑천으로 된다.

우리는 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위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길을 따라 농촌에서 사상혁명, 기술혁명과 함께 문화혁명을 계속 힘있게 다그쳐야 한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농촌문화혁명의 과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혀주시였다.

《농촌문화혁명은 농민들의 문화, 기술 수준을 높이며 농촌기술간부를 양성하며 농촌의 낡은 면모를 개변하고 온갖 뒤떨어진 생활양식과 인습을 없애며 생활을 문화적으로, 위생적으로 꾸리기 위한 중요한 혁명과업이다.》
(우와 같은 책, 49페지)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에는 농촌문화혁명에서 수행하여야 할 과업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여있다. 수령께서는 이러한 과업들 가운데서 기본으로 되는것은 농민들의 일반지식수준과 기술수준을 높이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농민들의 일반지식수준과 기술수준을 높이는것은 그들로 하여금 사회주의적 농촌경리제도를 훌륭히 관리운영할수 있는 유능한 사회주의적농업근로자로 되게 하는데서 기본요구로 된다.

사회주의는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요구한다. 모든 근로자들이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져야 새로운 기술로 장비된 인민경제를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할수 있으며 사회주의제도를 훌륭히 건설해나갈수 있다.

특히 오늘 우리 나라 농촌에서는 기술혁명이 성과적으로 추진된 결과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는 한층 강화되고 농업생산에서 과학과 기술의 역할은 그 어느 때 보다도 높아졌다. 공업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농촌경리도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는데 농업근로자들의 기술문화수준은 이에 따라가지 못하고있다. 현대적과학기술로 부단히 장비되여가는 사회주의적농촌경리제도는 농업근로자들의 일반지식수준과 기술수준을 높이는 문제를 더욱 절박한 요구로 제기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러한 요구로부터 농민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이는것을 농촌문화혁명의 기본과업으로 제시하시면서 그것을 위한 구체적인 방도를 가르쳐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

하시였다.

《농민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이려면 그들이 방송을 들을수 있게 하는것과 함께 신문과 잡지를 볼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농촌에 신문, 혁명전통교양자료, 기술서적, 문화서적을 비롯한 여러가지 출판물들을 더 많이 보내주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라지오, 텔레비죤, 유선방송 및 신문, 잡지들은 문화혁명의 유력한 수단들이다. 모든 농민들이 우선 방송을 제때에 듣게 되여야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당의 의도를 신속히 알수 있고 온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날 그시간으로 다 알수 있다. 모든 농민들이 다 방송을 제때에 듣고 신문, 잡지를 일상적으로 보며 공부를 많이 하여야 일반지식과 기술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할수 있다.

책은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하나의 량식이다. 책은 우리에게 정치, 경제, 문화, 기술의 모든 분야에 걸쳐 다양하고 풍부한 지식을 준다. 그러므로 농업근로자들속에서 책과의 사업을 강화하여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고 모든 농민들이 다 공부를 하게 하는것은 그들의 일반지식과 기술지식을 빨리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된다.

농업근로자들속에서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기 위하여서는 우선 리내 책임일군들과 작업반장, 분조장들이 공부를 많이 하여 학습에서 모범이 되여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농업근로자들이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과학기술지식을 배우며 문화적소양을 갖추기 위하여 책을 읽는것을 생활의 제1차적 요구로 되게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하여 농민들이 누구나 다 우리 당정책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게 하는 동시에 전기와 기계에 대한 상식, 비료와 농약에 대한 화학지식, 토양과 생물에 대한 상식, 보건위생지식, 문학예술에 대한 상식 같은것을 다 알며 한가지이상의 기술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농업근로자들의 일반지식과 기술지식을 높이는데서 어머니학교와 근로자학교를 잘 운영하는것은 매우 큰 의의를 가진다. 리내 책임일군들은 지역적조건과 생산작업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어머니학교와 근로자학교를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강사들의 대렬을 잘 꾸리며 그에 대한 지도체계를 정확히 세워야 한다.

농업근로자들의 일반지식수준과 기술수준을 전면적으로 높이며 농촌기술일군을 양성하는데 있어서 학교교육은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오늘 농촌에서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이 다 9년제기술의무교육을 받게 되는 조건에서 농촌학교들의 사업을 강화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 농촌학교들은 문화혁명의 거점으로서 자라나는 새세대들에게 일반지식과 기술지식을 충분히 주어 농촌에 내보냄으로써 그들이 농촌문화혁명에서 커다란 역할을 하게 하여야 한다.

모든 협동농장들과 근로단체조직들은 리내 학교들을 책임적으로 꾸려주고 필요한 교수교양조건을 충분히 마련하여 줌으로써 후대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훌륭한 공산주의건설자로 키워내도록 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농촌문화혁명에서 또하나의 중요한 과업은 농민들이 온갖 뒤떨어진 생활양식과 인습을 버리고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양식과 사회주의적생활문화를 수립하며 생활을 문화위생적으로 알뜰히 꾸리도록 하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촌문화혁명에서 기본은 어디까지나 농민들의 정치지식과 기술지식, 일반지식수준

을 높이는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농민들이 자기 집과 마을을 알뜰히 거두며 생활을 문화위생적으로 알뜰하게 꾸리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다같이 잘되여야 문화혁명이 잘 수행된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김일성동지의 이 가르치심에서 알수 있는바와 같이 농촌에서 낡은 생활양식과 인습을 버리고 새로운 사회주의적 생활양식과 생활문화를 수립하며 농민들이 자기 집과 마을을 알뜰히 거두며 생활을 문화위생적으로 꾸리는것은 농촌문화혁명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된다.

문화혁명은 착취사회에서 물려받은 일체 낡은 생활양식과 인습을 버리고 새로운 사회주의적내용을 가진 로동계급의 선진문화를 건설하는 과정이다. 농촌에 남아있는 낡은 생활양식과 인습을 버리지 않고서는 로동계급의 선진문화를 보급할수 없다.

농촌에서 낡은 생활양식과 인습을 없애고 생활을 위생문화적으로 알뜰히 꾸리며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문화를 세우는것은 특히 농촌문화혁명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고 농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한층 높이기 위한 필수적요구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육친적인 배려와 세심한 보살핌에 의하여 오늘 우리의 농촌에는 많은 문화주택들과 문화시설들이 갖추어져있다. 문화적으로 부단히 발전되여가고있는 농촌의 새 환경은 그의 주인들인 농업근로자들로 하여금 집과 마을을 알뜰히 거두고 생활을 위생문화적으로 꾸릴것을 절실히 요구한다. 낡은 생활양식과 인습을 버리고 생활을 위생문화적으로 알뜰하게 꾸려야만 우리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귀중한 문화적재부들이 빛을 내게 할수 있고 나아가서 문화혁명을 한계단 더 높이 발전시킬수 있다.

농촌마을을 알뜰하게 거두고 생활을 위생문화적으로 꾸리는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극진한 배려밑에 우리 인민의 피땀으로 이루어놓은 모든 귀중한 문화적재부들을 대대로 후대들에게 넘겨주기 위하여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농업근로자들이 자기의 집과 마을을 알뜰히 거두며 위생문화적으로 생활해야 농촌에 이룩된 고귀한 물질문화적재부를 오래 보존할수 있으며 발전된 사회주의농촌을 후대들에게 물려줄수 있다.

농업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생활문화수준을 높여 자기의 집과 마을을 알뜰히 거두며 생활을 문화위생적으로 꾸리도록 하는데서 농촌문화기관들과 이 부문 일군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우선 농촌학교와 농촌진료소를 잘 꾸려 그것이 문화혁명의 본보기로 되게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이 부문 일군들이 인민반과 가정에 들어가 문화위생선전사업을 강화하며 농민들이 착취사회에서 물려받은 락후한 인습을 버리고 생활을 소박하고 알뜰하게 문화위생적으로 꾸리고 사는데 습성화되도록 꾸준히 교양하여야 한다.

특히 탁아소와 유치원을 잘 꾸려야 한다. 탁아소, 유치원은 문화혁명을 수행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말할수 있다. 그것은 우리 혁명을 이어갈 어린이들이 거의다 탁아소와 유치원에 다니며 거기에서 여러가지 교양을 받기때문이다.

모든 협동농장들에서는 탁아소와 유치원의 주위환경을 문화위생적으로 알뜰하게 꾸려 어린이들이 튼튼하게 잘 자랄수 있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할것이다.

다음으로 농촌문화혁명의 중요한 과업은 농민들의 문화생활조건을 부단히 개선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문화혁명에서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농촌보건위생사업을 발전시키며 농민들의 문화생

활조건을 더욱 개선하는것이다.》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0페지)

농민들의 문화생활조건을 개선하는것은 농촌문화혁명의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문화혁명의 목적의 하나가 농촌의 낡은 면모를 개변하고 농민들이 현대문화의 혜택을 더 잘 받도록 하며 농민들의 부단히 높아가는 물질문화적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있다.

농민들의 문화적인 생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농촌문화주택건설을 계획적으로, 집중적으로 진행하여 모든 농민들이 아담하고 편리한 문화주택에서 살도록 하시려는 경애하는 수령의 원대한 구상을 빛나게 실현하여야 한다. 농촌에서 문화주택건설과 함께 문화보건시설들과 편의봉사시설들을 잘 갖추고 이미 있는것을 더 잘 관리운영하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농촌문화혁명을 촉진시키는데서 중요한것은 농촌문화혁명의 거점으로서의 군의 역할을 백방으로 높이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군은 농촌문화혁명의 거점으로서도 사회주의농촌의 발전에 강력한 작용을 한다.》 (우와 같은 책, 67페지)

농촌문화혁명은 로동계급의 지원밑에 도시의 선진문화를 농촌에 보급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도시의 문화는 군을 거쳐서 농촌에 들어간다. 군은 자기가 가지고있는 모든 문화선전수단들을 리용하여 군내 농촌들의 문화혁명을 직접 지도하며 도시의 선진문화와 생활풍습을 농촌에 보급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군의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군인민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 농촌문화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은 인민정권기관들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군인민위원회는 농촌문화혁명에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고 농촌일군들의 문화기술수준을 체계적으로 높여주며 모든 주민들이 생활을 보다 문화위생적으로 꾸리도록 잘 지도하여야 한다.

특히 군인민위원회는 군소재지에 있는 학교, 영화관, 도서관, 서점, 병원을 비롯한 문화기관들과 편의봉사시설들을 문화적으로 알뜰히 꾸리고 그것들이 도시의 선진문화, 생활풍습을 농촌에 보급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게 하며 군소재지가 농촌에 대하여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본보기로 되게 하여야 한다.

농촌문화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농촌당조직들이 이 사업을 튼튼히 틀어쥐고 근로단체들의 역할과 책임성을 높여 이 사업에 광범한 대중의 지혜와 창발성을 적극 발동시키는것이 중요하다.

문화혁명은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며 장기성을 요구하는 혁명과업이다. 그러므로 농촌 당조직들과 근로단체들이 대중의 열성과 창발성을 적극 불러일으키지 않고서는 이 사업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킬수 없다.

당조직들과 근로단체들은 정치사업을 앞세워 광범한 대중속에서 농촌문화혁명의 중요성과 수행방도를 깊이 인식시키며 낡은 생활양식과 인습을 반대하고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문화를 수립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문화혁명이 어렵고 장기성을 띠는 사업인것만큼 당조직의 지도밑에 모든 근로단체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조직사업과 정치사업을 인내성있게 꾸준히 진행하여야 농촌문화혁명수행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할수 있다.

모든 농업부문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제시된 농촌문화혁명의 과업을 더욱 심화시켜나감으로써 우리 나라 농촌을 보다 아름답게 꾸리고 더욱 살기좋은 사회주의적문화농촌으로 전변시켜야 할것이다.

남조선혁명에서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

정 웅 록

오늘 남조선에서 혁명력량을 강화하고 혁명을 추진시키는것은 조국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하여 절박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조국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하여서는 북반부의 사회주의력량을 강화하고 사회주의건설을 추진시키는 동시에 남조선에서 혁명력량을 강화하고 혁명을 적극 추진시켜야 한다.

남조선에서 혁명력량을 튼튼히 준비하며 혁명투쟁을 힘있게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혁명의 령도계급인 로동계급의 역할을 높이여야 한다.

남조선혁명에서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높이는것은 인민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며 그들을 반미구국투쟁에 힘있게 조직동원하여 혁명의 승리를 보장하는데서 근본적요구로 된다.

남조선에서 혁명의 령도계급인 로동계급의 역할을 높임으로써만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혁명력량을 민음직하게 꾸릴수 있으며 혁명의 승리를 더욱 앞당겨나갈수 있다.

※ ※

우리 나라 로동계급은 1930년대로부터 조선혁명에서의 령도적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온 빛나는 전통을 가지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과 당시의 전반적반일민족해방투쟁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이 모든 투쟁을 통하여 조선로동계급은 민족해방운동의 앞장에 튼튼히 서게 되고 로동계급의 령도밑에 로농동맹이 강화발전하게 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이 널리 벌어졌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284페지)

조선혁명에서의 령도적역할은 조선로동계급에게 부과된 력사적임무였다. 일본제국주의와 야합한 조선의 자본가계급이 혁명을 령도할수 없었다는것은 자명한 일이다. 제일 혹독하게 착취당하고 압박받는 가장 선진적이고 혁명적인 로동계급 이외에는 그 어느 계급도 조선혁명을 령도할수 없었다.

조선혁명에서의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혁명을 령도하시게 됨으로써 비로소 확립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초기혁명활동시기에 이미 로동계급의 령도권에 대한 혁명적사상을 제시하시였으며 항일무장투쟁의 전행정을 통하여 그것을 전면적으로 구현하심으로써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승리에로 확고히 인도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조선혁명전반에 대한 맑스-레닌주의적령도를 확고히 보장하시였으며 그이의 탁월한 령도밑에 로동계급은 민족해방투쟁에서 선봉적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항일무장투쟁행정에서 로동계급의 령도밑에 로농동맹이 강화발전되고 그에 기초한 반일민족통일전선이 형성됨으로써 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운동이 확고한 대중적지반우에서 승리적으로 발전하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이 영광스러운 전통을 계승하여 해방후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로동계급의 령도밑에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이 성과적으로 완수되였으며 사회주의건설이 승리적으로 전진하고있다. 그러

나 조선혁명은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인하여 남북조선에서 통일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남조선에서는 아직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이 그대로 남아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현단계에 있어서 남조선사회의 기본모순은 미제와 그와 결탁한 지주, 예속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을 한편으로 하고 로동자, 농민, 도시소부르죠아 및 민족자본가들을 다른 편으로 하는 둘사이의 모순이다.》(우와 같은 책, 233페지)

김일성동지의 교시에서 명백히 알수 있는바와 같이 미제와 그와 결탁한 지주, 예속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은 타도되여야 할 혁명의 대상이다.

혁명의 동력으로 되는 계급들중에서 남조선혁명을 령도할 계급은 오직 로동계급뿐이다. 지난날 일제통치밑에서 로동계급이 그러하였던바와 같이 오늘 남조선에서도 혁명에 가장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진것은 로동계급이며 미제와 그 주구들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모든 계급, 계층들을 령도하여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수 있는것도 맑스-레닌주의당의 지도를 받는 로동계급뿐이다.

남조선혁명의 동력으로 되고있는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들도 오직 로동계급의 령도밑에 그와 손잡고나아감으로써만 혁명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다.

남조선의 민족자본가들도 로동계급의 령도하에서만 민족해방위업에 이바지할수 있으며 미제와 그와 결탁한 예속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의 압박에서 벗어나 보람있는 삶의 길을 찾을수 있다.

오늘 남조선로동계급은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의 전통을 계승하여 남조선혁명을 령도하여야 할 유일한 계급이다.

8.15후 남조선에서는 로동계급의 령도밑에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을 때려엎고 조국의 통일독립을 이룩하기 위한 혁명투쟁이 줄기차게 진행되여왔다.

8.15후 남조선에서 혁명정세는 매우 좋았고 인민대중의 혁명적기세도 높았다. 그러나 25년에 걸치는 남조선인민들의 줄기찬 투쟁에도 불구하고 남조선혁명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승리하지 못하고있다.

남조선에서의 혁명운동의 력사적경험은 혁명정세가 아무리 좋고 인민대중의 혁명적기세가 높다고 하더라도 로동계급의 령도가 확고히 보장되지 못할 때에는 혁명투쟁을 성과적으로 발전시킬수 없으며 혁명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8.15후 남조선인민들은 드높은 혁명적분위기속에서 공화국북반부에서 이룩된 빛나는 성과들에 고무되면서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을 반대하며 조국의 완전독립과 북반부에서와 같은 민주개혁의 실시를 위하여, 민주주의적자유와 생존의 권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웠다.

1946년 9월에 있은 남조선로동자들의 총파업은 10월의 전인민적반미항쟁으로 발전하였으며 여기에는 약 230만의 애국적인민들이 참가하였다. 그후 미제가 꾸며낸 5.10망국단선을 반대하는 투쟁을 비롯하여 남조선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은 계속 줄기차게 발전하였다. 이 모든 투쟁에서 남조선로동계급은 조직성과 완강성과 혁명적기개를 높이 발양함으로써 자기의 선봉적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남조선에서 세차게 일어난 이러한 투쟁들은 미제의 식민지통치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으며 인민대중의 혁명성과 그 위력을 크게 시위하였다.

8.15후 남조선에서 인민대중의 반미구국투쟁이 세차게 일어나 원쑤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줄수 있은것은 무엇보다도 남조선로동계급이 우리 당이 제시한 남조선혁명에 관한 방침을 받들고 투쟁의 선두에 서서 자기의 선봉적역할을 옳게 수행하였기때문이다.

1948년 남조선에 미제의 괴뢰정권이 조작된것을 계기로 하여 미제와 리승만역도들의 야수적인 파쑈폭압정책이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되자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은 일시적쇠퇴기에 들어서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이 실패한 근본원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남조선로동운동이 실패한 원인은 이 운동의 지도층이 맑스-레닌주의와는 인연이 없는 종파분자들과 심지어는 미국고용간첩들로 구성되여있었으며 그들의 죄악적행동의 결과로 당이 튼튼하게 조직되지 못하였으며 로동운동을 옳게 지도하지 못한데 있습니다.》(《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대하여》, 157페지)

8.15직후부터 남조선로동당의 지도부에 기어들었던 종파분자들과 간첩분자들의 파괴암해책동으로 인하여 이 시기에 이르러 남조선의 당조직들은 적들앞에 모조리 드러나고 혁명대오는 흩어지게 되였으며 로동계급의 조직들은 파괴되고 말았다.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만일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이 종파분자들과 간첩분자들에 의하여 파괴되지 않고 계속 줄기차게 발전하였더라면 미제국주의자들은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일으킬수 없었을것이며 남조선으로부터 물러가지 않을수 없었을것이다.

또한 남조선에서 혁명의 배신자들에 의하여 당조직이 전면적으로 마사지지 않고 혁명력량이 보존축적되여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인민군대의 진격에 호응하여 적후방에서 강력한 파업이나 폭동을 조직하였더라면 남조선은 그때 완전히 해방되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은 벌써 이룩되였을것이다.

전후시기에 와서 남조선 로동계급과 인민들의 투쟁은 점차 새로운 발전의 길에 들어섰다. 남조선에서는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이 더욱 첨예화되면서 혁명의 객관적정세가 날로 성숙되여갔다. 남조선인민들은 북반부의 사회주의건설성과에 무한히 고무되면서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고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위하여 계속 줄기차게 투쟁하였다.

전후 계속 발전하여온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1960년 4월에 이르러 만고역적 리승만괴뢰정부를 뒤집어엎는 대중적인민봉기에로 발전하였다. 미제의 식민지통치에 심대한 타격을 준 이 대중적인민봉기는 남조선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에서 일대 전환점으로 된 력사적인 승리였다.

4월인민봉기는 남조선혁명에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투쟁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제와 그와 결탁한 지주, 예속자본가들을 반대하는 철저한 반제반봉건투쟁에로 발전하지 못하였으며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지 못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4월인민봉기의 교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적당이 없었고 뚜렷한 투쟁강령이 없었으며 따라서 기본군중인 로동자, 농민이 항쟁에 널리 참가하지 못하였기때문에 4월인민봉기는 철저히 조직적으로 전개되지 못하였으며 남조선인민들은 그들이 흘린 피의 대가를 미제의 다른 앞잡이들의 손에 빼앗기지 않을수 없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142페지)

4월인민봉기 당시 남조선에는 인민대중의 투쟁을 조직지도할수 있는 혁명적조직과 지도적핵심이 충분히 준비되여있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대중투쟁은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전면적인 반제반봉건투쟁에로 발전하지 못하였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전쟁전부터 간첩암해분자들에 의하여 당조직이 완전히 파괴되였던 조건에서 남조선로동계급이 농민들과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의 선두에 서서 미제와 그 주구들을 철저히 쳐부시고 투쟁을 승리에로 이끌만큼 조직사상적으로 아직 준비되여있지 못하였기때문이다.

이 모든것은 남조선혁명을 힘있게 발전시키며 남조선혁명의 결정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혁명적당을 튼튼히 꾸리고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결정

적으로 강화하여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 *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높이는것은 오늘 남조선혁명의 발전을 위한 절박한 요구로 되고있다.

오늘 남조선혁명의 객관적정세는 날로 더욱 성숙되여가고있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반광적인 전쟁정책과 파쑈적탄압정책으로 인하여 남조선인민들의 생활고와 정치적무권리는 더는 참을래야 참을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있다.

남조선인민들속에서는 미제와 그 주구들에 대한 증오와 불만이 더욱더 커가고있으며 오늘의 불행과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는 그 화근인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식민지통치를 때려부셔야 한다는 각오가 더욱 높아가고있다.

특히 남조선인민들속에서는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무한한 흠모의 정이 전례없이 높아가고있으며 공화국북반부의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동경이 더욱 커가고있다.

이리하여 남조선에서 미제와 그 앞잡이 박정희괴뢰악당을 반대하는 애국적인민들의 여러가지 형태의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다.

남조선혁명의 이러한 객관적정세는 혁명의 결정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혁명력량을 더욱 튼튼히 꾸릴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남조선에서 혁명력량을 빨리 준비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강화하는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맑스-레닌주의당을 튼튼히 꾸리고 그 령도적역할을 높이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남조선에서 전투적이고도 탄력성있는 맑스-레닌주의당을 꾸리며 그 령도적역할을 높이는것은 혁명운동의 발전을 위한 절박한 요구입니다. 남조선 혁명조직들과 혁명가들은 원쑤들을 반대하는 실천적투쟁을 통하여 당대렬을 부단히 확대강화하여야 할것이며 특히 당조직들을 투쟁속에서 단련되고 검열된 혁명적핵심들로써 질적으로 꾸려야 할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393~394페지)

로동계급의 령도는 중요하게 맑스-레닌주의당의 령도를 통하여 실현된다. 로동계급의 선봉대이며 그 조직의 최고형태인 맑스-레닌주의당은 바로 로동계급의 세계관에 기초하여 그의 지향, 그의 사명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한다. 로동계급은 맑스-레닌주의를 지침으로 하고 언제나 정세를 정확히 판단하며 옳은 전략전술을 세우고 대중을 능숙하게 조직동원할줄 아는 당을 가져야만 자기의 령도적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오늘 남조선에서 이러한 당을 튼튼히 꾸리는것은 로동계급의 령도하에 혁명운동을 발전시키고 혁명력량을 준비하기 위한 절박한 요구로 되고있다. 또한 이러한 당을 꾸리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군중들속에서 당력량을 부단히 확대강화하는것이며 당조직들을 단련되고 검열된 혁명적핵심들로써 질적으로 꾸리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방침을 받들고 남조선 혁명조직들과 혁명가들은 혁명의 령도계급인 로동계급과 남조선에서 수적으로 가장 많을뿐만아니라 그 대부분이 기아선상에서 헤매는 반프로레타리아들인 농민대중속에서 당조직을 부단히 늘이고 그것을 기초로 하여 점차 혁명대오를 확대하여 나아가야 한다.

이와 함께 남조선의 혁명적당은 로동계급의 세계관이 확고히 서고 인민을 위하여 끝까지 싸울 각오가 되여있으며 어떠한 시련속에서도 혁명의 지조를 지킬수 있는 견결한 혁명투사들의 전투적부대로 되여야 하며 당조직의 지도적골간은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어떤 복잡한 정황에서도 정세를 정확히 판단하고 그이께서 제시하신 남

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의 전략전술적방침에 확고히 의거하여 운동을 능숙하게 지도할수 있는 혁명가들로 꾸려져야 한다. 이렇게 될 때라야만 당은 어떤 환경에서도 로동계급의 계급로선을 확고히 견지하고 그가 지향하는 방향으로 혁명을 정확히 령도하여나갈수 있다. 이것은 8.15후 남조선혁명의 력사적경험에 비추어 가장 근본적의의를 가지는 문제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조선에서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높이기 위해서는 또한 당의 대중적지반을 확대강화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군중을 각각 자기의 대중적조직에 묶어세우고 그들을 당주위에 집결시켜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남조선에서 로동자, 농민들을 대중조직에 묶어세우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그들을 어용단체의 구속에서 떼여내는것이다. 오늘 박정희괴뢰도당은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들을 반동적이고 《관제적》인 어용단체에 강제적으로 망라시켜 그들의 계급의식을 마비시키고 그들을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남조선 혁명조직들과 혁명가들은 로동자, 농민대중을 비롯한 광범한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을 혁명화함으로써 어용단체의 반동적인 상층을 고립시키고 그 하층군중을 쟁취하여 혁명적인 대중조직에 망라시켜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이러한 대중조직은 광범한 군중을 망라한 조직으로 되어야 하며 진정으로 계급적리익을 옹호하는 민주주의적조직으로 되어야 하며 원칙상 합법적조직으로 되여야 한다.

남조선에서 로동자, 농민을 대중조직에 묶어세우고 그들을 맑스-레닌주의당의 주위에 집결시키는것은 로농동맹을 공고히 하는것으로 된다. 남조선에서 농민은 혁명의 주력군의 중요구성부분을 이루며 수적으로 보나 계급적처지로 보나 로동계급의 다음에 가는 가장 위력한 혁명력량이다.

로동계급의 령도밑에 로농동맹을 강화발전시키는것은 남조선혁명에서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확고히 보장하기 위한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맑스-레닌주의당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하여 남조선의 각계각층 군중을 자기의 주위에 결속시켜 가장 광범한 반미구국통일전선을 형성하는데로 나아가야 한다.

남조선에서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도시소자산계급과 민족부르죠아지 등 광범한 계층들이 미제국주의의 식민지통치하에서 고통을 겪고있으며 이것은 미제와 그 주구들인 지주, 예속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을 반대하는 광범한 인민대중의 반미구국통일전선을 형성할수 있는 객관적조건으로 된다.

당의 주위에 각계각층의 군중을 묶어세워 광범한 반미구국통일전선을 형성하는것은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강화하여 미제와 그 앞잡이 박정희괴뢰도당의 식민지통치를 때려부시고 남조선혁명의 결정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담보이다.

남조선혁명에서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하여서는 그들을 조직화하는것과 함께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그들을 의식화, 혁명화하여야 한다.

로동계급이 의식화, 혁명화될 때에만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간고한 투쟁의 앞장에 확고히 서서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애국적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선봉적역할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으며 혁명의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남조선로동계급을 의식화, 혁명화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그들을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이다. 남조선혁명은 오직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나아갈 때에만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우리 당의 사상만이 혁명하자는 사상이고 남조선에서 미제를 내몰고 조국을 통일하며 조선혁명을 완성하자는 가장 정당하며 가장 혁명적인 사상이다.》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조선혁명을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하며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담보하는 유일한 지도사상이다. 그이의 혁명사상은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에 기초한 가장 혁명적이고 과학적인 사상이며 로동계급과 전체 근로대중의 리익을 철저히 대표하고 로동계급의 력사적위업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맑스-레닌주의적지도사상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현명한 령도를 떠나서는 남조선에서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도, 혁명의 결정적승리도 생각할수 없다.

남조선혁명조직과 혁명가들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관한 우리 당의 전략전술로써 남조선로동계급을 철저히 무장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남조선로동계급을 미제국주의자들이 부식시키는 《반공》사상의 영향에서 완전히 떼여내며 그들을 민족주체의식과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으로 무장시켜야 한다.

남조선로동계급을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들을 의식화, 혁명화하는 사업은 혁명적실천을 통해서만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혁명적실천은 사람들을 혁명적세계관으로 확고히 무장시키고 혁명가로 키우는 훌륭한 학교이다. 대중은 혁명적실천투쟁의 불길속에서 계급의식을 더욱 빨리 높이고 조직된 력량으로 급속히 자라날수 있다.

남조선혁명조직들과 혁명가들은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을 반대하는 각종 형태의 적극적인 투쟁을 통하여 로동계급과 애국적인민들을 의식화, 혁명화하는 사업을 촉진시켜야 한다.

•

오늘 남조선로동계급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남조선혁명에서 령도계급으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믿음직한 력량으로 빨리 자라나고 있다.

남조선로동계급은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 박정희괴뢰악당들의 파쑈적폭압이 그 어느때보다 로골화되고있는 간고한 조건에서도 부단한 투쟁을 통하여 혁명의 주력부대로 튼튼히 자라나고있으며 혁명조직에 더욱더 굳게 결속되여가고 있다. 광범한 로동자들속에서 민족적 및 계급적 각성이 급속히 높아가고있으며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적자유를 위한 그들의 투쟁은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청산하고 남조선사회의 민주주의적발전과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으로 점차 발전하고있다.

특히 남조선에서는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혁명가들이 급속히 자라나고있으며 그 대렬은 날을 따라 확대되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을 따라 남조선혁명조직들은 준비되고 단련된 혁명가들로 꾸려져가고 있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조직적으로 굳게 결속되여 혁명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남조선로동계급과 애국적인민들은 미제와 그 주구 박정희괴뢰도당의 식민지통치를 때려엎고 남조선해방과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고야말것이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조선혁명의 앞길을 승리적으로 개척하시면서 우리 인민을 항상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는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싸워나아가는 남조선로동계급과 인민들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 행복과 번영이 있을뿐이다.

반제반미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의 휘황한 길을 따라 힘차게 나아가는 꾸바

김 덕 현

서반구에서 미제의 식민지체계에 첫 돌파구를 내고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혁명투쟁에 새로운 전환을 열어놓은 꾸바인민은 피델 까스뜨로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꾸바공산당과 혁명정부의 두리에 굳게 뭉쳐 꾸바력사에서 일찌기 없었던 위대한 변혁을 이룩하였다.

꾸바인민은 자기의 영웅적투쟁을 통하여 오랜 기간 외래제국주의자들에게 짓밟혔던 꾸바땅우에서 세기적인 락후와 빈궁을 가시고 사회주의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여왔으며 나라의 위력을 전례없이 강화하였다.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꾸바인민이 쌓아올린 업적들은 꾸바혁명과 라틴아메리카혁명을 더욱 힘있게 발전시킴에 있어서 귀중한 재부로 될뿐만아니라 세계사회주의력량을 강화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고있다.

오늘 꾸바인민은 라틴아메리카혁명의 맨 앞장에 서서 사회주의기치, 반제반미투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더욱 힘찬 진군을 하고있다.

* *

꾸바인민은 혁명승리후 중첩되는 난관과 시련을 용감하게 뚫고 새 생활을 창조하는 힘찬 투쟁을 벌려왔으며 이 투쟁속에서 자랑찬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꾸바인민은 피델 까스뜨로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꾸바공산당과 혁명정부의 올바른 령도밑에 미제의 끊임없는 침략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혁명의 전취물을 영예롭게 지켰으며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꾸바혁명을 교살하기 위한 미제의 침략과 파괴암해 책동이 강화되고있는 준엄한 환경속에서 꾸바인민은 조금도 동요 없이 혁명투쟁을 힘있게 다그쳐나아갔으며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지켜내였다.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의 세찬 불길속에서 꾸바인민은 외래제국주의자들의 악독한 식민지통치가 남겨놓은 온갖 낡고 부패한 잔재들을 씻어버리고 사회경제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위대한 변혁을 이룩하였다.

제반 민주개혁과 사회주의적협동화가 수행되여 꾸바땅에서 착취와 빈궁이 청산되고 인민경제의 급속한 발전을 위한 넓은 길이 열려지게 되였다.

농촌에서 두차례의 토지개혁이 실시되고 사회주의적협동화가 급속히 추진된 결과 농민들의 생산적열의는 비상히 앙양되였으며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는 더욱 튼튼하여졌다. 꾸바의 농업생산은 해마다 장성하여 지난날 식량을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던 꾸바가 지금은 쌀에 대한 수요를 기본적으로 해결할수 있게 되였으며 축산업은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고있다.

꾸바인민은 특히 나라의 경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사탕생산에서 비약적인 전진을 이룩하였다. 그들은 1965년에 600만톤의 사탕을 생산하는 성과를 이룩한데 뒤이어 1967년에는 612만톤의 사탕을 생산하였으며 올해에 더욱 높은 사탕고지를 점령하기 위

한 투쟁에서 련속 눈부신 성과들을 달성하고있다.

꾸바인민은 류례드문 큰물과 태풍으로 인한 자연재해로 하여 애로와 난관이 중첩되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이미 800만톤의 사탕고지를 점령함으로써 꾸바의 사탕생산력사에서 전례없는 기록적인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오늘 꾸바인민이 벌리고있는 사탕증산을 위한 투쟁은 나라의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꾸바혁명의 승리를 공고히 하기 위한 투쟁이며 혁명적꾸바를 교살하려고 끊임없이 책동하고있는 미제국주의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고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혁명투쟁을 힘있게 고무하는 위대한 투쟁이다.

꾸바인민은 사탕증산을 위한 투쟁을 통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키며 혁명적꾸바의 경제적위력을 더욱 튼튼히 다짐으로써 미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침략과 파괴 책동으로부터 꾸바혁명을 보위하며 혁명적꾸바를 교살하기 위하여 미쳐날뛰고있는 놈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기 위한 혁명적결의를 굳게 다지고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꾸바인민은 《사탕전선도 빨라야 히론!》이라는 전투적구호를 높이 들고 미제침략자들을 족치는 드높은 전투적기백으로 사탕증산을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으며 날에 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농업분야에서 이룩된 이와 같은 성과들은 혁명후 몇달이 못가서 《꾸바땅에 잡초밖에 남지 않을것》이라고 떠벌이던 미제국주의자들의 어리석은 잠꼬대를 실천으로 깨뜨려버렸으며 꾸바농촌의 면모를 근본적으로 전변시켰다. 농업생산에서 식민지적기형성이 현저히 극복되고 농촌경리의 다각화와 함께 수리화, 기계화, 화학화가 빨리 도입됨으로써 꾸바농업의 물질기술적토대는 더욱 공건하여지고있으며 농민들의 생활은 날을 따라 늘어가고있다.

꾸바혁명정부는 농업발전을 기본으로 하면서 농업을 위한 공업토대를 축성하는 방침을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조직진개함으로써 민족공업의 토대를 다지는데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다.

꾸바혁명정부의 혁명적조치에 의하여 꾸바인민은 1960년에 이미 중요산업을 국유화하여 산업부문의 기본장애물이였던 제국주의독점체들과 그와 결탁한 국내착취계급들의 기업소를 몰수하였으며 사탕공장을 비롯한 식료공장들을 현대적기술로 장비하는 한편, 기계, 비료, 세멘트, 전력 공업 등 일련의 기간적공업부문들을 새로 창설하여 꾸바공업의 면모를 일신하였다. 그리하여 꾸바의 공업은 미제국주의자들이 《꾸바사람들만으로는 공장, 기업소들을 운영하지 못할것》이라고 하던 망상을 짓부시고 자체의 힘과 자기 나라의 원료자원에 의거한 민족공업으로 자라났으며 주요공업제품생산은 이미 혁명전수준을 훨씬 뛰여넘고있다.

혁명전인 1958년에 비하여 강철생산은 20배, 전력생산은 24배, 세멘트생산은 2배로 각각 장성하였으며 민족공업의 기술적장비는 더욱더 현대화되여가고있다.

공업과 농업에서 이룩된 커다란 변혁들로 하여 꾸바경제의 식민지적 예속성과 기형성이 극복되고 경제의 자립성이 현저히 강화되였으며 나라의 전반적경제토대는 더욱 굳건하여졌다.

경제분야에서의 이와 같은 성과들과 함께 꾸바인민은 미제의 예속화정책과 바띠스따독재통치의 산물인 퇴폐적인 양키문화와 무지, 몽매, 질병을 쓸어버리고 사회주의적문화와 인민적보건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에서도 커다란 성과를 달성하였다.

꾸바혁명정부의 정확한 인민적시책에 의하여 혁명전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문맹자였던 꾸바가 오늘은 라틴아메리카에서 문맹자가 없는 유일한 나라로

되였으며 모든 근로자들이 무상치료를 받는 행복한 나라로 되고있다.

미제의 거듭되는 침략과 도발 책동에 대처하여 꾸바의 방위력은 철벽으로 다져졌다.

씨에라 마에쓰뜨라의 혁명투사들을 골간으로 하여 창건되였고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의 불길속에서 단련된 꾸바혁명군은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되여있으며 원쑤들의 그 어떤 침공도 성과적으로 물리칠수 있는 불패의 대오로 장성강화되였다.

오늘 꾸바의 혁명무력은 현대적무기와 최신군사기술로 장비되였으며 미제와 그 앞잡이 반혁명고용병악당들의 끊임없는 침략과 파괴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면서 조국과 인민을 믿음직하게 보위하고있다.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의 벅찬 투쟁속에서 꾸바인민의 혁명의식은 비상히 제고되였으며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은 전례없이 강화되였다. 꾸바의 모든 인민들이 피델 까스뜨로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꾸바공산당과 혁명정부의 두리에 굳게 뭉쳐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며 꾸바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자기들의 모든 힘과 온갖 지혜를 다바쳐 투쟁하고있다. 그리하여 꾸바의 전국은 말그대로 혁명적정열로 들끓고있다.

참으로 꾸바인민이 자기의 력사에서 오늘과 같이 위대한 변혁을 일으킨 때는 일찌기 없었으며 오늘과 같이 전체 인민이 정치사상적으로 통일단결된 때는 없었다.

꾸바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이와 같은 눈부신 성과들은 오직 피델 까스뜨로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꾸바공산당과 혁명정부의 정확한 정책과 현명한 령도 그리고 꾸바공산당과 혁명정부의 두리에 굳게 뭉친 꾸바인민의 헌신적투쟁의 빛나는 결실이다.

꾸바공산당은 꾸바의 현실에 맞게 맑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옳은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인민대중을 적극 조직동원함으로써 서반구에서 처음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언제나 꾸바인민을 승리에로 확고히 령도하였다.

꾸바공산당의 령도밑에 주권을 자기 손에 튼튼히 틀어쥔 꾸바인민은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에 대한 굳은 신심을 가지고 드높은 애국적헌신성과 창조적지혜를 다바쳐 투쟁함으로써 모든 난관을 용감하게 뚫고 혁명의 전취물을 영예롭게 지켜냈으며 꾸바땅에서 일찌기 없었던 자랑찬 업적을 쌓아올리였다.

* *

꾸바인민이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들은 라틴아메리카인민들과 세계혁명적인민들에게 커다란 혁명적영향을 주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라틴아메리카혁명의 맨 앞장에서 확고하게 나아가는 꾸바공화국은 싸우는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희망의 등대로 되고있으며 그들의 투쟁의 앞길에 승리의 서광을 비쳐주고있다.》(《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기치, 반제반미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세계혁명을 촉진하자》, 252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혁명적꾸바는 라틴아메리카의 미래를 대표하고있으며 그 존재자체로써 이 대륙인민들의 해방투쟁을 고무해주고있다.

꾸바인민이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들은 자본주의제도에 비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현실로 보여주고있으며 맑스-레닌주의당의 령도밑에 주권을 자기 손에 튼튼히 틀어쥐고 정치사상적으로 통일단결되여 힘차게 싸워나아가는 인민의 힘은 필승불패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인민들이 나라의 주인이 되고 새 사회제도하에서 행복하게 사는 사회주의꾸바는 미제와 그 앞잡이 친미독재정권의

동치밑에서 참을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당하고있는 라틴아메리카인민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고있다.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은 사회주의꾸바의 보람찬 현실에서 자기들의 밝은 앞날을 내다보면서 반미반독재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아가고있다.

꾸바혁명의 불패의 생활력과 그 고무적영향하에 라틴아메리카에서 세차게 타번지고있는 반미반독재투쟁의 불길은 미제국주의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고있으며 놈들을 커다란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고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미제국주의자들은 혁명적꾸바의 존재자체를 몹시 미워하고 무서워하며 꾸바공화국을 교살하기 위하여 각종 악랄한 책동을 다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꾸바혁명을 교살하기 위한 미제의 악랄한 침략적야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그들은 꾸바혁명을 말살함으로써 서반구를 배회하고있는 공산주의의 〈유령〉을 몰아내고 라틴아메리카에서 료원의 불길처럼 타오르고있는 인민들의 해방투쟁을 막아보려고 꾀하고있다.》(우와 같은 책, 252~253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미제국주의자들은 직접 제놈들의 무력을 동원하여 꾸바를 압살하려고 꾀하는 한편, 저들의 지배와 예속 밑에 있는 라틴아메리카의 반동적독재정권들을 사촉하여 꾸바에 대한 정치경제적압력을 가하며 봉쇄정책으로써 꾸바를 질식시키려 하고있다.

꾸바인민의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의 전과정은 미제의 이와 같은 집요하고 악랄한 침략과 파괴 책동을 물리치는 치렬한 투쟁과정이였으며 꾸바인민이 이룩한 성과들은 이 투쟁속에서 피로써 쟁취한 고귀한 열매인것이다.

꾸바혁명의 승리적인 전진에 질겁한 미제국주의자들은 혁명적꾸바를 반대하기 위하여 실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미제국주의자들은 1961년 4월 제놈들의 침략군과 고용병악당들을 쁠라야 히론에 상륙시켜 청소한 꾸바공화국을 그 요람기에 없애버리려고 미쳐날뛰였다.
이것은 혁명이 승리한지 얼마되지 않은 꾸바인민에게 있어서 준엄한 시련이였다.

피델 까스뜨로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친 영웅적꾸바인민은 단 72시간내에 꾸바땅에 기여든 미제침략군과 고용병악당놈들을 완전히 격파하고 혁명의 전취물을 튼튼히 보위함으로써 조국앞에 닥쳐왔던 시련을 용감히 이겨내였다. 쁠라야 히론에서의 꾸바인민의 력사적인 승리는 꾸바공화국의 불패의 생활력과 꾸바인민의 혁명적기개를 온 세상에 시위하였으며 꾸바공화국을 교살하기 위하여 혈안이 된 미제국주의자들에게 돌이킬수 없는 타격을 주었다.

꾸바인민은 또한 1962년 10월 카리브해에서의 미제의 강도적도발책동과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꾸바에 대한 빈번한 정탐, 파괴, 암해 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셔버림으로써 놈들의 반꾸바책동에 련속 심대한 타격을 안겨주었다.

흉악한 미제국주의자들은 꾸바공화국을 반대하는 악랄한 무력침공과 때를 같이하여 꾸바에 외교적으로 압력을 가하며 《경제봉쇄》정책을 집요하게 추구하면서 사회주의꾸바를 정치적으로 고립시키며 경제적으로 질식시켜보려고 책동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이 라틴아메리카의 반동들을 사촉하여 꾸바를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음모책동, 꾸바와의 무역관계단절, 꾸바에 드나드는 외국선박들에 대한 박해책동 등은 바로 꾸바공화국을 반대하기 위한 놈들의 침략정책의 직접적인 산물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특히 꾸바공화국의 위력이 강화되고 그 혁명적영향력이 커감에 따라 꾸바공화국과 꾸바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책동을 더욱더 로골화하는데로 나아가고있다. 놈들은 여러가지 허위를 날조하여 꾸바공화국을 비방중상함으로써 날로 높아가고있는 사회주의꾸바의 위신을 저락시키려고 비렬하게

책동하고있으며 매일과 같이 꾸바인민을 반대하는 범죄적침략만행을 감행함으로써 꾸바인민의 사회주의건설을 파괴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지난 4월 오랜 기간에 걸쳐 규합한 반혁명고용병악당놈들을 사촉하여 꾸바를 반대하는 횡포무도한 침략행위를 감행하였으며 5월에는 꾸바공화국의 령해를 침범하고 꾸바어선들에 무장공격을 가하여 그를 침몰시키고 그 선원들을 랍치해간 간악한 날강도적 해적행위를 감행하였다. 이것은 꾸바의 사회주의건설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사탕증산을 위한 꾸바인민의 투쟁을 교란파탄시키며 꾸바혁명의 승리적전진을 가로막아보려는 미제의 흉악한 침략책동의 중요한 고리로 된다.

그러나 미제의 그 어떤 교활하고 악랄한 침략책동도 영웅적꾸바인민을 놀래울수 없으며 꾸바인민의 불같은 혁명적의지를 꺾을수 없다.

꾸바인민은 꾸바공산당과 혁명정부의 두리에 한사람같이 뭉쳐 《조국이냐 죽음이냐, 우리는 승리할것이다!》라는 전투적구호밑에 한손에는 낫과 마치를, 다른 한손에는 총을 틀어쥐고 원쑤들의 침략과 파괴 책동을 단호히 물리치면서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지켜내고있으며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의 더욱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줄기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꾸바인민이 사회주의건설에서 날을 따라 커다란 승리를 이룩하고 꾸바혁명이 더욱 힘차게 전진해나아가는데서 심대한 타격을 받고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은 꾸바공화국을 눈에 든 가시처럼 무서워하면서 꾸바공화국과 꾸바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책동을 날이 갈수록 더욱 악랄하고 교활하게 감행해나서고있다.

현대의 가장 야만적이고 가장 흉악한 제국주의이며 세계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인 미제국주의자들의 코앞에서 오늘 꾸바인민은 놈들의 끊임없는 침략과 파괴책동을 짓부시면서 여전히 어렵고 긴장된 환경속에서 혁명투쟁을 진행하고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꾸바인민의 혁명투쟁은 사회주의나라들과 전세계진보적인민들의 커다란 관심속에서 진행되고있으며 세계 모든 혁명적인민들의 지지와 성원 속에서 전진하여나아가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꾸바혁명을 보위하며 그 승리를 공고발전시키는것은 꾸바인민의 의무일뿐만아니라 라틴아메리카의 피압박인민들과 전세계혁명적인민들의 국제주의적의무로 된다.

라틴아메리카에서 미제의 식민지체계에 첫 돌파구를 낸 꾸바혁명을 보위하며 라틴아메리카혁명의 기지로 되고있는 꾸바공화국의 사회주의건설을 지원하는것은 꾸바혁명과 꾸바인민의 리익을 위해서뿐만아니라 사회주의력량을 강화하고 전반적라틴아메리카혁명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원칙적문제이다.

전세계 혁명적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성원속에서 꾸바인민이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파괴 책동을 성과적으로 짓부시고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진행해나아감으로써 꾸바의 위력은 더욱 강화될것이며 서반구에서 사회주의기지는 더욱 튼튼하여지고 전반적라틴아메리카혁명운동의 승리는 더욱 촉진될것이다.

사회주의나라들과 세계혁명적인민들은 꾸바에 대한 미제의 침략과 파괴 책동을 견결히 반대하고 꾸바혁명을 보위하며 꾸바인민의 혁명투쟁을 지원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서반구에서의 사회주의혁명의 첫 승리이며 라틴아메리카에서의 위대한 10월혁명의 계속인 꾸바혁명의 승리를 공고히 할데 대한 위대한 혁명사상을 내놓으시였으며 꾸바인민의 혁명투쟁을 견결히 지지하는데서 위대한 모범을 보여주고계신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인민은 서반구에서 미제와 직접 맞서있는 어려운 조건에서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며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영웅적꾸바인민의 투쟁을 견결히 지지하며 꾸바공화국을 반대하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온갖 파괴책동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우리 인민은 형제적꾸바인민과의 전투적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계속 모든 노력을 다할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84페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은 꾸바혁명을 보위하는것을 자기의 신성한 국제주의적의무로 간주하고 꾸바인민의 혁명투쟁을 지원하기 위하여 언제나 모든 노력을 다하여왔다.

우리 인민은 시종일관 꾸바인민의 편에 튼튼히 서서 꾸바공화국에 대한 미제의 침략책동을 치솟는 격분으로 준엄히 항의규탄하였으며 꾸바인민과의 전투적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왔다.

조선과 꾸바는 비록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있으나 공동의 원쑤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맺어진 두나라 인민들사이의 형제적친선단결은 그 어떤 힘으로도 깨뜨릴수 없는 확고한것으로 되고있다.

조선인민과 꾸바인민사이에 날이 갈수록 더욱 공고발전되고있는 형제적친선단결은 두 나라 인민들의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해서뿐만아니라 사회주의력량을 강화하고 세계반제력량의 전투적뉴대를 강화하며 전반적반제혁명위업의 승리를 추진함에 있어서 커다란 기여를 하고있다.

우리 인민은 앞으로도 언제나 형제적꾸바인민과 굳게 손잡고 반제반미투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공동의 원쑤 미제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할것이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성스러운 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어깨겯고 함께 싸워나아갈것이다.

피델 까스뜨로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꾸바공산당과 꾸바혁명정부의 두리에 굳게 뭉쳐 반제반미투쟁의 기치,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휘날리면서 힘차게 나아가는 영웅적꾸바인민의 앞길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으며 꾸바인민에게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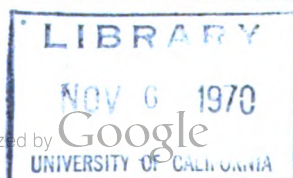
근로자 제7호 (루계 340호)
편집위원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 소 • 평양시 중구역 남문동
인쇄소 • 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 • 1970년 6월 25일 발 행 • 1970년 7월 1일
ㄱ-03291 값 50전

전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8 호

평 양 근로자사 | 1970

근로자

전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제 8 호(341)

차 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은 우리 혁명 승리의 튼튼한 담보

오늘 우리 나라 혁명과 건설의 실천은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전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전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투쟁과정에서 우리 나라 전체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적풍모는 더욱 급속히 개변되고있으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친 전당과 전체 인민의 통일단결은 더욱더 공고화되고있다. 이것은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와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한 우리 인민의 전진운동을 세차게 떠밀어주는 중요한 원동력으로 되고있으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사회를 혁명적정열과 전투적기백이 넘치는 붉은 대가정으로 더욱 공고히 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되고있다.

생활은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전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방침을 더욱 철저히 관철할 때 우리의 전진속도는 비상히 빨라지고 우리 혁명과 건설에서 더욱 위대한 성과가 이룩된다는것을 힘있게 증명하여주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확고한 주체사상과 심오한 혁명리론으로부터 출발하시여 독창적으로 새롭게 천명하신 전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방침은 사회주의제도가 선다음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중요임무를 과학적으로 밝힌것으로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수행의 전과정에서 로동계급과 그 당이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다.

우리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우리의 혁명기지를 한층 더 튼튼히 꾸리고 조국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최대한으로 앞당기기 위하여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전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방침을 견결히 옹호하고 철저히 관철해나가야 한다.

1

전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촉진하는것은 오늘 우리 당앞에 나선 모든 혁명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튼튼한 담보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천재적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정을 계급관계의 견지에서 심오히 분석하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이란 로동자, 농민, 인테리 등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다 혁명화하는 과정이며 전사회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여 온갖 계급적차이를 없애는 과정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47페지)

전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한다는것은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이 모든 근로자들을 자기 모양대로 개조하고 열렬한 혁명가로 키운다는것을 의미한다. 로동계급은 사상과 도덕, 경제와 문화의 모든 분야에 걸쳐 온 사회를 자기 모양대로 개조하고 모든 근로자들을 열렬한 혁명가로 키워야만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가는 길에서 반드시 점령하여야 할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고 공산주의사회를 완전히 실현할수 있다.

따라서 전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과정이며 그 본질적요구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우리 당앞에 나선 당면한 혁명임무는 특히 전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더욱 힘있게 밀고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오늘 우리 당앞에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는 동시에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침략자들을 우리 강토에서 내쫓고 남조선을 해방하며 조국통일의 혁명위업을 완수하여야 할 두가지 혁명임무가 중요하게 나서고 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우리앞에 나선 이러한 중대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워야 하며 우리의 혁명력량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의 두가지 혁명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근로자들을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열렬한 혁명가로 키워야 한다. 모든 근로자들을 오직 우리 당의 유일사상,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고 그들을 수령께 무한히 충실한 혁명전사로 키워야만 우리의 혁명력량을 더욱 강화하고 사회주의건설의 임무도, 조국통일위업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투쟁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남아있는 착취사회의 유물을 철저히 극복하기 위한 심각한 투쟁이며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양시켜 모든 인민들을 다같이 더욱 유족하고 행복하게 생활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벅찬 투쟁이다. 모든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사상,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켜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지 않고서는 이 어려운 혁명임무를 수행할수 없다.

그것은 우선 전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만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계속 남아있는 낡은 사상의 부식작용과 계급적차이를 없애고 무계급사회를 실현할수 있기때문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사람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 잔재와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는 오직 모든 근로자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을 철저히 로동계급화하여야만 없어지는것이다.

특히 사람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 잔재는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정력적이고도 인내성있는 투쟁을 통해서만 극복할수 있다. 만일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투쟁을 조금이라도 늦추거나 약화시킨다면 낡은 사상 잔재는 뿌리빠지지 않을뿐아니라 오히려 되살아날수 있다. 더우기 미제와 그 주구들은 우리 내부에 부르죠아반동사상을 퍼뜨리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있으며 또한 우리의 주위에는 기회주의적사상의 영향이 의연히 남아있다. 외부로부터 반동적이며 반혁명적인 사상독소가 끊임없이 침습하고있는 조건에서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리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나쁜 사상에 물젖어 변질될수도 있으며 혁명대렬에서 떨어져나갈수도 있다.

그러므로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투쟁은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극복하고 온갖 반동적인 사상독소의 부식작용을 철저히 없애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모든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은 또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다른 모든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도 절실히 필요하다. 적대분자들의 준동을 진압하는 계급투쟁도, 사회주의농촌문제를 해결하는 과업도,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과업도 모든 사회성원들의 높은 혁명적열의에 의거하여서만, 그들의 단결된 힘에 의하여서만 성과있게 수행될수 있다. 혁명화, 로동계급화는 바로 사회성원들의 정치적열성과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키며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당과 인민의 통일단결을 더욱 튼튼히 다지게 함으로써 이 모든 과업들의 실현을 비

상히 촉진시킨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은 우리 혁명의 최대의 민족적과업인 조국통일위업을 하루빨리 성취하기 위한 절박한 요구이다.

분렬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서는 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는 한편 남반부에서 민족해방혁명을 강력히 추진시켜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첫째가는 적인 미제침략자들은 세계제국주의의 원흉이며 침략과 전쟁의 주되는 세력이다. 놈들은 공화국북반부와 아세아에 대한 침략야욕으로 하여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적지배를 유지하려고 발광하고있으며 새 전쟁 도발을 위해 미쳐날뛰고있다. 또한 미제의 사촉밑에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책동이 날로 로골화되고있으며 남조선에는 착취계급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다.

따라서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매우 간고하고도 어려운 투쟁이다. 이것은 우리 근로자들로 하여금 그 어느때보다도 더 긴장하게 일하고 생활할것을 요구하며 미제침략자들을 때려눕힐 혁명적각오를 굳게 다질것을 요구한다.

우리의 모든 근로자들이 남조선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조국통일의 혁명위업을 앞당기려는 숭고한 정신을 발휘하도록 하며 당과 수령께서 부를 때에는 언제나 혁명투쟁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하자면 그들을 철저히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 한다.

모든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그들을 열렬한 혁명가로 키워야만,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통일단결을 더욱 강화하여야만 북반부 혁명기지를 더욱 철옹성같이 다지고 미제와 일본군국주의, 그 충실한 개 박정희도당을 반대하는 투쟁을 승리적으로 진행하고 조국통일의 임무를 빛나게 실현할수 있는것이다.

우리는 혁명임무의 요구에 맞게 모든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위한 투쟁은 사회의 모든 계급, 계층들에게 다 제기되는 과업이며 근로자들과 당원들, 지도일군들 그 누구를 막론하고 다 수행하여야 할 혁명과업이다.

김일성동지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오늘 우리 사회에서 낡은 사상 잔재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에게나 다 있으며 누구나가 다 일생을 두고 자신의 사상을 단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특히 간부들, 지도일군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촉진하는것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간부가 모든것을 결정합니다. 간부가 다 건전하고 사상수준이 높고 다 한결같이 당정책을 받들고 당성이 강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의 사회주의혁명도, 사회주의건설도, 조국의 평화적통일도 다 문제없이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습니다.》(《김일성선집》, 제5권, 401페지)

간부들은 우리 당의 골간이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지휘성원들이다. 혁명력량을 꾸리는데 있어서나 혁명과 건설을 적극 추진시키는데 있어서 간부들이 노는 역할은 실로 크다.

따라서 간부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은 전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우리의 혁명과 건설을 더욱 성과적으로 전진시키는데서 가장 선차적인 문제로 된다. 간부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만 대중을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고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는 사업도, 그들을 혁명과 건설에 적극 일떠세우는 사업도 잘 해나갈수 있다.

우리의 모든 지도일군들, 간부들은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위한 투쟁의 앞장에 서야 하며 자신을 철저히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수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는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2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그들속에서 사상혁명을 전면적으로 벌려야 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위한 사상혁명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명백히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 이것은 근로자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위한 사상혁명의 주되는 내용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사상혁명을 진행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근로자들을 조선로동당의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49페지)

모든 근로자들을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고 전당과 전사회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우는것은 그들을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열렬한 혁명가, 조선의 공산주의자로 만들기 위한 근본요구이다.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한다는것은 결국 그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이 튼튼히 선 열렬한 혁명가로 만든다는것을 의미한다.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이 확고히 선 사람만이 사상생활과 실천투쟁에서 참다운 로동계급의 면모를 갖출수 있으며 열렬한 혁명가로 될수 있다.

우리 시대에 있어서 사회와 자연을 인식하고 변혁하는 로동계급의 계급적관점과 립장, 태도와 방법을 가장 심오하게 구현하고있는 사상은 천재적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이다.

주체사상으로 일관된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로동계급의 사상을 전면적으로, 가장 철저히 그리고 가장 심오히 담고있는 위대한 사상이다.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과 혁명리론, 불요불굴의 투쟁정신,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 고매한 덕성은 모든 공산주의자들, 혁명가들이 반드시 지녀야 할 사상정신적풍모의 숭고한 전형이며 그들이 따라배워야 할 최고의 귀감이다.

그러므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빛나는 혁명력사를 깊이 학습하여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풍모를 따라배우는것은 모든 사람들이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자신을 혁명화하는데서 근본문제로 된다.

또한 공산주의자, 혁명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로동계급의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이다. 그것은 수령을 견결히 보위하며 수령을 유일중심으로 굳게 뭉치며 수령이 제시한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하는것이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의 근본리익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요구이며 혁명승리의 결정적담보로 되기때문이다.

우리의 모든 근로자들은 오직 하나의 혁명사상, 조선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이의 주위에 굳게 뭉쳐 그이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그이께서 제시하시는 모든 로선과 정책을 심장으로 받들고 끝까지 관철하여야만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이것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벌려온 지난 40여년간의 혁명투쟁경험의 총화에서 나온 결론이며 절대적인 진리이다.

그러므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해서는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사람들의 머리속에서 온갖 낡은 사상 잔재를 뿌리빼는것을 사상혁명의 중요내용으로 규정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사람들을 혁명화한다는것은 사람들의 머리속에서 리기주의, 개인주의를 비롯한 부르죠아사상을 빼고 개인의 리익보다도 집단과 전체의 리익을 중요하게 여기는 공산주의사상의식을 높인다는것을 말합니다.》 (우와 같은 책, 416페지)

낡은 사상 잔재를 뿌리빼지 않고서는 사람들을 혁명가로 만들수 없다. 개인주의, 리기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 잔재는 사회주의하에서도 집요하게 남아있으면서 사람들이 새로운 사상으로 무장하는것을 방해하며 여러가지 해독적인 부식작용을 일으킨다. 사람들이 낡은 사상 잔재를 철저히 뿌리빼지 못하면 혁명에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 높은 공산주의사상의식을 가질수 없다. 자기 개인의 리익보다 조직과 집단의 리익을 더 무겁게 여기며 육체적생명보다 정치적생명을 더 귀중히 여기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가의 중요한 특징이다.

따라서 사람들을 혁명화하기 위한 사상혁명에서는 그들의 머리속에 있는 부르죠아사상, 봉건유교사상 등 온갖 낡은 사상 잔재를 뿌리빼고 그들을 공산주의사상의식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이 중요하게 나선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으로 사람들을 사회주의제도를 옹호하는 정신으로 무장시키는것을 사상혁명의 중요내용으로 규정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우리는 근로자들에게 사회주의제도의 본질과 우월성을 똑똑히 인식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이 제도를 지키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조국의 륭성발전과 우리 인민의 번영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와 같은 책, 550페지)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감정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공산주의자들에게 고유한것이다. 공산주의자, 혁명가들은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열렬한 지향을 품고 자본의 철쇄를 끊는 혁명투쟁에 목숨도 서슴없이 바친다. 또한 그들은 사회주의제도를 세운 다음에는 프로레따리아독재를 백방으로 강화하여 온갖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그것을 견결히 보위하고 사회주의국가의 법질서를 자각적으로 지키며 조국의 륭성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자기의 고귀한 로력과 정열을 다바친다.

따라서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사상혁명에서는 그들을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데 중요한 주목을 돌려야 한다.

우리는 당정책교양, 혁명전통교양,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과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끊임없이 강화하여 전당과 전사회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고 모든 사람들을 로동계급의 확고한 계급의식과 민족자주의식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고 당과 수령의 명령지시를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며 어떤 역경속에서도 수령을 목숨으로 사수하며 수령의 주위에 굳게 뭉쳐 나아가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당의 유일사상, 수령의 혁명사상과 배치되는 온갖 반동적이며 반혁명적인 사상, 부르죠아사상, 봉건주의사상, 사대주의, 기회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 등의 사소한 표현도 허용하지 않는 철저한 혁명적원칙성을 소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미제국주의와 일본군국주의, 그 2중적주구인 박정희괴뢰도당과 세계반동들의 계급적본질과 흉악한 면모를 똑똑히 알고 무한히 증오하며 그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우리의 혁명적전취물인 프로레따리아독재와 사회주의제도 그리고 모든 국가사회재산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기 위하여 몸바쳐싸우도록 하여야 한다. 동시에 그들속에서 공산주의적도덕교양을 벌려 모든 사람들이 사회의 공중도덕을 자각적으로 지키며 온 사회에 건전하고 혁명적이며 례절이 밝은 기풍이 더욱 차고넘치게 하여야 한다.

특히 우리는 간부들속에서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려 그들의 당성, 로동계

급성, 인민성을 높이고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확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의 간부들, 지도일군들은 그 어떤 벼슬을 하고있는것이 아니라 당과 수령께서 맡겨주신 혁명초소를 담당하고있는 수령의 전사이다. 또한 그들은 인민의 머리우에 타고앉은 특수한 존재가 아니라 로동계급과 인민에게 복무하는 심부름군이다.

간부들, 지도일군들은 마땅히 자기가 당과 수령의 전사, 로동계급과 인민의 충복이라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자기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여야 하며 당과 수령의 신임과 기대에 보답하기 위하여, 인민들에게 더 큰 행복을 마련하여주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바치는 견결한 혁명적기풍과 인민에 의거하고 인민에게 복무하는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확고히 소유하여야 할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는 사상혁명을 전면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3

사상혁명을 벌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해서는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사상혁명의 방도를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사람들의 사상개조와 혁명적단련은 빈말로써나 구호만으로 해결할수 없다. 낡은 사상을 뿌리빼고 새로운 사상,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는 사업은 사람들의 의식령역에서의 심각한 변화를 일으키는 사업인것만큼 그에 상응한 실속있는 투쟁이 있어야 한다. 특히 최근년간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위한 투쟁에서 달성된 성과에 기초하여 이 사업을 더욱 심화시키자면 사상혁명을 더욱 깊이있게 벌리는것이 절실한 문제로 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더욱 강력히 추진하기 위하여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결합시키며 사상사업과 혁명실천을 밀접히 결부시키는 우리 당의 일관한 원칙을 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람들을 혁명화한다는것은 곧 사상교양을 하며 사상투쟁을 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자들을 새로운 사상으로 개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결합시켜야 한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을 혁명적세계관으로 무장시키는 과정이 그들의 머리속에 있는 낡은 사상 잔재를 뿌리빼는 과정으로 되는 동시에 그들에게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을 넣어주는 과정으로 되기때문이다. 사람들에게 새로운 사상을 넣어주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리지 않고서는 그들의 머리속에서 낡은 사상 잔재를 극복할수 없으며 또한 낡은 사상 잔재를 뿌리빼기 위한 사상투쟁을 강력히 전개하지 않고서는 그들을 선진사상으로 무장시킬수 없다.

우리는 무엇보다먼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꾸준히 벌려 그들에게 혁명의 량식을 깊이있게 넣어주어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고 수령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에 대한 학습을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실속있게 진행하여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의 심오한 내용과 그 정당성, 수령의 빛나는 혁명력사와 령도의 현명성을 깊이 파악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각계층 근로자들의 특성과 수준에 맞게 제목을 읽고 발표하게 하는 방법, 연구, 노래와 같은 예술작품을 리용하는 방법, 이야기모임을 가지는 방법 등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그들에게 우리 당의 혁명사상을 끊임없이 넣어주어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에서 특히 중요한것은 형식주의를 철저히 없애고 이 사업을 더욱 심화시키는것이다. 우리는 모든 사상교양사업을 목적지향성있게 짜고들어 진행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깨닫고 당과 수령께서 가르치시는대로 자각적으로 움직이게 하여야 한다.

동시에 우리는 낡은 사상 잔재를 반대하는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혁명은 투쟁으로 시작되고 투쟁으로 끝납니다. 투쟁이 없는 혁명이란 도대체 있을수 없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486페지)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는 사업은 의식영역에서의 심각한 혁명이다. 낡은 사상은 투쟁을 통해서만 극복될수 있으며 새 사상도 투쟁을 통해서만 승리할수 있다. 력사적으로 공산주의사상은 자본주의사상, 봉건주의사상과의 투쟁속에서 승리하여 점차 인류의 지배적인 사상으로 되여왔다. 사람들의 머리속에서도 새로운 사상은 낡은 사상과의 투쟁속에서만 확고한 지배적자리를 차지할수 있다.

투쟁은 혁명가의 본분이다. 로동계급의 혁명가들은 일생을 투쟁으로 빛내인다. 투쟁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혁명가로 될수 없다. 우리는 우선 자기 머리속의 낡은 사상 잔재를 뿌리빼기 위하여 투쟁하며 주위의 여러 사람들에게 있는 낡은 사상 잔재와 타협없이 투쟁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들은 누구나 조직규률을 지키고 집단주의정신을 배양하며 자기비판도 하고 호상비판도 하며 직접 비판을 받기도 하고 남이 비판받는것을 곁에서 듣고 뉘우치기도 하는 과정을 통하여 부단히 사상이 단련되여나가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직생활을 강화하는것은 사람들을 혁명화하는데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혁명적조직생활은 사상단련의 용광로이며 비판은 사상투쟁의 위력한 무기이다. 혁명적조직생활을 떠나서는 혁명가로 단련될수 없고 사상투쟁을 벌릴수 없다. 누구나가 당 및 근로단체 조직생활에 자각적으로, 의식적으로 참가하여 조직생활규범을 엄격히 지키며 사소한 2중규률도 허용하지 말고 자신의 사상을 단련해나가야 한다.

조직생활은 투쟁이 없이 안온하게 진행되여서는 안된다. 강한 비판과 자기비판의 분위기속에서, 사상투쟁의 분위기속에서 조직생활을 진행하여야 한다.

비판을 통하여 사상투쟁을 벌리며 이 투쟁속에서 사람을 개조하는것, 이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이다. 모든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비판하고 자기비판하는것을 습관화하며 비판을 통하여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리며 여기에서 자신을 개조하고 동지들을 개조하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비판은 어디까지나 동지를 건져주고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것으로 되여야 하며 책임을 서로 전가시키거나 함부로 《감투》를 씌우는식으로 되여서는 안된다. 집단내에서 동지적이고도 진지한, 그리고 혁명적이고도 허심한 비판과 자기비판의 분위기가 설 때 사상투쟁은 진실로 실속있게, 깊이있게 진행될것이며 모든 사람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는 더욱 빨리 촉진될것이다.

우리는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하고 사상투쟁을 깊이있게 벌려 수령의 혁명사상, 우리 당의 유일사상과 배치되는 온갖 기회주의, 사대주의, 부르죠아사상, 봉건유교사상, 종파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 개인리기주의 등 일체 불건전하고 반혁명적인 사상의 사소한 표현도 철저히 극복해야 한다. 또한 당정책을 형식적으로 대하거나 그 집행을 태공하는 현상, 성실하게 일하지 않고 건달을 부리는 현상, 국가사회재산을 아끼지 않고 한푼이라도 침해하는 현상, 조직생활을 싫어하거나 사회주의적공중도덕을 지키지 않는 현상 등도 철저히 없애야 한다. 특히 일군들속에서 사상투쟁을 강화하여 공부하기 싫어하고 인민생활에 무관심한 현상, 겸손치 못하고

소박하지 못하며 틀을 차리기 좋아하고 아래사람들을 혁명동지로 대하지 않는 현상, 모든 사업과 생활에서 이신작칙하는것이 아니라 특수한 대우를 요구하며 밑으로부터의 비판을 누르는 현상 등 관료주의적사업작풍과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이 없는 모든 요소를 깨끗이 닦아내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의 사상교양사업과 사상투쟁은 또한 혁명적실천과 밀접히 결부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람들의 사상개조에서 혁명적실천이 가지는 의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혁명화가 무엇인지 말로 안다고 하여 혁명화되는것은 결코 아닙니다. 혁명화문제는 오직 혁명적실천과정에서만 해결되는것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421～422페지)

혁명적실천은 사람들의 사상을 검열하는 척도이며 사상단련의 학교이다. 사람들이 어느정도 혁명화되였는가 하는것은 그들의 말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치적조직생활에서, 당정책관철행정에서, 행동에서 나타나며 그들의 의지도 혁명적실천과정에서 더욱 단련된다. 오늘 강선의 로동계급을 비롯한 우리의 선진적로동계급이 새로운 천리마진군과정에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더 높이고 온갖 낡은 사상 잔재를 극복하면서 더욱더 혁명화되고있는 것은 혁명적실천의 거대한 교양적의의를 말하여준다. 또한 사람들의 사상개조사업의 궁극적목적도 혁명과 건설을 더 빨리 다그치자는데 있다.

우리는 당정책관철의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된 훌륭한 공산주의교양운동인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세차게 벌려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지도일군들은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위한 투쟁을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촉진하며 사업방법과 작풍을 개선하며 문화와 도덕의 모든 분야에서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투쟁과 결부시켜 진행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혁명화, 로동계급화의 성과가 빈말로써가 아니라 당정책관철의 물질적성과로 나타나게 하며 사상투쟁행정에서 모든 사업이 더 잘되여나가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지도일군들, 인테리들이 혁명적실천속에서 자신을 단련하는데 있어서 중요한것은 로동계급속에 깊이 들어가는것이다. 오랜기간의 로동속에서 단련된,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로동계급과 호흡을 같이 하고 그들의 사상성과 조직성, 언행과 작풍을 배울 때 일군들과 인테리들의 사상단련은 더빨리 촉진될수 있다. 그러므로 일군들과 인테리들은 조직생활을 강화하는 한편 일상적으로 로동계급속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혁명성과 조직성을 배워 사상단련을 끊임없이 심화시켜야 한다.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는 말단단위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당세포가 혁명화되고 근로단체의 초급단체가 혁명화되고 공장의 작업반, 농장의 분조가 혁명화되고 가정이 혁명화될 때 온 사회가 혁명화되고 전체 근로자들이 혁명화된다. 그러므로 세포와 초급단체, 작업반과 분조, 가정의 혁명화를 힘있게 촉진하여 혁명화의 모범을 창조하며 그것을 적극 일반화함으로써 모든 단위, 전사회의 혁명화를 이룩해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부문, 모든 근로자들속에서 혁명적으로 학습하고 혁명적으로 일하고 혁명적으로 살며 혁명적으로 투쟁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위한 사업은 한두번의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으로 끝낼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교양과 투쟁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꾸준하고 장기적인 실천과정을 통하여서만 해결할수 있다.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신을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로,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이 확고히 선 열렬한 혁명가로 단련하기 위하여 꾸준히, 참을성있게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의 혁명대오를 더욱 튼튼히 하고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와 혁명의 전국적승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승리를 힘있게 앞당겨나가야 한다.

혁명적대고조와 로동계급의 혁명화

최 진 성

오늘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들은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 보다큰 로력적선물을 드리기 위하여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높이고있다.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지도와 육친적인 배려에 의하여 올해 년초부터 새로운 천리마속도 《강선속도》를 창조하는 영광을 지닌 우리 강선의 로동계급은 지금 전국이 혁명적정열과 전투적기백으로 들끓고있는 벅찬 환경속에서 어머니당대회전으로 7개년계획의 강철고지를 기어이 점령하기 위한 돌격전을 힘차게 벌리고있다.

날에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혁신이 일어나고있는 이 장엄한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속에서 우리 강선의 로동계급은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로, 혁명적세계관이 확고히 선 열렬한 혁명가로 더욱 튼튼히 단련되고있으며 자신의 혁명화과정을 더빨리 추진시키고있다.

실로 우리 강선제강소에서의 혁명적대고조과정은 생산에서 야금공업의 력사에 일찌기 없었던 높은 속도를 창조하고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는 혁신의 과정인 동시에 로동계급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 커다란 전변을 일으키게 하는 혁명화의 과정이다.

우리 강선제강소당위원회는 이 과정을 통하여 《혁명화가 무엇인지 말로 안다고하여 혁명화되는것은 결코 아닙니다. 혁명화문제는 오직 혁명적실천과정에서만 해결되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421~422페지)라고 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의 정당성과 현명성을 더욱 똑똑히 체득하게 되였다.

* *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로동계급의 사상성과 조직성과 문화성을 더욱 높이며 그 대렬을 더욱 튼튼히 꾸려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로동계급을 참말로 혁명적이고 문화적인 계급으로 만들어야 하며 그들이 령도계급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더 잘 수행하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370페지)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우리 로동계급이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더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더욱더 혁명화해야 한다는것을 가르쳐주고있다.

혁명적대고조과정은 우리 로동계급의 사상성과 조직성을 더욱 높이고 그들을 참말로 혁명적인 계급으로 단련하는 훌륭한 학교로 되고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 과정에서 우리 로동계급이 수령의 참된 친위대, 결사대로 더욱 튼튼히 준비되고있기때문이다.

혁명적대고조속에서 우리 로동계급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이의 령도의 현명성, 높은 덕성을 더욱 깊이 체득하고 수령께서 제시하신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고야마는 혁명적기풍을 더욱 높이 발양하고있다.

강선의 로동계급속에서 일어나고있는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는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의 빛나는 구현이며 그이의 현명한 령도와 높은 덕성의 고귀한 열매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발전의 중요한 문제들을 제기하실때마다 먼저 우리 강선의 로동계급을 찾으시고 새 로선과 정책의 본질을 알려주시고 그를 관철하는 투쟁에서 강선의 로동계급이 앞장서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5성상의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을 통하여

일제를 무찌르고 조국에 개선하신후 지척에 둔 만경대고향집에도 들리시기전에 먼저 우리 로동계급을 찾으시여 나라일을 의논하시였으며 또한 전후 포연이 채 가시기도전에 강선에 오시여 전후복구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혁명이 안으로 밖으로 모진 시련을 겪고있던 1956년에도 강선로동계급을 찾으시여 만톤의 강재를 더 뽑으면 나라가 허리를 펼수 있다고 하시면서 전국의 앞장에 서서 달릴것을 교시하시였다.

7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우리 당 제5차대회전으로 완수해야 할 최후돌격전을 앞둔 지난해 11월에 또다시 수령께서는 강선의 로동계급을 찾으시여 새로운 대고조를 일으킬데 대한 간곡한 교시를 주시였다.

참으로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그마한 제강소로부터 현대적대야금기지로, 이름없는 고장으로부터 천리마의 고향으로, 우리 공장이 걸어온 자랑찬 력사는 우리 강철전사들에 대한 어버이수령의 육친적인 지도와 끊임없는 배려의 영광스러운 력사이다.

수령의 세심한 지도와 따뜻한 배려는 우리 로동계급을 수령에 대한 충성의 일념으로 불타게 하였으며 수령의 가르치심을 구현하기 위한 거세찬 투쟁에로 일떠서게 하였다.

우리 로동계급은 5개년계획의 첫시기에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비약을 이룩하는 천리마운동의 첫봉화를 올리고 계속 혁신, 계속 전진의 한길을 따라 힘차게 달려올수 있었으며 7개년계획의 높은 령마루를 향한 최후돌격전에서 또다시 세인을 경탄케 하는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올릴수 있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와 천리마운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이 기세는 그 무엇으로도 꺾을수 없는 위대한 힘으로 되고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인민이 우리 당 주위에 한몸같이 뭉쳐 당의 호소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어떠한 난관이라도 헤치고 나아간다는것을 보여주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247페지)

혁명적대고조는 그자체가 당과 수령에 대한 우리 로동계급의 불같은 충성심의 발현으로 된다.

그것은 수령께서 제시하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견결히 옹호관철하며 수령의 명령지시라면 한목숨을 바쳐서라도 수행해내고야말려는 우리 로동자들의 혁명적열의를 그대로 보여주는것이다. 동시에 수령의 간곡한 교시를 관철해나가는 실천행정에서 우리 로동계급은 수령께서 제시하신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 현명성을 더욱 깊이 인식하게 되였으며 오직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그이의 가르치심따라 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심을 더욱 굳게 간직하게 되였다.

수령의 령도의 현명성,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실천과정에서 더 깊이 느끼게 된 근로자들은 무엇보다도 수령의 교시를 뼈와 살로 만들 때만이 자기들이 나아갈 유일하게 옳은 길을 찾을수 있다는 일념으로 김일성동지혁명력사학습, 당정책학습을 더 자각적으로 의식적으로 실속있게 해나가고있다.

1인발직장의 당원들을 비롯한 우리 강선의 로동계급은 누구나 다 조직별로 진행되는 학습에 빠짐없이 참가하여 수령께서 우리 강선제강소에 직접 주신 100여차의 교시들을 깊이 학습하고있다. 특히 그들은 수령의 교시를 자기 직장과 작업반,나아가서는 자체 사업과 밀접히 결부하여 학습함으로써 수령의 교시의 진수와 전반사상을 더욱 깊이 파악할뿐아니라 자기가 해야 할 정치적 임무와 기술적임무를 똑똑히 알고 그 관철에로 달라붙고있다.

또한 우리 로동자들속에서는 수령의 교시라면 조건이나 기준량, 공칭능력에 구애됨이 없이 무조건 집행할수 있다는 신심도 드높이 그것을 어떤 난관과 애로도 뚫고들어가 끝까지 관철하

러는 혁명적기풍이 날로 높아가고있다.

강철직장의 로동자들은 수령의 교시를 기어이 완수하겠다는 불같은 충성심을 안고 올해강철생산량을 지난해실적의 2배로 올리며 제강시간을 3시간이상 줄일 혁신적인 결의를 다지였으며 매개인이 붉은 수첩을 가슴에 품고다니면서 거기에 매일매일 수령의 교시관철을 위한 행군로정을 기록해나가고있다. 그들은 강철재료장으로 통하는 랭각수관이 터져 8개의 로가 위험에 처하였을 때에도 자기의 몸으로 물구멍을 막아 8개의 로를 위험속에서 구원하고 자기들의 결의를 훌륭히 수행하였다.

이와 함께 분괴압연직장의 로동자들을 비롯한 모든 근로자들은 자기의 모든 생활과 사업을 오직 수령의 교시를 자로 삼아 진행하며 생산실천뿐아니라 자기의 사생활까지도 수령의 교시를 관철하는 과정으로 완전히 전환시키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제강소당위원회는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며 그를 관철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선진적모범과 경험을 더욱 조장하고 전 공장적으로 일반화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수령에 대한 근로자들의 충성의 열정이 끊임없이 높아지도록 하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생산에서와 로동자들의 사상생활에서 더욱 큰 전변이 일어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있다.

이와 같이 혁명적대고조의 실천행정은 우리 로동계급을 수령의 혁명사상을 견결히 옹호관철하며 살아도 수령을 위해 살고 죽어도 수령을 위해 한목숨을 기꺼이 바치는 수령의 참된 친위대, 결사대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키고있다.

혁명적대고조과정이 로동계급의 혁명화를 위한 훌륭한 학교로 되는것은 또한 이 장엄한 투쟁속에서 로동계급의 집단주의적 혁명정신과 생활기풍이 더욱 빨리 자라나고있다는데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들을 혁명화한다는것은 사람들의 머리속에서 리기주의, 개인주의를 비롯한 부르죠아사상을 빼고 개인의 리익보다도 집단과 전체의 리익을 중요하게 여기는 공산주의사상의식을 높인다는것을 말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416페지)

로동계급은 그 어느 계급계층보다 단결력과 조직력이 강한 선진계급이다. 그러나 로동계급속에도 개인주의, 리기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잔재가 남아있다. 따라서 그들의 집단주의정신을 계속 높이는것은 로동계급의 사상성, 조직성을 높이여 그들을 혁명화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혁명적대고조는 바로 실천을 통하여 로동계급에게 집단주의의 힘을 더욱 뚜똑히 보여주며 그들을 집단에 더 튼튼히 묶어세우고 집단적투쟁과 건전한 속에서 그들의 동지적단결과 협조를 더욱 높이 강화하게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사람들을 공산주의사상으로 교양하며 집단적영웅주의와 집단적혁신에로 불러일으키는 공산주의적인 대중적대진군운동입니다.》(《직업동맹사업에 대하여》, 439페지)

새로운 천리마진군, 혁명적대고조도 우리 로동계급의 집단적영웅주의의 발현이다.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속에서 이룩된 기적과 혁신은 그 어느것이나 할것없이 모두 어느 한사람의 노력과 투쟁에 의하여 이루어진것이 아니라 작업반, 직장, 전 공장이 집단적으로 지혜를 짜내고 힘을 모아 창조한것이다.

우리 제강소에서는 대고조과정에서 바로 일부 남아있던 개인주의, 리기주의의 요소들이 성과적으로 극복되고 집단내에 매개 로동자들 호상간에 서로 돕고 이끌며 단결하여 집단앞에 제기된 과제를 훌륭히 수행해내는 기풍이 높이 발휘되고있다.

강철생산의 앙양에 따라 원료직장에서 일시 긴장성이 조성되였을 때도 어렵고 힘든 산소절단작업을 맡아나선 녀성들, 그들을 고무해주기 위해 나왔던

공장 기동예술선동대원들, 그리고 보조부문 로동자들까지 힘을 합쳐 걸린 고리를 제때에 풀었다. 뿐만아니라 지도일군들, 기술자들이 생산현장에 내려가 로동자들과 침식을 같이하면서 그들을 돕고 이끌며 그들에게서 배우는 상하합심의 기풍이 널리 일반화되고있다.

단접강관직장에서 가열로를 대보수할 때에 있은 일이다. 있는 설비로 지난해 실적보다 근 2.8배나 높은 계획을 하자면 가열로를 멈추고 짧은 기간내에 대보수를 하며 여기에 맞게 일부 설비들도 더 보충완비하여야 하였다. 이때 현장에 내려간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로동자들속에 이 사업의 중요성을 철저히 인식시키면서 자신들이 먼저 아직 채 식지 않은 로속으로 뛰여들어갔으며 로동자들과 설비를 보충완비하기 위한 협의도 하면서 이 작업을 전투적으로 해제꼈다. 이리하여 한달이상 걸려야 할 작업을 단 1주일동안에 해치우는 혁신을 일으켰다.

지금 우리 제강소에서는 서로 련결된 고리들간에 련대적혁신의 불길은 날로 높아가고있다. 이리하여 온 공장내에 작업반이 작업반을 돕고 로가 로를 도와주고 교대가 교대를 도와주며 용해공이 재료공을, 조괴공이 용해공을 도와주면서 서로 앞을 다투어 다같이 빨리 전진하는 공산주의기풍이 차고 넘치게 되였다.

전기기계수리직장 보수작업반의 많은 당원들과 로동자들은 지난 기간 자기들이 강철종합직장 원료처리장에서 걸리고있던 전자철도입문제를 놓고 강건너 불보듯 대하였던 그 관점이 바로 개인리기주의사상에서 나온것이라고 찾게 되였다. 사실 파철을 비롯한 원료운반을 기계화할수 있게 전자철을 도입하는것이 강철증산의 중요한 예비라고 말하면서도 서로 다른 작업반, 다른 직장에 밀어왔던것이다. 그런것을 보수작업반원들은 진정으로 자신이 책임지는 립장에 섰다. 그들은 전자철도입문제는 우리당 제5차대회진으로 7개년계획의 강철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꼭 풀어야 할 문제인데 당과 혁명의 리익을 위해 작업반과 직장의 울타리를 벗어나 네일내일 가리지 말고 혁명적으로 달라붙어 해제껴야 한다고 결의해나섰다. 보수작업반당원들은 여러번의 실패를 무릅쓰고 끝내 어려운 기술문제를 풀어내여 15개의 훌륭한 전자철을 만들어내고야말았다. 결과에 수백명의 원료운반로력이 줄어들고 원료운반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보장되여 시간당 출강량을 높이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혁명적대고조과정에서 이와 같이 로동계급의 사상성, 조직성이 더 빨리 강화되게 되는것은 바로 대고조과정자체가 온갖 낡고 침체한것을 쓸어버리는 사상수양과정으로 된다는 사실과 관련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천리마운동의 특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생산과 기술분야에서 보수주의와 신비주의, 온갖 소극적이고 침체한것을 대담하게 짓부시고 계속 혁신을 일으키는 운동이며 사상과 도덕 분야에서 낡은 사회로부터 물려받은 온갖 부패하고 뒤떨어진것을 결정적으로 쓸어버리고 새로운 공산주의적 사상과 도덕의 승리를 보장하는 력사적운동입니다.**》 (우와 같은 책, 114~115 폐지)

수령께서 제시하신 당의 새로운 로선을 받들고 우리 로동계급이 창조하고 심화시켜온 천리마운동의 전행정이 그러한바와 같이 오늘 로동계급속에서 세차게 전개되고있는 새로운 천리마진군, 혁명적대고조도 온갖 낡고 보수적인것들을 극복하고 새것이 승리하는 과정이다.

강선의 로동계급은 수령의 혁명사상과 배치되는 온갖 낡은 사상잔재들, 리기주의, 사대주의, 부르죠아사상, 봉건유교사상과 소극성, 보수주의, 기술신비주의, 안일성과 해이성 등을 반대하는 투쟁속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일으켰으며 계속 견지하고있다.

올해초에 새로운 천리마속도, 강선속도를 창조할 때부터 우리 로동계급속에

서는 수령의 교시를 관철하는데서 장애로 되는 개인리기주의와 그 변종인 본위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잔재를 반대하는 사상투쟁이 힘있게 진행되였다.

특히 이것은 지도일군들,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 및 근로단체 조직생활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더욱 활발히 벌어졌다.

당위원회는 지도일군들로부터 조직생활을 강화하고 본위주의, 관료주의, 형식주의, 보수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잔재를 극복하는 사상투쟁에 앞장서도록 하였으며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도 개인리기주의, 안일성, 해이성 등을 반대하는 투쟁을 적극 심화시켜나갔다.

지금 우리 제강소로동계급속에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과 배치되는 사소한 현상도, 당의 로선과 정책의 관철을 방해하는 부르죠아사상, 봉건유교사상잔재의 사소한 표현도 묵과하지 않고 동지적인 비판과 충고로써 극복하는 사상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이리하여 생산의 장성과 기술혁신에 지장을 주는 온갖 그릇된 사상잔재들이 짓부셔지고 지도일군들과 전체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정이 더욱 높아지게 되였다.

이와 같이 사상투쟁의 과정속에서 혁명적대고조는 더욱 앙양되였고 이 과정에서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더욱 튼튼히 확립되고 그들의 사상성, 조직성이 고도로 높아가고있다.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속에서 로동자들 자신이 혁명화될뿐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가족들까지 성과적으로 혁명화되고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대중을 혁명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이 먼저 혁명가가 되고 다음에는 가족과 마을사람들을 혁명화해야 합니다.…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가정을 혁명화하는것은 전사회의 혁명화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사회의 세포인 가정들을 모두 혁명화해야 전사회가 혁명화될수 있으며 자라나는 새세대들도 열렬한 혁명가로 키울수 있다. 혁명적대고조의 세찬 흐름은 제강소내 로동자들뿐아니라 그들의 가족들, 가정부인들과 학생, 로인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을 수령의 교시관철을 위한 벅찬 투쟁속에 끌어들이고 그들을 실천속에서 단련시키고있다.

이것은 제강소로동자들의 투쟁을 더욱 고무하기 위하여 진행한 일련의 조직정치사업과정을 통하여 더욱 촉진되고있다.

당위원회는 수령의 교시관철을 위한 혁명적대고조속에서 강철전사들이 이룩한 로력적성과를 각종 선전선동수단들을 발동하여 널리 소개선전하는 사업을 조직하고있다. 이것은 강철전사들로 하여금 수령의 교시관철에서 혁신적성과를 올린 보람과 긍지와 영예를 깊이 간직하도록 하고있을뿐아니라 강선의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을 수령의 교시관철을 위한 강철전사들의 투쟁에 집중하게 하고있다.

이리하여 우리는 모든 로동자들로 하여금 수령의 교시대로 강철고지점령에서 더욱 혁신을 올리도록 고무추동하고 있으며 또한 모든 가족들속에서 수령의 교시를 관철하는 사람보다 더 영예롭고 행복한 사람이 없다는 높은 자각을 갖도록 하고 그들을 강철전사들의 일손을 적극 도와나서게 하고있다.

강선의 가정부인들과 로인들, 학생들은 저마다 강철전사들의 작업장을 찾아와 기대도 닦아주고 작업조건을 보장해주면서 그들을 대고조에 앞장서도록 적극 고무해주고있다.

특히 자기 가족들이 속한 작업반이 수령의 교시관철을 위한 사회주의경쟁총화에서 다른 작업반보다 뒤떨어졌을 때에는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킬수 있도록 그들을 적극 방조하지 못한 자기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것을 느끼고 온 가족이 떨쳐나서서 그들의 일손을 적극 도와나서는 일이 더욱 많아지고있다.

이와 같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은 온 가족들을 수령의 교시관철을 위한 투쟁속에 뛰여들게 하고 진루현장에서 로동계급의 혁명정신과 집단주의사상을 더 잘 체득하게 하고있으며 온 강선땅을 혁명적기백과 열정으로 차넘치게 하고있다.

이 모든것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펴주신 혁명적대고조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높은 속도를 보장할수 있게 할뿐아니라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하며 그들의 혁명화과정을 촉진시키는 위대한 진진운동으로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 ⁂

온 나라가 불도가니마냥 들끓고있으며 전례없는 혁명적앙양이 일어나고있는 오늘의 벅찬 현실속에서 우리는 우리 로동계급의 힘을 굳게 믿어주시고 친히 그들을 혁명적대고조에로 이끌어주심으로써 경제과업과 그들의 혁명화를 동시에 풀어나갈수 있게 하여주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의 현명성을 더욱 뚜렷이 느끼게 되였다.

언제나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의 점령과 물질적요새의 점령을 위한 투쟁을 밀접히 결부시켜 통일적으로 이끌고나아가시는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번에도 우리 로동계급을 새로운 천리마진군,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에로 인도하여주심으로써 7개년계획의 높은 고지를 점령하는 긴장된 과업과 로동계급을 더욱더 혁명화하는 어려운 과업을 동시에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게 하여주시였다.

실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불러일으켜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오늘의 혁명적대고조는 로동자들과 일군들의 혁명화를 위한 더없이 좋은 실천마당이며 사람들의 머리속에서 개인주의, 리기주의, 본위주의, 소극성과 보수주의 등 일체 낡은 사상잔재를 완전히 뿌리빼고 우리의 로동계급의 대렬을 당의 유일사상체계로 꽉 들어차게 하며 모든 사람들을 혁명적세계관으로 철저히 개조하는 혁명적단련의 학교로 된다.

당위원회는 앞으로도 계속 수령의 교시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줄기차게 조직동원하여 전국의 앞장에 서서 혁명적대고조의 세찬 불길을 더 거세차게 일으킴으로써 강철고지를 더욱 훌륭히 점령할뿐아니라 그들을 철저히 혁명화하여나갈것이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지휘성원들인 우리들자신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그이의 교시를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우며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과 배치되는 온갖 그릇된 현상들, 부르죠아사상, 봉건유교사상 등 반당반혁명적사상의 사소한 표현과도 날카로운 사상투쟁을 벌려 철저히 극복할것이다.

또한 모든 사업에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과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여 사업 방법과 작풍을 혁명적으로 개조해나갈것이다.

우리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혁명적대고조과정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더욱 공고히 하고 그를 발전시키기 위한 당조직정치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할것이다.

이리하여 수령의 높은 신임과 기대에 기어이 보답하고야말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해방과 항일무장투쟁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전략적방침과 그 빛나는 실현

오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력사적인 우리 당 제5차대회전으로 7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어김없이 점령하기 위한 눈부신 투쟁을 벌리고있는 장엄한 환경속에서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력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소할바령회의 서른돐을 뜻깊게 맞이한다.

1940년 8월에 진행된 소할바령회의는 변천된 정세하에서 조선혁명앞에 가로놓인 난국을 타개하고 민족해방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며 항일무장투쟁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함에 있어서 실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인 회의였다.

오늘 소할바령회의 서른돐을 뜻깊게 맞이하는 우리 인민은 혁명의 탁월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투쟁력사를 감회깊이 회고하면서 그이께 다함없는 존경과 최대의 영광을 드리고있으며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자신을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일편단심 수령께 무한히 충실한 혁명전사로 살며 싸우려는 굳은 결의에 충만되여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기 위한 정치사상적 및 물질적 준비를 다그쳐나가고있다.

*　　*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소할바령회의에서 조성된 정세와 적아간의 력량관계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시여 항일무장투쟁의 결정적승리를 위한 새로운 전략적 방침을 천명하시였다.

소할바령회의를 전후한 시기 국내외정세에서는 심각한 변화가 일어났다.

독일, 이딸리아, 일본 등 파쑈국가들이 감행한 침략전쟁은 1939년에 이르러 제2차세계대전으로 확대되였다.

당시 일제는 중일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책동하는 한편 쏘련과 동남아세아를 삼키려는 침략적야망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 이러한 야욕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제는 조선인민에 대한 파쑈적폭압과 식민지적략탈을 전례없이 강화하면서 조선과 만주를 저들의 《공고한 후방》으로 만들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였다.

일제침략자들은 우선 어리석게도 저들의 배후에서 커다란 위협을 주는 조선인민혁명군을 《완전격멸》해보려고 모든 힘을 다하여 발악하였다. 놈들은 100만에 달하는 관동군의 주력과 조선주둔 일제침략군사단들, 위만군, 경찰 등 수십만에 달하는 대병력을 매일같이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토벌작전》에 내몰았다.

일제는 이러한 군사적공세와 함께 정치적 및 경제적 공세도 전례없이 집요하게 감행하였다.

놈들은 조선인민혁명군을 인민대중으로부터 고립시켜보려고 《집단부락》정책을 더욱더 악랄하게 감행하는 한편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지하혁명조직들을 가혹하게 탄압파괴하고 수많은 혁명가들을 잔인무도하게 검거투옥학살하였으며 조선인민혁명군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기 위하여 그 어느때보다도 미쳐날뛰였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쏘일중립조약》의 체결문제가 일정에 오르게 되였다. 이것을 기화로 일제침략자들은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군사정치적공세를 더욱

악착스럽게 감행하였다. 이때 혁명대렬내에서 사대주의사상에 물젖어있던자들은 동요하기 시작하였다.

일제의 발악적인 공세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전반적인 정세발전은 조선인민의 민족해방투쟁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앞길에 더욱더 유리하게 전변되여가고 있었다.

다른 나라에 대한 파쑈국가들의 강도적인 침략적야욕으로 하여 일어난 제2차세계대전은 제국주의렬강간의 모순을 더욱 격화시켰으며 결국 그들자신의 멸망을 촉진시키고있었다.

한편 침략전쟁을 반대하며 민족적독립과 자유를 위한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의 반제반전투쟁은 날을 따라 확대되여갔다.

따라서 전반적국제정세는 제국주의렬강에는 불리하게, 혁명력량에는 유리하게 전변되여갔다.

더우기 일제침략자들은 10여년간에 걸치는 조선인민혁명군과의 전투에서 심대한 타격을 받았으며 거듭되는 침략전쟁에서 거대한 인적, 물적 자원을 소모하고 지쳤을뿐아니라 자기 나라 인민들의 불만과 식민지강점지대인민들의 강력한 반항에 부딪쳐 멸망의 길로 줄달음치고있었다. 그러므로 조만간 조선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의 앞길에는 유리한 국면이 열리게 되리라는것이 명백하였다.

그러나 조선인민혁명군은 제2차세계대전초기에 파쑈무리들이 전쟁에서 일시적인 우세를 차지하고있었으며 특히 강도 일제침략자들이 최후발악적인 공세를 계속 감행하고있는 조건에서 수적으로 우세한 적을 반대하여 간고한 투쟁을 벌리지 않으면 안되였다.

변천된 당시의 이와 같은 혁명정세는 당면한 난국을 극복타개하고 다가올 민족해방의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전술적방침을 세울것을 절실하게 요구하였다.

조성된 새로운 정세에 대처하여 정확한 투쟁방침을 세우는 문제는 항일무장투쟁과 전반적조선혁명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로 제기되였다.

천재적인 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1940년 8월 력사적인 소할바령회의를 소집하시고 항일무장투쟁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새로운 전략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회의에서 우선 국내외정세의 발전추세와 전망을 깊이 통찰하신데 기초하시여 멀지 않은 장래에 일제를 포함한 파쑈국가들이 패망하고 조선혁명은 반드시 승리한다는것을 과학적으로 천명하시였다. 이로부터 그이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의 모든 대원들과 지휘원들을 유능한 정치군사간부로, 조선혁명의 핵심적골간으로 키울데 대한 가장 현명한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요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매개 전사들과 지휘원들은 그 어느때보다도 자기의 정치적의식수준을 높이며 풍부한 군사지식을 소유하지 않으면 안된다.

만약 대사변을 영접하게 되든가 또는 광범한 인민대중을 투쟁에로 조직동원시키자면 혁명적리론으로 무장한 우수한 간부들이 대량 요구된다.

혁명적리론을 소유한 우수한 간부가 없이는 혁명운동을 정확한 로선에서 실천할수 없다는것도 또한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일상적인 생활과 투쟁은 항상 우수한 군사 및 정치 간부들을 양성하는 학교로 전변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견실한 군사, 정치 간부들을 양성하는것이 혁명운동에서 결정적승리를 보장하는 관건으로 된다는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조선인민혁명군의 모든 성원들을 정치군사적으로 철저히 준비된 혁명간부로 육성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이 가르치심은 정세가 복잡하고 간고하면 할수록 혁명승리의 신심을 더욱 굳게 가지고 주체적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며 그 힘에 의하여 일제의 멸망을 촉진시키기 위한 자주적이며 혁명적인 방침이였다.

또한 이것은 영웅적항일무장투쟁을 승리적으로 추진시켜 조국해방의 혁명적대사변을 준비있게 주동적으로 맞이하며 나아가서 해방된 조국땅에 새 사회를 건설하게 될 먼앞날까지도 예견하신 가장 현명한 방침이였다.

견실하고 유능한 정치군사간부들을 수많이 육성함으로써만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과 조선공산당창건준비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시켜 광범한 인민대중을 조국광복의 최후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로 능숙히 조직동원할수 있으며 장차 조국이 해방된후 당을 창건하고 인민정권을 세우며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기 위한 골간대렬을 미리 튼튼히 준비할수 있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간부육성방침은 바로 이와 같이 그이의 원대한 구상으로부터 흘러나온 주체적이며 독창적인 위대한 방침이였다.

천재적인 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회의에서 또한 대부대활동을 소부대활동으로 변경하고 지하투쟁을 강화하여 일제침략자들에게 계속 심대한 타격을 주는 동시에 전인민적봉기를 준비할데 대한 새로운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요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당면한 군사적위기를 타개하며 견실한 군사정치간부들을 보존육성하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대부대활동으로써가 아니라 소부대유격활동을 민활히 전개하여 도처에서 적들에게 계속적인 타격을 주어야 한다.

이 소부대활동에서는 주로 현재 우리들의 주요한 힘의 원천으로 되여있는 대중단체의 조직지도사업에 력량을 집중시켜야 한다.…

광범한 조중인민대중을 조직하여 앞으로 도래할 대사변을 맞이하자면 우리들은 전사나 지휘원을 막론하고 모두다 군중의 조직자가 되는 동시에 선전선동원이 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새로운 방침은 조성된 정세에 맞게 조선인민혁명군의 력량을 능동적으로 재편성할수 있게 하며 유격전에서 주도권을 계속 튼튼히 틀어쥐고 적들에게 련속 심대한 타격을 주며 이미 마련된 혁명력량을 보존강화할수 있게 하는 적극적이며 혁명적인 방침이였다.

조성된 정세는 앞으로 적들에게 결정적타격을 주며 민족해방의 대사변을 준비있게 맞이하기 위하여 군사모험주의를 철저히 배격하고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자라난 귀중한 혁명력량을 보존하면서 놈들의 발악적인 공세에 대처한 새로운 전략전술적방침을 세울것을 절실하게 요구하였다.

만일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전망을 전면적으로 고려함이 없이 종래와 같이 대부대유격활동을 계속한다거나 또한 유리한 혁명정세가 도래하기를 앉아서 기다리기만 한다면 다같이 혁명을 계속 줄기차게 전진시킬수 없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대부대활동을 소부대활동으로 변경하고 지하투쟁을 강화할데 대한 방침은 바로 이와 같은 당시의 군사정치정세와 적아간의 력량관계를 가장 명철하게 통찰하신데 기초한것으로서 혁명의 당면한 임무와 장래의 리익을 다같이 반영한 유일하게 정당한 방침이였다.

소부대활동과 소조활동을 도처에서 맹렬하게 벌림으로써 수적으로 우세한 적의 대병력을 최대한으로 분산약화시키고 피동에 빠뜨릴수 있으며 수량상으로 우세한 적들과 싸우는 조건하에서도 계속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놈들에게 만회할수 없는 참패를 줄수 있었다.

또한 소부대활동과 소조활동을 통하여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을 정치군사적으로 더욱 세련된 혁명간부로 단련육성할수 있었으며 광범한 인민대중속에 혁명적영향을 주어 그들을 계급적으로 각성시키며 조국해방의 결정적시기에 전인민적봉기에로 힘차게 떨쳐나설수 있도록 준비시킬수 있었다.

실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께서 력사적인 소할바령회의에서 제시하신 새로운 전략적방침들은 그이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무르익혀오신 조국해방의 위대한 구상과 주체사상의 빛나는 구현으로서 유격전에서 정치사상적 및 전술적 우세를 확고히 견지하여 적들에게 계속 타격을 주는 동시에 조선인민의 주체적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며 조성된 난국을 주동적으로 극복타개하고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조선혁명의 최후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가장 적극적이며 혁명적인 방침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전략적방침의 정당성은 그후의 혁명적실천속에서 뚜렷이 확증되었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민족해방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적방침을 제시하시였을뿐아니라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가장 정확히 조직령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소할바령회의후 조성된 난국을 극복타개하고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조선혁명의 주력부대인 조선인민혁명군의 전체 대원들과 지휘원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해방될 조국의 래일을 내다보시고 그들을 당 및 국가 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교육교양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요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남의 힘을 믿고 자기 혁명을 하겠다고 추호도 생각해서는 안된다. 우리 혁명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힘으로 해야 한다.

우리의 항일무장투쟁은 바로 여기에 큰 의의가 있는것이다.

그래야만 우리는 앞으로 닥쳐올 대사변을 떳떳이 맞이할수 있으며 해방된 조국의 민주건설도 우리의 손으로 할수 있다.…

김일성동지의 이 가르치심은 주체적혁명력량을 강화하고 민족해방의 대사변을 준비있게 맞이하며 항일무장투쟁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고 해방후 조국건설을 떠메고나갈 골간부대를 튼튼히 꾸리는데 있어서 실로 거대한 의의를 가지였다.

주체를 철저히 세우느냐 못세우느냐 하는 문제는 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관건적문제이다.

주체를 철저히 세워야만 남에 대한 의존심을 버리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할수 있으며 모든 문제를 어디까지나 자신이 책임지고 자주적으로, 자체의 힘으로 끝까지 풀어나갈수 있다.

위대한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자기자신의 힘을 믿지 않고 남에게 의존하려는 사대주의사상과 혁명의 앞길에 조성된 난관앞에서 주저하며 동요하는 기회주의적이며 투항주의적인 요소들, 조선혁명의 자주성을 침해하려는 온갖 편향들을 단호히 물리치시면서 주체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시고 그를 관철하는 투쟁에로 대원들을 힘있게 이끄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원들을 주체사상으로 확고히 무장시킴과 함께 그들에게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체계적인 교양을 주시여 풍부한 혁명리론으로 무장시키시였으며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시여 민족적자부심과 혁명에 대한 긍지를 높여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현대전에 대처하여 대원들에게 군사기술을 습득시키며 군사훈련을 더한층 강화하심으로써 그들을 대규모적현대전을 능숙히 지휘할수 있는 유능한 군사지휘관으로 키우시였다.

1944년 9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 전체 성원들앞에서 하신 연설에서 소할바령회의이후의 군사정치활동을 총화하시고 조성된 정세하에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당면한 투쟁과업을 천명하시였다.

당시 일제는 침략전쟁의 주요진선에

서 완전히 수세에 빠져있었으며 그 멸망의 시각이 점차 박두하고있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새롭게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소부대활동과 주력부대의 군정훈련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조선인민의 반일력량을 총동원하여 조국해방을 위한 준비를 완성하며 장차 해방된 조국에서 당과 인민정권을 세우며 민주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전체 조선인민혁명군 지휘원들과 대원들은 그이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자신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하기 위하여 모든 정력을 다하였다.

이리하여 조선인민혁명군 지휘원들과 대원들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현대적군사지식과 유능한 지휘능력을 소유한 일당백의 간부군대로, 우수한 군사정치간부로, 조선혁명의 믿음직한 골간으로 자라날수 있었다.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조선인민혁명군의 군사활동을 더한층 은밀하게 진행하며 대중속에서의 조직정치사업을 극비밀리에 전개할수 있는 림시적인 비밀근거지를 설치하도록 하시고 조선인민혁명군부대들을 수십개의 소부대와 소조로 편성하여 각지에 파견하시고 그들의 활동을 지휘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1941년봄 소부대를 친솔하시고 안도, 연길현 일대에 진출하시여 소부대들의 활동을 지도하시는 한편 몸소 소부대군사활동의 위대한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그이께서 보여주신 탁월한 실천적모범과 현명한 령도가 있었음으로 하여 그처럼 어렵고 복잡한 때에도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은 필승의 신념을 간직하고 소부대활동을 승리적으로 조직전개할수 있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사령부와 멀리 떨어져 활동하고있는 소부대성원들과 정치공작원들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뜨겁고도 깊은 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

우리는 그이께서 소부대성원들과 정치공작원들을 얼마나 깊이 믿어주시고 뜨겁게 사랑하시였으며 얼마나 두터운 배려를 돌려주시였는가를 《그이는 우리의 어버이시다》, 《사득판에서 있은 일》, 《사령부를 찾아가는 길에서》, 《한개의 가무봉지에 깃든 사랑》을 비롯한 수많은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들에서 가슴뜨거이 찾아보게 된다.

사령부와의 련계가 끊어지고 언제 돌아올지 모를 소부대성원들을 념려하시여 이미 있던 숙영지를 떠나시면서 우등불가에 식량과 겨울옷을 묻어두게 하시며 어쩌다 한마리의 사슴을 잡았을 때에도 자신보다 먼저 소부대성원들을 생각하시여 그 고기를 말려 가루로 만들어 봉지에 넣게 하시고 그 하나하나의 봉지마다에 그들의 이름까지 적어두시는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의 대원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은 이루다 헤아릴수 없다. 실로 대원들에 대한 그이의 사랑은 바다보다도 깊고 태산보다도 높고 태양보다도 더 뜨거웠던것이다.

사령부와 갈라져 굶주리며 쓰러지면서 피흘려싸우던 소부대성원들은 바로 수령의 이처럼 뜨거운 사랑과 은정이 있고 수령의 따뜻한 어버이손길이 잇닿아져있기에 그 모진 고난속에서도 맡은바 혁명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고 사령부를 찾아올수 있었으며 그이의 두리에 굳게 뭉쳐 끝까지 싸워 승리할수 있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실천적인 모범과 고매한 덕성에 무한히 고무된 소부대들과 정치공작원들은 승리의 신심을 굳게 다지고 전국적범위에서 군사정치활동을 더욱 활발히 전개하였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들과 소조들은 적들의 삼엄한 경계망을 뚫고 각지에서 적

에 대한 습격전과 철도, 교량, 군수창고 등에 대한 파괴전을 맹렬히 전개하였으며 앞으로의 최후결전을 예견하고 군사정찰활동을 더욱 강화하였다.

수많은 소조들은 웅기, 라진, 청진, 함흥, 평양, 원산, 서울, 인천, 부산을 비롯한 우리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서 그 활동을 어느때보다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들과 소조들은 군사활동과 함께 정치공작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그들은 파괴된 혁명조직을 복구하고 새로운 조직을 무어 그를 확대해나갔으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들속에 혁명의 천재적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고매한 덕성 그리고 그이께서 제시하신 조선혁명의 로선과 방침들을 해설함으로써 그들에게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안겨주고 인민들을 반일반진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들과 정치공작원들의 눈부신 군사정치활동에 의하여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신 김일성동지의 명성은 백두산기슭으로부터 제주도끝까지 전국의 방방곡곡에 더욱 널리 퍼져갔으며 그것은 우리 인민의 심장마다에 수령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과 조국해방의 서광을 안겨주였다.

실로 우리 인민은 일제식민지통치의 가장 암담하던 시기에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혁명의 위대한 수령으로 모신 드높은 긍지와 영예를 간직하고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혁명의 한길을 따라 조국해방을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섰다.

로동자들은 파업과 태업, 방화 등 온갖 방법을 다하여 일제에게 항거해나섰으며 농민들과 청년학생들도 일제의 수탈과 강제 징병 및 징용을 반대하는 각종 형태의 반일투쟁을 힘차게 전개하였다. 이 시기에 이르러 인민들속에서는 항일무장투쟁에 합류하려는 움직임이 대중적형태를 띠고 급속히 확대되여갔다.

특히 로동계급과 청년학생들 속에서는 비밀조직을 뭇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조선인민혁명군과 합세하기 위한 무장폭동준비들이 적극 추진되였다.

우리 나라 각계각층 인민들의 이 모든 반일투쟁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신뢰에 깊이 뿌리박은 투쟁이였으며 그이께서 조선혁명을 령도하시는 한 나라의 독립은 멀지 않아 반드시 이룩되리라는 확고한 신념에 기초한 투쟁이였다.

이리하여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일제의 패망을 촉진하고 조국해방의 날을 앞당기기 위한 조선인민의 혁명적기운은 더욱 높아갔으며 혁명적대사변을 맞이할 준비가 전면적으로 갖추어져갔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5성상의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마련하신 주체적혁명력량에 의거하시여 일제를 격멸소탕하고 조국해방을 이룩하기 위한 작전계획수립과 력량편성 등 전투준비를 최종적으로 완료하신데 기초하시여 1945년 8월 9일 드디여 조선인민혁명군부대들을 조국해방의 성전에로 부르시는 명령을 내리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밑에 조선인민혁명군부대들은 일제의 《철벽의 국경방어선》을 일격에 돌파하고 조국에로 진격하였다.

조국해방의 최후결전에 참가한 조선인민혁명군부대들은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신 김일성동지의 명철한 작전계획에 따라 라진, 청진으로, 남양과 웅기 방면으로 각각 진격하여 저항하는 일제의 관동군과 조선주둔군을 도처에서 격멸소탕함으로써 조선인민혁명군의 필승불패의 전투적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소할바령회의에서 밝히신 천재적인 전략적방침이 빛나게 실현됨으로써 15성상의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은 마침내 력사적인 승리를 거두었으며 우리 조국은 간악한 일제의 식민지통치기반에서 해방되였다.

* *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소할바령회의에서 천명하신 탁월한 전략적방침과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쌓으신 불멸의 업적은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의 승리를 이룩하며 조선혁명의 주체적력량을 튼튼히 꾸림에 있어서 실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소할바령회의에서 제시하신 전략적방침은 조선혁명의 주체적인 혁명력량을 축적보존하고 항일유격대원들을 유능한 정치, 군사 간부로 육성함으로써 민족해방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수 있게 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키우신 혁명의 골간들은 항일무장투쟁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함에 있어서뿐아니라 해방후 새 조국 건설에서도 믿음직한 골간으로, 더없이 귀중한 밑천으로 되였다.

수령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이 귀중한 밑천이 있음으로 하여 조선인민은 해방후 그처럼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지체없이 당과 인민정권을 세우고 인민군대를 창건할수 있었으며 조국해방전쟁에서 미제를 때려눕히고 위대한 승리를 달성할수 있었으며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강력히 추진시킬수 있었다.

력사적인 소할바령회의 서른돐을 맞이하는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혁명적로선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 만단의 정치사상적 및 물질적 준비를 갖추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화국정부는 인공적인 국토의 량단과 민족의 분렬로 인한 현재와 같은 우리 인민의 불행을 하루빨리 없애고 남조선인민들을 해방하며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북반부인민들을 항상 남조선인민들의 성스러운 반미구국투쟁을 지원하며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수 있도록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킬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40페지)

우리는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자신을 당의 유일사상,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대고조를 계속 견지하여 우리의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튼튼히 다져야 한다.

우리는 지난날 항일유격대원들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밑에 간악한 일제침략자들을 타승하고 조국을 해방한것처럼 남조선혁명을 적극 지원하여 미제와 그 주구 박정희괴뢰도당을 때려부시고 우리 인민의 민족적숙망인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우리 세대에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종국적 승리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신 진 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종국적승리에 대한 문제는 오늘날 많은 사회주의나라들에서의 혁명과 건설의 근본문제이며 현시대의 과학적공산주의리론의 중심문제이다.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이 사회주의제도를 세운 다음에는 바로 어떤 과업들을 해결하며 어떤 길을 밟아 공산주의에 이를것인가,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어떻게 보장할것인가 하는것은 지난 시기에 아직 당면의 일정에 오르지 않았으며 충분히 해명될수 없었던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한 리론적해명은 오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한 긴절한 요구로 된다.

천재적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으로부터 출발하시여 우리 나라와 여러 사회주의나라들에서의 혁명과 건설의 경험을 일반화하시고 이 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과학적해답을 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천재적로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 문제에 대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위대한 반제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를 비롯한 여러 불후의 로작들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종국적승리에 관한 완벽한 리론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종국적승리에 관한 위대한 혁명사상을 내놓으심으로써 과학적공산주의리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리시였으며 맑스-레닌주의보물고를 풍부히 하고 세계혁명의 발전을 촉진함에 있어서 획기적인 공헌을 하시였다.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종국적승리에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깊이 파악하고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영예로운 임무이며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고 수령께서 가리키신 길을 따라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가며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기는 길이다.

1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천재적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의 기초가 건설된 다음 필연적으로 제기되는 강령적과업이며 도달하여야 할 새로운 리정표로 되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에 대한 문제에 전면적인 해명을 주시였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할 객관적필연성,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의 징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력사적과업들, 그 해결방도와 이 과업들의 완수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 등 모든 문제들이 남김없이 밝혀졌다.

1)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여야 할 필연성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

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의 기초가 건설된 다음에도 사회주의국가는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을 계속 철저히 수행하여야 합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41페지)

《적대계급의 준동이 있고 낡은 사상의 부식작용이 계속되며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가 남아있으며 나라의 공업화가 완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마련되여있지 못한 사회는 아직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라고 말할수 없습니다.》(우와 같은 책, 43페지)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제도가 선 이후시기 사회의 과도적성격에 대한 심오한 과학적분석과 철저한 계속혁명의 립장으로부터 출발하시여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문제가 제기되는 합법칙성을 처음으로 가장 정확하게 밝히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착취계급의 청산, 사회주의제도의 확립은 로동계급이 주권을 진취한 다음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투쟁행정에서 이룩한 위대한 승리이며 획기적인 전환으로 된다. 그러나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아직 전복된 착취계급의 잔여세력의 준동이 있고 낡은 사상잔재의 부식작용이 계속되며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가 남아있고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마련되여있지 못하다.

이러한 조건에서 혁명을 계속하여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는것은 로동계급의 력사적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며 사회주의사회발전의 합법칙성으로 된다.

그것은 우선 착취계급의 변할수 없는 본성과 관련된다. 착취자들은 계급으로서 청산된 다음에도 그들이 살아있고 세계에 제국주의침략세력이 남아있는한 저들의 옛처지를 회복하려는 욕망과 시도를 버리지 않는다. 더우기 그들은 근로자들속에 부르죠아사상잔재가 남아있고 사회에 자본주의시대의 유물들이 남아있는 조건에서 여기에 발을 붙이고 사회주의건설을 파괴하며 자본주의를 복구하여보려고 헛되게 시도한다. 때문에 사회주의제도를 세운 다음에도 적대계급의 잔여세력과 그들이 발붙이고 준동할수 있는 지반을 완전히 청산하는 문제가 필연적으로 제기되는것이며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공산주의를 실현할수 없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할데 대한 문제가 합법칙적으로 제기되는것은 또한 낡은 사상잔재를 비롯한 착취사회의 모든 유물들이 공산주의와는 량립할수 없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는 근본적으로 대립되는것이며 자본주의의 어떤 사소한 잔재도 공산주의의 본성과 모순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람들이 자본주의사상잔재를 가지고는 공산주의자로 될수 없으며 사회주의건설에 적극적으로 참가할수 없다. 또한 착취사회가 남겨놓은 농촌의 락후성,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 사회주의에 상응하지 못한 물질기술적토대를 그대로 두고는 사회주의를 공고히 할수 없으며 공산주의를 건설할수 없다.

그러므로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이 사회주의제도를 세운 다음 적대계급의 잔여세력과 자본주의사회의 일체 유물들을 철저히 청산하고 사회주의의 물질적토대를 튼튼히 쌓아올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는것은 로동계급의 력사적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필수적요구로 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과정으로 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혁명을 계속 철저히 수행하여야만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천명하심으로써 이 합법칙성을 구현하기 위한 근본조건을 밝혀주시였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는것이 하나의 합법칙성이라고 하는것은 결코 그것이 자연생장적으로 이루어진

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적대세력의 반항을 진압하는 계급투쟁의 계속이며 자본주의의 모든 유물들을 청산하고 사회를 사회주의적,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사회주의혁명의 계속과정이다. 이것은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계급적립장을 고수하고 혁명을 계속 철저히 수행하여야만 객관적합법칙성을 구현하여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의미한다.

사회주의의 기초가 건설되였다 하여 혁명을 중도에서 포기한다면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할수 없을뿐아니라 이미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마저 위험에 처하게 할수 있다.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혁명을 계속하여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사상은 사회주의사회발전의 구체적행정에 대한 천재적통찰에 기초하고있으며 로동계급의 력사적사명을 완수할 때까지는 혁명을 중도에서 포기할수 없고 잠시도 멈출수 없다는 강철같은 혁명적의지를 표현하고있는 위대한 혁명적사상이다.

2)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의 중요징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어느때에 가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가 이룩되는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는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가 없어지고 중산층, 특히 농민대중이 우리를 적극 지지하게 되여야 비로소 이루어질것입니다. 농민들이 로동계급화되기전까지는 그들이 우리를 지지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확고한것으로 되지 못하고 어느 정도 동요성을 면치 못할것입니다.》(《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 문제에 대하여》, 10~11페지)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교시에서 지난날의 중산층의 완전한 쟁취를 그들의 로동계급화, 계급적차이의 소멸과 일치시키시면서 이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의 징표로 규정하시였다.

이것은 사회주의제도가 선 이후의 사회발전을 어디까지나 계급투쟁의 견지, 변증법적유물론의 견지에서 분석하신데 기초한 유일하게 정당한 창조적사상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결국 로동계급과 자본가계급의 두 계급가운데서 누가 농민을 비롯한 소부르죠아대중을 종국적으로 자기 편에 쟁취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사회주의제도를 세운 다음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지난날의 중산층을 완전히 쟁취하는 문제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사회주의하에서 로동계급의 믿음직한 동맹자인 협동농민과 그리고 인테리들속에는 지난날의 중산층이 적지않게 들어있다. 이 층은 로동계급속에도 일부 들어와있다. 이 층은 지난날 도시와 농촌의 소경영자, 자유직업자들로서 사회주의적근로자들중에서 과거에 비교적 자본주의, 개인주의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생활도 비교적 괜찮던 층이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로동계급의 지도 밑에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를 통하여 자신의 모든 생활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길에 들어선다.

김일성동지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그들은 물론 사회주의적근로자로서 로동계급과 사회주의를 지지하지만 그들이 완전히 로동계급의 사상의식으로 개조될 때까지는 그 지지가 확고한것으로 되지 못하고 일정한 동요성을 면치 못한다. 이것은 아직도 세계에 자본주의, 제국주의가 남아있고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간의 투쟁이 계속되는 객관적사정과 관련되며 그들 중산층의 지난날의 생활처지와 의식수준 그리고 나라의 생산력발전수준 등과 관련되는것이다.

로동계급은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지난날의 중산층의 동요성을 철

저히 없애고 그들의 확고한 지지를 받게 되여야만 사회주의의 승리를 공고히 할수 있다. 지난날의 중산층가운데서도 특히 농민의 지지를 받는 문제가 더욱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과거의 중농대중은 수효도 많고 사회주의경제의 2대 부문의 하나를 담당하는 농민계급에 속해있다. 과거의 중농, 부유중농도 포함하여 지난날의 중산층이 로동계급을 진심으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해 몸바쳐 투쟁하게 되는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것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좌우하는 문제이다.

중산층을 완전히 쟁취하여 그들이 로동계급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게 될 때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가 보장된다고 하신 김일성동지의 독창적인 사상의 과학적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면 어느때, 어떤 조건에서 중산층을 완전히 쟁취하게 될것인가.

김일성동지께서는 그것은 그들이 모두 로동계급화되여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가 없어지고 무계급사회가 실현되는 때라고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바와 같이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는 사람들의 머리속에서 낡은 사상잔재가 극복되고 낡은 사상의 부식작용이 없어지며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를 진심으로 지지할 때에 이루어진다.

지난날의 중산층이 사회주의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지지하는가 하는것은 그들의 물질적생활조건과 의식상태에 의하여 규정된다. 그들이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진심으로 체득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게 되자면 모든 근로자들의 생활수준이 적어도 지난날의 중산층의 생활수준보다 훨씬 높아져야 하며 농민들의 모든 물질적생활조건이 로동계급과 같이 개조되여야 한다. 중산층이 로동계급과 꼭같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지하고 그 승리를 위해 몸바쳐 투쟁하리만큼 로동계급의 혁명사상, 공산주의사상으로 개조되게 되자면 농민들의 소유관계를 전인민적소유의 수준으로, 그들의 로동조건과 기술문화수준도 로동계급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하며 생산력을 썩 발전시켜 모든 사람들의 생활수준을 사회주의제도에 상응하게 훨씬 더 높여야 한다.

따라서 지난날의 중산층까지도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적극 지지하고 그 승리를 위해 몸바쳐 싸우게 되는것은 결국 모든 근로자들이 로동계급화되여 낡은 사상의 부식작용도 없어지고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도, 계급자체도, 적대계급의 준동도 없어지는 때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가 없어지고 중산층이 로동계급을 적극 지지하게 될 때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가 이룩된다고 하신 사상은 우리 나라와 그리고 세계 대다수 나라들에서의 혁명발전의 구체적조건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한 독창적인 맑스-레닌주의사상이다.

맑스주의창시자들은 주로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하여 농촌에 이미 농민이 없는 그러한 나라들을 념두에 두고 자기들의 리론을 전개하였다. 레닌은 농민이 다수를 차지하는 나라에서 혁명을 지도하였으나 그 시기에는 아직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문제가 구체적으로 제기되지 않았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처음으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문제가 제기되는 합법칙성을 밝히시였을뿐아니라 중산층 특히 농민대중이 로동계급화될 때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가 이룩된다는것을 천명하심으로써 우리 나라와 같이 농민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다수 나라들에서 그 합법칙성이 바로 어떻게 구현되는가를 천재적으로 해명하시였다.

중산층을 완전히 쟁취하게 될 때, 무계급사회가 실현될 때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가 이룩된다고 하신 김일성동지의 사상은 또한 철저한 계급적립장, 계급투쟁의 견지에서 출발한 유일하게 정

당한 혁명적인 맑스-레닌주의사상이다. 그이께서는 철저하게 계급투쟁의 견지에서 출발하심으로써 중산층의 완전한 쟁취 문제를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간의 투쟁에서 결정적의의를 가지는것으로 규정하시였다.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변증법적유물론에 립각하시여 중산층의 물질적생활조건을 근본적으로 개조하여 그들을 다 로동계급화하고 계급을 없애게 되는 때라야 그들을 완전히 쟁취할수 있다는 가장 정당한 결론을 지으시였다. 이것은 가장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맑스-레닌주의사상이다.

3)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력사적과업과 그 해결방도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공산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상적 및 물질적인 두 요새를 점령할데 대한 사상을 제시하시고 이를 점령하기 위한 구체적인 력사적과업들과 그 수행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히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자면 두 요새, 다시말하여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여야 합니다.》(《사회과학의 임무에 대하여》, 552폐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완전한 사회주의사회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로동계급의 사상, 공산주의사상으로 개조하여 사상적요새를 점령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생산수단에 대한 단일한 전인민적소유를 확립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상응한 높은 생산력을 조성하여 물질적요새를 점령하여야 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두 요새를 점령하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의 력사적과업들을 과학적으로 규정하시였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자면 우선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독재를 강화하며 사상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전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 하며,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의 수준에까지 끌어올려야 하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아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두 요새와 이를 점령하기 위한 력사적과업들에 관한 사상은 사회를 사회주의적, 공산주의적으로 완전히 개조하기 위한 모든 문제를 전면적으로, 과학적으로 밝혀준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사상이다.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혁명적사상에는 완전한 사회주의사회와 공산주의사회의 본성,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정의 내용과 그 전투적성격이 과학적으로 반영되여있다. 완전한 사회주의사회는 모든 인민의 유족하고 문화적인 생활이 보장되는 사회이며 공산주의적사상과 도덕이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사회이다. 이러한 유족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위한 물질적조건을 마련하며 모든 인민을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승리를 위한 기본문제이며 이를 해결하는것은 마치도 요새를 점령하는것과 같은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과정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독창적으로 제시하신 전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사상은 모든 근로자들을 혁명적세계관과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켜 혁명력량을 계속 튼튼히 꾸려나가는 동시에 사상과 도덕, 경제와 문화의 모든 면에 걸쳐 그들을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를 점령하는 길을 휘황히 밝혀주고있다.

전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사상은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정의 계급적성격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고있으며 그이의 철저한 계속혁명의 립장과 로동계급의 력사적사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반영하고있는 혁명적사상이다.

이 사상은 또한 사회주의사회에서의 계급관계와 계급투쟁발전의 합법칙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한 사상으로서 사회주의하에서의 계급투쟁의 기본형식과 그 특성들을 심오하게 밝혀주고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사회에는 적대분자들을 진압하는 계급투쟁과 함께 근로자들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을 뿌리빼고 그들을 다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혁명을 중요내용으로 하는 계급투쟁의 기본형식이 있는것입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50~51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제도를 확립할 때까지의 계급투쟁은 주로 착취자들을 계급으로서 청산하기 위한 투쟁이다. 이 단계에서는 근로자들에 대한 착취와 억압의 근원을 청산하고 사회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한 기본로대를 마련하려는 혁명의 목적이 바로 이 투쟁에 의하여 달성된다. 때문에 거기서는 그 투쟁이 계급투쟁의 기본형식이였다.

그러나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는 이 제도를 공고발전시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는것이 혁명의 당면목적으로 되며 이 목적은 무엇보다도 모든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고 그들의 정치사상적통일을 공고히 하는것을 통하여 실현된다.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이것이 계급투쟁의 기본형식으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바와 같이 사상혁명을 중요내용으로 하는 계급투쟁은 공동의 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손잡고나아가는 근로자들내부의 문제로서 그들을 교양개조하여 공산주의사회까지 이끌어가기 위하여 설복과 교양의 방법, 협조의 방법으로 진행된다.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전혀 새롭게 독창적으로 제시하신 사회주의하에서의 계급투쟁의 기본형식에 관한 리론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하여 실지로 어떻게 투쟁할것인가를 명백히 가르쳐주고있다. 그것은 계급투쟁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에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위대한 창조적리론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천재적로작 《우리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심으로써 사회주의하에서 도시에 비한 농촌의 락후성을 없애고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농민을 로동계급화하며 농업생산력을 고도로 발전시키기 위한 유일하게 정당한 길을 창조적으로 밝히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곧바른 길로 되는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시였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방도를 밝히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모든 력사적과업들은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견지하고 강화하는 조건하에서만 원만히 수행될수 있다는것을 강조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며 로동계급의 력사적위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사회주의국가는 계급투쟁의 무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무기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43~44페지)

주권을 잡고 사회주의제도를 수립한 로동계급이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견지하고 그 기능을 강화함이 없이는 계급투쟁을 계속할수 없고 사회주의경제문화건설도 성과적으로 해나갈수 없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맑스-레닌주의원칙과 력사적경험으로부터 출발하시여 사회주의국가는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견지하고 적대분자들에 대한 진압과 사상혁

명, 경제건설의 기능을 다같이 잘해나가야 하며 그중에서 어느 하나를 소홀히 하거나 놓쳐버려도 그것은 사회주의건설의 전반적행정에 커다란 난관을 조성하며 엄중한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는것을 천명하시였다.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혁명을 계속한다는것은 구체적으로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계속 고수하고 강화하여 그것이 자기 기능을 철저히 수행하도록 하는것이다. 프로레타리아독재를 약화시키거나 거부하는것은 혁명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로동계급은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한 다음에도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무기를 튼튼히 틀어쥐고 혁명을 계속 철저히 수행하여야만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으며 공산주의를 실현할수 있다.

천재적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상과 같이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력사적과업들과 그 해결방도에 대하여 혁명적이고 과학적인 탁월한 사상을 제시하시였다. 이 사상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적대분자들에 대한 독재와 사상혁명, 경제건설을 다 같이 잘해나갈 때 두 요새가 점령되고 사회주의는 완전히 승리할것이며 무계급사회가 실현될것이다.

2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에 대한 문제에도 전면적인 심오한 해명을 주시였다.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력사적필연성,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의 징표와 그를 실현하기 위한 방도 등이 남김없이 밝혀졌다.

1)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문제가 제기되는 력사적필연성과 그 종국적 승리의 징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국제자본주의의 포위속에서 프로레타리아트가 주권을 잡은 개별적나라들은 전세계적규모에서 공산주의가 실현될 때까지 제국주의의 침략과 자본주의복구의 위험을 면할수 없습니다.》(우와 같은 책, 58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세계혁명이 아직 완수되지 못하고 자본주의와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조건에서는 한 나라 또는 일부 지역에서 로동계급이 주권을 잡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회는 제국주의자들의 무력간섭과 그로 인한 자본주의복구의 위험을 면할수 없으며 따라서 거기서는 사회주의가 종국적으로 승리하였다고 말할수 없다.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것은 사회주의혁명이 모든 나라들에서 동시적으로 승리하는것이 아니라 한 나라 또는 몇개 나라씩 개별적으로 혁명을 하여 자본주의포위속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게 되는 력사적조건과 관련된다.

혁명에서 먼저 승리한 나라들은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에 따라 자본주의포위속에서도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그러나 그때에 가서도 세계에 제국주의침략세력이 남아있는한 이 나라들에서의 혁명의 승리는 아직 종국적인것이 못된다. 만약 모든 나라들에서 혁명이 동시적으로 승리하고 세계에 제국주의가 남아있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그때에는 매개 나라에서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에 대한 문제가 따로 제기되지 않을것이다. 그러나 지구상에서 자본주의, 제국주의가 남아있는한 개별적나라들에서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는 문제와 함께 그 종국적승리를 위해 투쟁할 임무가 제기된다.

그러면 사회주의나라들은 어느때에 가서 제국주의침략과 그로 인한 자본주의복구의 위험을 완전히 면하고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게 될것인가.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

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에 대한 전재적인 해명을 주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세계의 대다수 나라, 적어도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서 혁명이 련속적으로 일어나 제국주의적포위를 사회주의적포위로 바꾸어야 하며 사회주의국가를 포위하고있는 제국주의의 장벽을 허물어버리고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세계적체계에로의 전환의 길을 열어놓아야 하며 포위당한 일국의 사회주의요새의 고립성을 없애고 국제로동계급과 세계피압박인민들의 전투적련대성의 강력한 뉴대를 이루어놓아야 한다. 오직 이렇게 될 때에라야만 제국주의자들의 무력간섭과 자본주의복구의 시도를 완전히 면할수 있고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가 보장되였다고 말할수 있을것이다.》(《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위대한 반제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 5~6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제국주의의 포위속에서 로동계급이 주권을 잡은 개별적나라들이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게 되자면 국제적범위에서 그 조건이 마련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적어도 주변의 여러 나라들, 나아가서 세계의 대다수 나라들에서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여 제국주의적포위가 사회주의적포위로 바꾸어지는것이다. 주요 자본주의나라들도 포함하여 세계 대다수 나라들에서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한다면 사회주의진영이 전세계적규모로 확대강화되여 남아있는 자본주의세력을 완전히 압도하고 그들의 침략기도를 제어하게 될것이다.

사회주의나라들이 제국주의침략의 위험을 면하자면 또한 그들을 포위하고있는 제국주의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프로레타리아독재가 세계적체계로 전환하는 길이 열려져야 한다.

오늘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국가들을 위협 또는 침략하고있을뿐아니라 세계 이르는 곳마다에서 피압박, 피착취 인민들의 민족해방혁명과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을 압살하기 위해 발광하고있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프로레타리아독재가 세계적체계로 전변되는 길을 가로막고 사회주의진영이 전세계적규모로 확대발전되는것을 장애하고있다. 그러므로 세계의 대다수 나라들에서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고 제국주의적포위가 사회주의적포위로 바꾸어지자면 우선 사회주의국가들을 포위하고있는 제국주의의 장벽이 허물어져야 할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신구식민주의가 완전히 청산된다면 제국주의적서구라파도 제국주의적북미주도 존재할수 없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제국주의의 식민지체계가 허물어져 신생독립국가들의 대렬이 늘어나고 제국주의적서구라파도 제국주의적북미주도 없어지게 되는 그날에는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혁명이 련속적으로 일어나 프로레타리아독재가 전세계적체계에로 전변되는 길이 열리게 될것이며 사회주의나라들의 안전은 튼튼히 보장될것이다.

개별적나라들이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게 되자면 사회주의진영이 확대강화되여 그로부터 강력한 지원을 받을뿐만아니라 전세계 로동계급과 피압박인민들과의 국제주의적련대성이 강화되여 그들로부터도 믿음직한 후원을 받게 되여야 한다. 포위당한 사회주의국가들이 고립되지 않고 국제로동계급과 세계피압박인민들과의 전투적련대성의 뉴대로 굳게 결속되면 될수록 그것은 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한 제국주의의 침략을 견제하는 커다란 힘으로 된다.

동시에 그것은 식민지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과 세계사회주의혁명을 촉진하는데서도 커다란 기여로 될것이다.

이리하여 사회주의나라들이 전세계 로동계급 및 피압박인민들과 강력한 전투적련대성으로 굳게 단결되고 세계사회주의진영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힘으로 자본주의세계를 포위하게 될 때 매개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가 보장될것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 독창적으로 제시하신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가 어느때, 어떤 조건에서 보장

될것인가에 대한 심오한 사상은 우선 세계혁명발전의 합법칙적로정에 대한 과학적인 통찰에 기초하고있다.

오늘 세계혁명은 그 기지로 되는 사회주의진영나라들과 전세계 로동계급 및 피압박인민들과의 전투적련대성이 강화발전되는가운데서 발전하고있다. 그리하여 한편으로는 식민지예속국가인민들의 민족해방혁명이 장성발전하여 제국주의식민지체계가 허물어지고 신생독립국가들의 대렬이 늘어나며 또 한편으로는 자본주의나라들과 신생독립국가들에서 사회주의혁명이 장성발전하여 사회주의진영이 확대강화되는 과정을 통하여 발전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의 징표에 대한 리론은 세계혁명발전의 이와 같은 합법칙적행정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주의나라들과 제국주의세력간의 관계를 과학적으로 반영한 가장 정당한 리론이다.

2)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매개 나라 인민들의 투쟁과업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국제자본의 포위속에서 주권을 잡은 인민들이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자체의 주체적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는것과 함께 세계사회주의혁명의 다른 부대들의 믿음직한 후원을 받아야 하며 만국의 로동계급과 전세계피압박인민들의 광범한 국제적협조를 받아야 한다.》(우와 같은 책, 5페지)

사회주의나라들이 혁명의 종국적승리,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자체의 주체적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밑에 자기 나라에서 혁명과 건설을 최대한으로 추진시켜 정치, 경제, 군사적 힘을 강화발전시켜야 한다. 매개 사회주의나라들은 자체로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여 주체적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만 제국주의의 침략기도를 성과적으로 분쇄할수 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혁명적로선은 이에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이 로선을 관철하는것은 세계에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조건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촉진하며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를 보장하는 믿음직한 담보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주체적력량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형제적사회주의나라들의 강력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며 만국의 로동계급과 피압박인민들의 광범한 지지와 협조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사회주의나라들의 통일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는것이다. 사회주의나라들의 통일단결은 제국주의의 침략으로부터 매개 사회주의나라들을 믿음직하게 보위하며 사회주의진영전반적범위에서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담보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나라들의 통일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원칙적인 방침들도 제시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사회주의나라들이 모든 나라 로동계급과 피압박인민들의 혁명운동을 도와주고 그들과의 련대성을 강화할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먼저 승리한 혁명은 자기의 경험과 모범으로써 아직 승리하지 못한 나라들의 혁명을 도와주고 자기의 정치경제군사적힘으로 세계인민들의 해방투쟁을 적극 지원하며 아직 혁명이 승리하지 못한 나라 인민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투쟁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압살정책으로부터 승리한 다른 나라 혁명을 보위하고 자기 나라 혁명의 승리를 앞당겨야 한다. 이렇게 하는것은 세계혁명운동발전의 법칙이며 이미 인민들의 해방투쟁과정에서 이룩된 훌륭한 전통이다.》(우와 같은 책, 6페지)

혁명에서 먼저 승리한 사회주의나라들이 국제로동계급 및 전세계피압박인민들과의 련대성을 강화하여 그들의 믿음직한 지원을 받게 되자면 먼저 자기

의 경험과 모범으로써 그리고 필요하다면 자체의 정치, 경제, 군사적 힘으로써 그들의 민족적, 사회적 해방을 위한 혁명운동을 적극 고무하고 지원하여 그 승리를 촉진하여야 한다.

이렇게 할 때라야만 아직 승리하지 못한 나라 인민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투쟁하여 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기도를 견제하고 그 압살정책으로부터 먼저 승리한 혁명을 튼튼히 보위하게 될것이다.

사회주의나라들은 또한 아직 승리하지 못한 나라 인민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그 나라들에서 혁명을 발전시킴으로써만 사회주의국가를 포위하고있는 제국주의의 장벽을 허물고 신생독립국가들의 대렬이 늘어나게 하며 사회주의진영의 확대발전을 촉진할수 있다. 이것은 제국주의적포위를 사회주의적포위로 바꾸어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를 촉진하는 길이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나라들과 아직 혁명에서 승리하지 못한 나라 인민들이 호상 협조하고 지원하여 먼저 승리한 혁명을 보위하는 동시에 새로운 혁명의 승리를 촉진해나가는것은 세계혁명발전의 법칙이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방도, 특히는 먼저 승리한 혁명과 아직 승리하지 못한 혁명간의 전투적련대성을 강화할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은 세계혁명발전의 법칙에 전적으로 부합되며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에 끝없이 충실한 참말로 혁명적인 사상이다.

3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종국적승리에 대한 탁월한 창조적사상은 맑스-레닌주의와 세계혁명의 발전을 위하여 거대한 리론실천적의의를 가진다.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난날 그 누구도 구체적으로 해명하지 못하였으며 그렇게 할수도 없었던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종국적승리에 대한 문제에 처음으로 전면적인 해명을 주심으로써 과학적공산주의리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리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이 문제를 해명하시면서 그와 련관된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리론을 발전완성시키시고 맑스-레닌주의보물고를 풍부히 하는데 위대한 공헌을 하시였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종국적승리문제와 관련하여 계속혁명에 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이 새로운 력사적조건에 맞게 발전되고 완성되였다.

종래에 맑스-레닌주의창시자들은 과학적사회주의는 계속혁명의 선포라고 하였으며 당면한 문제로서 민주주의혁명으로부터 사회주의혁명에로의 계속이행에 대한 리론을 내놓았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착취계급을 청산하고 사회주의제도를 수립하는것은 아직도 혁명의 완수를 의미하지 않으며 혁명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종국적승리를 이룩하며 공산주의를 실현하고 나아가서 세계혁명을 완수할 때까지 계속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그 필수조건으로서 프로레타리아독재를 끝까지 고수하여야 한다는 새로운 사상을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또한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혁명을 계속함에 있어서 그 발전의 매 단계에서 해결하여야 할 력사적과업들도 처음으로 밝히시였다. 이리하여 계속혁명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은 새로운 력사적조건과 철저한 혁명적립장을 반영하여 창조적으로 발전완성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에 대한 문제를 전면적으로 해명하심으로써 자본주의로부터 공산주의에로의 사회의 혁명적이행의 전로정을 정연하게 밝혀주시였다.

로동계급이 주권을 잡은 다음, 사회는 과도기를 거쳐서 완전한 사회주의사

회로 발전하며 이 단계를 거쳐서만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로 넘어간다. 그리고 과도기는 사회주의제도의 수립을 위한 투쟁의 시기와 그후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투쟁의 시기로 나누어진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에 대한 김일성동지의 창조적인 리론으로 하여 처음으로 과도기의 계선이 명백하게 되였으며 과도기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명이 주어졌다. 또한 공산주의의 낮은 단계로서의 사회주의사회는 완전히 승리하지 못한 사회주의사회와 완전한 사회주의사회의 두 단계로 나누어지며, 종래에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와 잘 구별되지 않았던 무계급사회는 완전한 사회주의사회와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를 포괄한다는것이 정연하게 해명되였다.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종국적승리에 대한 문제를 해명하시면서 계급투쟁과 프로레타리아독재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시였다.

사회주의하에서의 계급투쟁의 기본형식에 관한 독창적인 리론은 계급적차이와 계급자체를 없애는 길을 밝혀주고있으며 이리하여 계급의 발생으로부터 그 소멸에 이르는 전과정에 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이 정연한 체계를 이루게 하였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종국적승리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새로운 리론은 세계혁명의 혁력사적조건에서는 프로레타리아독재가 과도기와 일치할수 없고 과도기가 끝난 다음에도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를 실현하고 세계혁명을 완수할 때까지 계속되여야 한다는것을 밝혀주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에 대한 문제를 해명하시면서 세계혁명발전의 법칙을 천명하시였으며 개별적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와 세계혁명발전과의 관계문제도 명백히 하시였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종국적승리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사상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그이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를 두고 세계의 벗들이 《20세기중엽의 공산당선언》으로, 《세계혁명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준 태양》으로 묘사하면서 찬탄을 금치 못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종국적승리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사상은 우리 혁명발전을 위한 강령적지침이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의 발전을 위해서도 위력한 리론적무기로 된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사상적 및 물질적 요새를 어떻게 점령할것이며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와 세계혁명의 발전을 위하여 어떻게 투쟁할것인가를 똑똑히 알게 되였으며 확고부동한 승리의 신심을 안고 수령께서 제시하신 로선과 정책들을 철저히 옹호관철하여나갈수 있게 되였다.

김일성동지의 이 위대한 사상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수령의 혁명사상의 위대성과 령도의 현명성을 더욱 깊이 체득하며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 혁명하는 긍지와 행복감을 더욱더 높이여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확립할수 있게 한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수령의 위대한 사상으로 무장함으로써 이와 어긋나는 사상경향에 대해서는 예리한 정치적각성을 가지고 견결히 투쟁할수 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종국적승리에 대한 탁월한 사상과 이를 중심으로 한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들에 대한 그이의 창조적인 리론들은 진세계 공산주의자들과 혁명적인민들에게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혁명발전의 매 단계마다 어떤 전략적과업들을 내세

우고 어떻게 해결해나갈것인가에 대한 과학적인 해답을 주고있다.

김일성동지의 이 혁명적사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승리를 위하여, 민족적 및 사회적 해방을 위하여,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각국의 인민들이 세계혁명이라는 하나의 흐름에 어떻게 합류할것인가, 자기 나라 혁명과 세계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어떻게 투쟁할것인가를 밝혀주고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종국적승리에 대한 혁명적사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 국제혁명에 관한 온갖 기회주의적경향들에 섬멸적인 타격을 주고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할수 있게 하며 사회주의나라들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단결을 이룩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고있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천재적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종국적승리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은 그이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의의와 생활력을 다시한번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한 이후시기의 혁명과 건설에 관한 리론실천적 문제들은 주로는 자기의 머리로 생각해내고 창조적으로 해결해나가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사회과학의 임무에 대하여》, 158페지)

김일성동지께서는 철저하게 주체사상으로부터 출발하심으로써 우리 혁명의 실천적경험과 세계혁명발전의 구체적현실을 독자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탁월한 새로운 맑스-레닌주의리론들을 창조하시고 제기된 문제들을 빛나게 해결하시였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종국적승리에 관한 수령의 독창적인 사상과 그 거대한 리론실천적의의를 철저히 체득함으로써 실천에서 이 사상을 훌륭히 구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쟁하여야 할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공산주의의 실현을 앞당겨야 하며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와 세계혁명의 발전을 촉진하여야 할것이다.

사회주의하에서 기술혁명수행의 옳은 길을 밝혀준 강령적지침

전 정 회

혁명의 천재적수령이시며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 1960년 8월, 우리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기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데 대하여》라는 강령적교시를 주신 때로부터 10년이 지났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력사적인 교시와 그후 일련의 로작들에서 기술혁명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그를 구현하기 위한 명확한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고 전당과 전체 인민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지금으로부터 10년간, 이 시기는 우리 나라의 도시와 농촌에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완성되고 사회주의공업화의 기초를 닦기 위한 5개년인민경제계획이 빛나게 수행됨으로써 사회주의기초건설의 과업이 실현되였으며 사회주의의 보다 높은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결정적투쟁을 앞둔 력사적전환의 시기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바로 이러한 력사적시기에 확고한 주체사상과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과정에서 이룩하신 풍부한 경험에 기초하시여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혁명과업의 하나로서 기술혁명과업을 제시하시고 사회주의하에서 기술혁명의 본질과 필연성, 그 수행을 위한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기술혁명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교시는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으며 우리 인민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하고 보다 넉넉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하기 위한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는 강령적지침으로 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과 인민이 언제나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위력한 리론실천적무기로 된다.

지난 기간 우리 인민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기술혁명의 길을 따라 힘차게 나아감으로써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현대적기술로 장비할수 있었으며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전진과 혁신을 이룩할수 있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실천적경험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기술혁명에 관한 사상과 방침의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을 남김없이 확증해주고있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과 전체 근로자들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기술혁명에 관한 사상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그를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당 제5차대회전으로 7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를 무조건 점령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계속 혁명적대고조를 견지하여야 한다.

*　　*

우리 당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기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데 대하여》에서 기술혁명을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 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의 하나로 규정하시고 그 본질과 필연성을 과학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기술혁명, 이것은 압박과 착취에서 해방된 우리 인민을 고되고 힘겨운 로동에서 해방하여 일은 헐하게 하면서 더 많은 재부를 생산할수 있게 하며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넉넉하고 문명하게 만드는 중요한 혁명입니다. 주권을 잡고 새 사회를 건설하고있는 우리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반드시 해결

해야 할 위대한 사업이며 숭고한 혁명과업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544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기술혁명은 압박과 착취에서 해방된 우리 인민을 고되고 힘겨운 로동에서 해방하여 일은 헐하게 하면서 더 많은 재부를 생산할수 있게 하며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넉넉하고 문명하게 만드는 중요한 혁명이다. 낡은 기술이 새 기술로 바뀌여지고 새 기술이 보다 더 새로운 기술로 바뀌여지며 손로동을 기계화하고 기계화가 반자동화로 발전하며 반자동화가 자동화로 끊임없이 발전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과정이다. 기술혁명은 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이 합법칙적과정을 촉진하는것으로서 한편으로는 고되고 힘든 로동을 헐한 로동으로 전화시키는 과정이며 다른 편으로는 단위시간내에 더 많은 물질적부를 창조하여 나가는 과정이다. 이것은 기술혁명이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수공업적기술을 없애고 생산공정에 현대적기술을 도입함으로써 근로자들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하고 그들의 생활을 더욱 유족하고 문명하게 만드는데 그 본질이 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기술혁명이 새 사회 건설을 위하여 공산주의자들이 반드시 하여야 할 위대하고 숭고한 혁명과업이라고 하신 김일성동지의 사상은 기술혁명의 필연성을 밝혀준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사상이다.

기술혁명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가는 길에서 물질적요새를 점령하며 사상적요새의 점령을 다그쳐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할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이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사상, 문화 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고 그들의 로력적열의를 높이는것과 함께 기술혁명을 추진시킴으로써 사회주의법칙의 요구에 따라 근로자들의 복리를 전면적으로 높일수 있는 강력한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쌓아야 한다.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축성에서 근본문제로 나서는것은 기술혁명이다. 그것은 기술혁명이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쌓는데서 그 기초로 되는, 사회주의공업화와 물질기술적토대의 내용을 이루는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기본방도로 되기때문이다.

기술혁명의 추진은 현대적기술에 기초하여 강력한 중공업의 창설을 보장하고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을 최신기술로 장비함으로써 사회주의공업화를 다그칠수 있게 하며 인민경제의 다방면적발전을 보장하고 생산의 기술적토대를 강화하며 자체의 튼튼한 원료기지를 쌓는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게 한다. 그리하여 기술혁명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로동생산능률을 부단히 높이고 생산을 끊임없이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킬수 있게 하며 경제건설과 국방건설 및 인민생활에 소요되는 중공업 및 경공업 제품들과 농업생산물들을 국내생산으로 더욱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게 한다.

사회주의하에서 기술혁명은 또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공산주의건설의 근본조건의 하나인 사회주의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의 수준에까지 끌어올리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농촌에서 기술혁명은 농민들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하고 농업생산력을 고도로 발전시켜 농민들도 로동자들과 같이 잘살수 있게 만든다. 그것은 또한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함으로써 농업에 대한 지도관리를 선진적인 공업의 관리운영수준에로 끌어올릴수 있게 하며 협동적소유의 전인민적소유에로의 점차적전환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준다.

기술혁명은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며 그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을 촉진하는데서도 중요한 작용을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람들의 사상의식은 사회생활의 물질적조건에 의하여 규정된다. 그러므로 근로자들의 생산활동이 현대

적기술에 기초하여 진행되고 사회생활의 물질적조건이 개선되여나가며 사상혁명이 진행되는데 따라 그들속에 남아있는 소극성과 보수주의, 기술신비주의, 개인리기주의, 사대주의와 교조주의 등 낡은 사상 잔재와 낡은 생활유습은 더 빨리 없어지게 되며 근로자들은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깊이 인식하고 생산과 로동에서 창조적적극성과 지혜를 더욱 높이 발휘하게 된다.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하에서의 기술혁명의 필연성을 밝히시면서 그것이 우리 나라와 같이 과거 뒤떨어졌던 나라들에서 특별히 중요한 혁명과업으로 된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만일 우리 나라가 자본주의적으로 발전된 나라였다고 하면 사회주의건설에서 기술혁명이 큰 문제로 나서지 않았을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와 같이 자본주의적발전단계를 제대로 거치지 못한 뒤떨어진 농업국가에서는 인민이 주권을 잡고 생산수단을 사회화한 다음에는 기술혁명이 매우 중요하고도 어려운 과업으로 나서게 됩니다.》(우와 같은 책, 544페지)

이미 오래전에 산업혁명이 수행되고 공업화가 실현된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과는 달리 우리 나라와 같이 오랜 봉건통치와 식민지략탈정책으로 말미암아 기술경제적으로 매우 뒤떨어졌던 나라들에서 기술혁명문제는 매우 중요하고도 어려운 과업으로 제기된다.

지난날 악독한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나라에서 값싼 로동력을 착취하여 높은 리윤을 얻어내는데만 몰두하였다. 놈들은 우리 나라에서 현대적기계기술을 발전시키지 않았으며 공장과 제조소, 광산할것없이 어데서나 우리 인민을 락후한 생산도구에 얽매여놓고 소나 말과 같이 혹사하였다. 이러한 우리 나라 조건에서 기술혁명은 나라의 기술경제적락후성을 없애고 공업화를 실현하며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는데서 매우 중대하고 어려운 문제로 나서지 않을수 없었다. 오직 기술혁명을 하여야만 력사적으로 이루어진 기술경제적락후성과 경제의 식민지적편파성을 없애고 선진기술에 의거하여 나라의 경제를 빨리 발전시킬수 있었으며 지난날 착취와 빈궁에 시달리던 우리 인민들의 생활을 하루빨리 넉넉하고 문명하게 만들수 있었다.

더우기 기술혁명은 기술적개조에 앞서 경리형태의 개조를 실현한 우리 나라 조건에서 매우 절박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기술혁명을 하여야만 이미 수립된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고 그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양시킬수 있다.

이 모든것은 기술혁명이 착취계급을 때려부시고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한 다음 공산주의자들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며 특히 과거 뒤떨어졌던 나라들에서 매우 절박한 문제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 *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기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데 대하여》에서 확고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기술혁명수행의 원칙적인 방향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으며 그 빛나는 실현에로 우리 당과 인민을 곧바로 이끄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경제의 사회주의적개조를 기술적개조에 앞세워 실현케 하심으로써 기술혁명을 힘있게 추진시킬수 있는 유리한 사회경제적조건을 마련하여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사회발전의 성숙된 요구에 따라 기술의 개조에 앞서 경제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수행하였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옳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였기때문에 기술의 비약적발전을 위한 길이 활짝 열렸으며 사회주의제도에 의거하여 기술혁명을 전면적으로 촉진시킬수 있게 되였습니다.》(우와 같은 책, 546페지)

경제의 사회주의적개조를 기술의 개조에 앞세우고 그에 의거하여 기술혁명을 전면적으로 추진시킬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방침은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호상관계, 혁명력량의 준비정도에 대한 과

학적분석에 기초한 독창적인" 방침이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생활이 낡은 생산관계의 개조를 절실히 요구하며 그것을 맡아할만한 혁명력량이 준비되였을 때에는 경제의 사회주의적개조를 기술의 개조에 앞세워야 하며 그렇게 하여야만 생산력의 발전 특히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놓을수 있다.

사회주의적생산관계가 확립되면 기술발전을 저애하는 사회적세력은 없어지게 되며 근로자들은 과학과 기술의 주인으로서 기술발전에 깊은 리해관계를 가지고 자기의 모든 열성과 창의창발성을 적극 발휘하게 된다. 이것은 사회주의하에서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는 결정적담보이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소유의 확립은 또한 모든 설비와 자원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하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을 계획적으로 발전시킬수 있게 한다. 특히 그것은 농촌에서 개인경리의 제한성을 극복하고 국가의 전면적인 지원과 집단경리의 강력한 토대에 기초하여 기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이 김일성동지께서 처음으로 제시하신 기술적개조에 앞서 낡은 경제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할데 대한 방침은 사회주의경제건설과 기술혁명을 가장 빠른 길로 이끄는 주체적이며 과학적인 방침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로작에서 또한 기술혁명수행의 단계를 과학적으로 규정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촌경리를 협동화하는데서도 처음에는 몇개 부락, 몇개 군에서 경험적으로 해보고 전면적협동화의 단계에 들어섰던것처럼 기술혁명에서도 지금까지 여러가지 시험을 해보았고 많은 경험을 쌓은것만큼 이제는 전면적기술혁신의 단계에 들어설수 있게 되였습니다.》(우와 같은 책, 549페지)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에는 기술혁명이 경험적단계와 전면적실현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독창적인 사상이 천명되여 있다. 기술혁명의 순차적단계를 밟는것은 지난 시기 뒤떨어진 식민지농업국가였던 우리 나라에서 기술혁명과업을 력사적으로 짧은 기간안에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하는 옳은 방도이다.

우리 나라에서 전후 인민경제복구발전 3개년계획을 끝내고 기술적개건기에 들어선 첫시기부터 기술혁명을 전면적으로 밀고나갈수는 없었다. 아직 그를 감당할수 있으리만큼 물질기술적토대와 경험을 쌓지 못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현실적조건에 맞게 5개년계획기간을 사회주의공업화의 기초축성단계, 기술적개건의 첫단계로, 7개년계획기간을 전면적기술혁명의 단계로 규정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기술혁명수행의 단계를 명확히 설정하여주심과 동시에 힘들고 품이 많이 드는 공정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공정을 새로운 기술로 장비하며 기술을 낮은 단계로부터 높은 단계에로, 간단한것으로부터 복잡한것으로, 부분적인것으로부터 종합적인것으로 점차 발전시키는 등 기술혁신에서 지켜야 할 원칙적인 방도들을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기술혁명수행을 두단계에 걸쳐 진행할데 대한 방침은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과 기술발전의 전망적요구에 완전히 부합되는 옳은 방침이였다. 그것은 무엇보다먼저 기술개건의 첫단계에서 공업화의 기초를 닦음으로써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에 의거하여 인민경제의 기술적개건을 점차적으로 실현하며 그 경제적효과성을 최대한으로 높일수 있게 하였다. 또한 기술발전의 모든 물질기술적가능성과 이미 쌓은 풍부한 경험을 최대한으로 리용하여 기술혁명을 빠른 속도로 밀고나갈수 있게 하였으며 전면적기술혁명과업을 우리자체의 주체적력량에 의하여 수행할수 있는 귀중한 밑천을 마련할수 있게 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기술혁명의 수행에 군중의 지혜와 창발성을 동원할데 대한 사상은 기술혁명에 관한 그이의 사상에서 매우 중요

한 자리를 차지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면적기술혁명은 전당과 전체 인민의 힘을 동원하여 모든 애로와 난관을 이겨내야만 실현할수 있는 복잡하고 어려운 사업입니다. …기술을 전면적으로 개조하려면 사람들의 대중적지혜와 창발성이 요구됩니다.》(우와 같은 책, 549페지)

근로대중은 력사의 창조자이며 사람은 생산의 가장 능동적이고 결정적인 요소이다. 기술도 사람에 의하여 발전되며 기계도 사람이 만들며 그것을 움직이는것도 사람이다. 그러므로 기술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는 거대한 창조적 사업인 기술혁명의 어렵고 복잡한 과업은 반드시 근로대중의 힘과 지혜에 철저히 의거하여야만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기술발전에서 대중의 지혜와 창발성을 동원하는것이 중요하게 나서는것은 더우기 우리 나라에서 기술혁명이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 걸쳐, 그것도 짧은 기간에 수행되여야 한다는 사정과 관련되여있다. 우리는 중공업과 경공업, 농촌경리, 지방공업, 건설, 운수, 수산업, 림업 등 모든 경제분야에서 기술을 전면적으로 개조해야 하며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오랜 시일이 걸린 일을 불과 몇해동안에 해야 한다. 이 어렵고 복잡한 과업은 대중에 의거하여 그들의 혁명적열의를 불러일으키고 대중의 지혜를 모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혁명적방법, 대중을 발동시키는 방법으로써만 훌륭히 수행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기술혁명에서 대중의 창조적적극성을 옳게 동원하기 위하여서는 기술에 대한 신비주의와 과학을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하는 폐단을 다같이 경계하면서 로동자, 기술자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며 기관본위주의를 철저히 없애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기술혁신운동에 대중의 창조적적극성을 동원하는데서 중요한것은 기술에 대한 신비주의를 철저히 없애는 문제입니다.》(우와 같은 책, 550페지)

《로동자들과 기술자들이 서로 돕고 서로 배우며 경험과 과학이 진정으로 결합되여야만 기술혁명이 성과적으로 추진될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551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먼저 소극성과 보수주의, 특히 기술에 대한 신비주의를 뿌리뽑아야 한다. 기술에 대한 신비주의는 대중의 창조적적극성을 억제하는 중요한 장애물이다. 이것을 없애야만 기술혁신에서 대중의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를 높이 발양시킬수 있다.

이와 함께 과학을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없애야 한다. 현대과학을 홀시하는것도 신비주의와 마찬가지로 기술의 발전을 가로막는다. 기계자체가 과학이 발전한 결과 나온것이며 과학을 떠나서는 기술혁명이란 생각조차 할수 없다. 기술혁명이란 곧 현대과학의 성과를 생산에 받아들이고 보급하는 행정이다.

기술혁신운동에서 대중의 지혜와 창조력을 발양시키기 위하여 중요한것은 로동자들과 기술자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는것이다. 로동자들과 기술자들의 협조를 강화하는것은 경험과 과학의 진정한 결합을 확고히 보장하며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추동하는 중요한 담보이다. 신비주의를 반대한다는 구실밑에 로동자들이 과학의 도움을 받지 않으려는것도 잘못이며 반대로 기술자들이 로동자들의 경험에서 새것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것도 잘못이다. 로동자, 농민, 과학자, 기술자들이 재능과 힘을 하나로 합쳐야 기적을 이룩할수 있으며 기술혁명이 참다운 열매를 맺을수 있다.

기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기관본위주의를 없애야 한다.

우리 인민경제는 모든 부문들이 서로 긴밀히 련결된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고 있다. 그렇기때문에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기업소들이 전국가적립장에서 서로 협조하고 지원하여야만 통일체로서의 인민경제가 빨리 발전해나갈수 있으며 온갖 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리용

하여 기술발전을 더욱 촉진시킬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기술혁명수행에 군중의 힘과 지혜를 동원할데 대한 방침은 실로 혁명과 건설에서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한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의 창조적구현이며 기술혁명을 가장 빨리 그리고 훌륭히 수행할수 있게 하는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방침이다.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로작에서 기술혁명의 성과적수행을 위하여 기계제작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중공업을 더욱 급속히 발전시키며 기술수준이 비교적 낮은 농촌경리와 지방공업에서 기계화를 적극 추진시킬데 대한 문제 등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중요한 원칙적문제들에 대한 명확한 해결방도를 가르쳐주시였다.

중공업, 특히 기계제작공업의 발전은 기술혁명의 기초이다. 기계제작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강력한 중공업을 창설하지 않고서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현대적기술로 장비할수 없으며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없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중공업부문에서 모든 부문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며 제각기 만들기 힘든 기자재들을 통일적으로 생산공급하며 특히 기계제작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주물생산과 부속품생산의 전문화를 발전시키며 프레스방법을 널리 받아들이고 설계사업을 전문화하도록 하시였다. 이와 함께 석탄가스화의 도입을 다그치며 화학공업에 힘을 넣어 경공업의 원료기지를 튼튼히 꾸리며 전자관계통의 공업을 발전시킬것을 강조하시였다.

중공업부문앞에 제시된 이 모든 대책들은 우리 나라 기술혁명을 자체의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에 의거하여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게 한 믿음직한 담보로 되였으며 기술개건의 첫시기 나라의 공업화와 기술혁명에서 당면하게 걸린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수 있게 한 획기적인 조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농촌경리의 기계화를 다그치기 위하여 각종 뜨락또르와 농기계 생산에 힘을 넣어 평야지대의 기계화와 함께 산간지대의 기계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며 지방공업의 기계화를 다그쳐 그의 기술적장비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도록 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로작에서 전면적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하여 기술인재양성과 근로자들의 기술문화수준을 기술혁명의 빠른 속도에 따라세울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가는 곳마다에 새로운 기술이 절실히 요구되며 현대적기술을 다룰줄 아는 인재가 얼마든지 요구됩니다.…

기술인재양성사업을 나라의 생산력발전과 기술혁명의 빠른 속도에 따라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당이 여기에 주목을 돌리고 모든 조건과 가능성을 백방으로 리용하는 문제가 중요합니다.>(우와 같은 책, 567페지)

전당적, 전국가적 관심밑에 모든 조건과 가능성을 리용하여 자체의 민족기술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리는것은 기술혁명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모든 힘을 집중하여 기술인재양성사업을 강화하고 그를 기술발전에 확고히 앞세워야만 자체의 주체적기술력량에 의거하여 기술혁명을 주동적으로 밀고나갈수 있다.

기술인재양성문제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사상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교육과 생산로동, 리론과 실천을 밀접히 결합시키며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형태를 널리 발전시킴으로써 생산과 건설의 실천속에서 기술간부를 많이 키우는것이다.

이것은 과거 과학기술발전에서 뒤떨어져있던 나라들에서 기술혁신과 기술인재양성사업을 다같이 추진시킬수 있게 하는 혁명적인 방침이다.

우리는 가능한 모든 형태와 방법을 다 적용하고 온갖 예비를 남김없이 동원하여 기술인재양성사업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그래야 기계기술자, 전기기술자, 농산기술자, 축산기술자 등 기술인재에 대한 인민경제적수요를 보장하면서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릴수 있다.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기술혁명에 관한 사상은 기술혁명을 짧은 기간에 수행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는 가장 옳바른 길을 밝혀준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사상이다.

우리 당과 인민은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기술혁명의 길을 따라 확고히 전진함으로써 이 분야에서 실로 거대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한 나라의 기술발전력사에서 10년이라는 기간은 결코 긴 기간이 아니다. 우리는 이 기간에 력사적으로 넘겨받았던 경제의 기술적락후성을 완전히 없애고 우리 인민경제를 위력한 현대적기술로 튼튼히 장비하였다.

지난날 기술을 발전시킬수 있는 아무러한 로대도 가지고있지 못하였던 우리나라에 오늘은 인민경제를 현대적기술에 의거하여 마음대로 발전시킬수 있는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가 마련되였다.

기술발전의 기초인 기계제작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강력한 중공업이 창설되여 자체의 물질기술적수단으로 기술혁명을 추진시키고있다.

강력한 기계제작공업에 기초하여 전력, 야금, 화학 공업 등 기간적인 중공업부문들이 튼튼히 꾸려지고 나라의 경제적자립성이 훨씬 더 공고화되였으며 경공업도 현대적기술로 장비되였다.

지난날 원시적인 농기구와 중세기적인 생산방법이 지배하던 농촌경리부문에서도 기술혁명과업들이 빛나게 실현되였으며 그 물질기술적토대가 비할바없이 강화되였다.

농촌기술혁명의 첫 공정인 수리화가 2~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기본적으로 완성되여 어떤 큰물과 가뭄의 피해도 이겨내고 높고 안전한 수확을 낼수 있게 되였다. 농촌경리의 기계화도 힘있게 추진되여 뜨락또르를 비롯한 현대적농기계들이 대량공급되였으며 정보당 뜨락또르대수에서 우리 나라는 이미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나라의 하나로 되였다. 이리하여 농민들의 힘들고 품이 많이 드는 일을 오늘은 기계가 대신하고있다.

나라의 전기화, 화학화에서도 거대한 전진이 이룩되였다. 자체의 강력한 현대적동력기지가 창설되여 전력에 대한 인민경제적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고있다. 지난날 전기불이라고는 구경조차 할수 없었던 모든 농촌리에 전기가 다 들어가 농민들의 문화수준이 훨씬 높아졌으며 한자리에서 진행되는 거의 모든 작업들이 전기동력에 의해 수행되고있다. 화학화가 힘있게 추진됨으로써 공업원료의 튼튼한 기지가 마련되고 화학제품생산이 급격히 늘어났다. 농촌에는 여러가지 화학비료와 농약들이 대량 공급되여 농작물의 단위당수확고가 높아지고 농민들의 힘든 로동이 헐한 로동으로 전환되였다.

기술혁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체의 민족기술간부의 대부대가 튼튼히 꾸려졌다. 지금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우리의 힘과 노력에 의하여 현대적 공장, 기업소들이 훌륭히 건설되여 관리운영되고있다.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도 빨리 높아져 현대적기계수단들을 능숙하게 다루고있으며 새로운 창안과 발기로 설비들을 부단히 갱신해나가고 있다.

나라의 공업화와 기술혁명이 성과적으로 추진된 결과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는 더욱 튼튼히 축성되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 인민생활에 필요한 모든 제품을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생산보장하고 있으며 생산은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장성하고있다.

우리가 달성한 이 자랑찬 성과들은 기술혁명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 방침의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을 뚜렷이 확증하여준다.

* *

혁명의 탁월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기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데 대하여》를 비롯한 강령적로작들에서 전면적기술혁명에 대한 완벽한 해명을 주심으로써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며 기술혁명을 수행하

는데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위력한 리론실천적무기를 마련하여주시였다.

기술혁명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사상은 우리 당과 인민이 과거사회로부터 넘겨받은 경제의 세기적락후성을 털어버리고 가장 짧은 기간에 공업화와 기술혁명의 과업을 실현함으로써 나라의 부강발전과 민족적번영을 이룩할수 있게 한 강령적지침으로, 휘황한 등대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기술혁명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쌓는데서 제기되는 원칙적문제들과 구체적방도들을 새로운 력사적조건에 맞게 전면적으로 밝힌것으로 하여 맑스-레닌주의보물고를 풍부화하는데 탁월한 공헌으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나라들, 더우기 뒤떨어진 경제와 기술을 넘겨받은 나라들에 있어서 기술혁명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며 기술혁명과업들을 어떤 원칙과 방법으로 해결할것인가에 대하여 과학적인 해명을 주심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키시였다.

기술혁명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사상은 기술혁명을 사회주의하에서 계속혁명의 중심과업으로서 그를 사상혁명, 문화혁명과의 긴밀한 련관속에서 힘있게 추진시킴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두 요새,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다같이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는 명확한 방도를 밝혀준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사상이다.

실로 기술혁명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사상은 나라의 경제기술적락후성을 없애고 사회주의제도에 상응하게 생산력과 기술을 발전시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함에 있어서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이미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기술혁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현대적기술로 더욱 튼튼히 장비하여야 할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 있다.

전면적기술혁명을 힘있게 추진시키는 것은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앞당겨 우리 인민들이 하루빨리 더욱 행복하고 유족한 생활을 누리게 하시려는 어버이수령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는 숭고하고 보람찬 혁명사업이다.

당의 기술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이다.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할 때만이 우리는 그와 배치되는 소극성과 보수주의, 기술신비주의, 사대주의와 교조주의 등 낡은 사상잔재를 극복하고 어렵고 복잡한 기술혁명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기술혁명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실현하는데서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혁명사업이다. 우리는 혁명과 건설의 요구에 맞게 기술혁명을 더욱더 강력히 벌리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기술혁명과업들을 훌륭히 수행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새로운 기술분야를 개척하기 위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며 특히 기계공학, 전자공학을 발전시키는데 더욱 커다란 힘을 넣어야 한다. 이리하여 기술혁명을 한층 더 높은 단계에서 힘차게 벌려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기술혁명에 관한 사상과 리론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그를 구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계속혁신, 계속전진함으로써 이 영예로운 과업을 빛나게 수행하여야 할것이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을 심화발전시켜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더욱 촉진하자

심 재 성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시며 위대한 천리마운동의 창시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제1차전국천리마작업반운동선구자대회에서 천리마작업반운동의 본질과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신 강령적교시를 하신 때로부터 10년이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연설에서 천리마작업반운동의 본질과 의의, 거대한 생활력의 근원을 과학리론적으로 심오히 밝혀주시였으며 이 운동을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더 광범히, 더욱 전면적으로 벌릴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기초가 축성되고 7개년계획의 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던 력사적전환의 시기, 천리마운동이 급속히 심화발전되여 사회주의건설을 류례없이 빨리 진진시키던 혁명적 앙양의 시기에 소집된 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강령적교시는 천리마작업반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한 획기적계기를 열어놓았으며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전진운동을 더욱 힘있게 추동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강령적교시를 관철하는 투쟁을 통하여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과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우리나라 수백만 근로자들의 대중적운동으로 전환되였으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대고조를 더욱 앙양시키는 위대한 혁명운동으로 되였다.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그후 또다시 제2차전국천리마작업반운동선구자대회를 마련하시고 천리마작업반운동발전의 력사적로정을 총화하시면서 이 운동의 혁명적본질과 위대한 생활력을 다시금 과학리론적으로 심오히 밝히시였으며 이 운동을 혁명과 건설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여주시였다. 특히 수령께서 밝혀주신 천리마작업반운동의 세가지 중심과업인 사람과의 사업, 설비, 자재와의 사업, 책과의 사업을 잘할데 대한 강령적교시는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키며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추동함에 있어서 가장 정확한 지도적지침이며 강력한 리론실천적무기이다. 또한 그것은 력사의 창조자인 인민대중에 의거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객관적요구인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전면적으로 다그칠수 있게 하는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방도를 천재적으로 밝혀주신것으로서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력사적사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거대한 고전적의의를 가진다.

오늘 우리앞에는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켜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힘있게 다그치며 혁명적대고조를 계속 견지함으로써 당 제5차대회전으로 7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무조건 점령해야 할 전투적과업이 나서고 있다.

우리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전국천리마작업반운동선구자대회들에서 주신 강령적교시들을 깊이 연구하여 그것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고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천리마의 대진군을 더욱 다그쳐 우리앞에 나선 투쟁과업을 빛나게 완수하고 영광스러운 우리 당 제5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로 맞이해야 한다.

1

천재적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친히 창조하시고 직접 령도하시는 천리마운동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운동으로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강력히 추진시켜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다같이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게 하는 위대한 혁명운동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들의 사상의식수준과 생산열의를 끊임없이 높여 계속 전진하고 계속 혁신함으로써 더 많은 물질적 및 문화적 재부를 창조하여나가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이며 따라서 천리마운동은 이 요구를 옳게 반영한것입니다.》(《직업동맹사업에 대하여》, 440~441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사람들을 온갖 낡은 사상의 구속으로부터 해방하고 그들을 공산주의 사상과 도덕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하며 기술과 문화를 끊임없이 발전시켜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상응한 높은 생산력을 이룩하며 발전된 문화를 건설해야 한다. 이것은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서 근본적인 변혁을 일으키게 하는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수행할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객관적요구이며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한이후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 앞에 나서는 계속혁명의 중심과업이다.

그런데 이 세가지 혁명과업들은 서로 밀접히 련결되여있으며 서로 뗄수 없는 통일적과정을 이루고있다. 이 혁명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여기에 병행하여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강력히 추진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사람들의 사상의식수준과 생산열의를 끊임없이 높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물질적 및 문화적 재부를 성과적으로 창조해나갈수 있으며 따라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추진시킬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천리마운동,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이러한 요구를 정확히 구현하고 그 실현을 힘있게 추진시키는 위대한 혁명운동이다. 그것은 이 운동이 많은 사람들을 계속전진하고 계속혁신하는 사회주의건설의 적극분자로 만드는 공산주의교양운동이며 많은 사람들이 대중적영웅주의를 발양하여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게 하는 공산주의적전진운동이기때문이다.

천리마운동, 천리마작업반운동이 이와 같이 위대한 공산주의교양운동으로, 공산주의적전진운동으로 되는것은 이 운동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객관적요구인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통일적과정으로 추진시키면서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우는것을 원칙으로 하고있기때문이다.

우리 나라에서의 천리마운동,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사상혁명을 모든 사업에 앞세울데 대한 요구를 훌륭히 관철함으로써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자각성을 높이는데 기초하여 생산과 건설의 모든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해나가고있다. 특히 천리마작업반운동은 경제문화건설에서의 집단적혁신과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킨 대중적운동으로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의 모든 과업들을 통일적과정으로 훌륭히 풀어나가고있다.

천리마작업반들에서는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에 제1차적의의를 부여하고있으며 사람들을 교양개조하여 그의 정치적열의와 자각성을 발동시키는데서 생산과 건설에서의 집단적혁신의 결정적고리를 찾고있다. 또한 여기에서는 사람을 교양개조할데 대한 사업을 혁명과업과 밀접히 결합시킴으로써 인간개조와 생산장성의 요구를 다같이 훌륭히 해결하고있다.

실로 천리마운동은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힘있게 밀고나아가 경

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서 온갖 낡고 뒤떨어진것을 쓸어버리고 새롭고 공산주의적인것의 승리를 보장함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다같이 성과적으로 점령해나가는 일대 혁명운동이며 력사적운동이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이 사회주의건설의 객관적요구인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강력히 추진시킬수 있게 하는 커다란 힘은 무엇보다도 이 운동이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훌륭히 전환시키는데 있다.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은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령역에서 낡은 사회의 잔재를 철저히 쓸어버리고 근본적인 변혁을 이룩할것을 요구하는 어렵고 힘든 과업이다. 이러한 과업은 그 어떤 행정적방법으로나 몇몇 사람들의 힘만으로는 해결될수 없으며 오직 광범한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될 때에만 성과적으로 해결될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천리마작업반운동에서는 서로 돕고 이끌며 집단의 힘, 대중의 힘으로 다같이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의 과업들을 훌륭히 수행해나가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천리마작업반들에서는 전체 성원들이 공동으로 생각하고 공동으로 노력하며 집체적지혜와 집체적창발성을 발휘하여 생산과 기술의 발전에서 집단적혁신을 이룩하고있습니다.…

천리마작업반들에서는 전체 성원들이 기술문화수준을 높이며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하며 공산주의적도덕을 배양하기 위하여 집단적으로 배우고있으며 집단적으로 가르치고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114페지)

천리마작업반운동은 무엇보다도먼저 대중적교양의 훌륭한 형태로서 사상혁명의 어려운 과업을 대중적인 힘으로 훌륭히 풀어나가고있다.

우리의 천리마기수들은 자신을 끊임없이 혁명화하기 위해 노력하고있을뿐아니라 모두가 인간개조의 붉은 교양자로서 군중속에 들어가 수령의 교시와 당정책 관철에서 모범을 보이고있다. 그들은 어려운 일에 앞장서면서 한사람이 열사람, 열사람이 백사람을 교양하여 모든 초소, 모든 단위를 붉은 집단으로 만들데 대한 당의 방침을 훌륭히 실현해나가고있다. 특히 천리마작업반들에서는 사회주의제도하에서 가장 힘있는 군중교양방법인 긍정적모범에 의한 감화교양을 대중적운동으로 강력히 진행함으로써 긍정이 긍정을 낳고 모범이 모범을 낳는 공산주의적미풍이 높이 발양되고있으며 집단의 힘으로 짜고들어 뒤떨어진 사람들을 한사람도 빠짐없이 교양개조해나가고있다.

이리하여 천리마작업반운동을 통하여 사람들의 머리속에서 개인주의, 리기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잔재들이 성과적으로 극복되고 모두가 다 새로운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개조되고있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대중적인 힘으로 경제문화건설에서 집단적혁신을 일으키며 이 행정에서 기술혁명, 문화혁명의 과업도 성과있게 해결해나가고있다.

천리마작업반들에서는 언제나 전체 성원들이 공동으로 생각하고 공동으로 노력하여 기술혁신에서 걸린 문제들을 훌륭히 풀어나가며 집체적지혜와 집체적창발성을 발휘하여 생산공정의 기계화, 자동화를 위한 창의고안, 발명, 합리화를 성과있게 밀고나가고있다.

천리마작업반들에서는 또한 문화혁명의 가장 중요한 과업인 근로자들의 일반지식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서 대중자신의 노력과 집단적, 동지적 방조를 효과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 모두가 과학문화지식과 기술기능을 빨리 습득하여 유능한 사회주의건설자로 자라나고있다. 여기에서는 뒤떨어지고 비문화적인 생활인습을 반대하고 사회주의적 생활문화와 생산문화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도 대중적으로 벌리고있으며 모두가 군중문화활동에 참가하여 문학예술을 대중적지반우에서 성과적으로 발전시켜나가고있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이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강하게 밀고나갈수 있게 하는 또하나의 커다란 힘은 이 운동이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의 과업들을 생산활동, 실천투쟁을 통하여 훌륭히 수행해나가는데 있다.

실천투쟁행정에서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힘있게 다그치는 천리마작업반운동의 위력은 무엇보다도 먼저 이 운동이 생산현장을 거점으로 하여 집단로동속에서 사람들의 의식을 성과적으로 개조해나가는데서 나타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집단로동은 사람들을 교양하는 가장 훌륭한 학교이며 사람들의 의식을 개조하는 사상사업은 바로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실천투쟁을 거쳐서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182페지)

사람들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집단로동속에서 개인주의와 리기주의 등 낡은 사상잔재의 해독성을 똑똑히 깨닫고 그것을 뿌리빼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게 되며 공산주의 사상과 도덕의 본질을 더 깊이 깨달을수 있으며 실천과정을 통하여 그것을 더욱 공고하게 한다.

바로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집단로동행정에서 생산에서의 집단적혁신운동과 사람들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을 밀접히 결합시킴으로써 근로자들의 의식을 훌륭히 개조하여 그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공산주의화 과정을 힘있게 촉진할수 있게 한다.

우리의 천리마기수들과 근로자들은 특히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관철을 위한 투쟁을 통하여 수령의 교시와 당정책의 진수, 그 정당성을 더욱 깊이 깨달으며 그것을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기풍과 투쟁정신을 키워나감으로써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친위대, 결사대로 자라나고있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실천투쟁속에서 기술혁명의 과업도 성과적으로 수행하게 한다.

천리마작업반들에서는 기술혁명의 과업을 생산과 건설 현장에서 수행하며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실천행정에서 제기되는 절박한 문제들을 풀기 위하여 집단적으로 투쟁한다. 천리마작업반들에서는 생산자들과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며 실천을 통하여 체득한 생산자들의 경험을 과학과 기술에 능숙하게 결합시킴으로써 기술혁신을 빨리 실현할수 있게 한다. 천리마기수들은 생산과 건설의 실천을 거쳐서 기술을 더 빨리, 더 정확히게 배우며 기술기능수준을 급속히 높이면서 기술혁명을 힘있게 추진시키고있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생산과 건설을 위한 실천투쟁과 밀접히 결부시켜 문화혁명의 과업도 훌륭히 수행하게 함으로써 사상, 기술, 혁명의 성과적수행을 실속있게 안받침해주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생산에서 떨어지지 않고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를 발전시켜 근로자들의 전반적기술문화수준을 빨리 높일데 대한 독창적인 교육방침은 천리마작업반들에서 가장 훌륭히 구현되여 그 빛나는 열매를 맺고있다. 우리의 천리마기수들은 공장대학을 비롯한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되여 모두가 선진과학과 기술을 열심히 배워 기술문화수준을 급속히 높이고있으며 학습과 생산실천을 훌륭히 결합시키면서 실지 써먹을수 있는 산 지식을 습득하고있다.

천리마작업반들에서는 또한 생산실천을 반영한 생동한 문학예술을 발전시킴으로써 참다운 사회주의문화건설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참으로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의 과업을 통일적과정으로 틀어쥐고 그것을 대중자신의 힘으로 실천투쟁의 불길속에서 성과있게 풀어나가는 힘있는 수단이다.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천재적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의 힘있는 수단인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마련하여주심으로써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무엇에 의거하여 어떤 방도로 건설할것인가 하는 근본문제에 원칙적이고 과학적인 해답을 주시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발전에 빛나는 공헌을 하시였다.

2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천리마작업반운동은 그이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지도 밑에서 사상, 기술, 문화 혁명수행의 강력한 수단으로 끊임없이 심화발전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하에 천리마작업반운동은 공업과 농업분만아니라 교육, 문화, 보건, 상업류통 부문 그리고 가두인민반에 이르기까지 인민경제와 사회생활의 모든 령역을 포괄하는 전인민적운동으로 확대발전하였으며 사회주의건설의 적극분자, 새 힘의 대표자들의 대렬을 급속히 확대하여나가고있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방침에 따라 2중천리마작업반, 천리마직장, 천리마공장 칭호를 쟁취하기 위한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함으로써 사상, 기술, 문화혁명수행의 힘있는 수단으로 끊임없이 심화발전되였으며 사회주의건설의 위대한 추동력으로 되였다.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 수행의 힘있는 수단으로서의 천리마작업반운동의 거대한 생활력은 우리 나라 혁명과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실천투쟁에서 충분히 나타났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천리마운동을 통하여 우리 인민의 모든 지혜와 열성과 창조력이 전면적으로 발양되고있으며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서 혁신이 일어나고있으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은 비상히 촉진되고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229페지)

천리마작업반운동이 확대발전되는 과정을 통하여 사람들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이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됨으로써 사상혁명의 어렵고 힘든 과업이 성과적으로 해결되고있으며 극소수 적대분자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을 한사람도 남김없이 교양개조하여 당과 수령의 주위에 굳게 묶어세울데 대한 우리 당의 군중교양방침이 훌륭히 관철되게 되였다. 천리마작업반운동발전과정에서 사람과의 사업이 강화되고 근로자들속에서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과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이 더욱 심화됨으로써 우리의 천리마기수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고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함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이 확고히 선 수령께 끝없이 충실한 친위대, 결사대로 훌륭히 준비되고있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을 통하여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며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이 심화됨으로써 천리마기수들과 근로자들속에서는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철저히 옹호관철하며 언제나 수령의 사상의지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수령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싸워나가는 혁명적기풍이 높이 발양되고있다. 또한 그들속에서는 개인의 리익보다 조직과 집단의 리익을 더 귀중히 여기고 서로 돕고 이끌면서 힘을 합쳐나가는 집단주의정신과 정치적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고결한 혁명정신이 높이 발휘되고있으며 수령께서 가리키시는 혁명의 길을 따라 몸바쳐 싸워나가는 혁명적생활기풍이 더욱 철저히 확립되고있다.

이리하여 오늘 우리 나라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에 기초하고 그이를 유일중심으로 하는 전당과 전체 인민의 확고부동한 정치사상적통일단결이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된 불패의 보루로 튼튼히 꾸려졌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은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여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킴으로써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을 강하게 추동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천리마운동의 커다란 정치경제적의의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것이 사회주의건설의 높은 속도를 보장하였다는데 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99페지)

천리마작업반운동은 대중을 집단적영웅주의와 집단적혁신에로 불러일으켜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보장하며 사회주의건설에서 혁명적대고조를 확고히 견지함으로써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독창적인 사회주의경제리론의 정당성을 실천적경험과 산현실로써 확증하였으며 기회주의경제리론에 결정적타격을 주었다.

천리마기수들과 천리마작업반운동참가자들은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으

로 가슴을 불태우면서 생산과 건설에서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여 계속전진, 계속혁신하고있으며 소극성, 보수주의, 신비주의 등 온갖 낡은것을 쓸어비리고 새 기록, 새 기준을 창조하면서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확고히 보장하고있다. 력사적인 당 제5차대회를 앞둔 오늘 우리의 천리마기수들과 근로자들은 새로운 천리마속도 《강선속도》로 질풍같이 내달리며 《청산리사람들의 일솜씨》로 더욱 줄기차게 투쟁하면서 7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당대회전으로 앞당기기 위한 마지막 돌격전을 치렬하게 벌리고있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전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다그쳐 사회주의경제건설뿐만아니라 과학문화의 발전도 힘있게 추동하고있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이 심화발전되는 과정을 통하여 근로자들속에서 정치, 문화, 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졌으며 광범한 근로대중이 과학기술발전에 인입되고 새 기술을 소유하기 위한 군중적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였다. 또한 이 운동을 통하여 근로자들속에서는 뒤떨어진 생활인습과 관습을 극복하고 사회주의사회에 상응한 새로운 생활문화를 세우기 위한 사업이 힘차게 벌어져 우리 나라는 보다 문명하고 살기 좋은 나라로 전변되였다.

천리마운동의 장엄한 진군속에서 나라의 방위력과 군사적위력이 또한 비상히 강화되였다. 이 운동을 통하여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시며 강철의 명장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위적인 혁명적군사로선이 철저히 관철됨으로써 일당백의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는 전인민적방위체계가 철벽으로 다져졌다.

이와 같이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여주신 천리마운동, 천리마작업반운동을 통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의 과업들이 훌륭히 실현되고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혁명위업이 성과적으로 추진되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혁명의 전국적승리가 더욱 앞당겨지고있다.

3

혁명과 건설을 위한 실천행정에서 그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이 확증된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켜 사회주의건설의 혁명적대고조를 계속 견지하는것은 오늘 천리마기수들과 근로자들 앞에 나선 가장 영예로운 임무이다.

우리는 아직도 조국통일의 혁명위업을 이룩하지 못하고있으며 더우기 오늘 미제의 새 전쟁 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의 정세는 극도로 긴장되여있다.

조성된 정세와 오늘 우리앞에 나선 혁명임무는 이미 거둔 성과에 자만하지 말고 모든 일을 더욱 정력적으로 밀고나가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새로운 천리마속도 《강선속도》로 질풍같이 내달릴것을 요구한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강선속도》로 더욱 줄기차게 내달려야만 당면한 7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를 빨리 점령할수 있으며, 혁명적대고조속에서 전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성과적으로 추진시킬수 있고 공화국북반부의 혁명기지를 반석같이 다져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수 있다.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천리마작업반운동을 계속 심화발전시키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오늘의 현실에 맞게 천리마작업반운동을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중심과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의 중심과업은 첫째로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는것이며, 둘째로 설비, 자재와의 사업을 잘하는것이며, 셋째로 책과의 사업을 잘하는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사람과의 사업을 하라는것은 사상혁명을 하라는것이며 설비, 자재와의 사업을 하라는것은 기술혁명을 하라는것이며 책과의 사업을 하라는것은 곧 문화혁명을 하라는것입니다.》(《직업동맹사업에 대하여》, 447페지)

김일성동지의 이 가르치심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객관적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것으로서 우리의 모든

천리마기수들과 근로자들이 혁명과 건설을 추진시키는데서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다.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반적과정을 힘있게 촉진할뿐아니라 새로운 천리마속도 《강선속도》로 내달리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된다.

천리마작업반들에서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는것은 혁명적대고조를 더욱 앙양시키는데서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는 천리마기수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정치적 임무를 똑똑히 알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는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천리마속도 《강선속도》로 계속 내달리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천리마기수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기 위하여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로작과 교시, 특히 해당 단위에 주신 현지교시를 심오히 연구파악하여 그것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어야 한다. 이와 함께 혁명전통학습을 강화하고 정치적 조직생활에 성실히 참가하여 온갖 반동적인 사상, 낡고 침체한것과 적극 투쟁하며 혁명적대고조속에서 자신의 혁명화를 더욱 촉진해야 한다.

설비, 자재와의 사업, 기술혁명을 잘하는것 역시 《강선속도》로 내달며 혁명적대고조를 계속 견지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의 하나이다.

설비, 자재와의 사업에서 우선 중요한것은 매개 근로자들이 자기의 기술적 임무를 똑똑히 알도록 하는것이다. 천리마기수들과 근로자들이 자기의 기술적임무를 정확히 인식할 때 그들은 설비를 더욱 아끼고 사랑하게 되며 그에 정통하고 그를 보다 갱신하기 위하여, 있는 로력과 자재로써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게 된다. 우리는 천리마기수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설비, 자재와의 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기술혁명을 강력히 추진시킴으로써 그들이 생산공정을 모두 기계화, 자동화하며 어렵고 힘든 로동을 더욱 쉽고 능률적인것으로 만들어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도록 해야 한다.

혁명적대고조를 계속 견지하기 위해서는 또한 책과의 사업을 잘하여 근로자들의 정치, 문화, 기술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그들은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할수 있으며 자기의 정치적임무와 기술적임무를 원만히 수행해나갈수 있다.

이와 함께 우리는 근로자들에 대한 후방공급사업을 잘하여 그들이 7개년계획의 마지막고지점령을 위한 천리마대진군에서 자기의 정력을 다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이와 같이 사람과의 사업, 설비, 자재와의 사업, 책과의 사업을 잘하여 모든 근로자들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지식있고 문명한 새로운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하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게 하여야 한다.

천리마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키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당조직의 지도하에 근로단체조직들과 모든 일군들이 이 운동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더욱 심화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며 전체 근로자들을 천리마의 대고조에로 적극 불러일으키는것이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당의 총로선인 천리마운동이 심화발전된것으로서 전체 인민대중이 참가하는 일대 혁명운동이다. 따라서 이 운동은 어느 한개 조직이나 몇몇 일군들의 힘만으로는 성과있게 발전시킬수 없으며 모든 부문의 일군들이 이 운동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릴 때에만 참으로 전인민적인 일대 혁명운동으로 전환될수 있다.

우리는 천리마기수들의 창발적발기를 적극 지지하며 대안의 사업체계와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사람과의 사업을 강

화하여 대중의 지혜와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키는 등 천리마작업반운동발전을 위한 모든 조건을 적극 보장하여야 한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을 심화발전시키는데서 당조직의 지도하에 특히 직맹조직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은 매우 중요하다.

천리마작업반운동에 대한 지도는 당으로부터 직업동맹에 위임된 가장 중요한 임무이다.

각급 직맹조직들과 일군들은 천리마작업반운동을 자기 활동의 중심고리의 하나로 튼튼히 틀어쥐고 위원회적인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키며 이 운동의 중심과업을 더욱 철저히 관철해나가야 한다.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사람과의 사업, 사상혁명에 모를 박고 이 사업을 더욱 실속있게 함으로써 천리마기수들과 근로자들을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열렬한 혁명가로 키우는것이다.

각급 직맹조직들은 천리마기수들과 근로자들에게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의 진수와 그 위대성, 탁월한 령도의 현명성, 고매한 덕성을 깊이 체득시키며,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 혁명과 세계혁명·발전에 위대한 공헌을 하고계시는데 대하여 똑똑히 알려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사는 높은 긍지와 혁명적자부심을 간직하고 수령을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오직 수령의 혁명사상외에는 그 어떤 사상도 모르며 그이의 명령과 지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끝까지 관철해나가는 친위대, 결사대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함께 천리마기수들과 근로자들로하여금 온갖 계급적원쑤들과 착취제도를 미워하며 특히 미제국주의와 일본군국주의, 박정희괴뢰도당과 세계의 모든 반동파들을 극도로 증오하고 놈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몸바쳐 싸우며는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천리마기수들과 근로자들 속에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한 혁명적세계관을 확고히 세우기 위하여서는 사상교양사업을 깊이있고 실속있게 하는 동시에 그들이 혁명적조직생활에 적극 참가하여 비판을 통하여 사상투쟁을 벌리며 이 투쟁속에서 자신을 끊임없이 개조하고 혁명화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혁명적조직생활을 통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수령의 혁명사상, 우리 당의 유일사상과 배치되는 온갖 불건전하고 반동적인 사상과 견결히 투쟁하며 일을 성실하게 하지 않고 태공하는것, 국가재산을 알뜰히 거두지 않고 한푼이라도 침해하는것, 조직생활을 하지 않거나 혁명적질서와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는것 등 온갖 낡고 침체한것을 반대하여 날카롭게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작업반과 초급단체를 먼저 혁명화하며 나아가서 직장과 공장을 다 혁명화함으로써 전사회의 혁명화를 빨리 이룩해나가야 한다.

각급 직맹조직들과 일군들은 또한 이미 천리마칭호를 받은 작업반들과의 사업을 강화하여 천리마작업반대렬을 질적으로 일층 공고히 하며 천리마작업반운동대렬을 더욱 확대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다 천리마를 타게 함으로써 온 나라가 혁신과 앙양의 분위기로 들끓으며 천리마의 기세로 힘차게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각급 직맹조직들이 움직이는 조직, 산혁명조직으로 되는것이다. 그러므로 직맹조직들과 일군들은 우선 천리마작업반운동에 대한 지도체계를 확립하며 사무실적사업작풍을 철저히 극복하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요구를 자기 사업에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우리는 천리마운동에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이 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켜나감으로써 사상, 기술, 문화혁명을 강력히 추진시키고 새로운 천리마속도 《강선속도》로 질풍같이 달려 7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를 승리적으로 점령하며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와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앞으로 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지도리념으로 하는 통일혁명당의 결성은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이 이룩한 빛나는 승리

신 응 복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남조선에서 전투적이고도 탄력성있는 맑스-레닌주의당을 꾸리며 그 령도적역할을 높이는것은 혁명운동의 발전을 위한 절박한 요구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393~394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남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먼저 남조선현지에서 혁명운동을 지도할 맑스-레닌주의당을 건설하여야 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 당창건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하신 고귀한 경험에 기초하시여 남조선에서의 맑스-레닌주의당건설에 관한 가장 과학적이며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고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에게 혁명적당건설의 가장 옳바른 길을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당건설방침을 높이 받들고 남조선혁명가들은 전후에 원쑤들의 반악적채동과 중첩되는 온갖 난관을 극복하면서 박헌영간첩도당의 악독한 여독을 청산한 새로운 터전우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히 선 전투적이고 탄력성있는 맑스-레닌주의당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전개하여왔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남조선혁명가들이 전개한 줄기찬 투쟁에 의하여 남조선혁명운동은 전후시기에 와서 점차 새로운 발전의 길에 들어서게 되였으며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혁명적핵심들이 수많이 자라났고 당의 대중적지반이 튼튼히 꾸려짐으로써 남조선에서 맑스-레닌주의당건설의 확고한 토대가 구축되게 되였다.

남조선에서의 당건설사업에서 이룩된 이러한 성과에 기초하여 남조선혁명가들은 드디여 통일혁명당을 창건하고 그의 전투적강령과 선언을 세상에 공포하였다.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무한히 충직한 남조선혁명가들은 통일혁명당을 창건함으로써 수령께서 제시하신 남조선에서 맑스-레닌주의당을 건설할데 대한 강령적과업을 빛나게 실현하였다.

오늘 남북의 전체 인민들은 통일혁명당의 결성을, 무한한 기쁨과 감격으로 맞이하고있으며 그것은 국제적으로도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통일혁명당의 결성은 남조선에서 맑스-레닌주의당을 건설할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독창적인 방침의 빛나는 구현이며 수령의 령도하에 남조선에서 맑스-레닌주의당건설을 위하여 줄기차게 전개하여온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의 간고하고도 영광에 찬 투쟁의 고귀한 결실이다.

1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조선에서 혁명적인 맑스-레닌주의

당건설에 관한 독창적인 로선과 방침을 밝혀주시였다.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이 자체로 혁명적당을 건설하고 남조선혁명운동을 지도해나가도록 하는것이 남조선혁명승리의 결정적담보라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인민들이 반제반봉건투쟁을 성과적으로 진행하며 이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맑스-레닌주의를 지침으로 하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의 리익을 대표하는 혁명적당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정당이 없이는 인민대중에게 명확한 투쟁강령을 줄수 없으며 혁명군중을 굳게 묶어세울수 없으며 군중투쟁을 조직적으로 전개할수 없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141~142페지)

로동계급과 근로대중이 혁명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자기의 진정한 수령을 가져야 하며 수령의 사상을 실현하는 혁명적인 맑스-레닌주의당을 가져야 한다.

맑스-레닌주의당은 로동계급의 수령에 의하여 조직되고 지도되는 정치적조직으로서 수령의 혁명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대중의 선봉적, 조직적 부대이며 최고형태의 조직이다. 당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전체 인민대중을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을 수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며 수령의 혁명사상을 구현한 투쟁강령을 내세우고 인민대중에게 혁명의 뚜렷한 전망과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며 수령의 혁명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과학적인 전략전술을 세우고 혁명투쟁에로 인민대중을 조직동원한다.

그러므로 남조선의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대중이 미제국주의침략세력을 몰아내며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을 타도하고 자신의 자유와 해방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복잡하고 간고한 투쟁을 현지에서 지도할수 있는 강력한 맑스-레닌주의당을 가져야 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는 혁명적맑스-레닌주의당의 통일적령도가 없이는 남조선인민들이 혁명투쟁에서 결코 승리를 달성할수 없다는것을 남조선혁명운동의 력사적경험은 잘 보여주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혁명운동의 경험은 로동자, 농민, 진보적인테리들 속에 깊이 뿌리박은 맑스-레닌주의당의 통일적령도가 없이는 혁명력량의 장성도 혁명운동의 성과적발전도 기대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해방직후 남조선에서 인민대중의 투쟁은 비상히 앙양되였으나 진정한 혁명적핵심을 가진 당의 령도가 보장되지 못하였기때문에 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지 못하였으며 전후에도 여러차례 유리한 정세가 조성되였으나 혁명적당의 통일적지도가 없었기때문에 인민대중을 결정적투쟁에로 인도하지 못하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393페지)

8.15후 남조선의 정세는 매우 유리하였다. 그러나 남조선로동당은 그 지도부가 처음부터 박헌영간첩종파도당에게 장악되였고 진정한 공산주의적지도핵심이 없었기때문에 그것은 수령의 혁명사상을 실현하는 전투적인 혁명적맑스-레닌주의당으로 될수 없었으며 따라서 조성된 유리한 정세를 옳게 리용하여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지 못하였을뿐만아니라 당의 존재자체도 유지할수 없었다.

전후시기에도 1960년 4월인민봉기를 비롯하여 유리한 정세가 여러차례 조성되였으나 혁명적당이 튼튼히 꾸려지지 못하고 인민들의 혁명투쟁에 대한 통일적지도가 보장되지 못하였기때문에 유리한 정세를 주동적으로 틀어쥐고 혁명운동을 승리에로 이끌지 못하였다.

이러한 력사적경험과 오늘의 남조선정세로부터 출발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이 자체로 혁명적당을 조직하고 남조선혁명운동을 지도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원래 혁명사업이란 누가 도와줄것을 예상하고 해서는 안됩니다. 물론 북조선사람들이 남조선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하지마는 남조선사람들은 혁명을 자체의 힘으로 할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

지난날 조선의 공산주의자들도 그 어떤 다른 나라의 원조를 믿고 혁명투쟁을 한것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 혁명을 해줄수 없습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자체의 힘으로 혁명을 해보려고 무장부대를 조직하여 일본놈들과 싸웠습니다. 이 투쟁과정에서 혁명대오를 부단히 확대하였으며 이것을 밑천으로 하여 해방후에는 당을 조직하고 자기 나라 혁명을 지도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남조선의 공산주의자들도 자체가 당도 조직하고 지도핵심도 꾸리고 자기의 힘으로 혁명을 이끌고 나가도록 하는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이 자체의 힘으로 맑스-레닌주의당을 조직하고 남조선혁명운동을 지도해나가도록 하는것은 남조선혁명운동발전의 합법칙적요구와 남조선에서의 당건설의 특성을 정확히 반영한 가장 과학적이며 독창적인 방침이다.

그것은 우선 조선혁명에서 남조선혁명이 가지는 특수성과 관련되여있으며 남조선인민이 주동이 되여 남조선혁명을 수행하게 하는 우리 당의 전략전술적방침과 관련되여있다.

우리 나라 혁명은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인한 국토량단으로 말미암아 남북조선에서 서로 다른 혁명발전단계를 걷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혁명발전의 이러한 특수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북반부에서는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남조선에서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할데 대한 로선을 제시하시였으며 이 두가지 혁명과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통일적인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할데 대한 탁월한 전략적방침을 내놓으시였다.

남조선혁명은 전국적조선혁명의 한 구성부분이면서 동시에 그것은 남조선사회자체의 모순에 의하여 산생되는 혁명으로서 남조선혁명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미제국주의자들과 지주, 예속자본가들의 압박과 착취를 직접적으로 받고있는 남조선인민들자신이다. 따라서 남조선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자면 남조선인민들자체가 주동이 되여야 하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그이의 유일적령도밑에 움직이는 맑스-레닌주의당을 자체로 조직하고 그 지도하에 혁명운동을 힘차게 벌려나가야 한다.

현실적으로 나라가 남북으로 분렬되고 남반부에서는 북반부와는 다른 혁명과업을 수행하고있는 조건에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옳게 지도하기 위하여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전략전술적방침을 남조선현지에서 철저히 구현하고 그를 관철할수 있는 맑스-레닌주의당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여야 남조선혁명의 주인인 남조선인민을 혁명투쟁에 주동적으로 적극 조직동원할수 있다.

남조선에서의 맑스-레닌주의당건설에 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은 항일무장투쟁시기에 그이께서 이룩하신 당건설의 빛나는 전통을 남조선의 구체적현실에 맞게 발전시킨 독창적인 위대한 사상이며 남조선혁명승리의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는 유일하게 옳은 지도사상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을 남조선에서의 맑스-레닌주의당건설의 기본원칙으로 내세우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은 당의 조직, 사상, 리론적 기초를 더욱 공고발전시켜 로동계급의 선봉대로서의 역할과 그의 조직된 부대로서의 역할을 원만하게 하도록 하는것으로서 맑스-레닌주의당건설의 기본원칙

이며 사회주의혁명의 승리와 공산주의건설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남조선에서의 맑스-레닌주의당건설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운다는것은 당원들과 인민들을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이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며 그이의 유일적인 령도밑에 혁명투쟁을 전개하여 나아가도록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투쟁에 나서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40여년간 조선혁명을 오직 승리의 한길로 인도하여오시였으며 또 인도하고계신다.

실로 조선혁명의 발전로정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세련된 령도의 빛나는 로정이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이의 탁월한 령도를 떠나서는 우리 당과 조선혁명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남조선에서의 당건설과 남조선혁명에 대하여 생각조차 할수 없다.

그러므로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백전백승의 혁명사상으로 당원들을 무장시키고 그이의 유일적인 령도에 의하여 움직이도록 할 때만이 남조선의 맑스-레닌주의당은 수령의 혁명사상을 체현한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될수 있으며 남조선혁명은 종국적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오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만을 알고 일편단심 그이를 위하여 목숨바쳐 싸울 굳은 각오와 신념이 있는 사람이라야 단두대에 올라서도 굴하지 않고 혁명적지조를 지켜낼수 있으며 어려운 시련을 극복하면서 남조선에서 끝까지 혁명을 할수 있다.

전당과 전체 인민이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주위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단결하고 수령의 유일한 령도밑에 한사람같이 움직여나갈 때 비로소 혁명에서 확고한 승리를 달성할수 있다는것은 우리 인민의 영광스러운 혁명투쟁로정에서 확증된 확고한 진리이며 특히 우여곡절을 헤쳐온 남조선혁명운동의 력사가 보여주는 가장 심각한 교훈이다.

그러므로 남조선에서의 맑스-레닌주의당건설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은 지난날 남조선에서의 당건설과 혁명운동에 막대한 해독을 끼친 종파주의여독을 뿌리빼고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이룩하는 근본조건으로 된다.

유일사상체계확립문제는 결국 혁명적당으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는가 없는가, 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근본문제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을 창건하시고 그를 강화발전시키는 투쟁에서와 국제공산주의운동발전에서 얻어진 경험에 기초하여 당건설의 기본원칙으로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문제를 새롭게 밝히시였다.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이 원칙은 당건설과 당활동의 초석으로 되며 당이 자기 대렬을 꾸리는 사업에 있어서나 인민대중을 자기 주위에 묶어세워 혁명과 건설에 대한 유일적인 령도를 보장하는데 있어서 언제든지 틀어쥐고나가야 할 당건설의 기본원칙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조선에서 맑스-레닌주의당을 건설함에 있어서 공산주의적지도핵심을 육성하는것을 가장 중요한 방침의 하나로 제시하시였다.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을 건설하자면 먼저 핵심을 얻어야 합니다. 핵심을 양해서 지도성원을 꾸리는것이 기본입니다.》

공산주의적지도핵심을 육성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방침은 당건설과 혁명운동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고있음으로 하여 맑스-레닌주의당건설에서 근본적의의를 가진다.

공산주의적지도핵심이란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확고히 무장하고 언제 어디서

나 수령을 위하여 살며 수령을 위하여 목숨바쳐 싸울 각오가 되여있으며 어떤 시련속에서도 혁명적지조를 지킬수 있을뿐만아니라 독자적으로 정세를 정확히 판단하고 수령께서 제시하신 전략전술적원칙에 따라 혁명운동을 능숙하게 조직지도할수 있는 준비된 혁명가를 말한다.

공산주의적지도핵심들은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근로대중을 무장시켜 그들을 의식화하고 조직화하며 수령께서 제시하신 방침에 따라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조직지도하며 선진분자들을 수령께 충실한 핵심으로 체계적으로 육성해나간다.

이와 같이 수령의 직접적인 령도밑에 그이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한 공산주의적지도핵심을 골간으로 하여 당을 건설함으로써만 당은 수령의 혁명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하는 전투적조직으로 될수 있으며 수령께서 제시하신 전략전술적방침에 따라 혁명운동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갈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혁명을 해본 경험에 의하면 사람이 많아서 문제가 해결되는것은 아니다. 핵심이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력사상 어떤 위대한 혁명도 처음에는 소수의 선각자들로부터 시작되여 점차 광범한 군중이 발동됨으로써 결국 승리하였다.

준비된 지도핵심이 있기만 하면 혁명적당을 건설할수 있고 광범한 군중을 당의 주위에 묶어세워 혁명운동을 발전시켜나갈수 있으며 원쑤들과의 판가리싸움에서 인민들을 승리에로 인도할수 있다.

이것은 혁명운동의 력사적경험이 실증하여주고있다.

그러므로 남조선에서 독자적인 맑스-레닌주의당을 건설하고 그의 령도적역할을 높이며 혁명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전략전술적방침에 따라 현지에서 인민들의 혁명운동을 정확히 조직하고 지도할수 있는 준비된 공산주의적지도핵심이 있어야 한다.

공산주의적지도핵심을 육성할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방침은 또한 남조선에서의 당건설의 특성과 혁명운동발전의 현실적요구를 가장 정확히 구현하고있는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방침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에서 주체적으로 일어나야만 남조선혁명을 할수 있다. 그러자면 남조선에 맑스-레닌주의적지도핵심이 있어야 한다. 혁명의 지도부가 남조선에 앉아서 조성된 정세를 평가하고 전략전술을 세우고 혁명적인 군중력량을 조직해야 한다.》

남조선에서 자체의 독자적인 당을 건설하며 남조선인민들이 주동이 되여 남조선혁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지도부를 꾸리며 남조선혁명을 현지에서 지도할수 있는 지도핵심이 있어야 한다.

오늘 우리 나라는 남북으로 량단되여있으며 남북의 정세는 판이하다.

남조선에서 당건설과 혁명운동을 추진시켜나가기 위해서는 준비된 지도핵심들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관한 전략전술적방침을 자체의 실정과 변천하는 정세에 맞게 구체화하여 능동적으로 조직집행하여야 한다.

공산주의적지도핵심을 튼튼히 꾸릴데 대한 방침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처음으로 새롭게 밝히신 독창적인 사상이며 그이께서 일찌기 혁명투쟁에 나서신 때로부터 시종일관 견지하여오신 맑스-레닌주의적당건설방침이다.

현시대의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천재적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조선에서의 맑스-레닌주의당건설의 근본문제의 하나로서 당이 로동자, 농민 속에 뿌리박을데 대한 사상을 내놓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맑스-레닌주의당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대중과 혈연적인 련계를 맺고 대중속에 깊이 뿌리를 박아야만 자기의 령도적역할을 강화할수 있으며 당자체를 공고히 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394페지)

당을 로동자, 농민들 속에 뿌리박을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은 맑스-레닌주의당자체의 본질로부터 흘러나오는 합법칙적요구를 반영한 위대한 창조적사상이며 혁명적당건설의 확고부동한 지침으로 된다.

남조선의 맑스-레닌주의당을 로동자, 농민들 속에 뿌리박을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만 당자체를 강력한 전투적인 혁명적당으로 건설할수 있다.

로동자, 농민은 착취계급을 때려부실수 있는 혁명적계급이며 우리 당이 의거하고있는 계급적바탕이다.

혁명적계급인 로동자, 농민이 아니고서는 혁명을 할수 없으며 자본가계급을 때려부실수 있는 계급속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힘을 얻을수 없다.

남조선의 맑스-레닌주의당은 착취계급을 때려부실수 있는 혁명적계급인 로동자, 농민을 계몽각성시키고 그들속에 튼튼히 뿌리박음으로써만 근로대중의 우수한 선진분자들을 흡수하여 당을 질적으로 꾸릴수 있으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군중속에 대중적지반을 구축하여 당자체를 끊임없이 확대발전시킬수 있고 그의 령도적역할을 높일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로동자, 농민들 속에 뿌리박아야 종파도 안생깁니다. 로동자, 농민들은 종파하는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남조선의 혁명적당은 로동자, 농민들 속에 깊이 뿌리박아야만 당대렬의 순결성을 보장하고 당의 조직사상적통일을 강화할수 있다. 즉 당이 로동자, 농민들 속에 깊이 뿌리박음으로써만 당내에서 종파의 발생을 막아낼수 있으며 적들의 어떠한 탄압속에서도 당의 존재를 유지할수 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경험이 실증하여주고있다.

1920년대 공산주의운동은 소부르죠아인테리들에게만 매달렸기때문에 대렬의 통일을 이룩하지 못하고 4분5렬되였으며 8.15후 남로당도 기본군중속에 뿌리박지 못하였기때문에 박헌영간첩종파도당의 책동을 막지 못하고 전면적으로 파괴되고말았다.

당이 로동자, 농민들 속에 뿌리박는것은 맑스-레닌주의당자체의 본질로부터 흘러나오는 합법칙적요구일뿐만아니라 그것은 또한 로동자, 농민들의 혁명적역할을 높이며 강력한 혁명력량을 꾸리기 위한 근본요구이기도 하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맑스-레닌주의당의 령도밑에 사회의 기본계급인 로동자, 농민이 동원되여야만 혁명이 승리할수 있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89페지)

남조선에서 로동계급과 그의 믿음직한 동맹자인 농민은 사회의 기본계급으로서 남조선혁명의 주력부대이다.

그러므로 당이 로동자, 농민 속에 뿌리박고 그들을 의식화, 조직화하여야만 남조선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수 있는 강력한 혁명의 주력군을 편성할수 있다.

그리고 당이 로동자, 농민들을 결속하여 혁명의 주력군을 튼튼히 꾸려야 동요하는 중간층도 혁명의 편에 묶어세워 각계각층과의 통일전선을 강화할수 있고 군복을 입은 로동자, 농민인 괴뢰군병사대중에게도 혁명적영향을 주어 그들을 혁명의 편으로 전취할수 있다.

이와 같이 로동자, 농민들 속에 깊이 뿌리박을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방침은 당의 계급적기초를 공고히 하고 그의 령도적역할을 높일데 대한 혁명적당건설의 합법칙적요구와 당의 광범한 대중적지반을 구축하고 강력한 혁명력량을 꾸리기 위한 근본요구를 반영하고있는 가장 과학적이고 현명한 방침이다.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천재적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제

시하신 남조선에서의 맑스-레닌주의당 건설에 관한 로선과 방침은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의 당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강유력한 리론실천적무기로 되며 또한 그것은 맑스-레닌주의당건설리론을 새롭고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킨것으로서 오늘 정권전취를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모든 맑스-레닌주의당들이 반드시 견지하여야 할 지도적지침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남조선에서의 맑스-레닌주의당건설에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지침으로 하여 싸워나갈 때에 남조선혁명가들은 투쟁속에서 단련되고 검열된 정수분자들로써 당조직을 튼튼히 꾸리고 그것을 광범한 대중을 망라한 합법적, 비합법적 군중단체들로 둘러싸이게 할수 있으며 그리하여 원쑤들의 어떠한 폭압도 물리치고 혁명투쟁을 승리에로 확신성있게 인도해나갈수 있는 참으로 전투적이고 탄력성있는 맑스-레닌주의당을 건설할수 있다.

2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혁명적맑스-레닌주의당건설방침을 높이 받들고 남조선혁명가들은 피어린 투쟁을 진개하여 통일혁명당을 결성하였다.

통일혁명당건설은 매우 어려운 조건에서 진행되었다.

다 아는바와 같이 미제의 사촉밑에 남조선의 역대괴뢰들은 《반공》을 《국시제일주의》로 내세우고 공산주의자들을 비롯한 모든 진보적세력들을 가혹하게 탄압하였다.

특히 박정희군사깡패도당은 남조선을 그야말로 초보적인 민주주의적자유마저 찾아볼수 없는 암흑의 천지로, 철창없는 하나의 커다란 감옥으로 만들어놓았다. 놈들은 공산주의사상과 혁명적조직을 가장 가혹한 탄압의 대상으로 삼고 수다한 애국자들과 무고한 인민들을 야만적으로 검거, 투옥, 학살하였다. 미제의 지시밑에 박정희군사깡패도당은 《군사정변》이후 첫 1주일간에만도 4.19이후시기에 나왔던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들을 모조리 해체시켰으며 10만여명의 애국자들과 무고한 인민들을 투옥학살하였다. 놈들은 최근년간에만도 《통일혁명당사건》, 《적화공작단사건》을 비롯하여 《인민혁명당사건》, 《해방전략당사건》 등을 조작하고 수백명의 남조선혁명가들을 체포투옥하였으며 김종태, 최영도 동지를 비롯한 우수한 혁명가들을 수많이 학살하였다.

미제의 고용간첩 박헌영도당이 8.15후 남조선에서 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을 말아먹고 인민들속에 미친 나쁜 영향은 통일혁명당건설에 있어서 또하나의 커다란 난관으로 되였다.

반당반혁명종파분자이며 미제의 고용간첩인 박헌영도당은 공산주의자의 탈을 쓰고 남조선로동당의 지도적지위에 들어앉아 허위선전을 일삼으면서 당원들을 무모한 투쟁에로 내몰아 수많이 희생시켰으며 통일전선사업에서도 극좌적인 해독행위를 감행함으로써 당과 인민대중을 리탈시켰다. 놈들이 끼친 이 범죄적후과는 인민들을 계몽각성시켜 혁명운동에로 조직동원하는데 커다란 장애로 되였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로 하여 통일혁명당의 창당사업은 극히 어려운 조건에서 진행되지 않으면 안되였다.

남조선혁명가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당건설방침을 높이 받들고 남조선혁명을 통일적으로 령도할 통일혁명당을 결성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갔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보고에서 지난시기 남조선혁명운동을 총화분석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남조선인민들은 광범한 군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로동자, 농민의 독자적인 당을 가져야 하며 그 합법적지위를 쟁취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142페지)

로동자, 농민의 독자적인 당을 건설할데 대한 방침은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

민들에게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는 등대로 되였으며 그들에게 혁명승리의 신심과 무한한 고무를 주었다.

남조선혁명가들은 수령께서 제시하신 당건설방침을 심장으로 받들고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속에 뿌리박은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맑스-레닌주의당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벌리였다.

이 투쟁행정에서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남조선혁명가들은 1964년 3월에 통일혁명당 창당준비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창당준비위원회의 조직은 남조선혁명을 통일적으로 령도할 당을 건설하기 위한 남조선혁명가들의 투쟁에서 중요한 사변이였다.

이때로부터 남조선혁명가들은 통일혁명당 지방조직들을 결성하였고 그후 수년간 간고한 지하혁명활동을 전개하면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혁명적당건설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리였다.

특히 남조선혁명가들은 미제의 고용간첩 박헌영도당이 말아먹은 과거 남조선혁명운동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고 당을 건설하기 위한 조직사상적준비를 튼튼히 갖추기 위하여 꾸준히 투쟁하였다.

통일혁명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우선 수령의 충직한 혁명전사들로 지도적골간을 꾸리며 당조직들을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투쟁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의 혁명적당조직들은 맑스-레닌주의 세계관이 확고히 서고 인민을 위하여 끝까지 싸울 각오가 되여있으며 어떠한 시련속에서도 혁명의 지조를 지킬수 있는 견결한 혁명투사들의 전투적부대가 되여야 할것입니다. 당조직의 지도적골간은 어떠한 복잡한 정황에서도 정세를 정확히 판단하고 맑스-레닌주의전략전술적원칙에 의거하여 운동을 능숙하게 지도할수 있는 준비된 혁명가들로 꾸려져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394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지침으로 삼고 통일혁명당조직들은 14개항목의 당면한 투쟁임무중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서 《당의 지도간부를 육성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할것을 제기하고 핵심육성사업에 정력적으로 달라붙었다.

통일혁명당조직들은 핵심육성사업에서의 기본을 간부들과 당원들을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킴으로써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는데 두었다.

특히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절대화하며 살아도 수령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수령을 위하여 싸우다가 죽겠다는 혁명적세계관을 세우는데 모를 박고 교양사업을 전개하였다.

통일혁명당조직들은 간부들과 당원들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들과 그이의 중요연설들을 체계적으로 전달침투시키고 학습하게 하였다.

통일혁명당조직들은 적의 특무들이 그림자처럼 뒤따르는 삼엄한 환경속에서도 정기적으로 당원들의 모임을 가지고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당의 전략전술문제들을 연구토론하였으며 투쟁속에서 그들을 정치실무적으로 튼튼히 준비시켜나갔다.

통일혁명당의 간부들과 당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들과 그이의 빛나는 혁명력사를 깊이 학습하는 과정을 통하여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고매한 덕성을 깊이 체득하게 되었으며 일편단심 수령의 충직한 혁명전사로서 그이께 충성을 다하여 끝까지 혁명위업을 완수하려는 혁명적각오를 굳게 다지게 되였다. 또한 그들은 투쟁속에서 단련되고 검열된 수많은 혁명동지들을 당에 받아들여 당조직을 확대하여나갔다.

이리하여 통일혁명당조직들은 수령의 참된 혁명전사들인 지도적골간과 견결한 당원들로 꾸려지게 되였으며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조직으로 자라나게 되였다.

통일혁명당성원들이 수령을 얼마나 흠모하고 그이께 충실했는가 하는것은

김종태동지의 다음과 같은 말에서 찾아볼수 있다. 《조국이 광복된지도 어언 22년, 미제가 괴뢰 리승만을 앞세워 조선침략전쟁을 도발한 조국방위전쟁의 포성이 멈춘지도 벌써 15년, 그러나 아직도 조국은 통일되지 못하였고 미제침략군은 계속 조국남반부를 총칼로 강점하고 3천만 남반부인민을 식민지노예로 혹사하고 갖은 착취를 자행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족적수난속에서도 4천만 조선인민은 영광스러운 조국의 래일에 대하여 한결같이 희망과 기쁨에 싸여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한분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장군이 계시기때문입니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위대한 지도자이시고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시며 춘풍추우 15개성상을 하루같이 애국과 혁명의 일념으로 간고한 투쟁을 수놓은 항일빨찌산의 혁명전통을 몸소 창조하시고 그 반석같은 터전우에 영광된 사회주의조국을 건설한 우리 민족의 태양이시며 불세출의 영웅이신 수령님을 모시고있기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계제국주의의 원흉인 미제의 강점적구인 이 남조선에서도 굳건한 혁명승리의 신심을 안고 기쁨과 희망에 싸여 투쟁을 계속할수 있는것은 불세출의 영웅을 우리의 수령으로 모시고있기때문이며, 또한 맑스-레닌주의란 불패의 무기로 무장되어있기때문에 적들의 살인귀적횡포와 죽음 앞에서도 오히려 웃음을 띠고 싸울수 있는 혁명적락관주의자가 된것입니다.》

통일혁명당조직들은 당의 대중적지반을 꾸리기 위하여 꾸준히 투쟁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대중적지반을 확대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로동자, 농민들을 대중조직에 묶어세우며 그들을 당주위에 집결시켜야 합니다.》 (우와 같은 책, 394페지)

통일혁명당조직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로동자, 농민들과 근로인테리들 속에서 당력량을 확대하며 대중속에 당의 뿌리를 박기 위하여 꾸준히 투쟁하였다.

그들은 또한 수많은 군중단체를 조직하고 그를 당주위에 조직적으로 묶어세우며 광범한 대중과의 혈연적련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투쟁하였다.

통일혁명당조직들은 당의 대중적지반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대중정치선전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들은 대중정치선전사업을 통하여 《반식민주의》, 《반매판》, 《반봉건》, 《반사대주의》,《민족주체확립》 등의 구호밑에 인민들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위에 묶어세우기 위하여 투쟁하였다.

이러한 대중정치선전사업에서는 《청맥》이 큰 역할을 놀았다.

《청맥》은 1964년 8월에 창간호를 낸 후 1967년 6월까지 무려 수만부를 발행하여 남조선인민들속에 반미반정부사상을 전파하며 민족적 및 계급적 투쟁의식을 고취하였다.

통일혁명당조직들은 이와 같이 정력적인 조직정치활동을 통하여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꾸려나갔다.

통일혁명당조직들은 당조직과 군중조직을 확대강화하는 사업을 대중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의 혁명조직들과 혁명가들은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적극적인 투쟁을 통하여 혁명력량을 부단히 축적하고 장성시키는데 최대의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와 같은 책, 393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를 높이 받들고 통일혁명당조직들은 투쟁의 불길속에서 혁명조직들과 혁명가들을 단련시키고 육성해냈으며 투쟁을 통하여 혁명력량을 장성시켜나갔다.

통일혁명당조직들은 미제와 그 주구들의 전쟁정책을 파탄시키며 파쑈적폭압을 반대하고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통일혁명당조직들에서는 《한일회담》을 반대하는 1964년 3.24~6.3투쟁과 《한일협정》을 반대하는 1965년 8월 투쟁, 1967년 5.3《대통령선거》와 6.8 《국회의원선거》반대투쟁, 1967년 7월 미제의 호전광인 전부통령 험프리와 일본군국주의두목 사또의 《방한》 반대투쟁, 1969년 7월 《3선개헌》반대투쟁 등을 조직하고 규탄대회와 시위를 비롯하여 파업, 단식, 롱성, 삐라, 벽보 등 각종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통일혁명당조직들은 이와 같이 적들의 파쑈적폭압이 우심한 어려운 조건에서도 투쟁을 다양한 형태로 능숙하게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으며 투쟁과정에서 혁명조직들을 확대강화하고 혁명력량을 부단히 축적하면서 혁명투사들을 단련하고 키워나갔다.

통일혁명당조직들은 장기간의 간고한 투쟁속에서 마련한 당건설의 이러한 조직사상적준비에 기초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충직한 혁명전사들로 1969년 8월 당중앙위원회를 결성하고 선언과 강령을 채택공포함으로써 통일적인 당으로 강화발전되였다.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그의 지도리념으로 하고 그이께서 제시하신 로선과 방침을 그 전략전술로 삼고있는 통일혁명당은 남조선혁명을 령도하는 참모부이며 향도적력량이다.

통일혁명당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이께서 제시하신 전략전술적방침에 기초하여 자기의 선언과 강령에서 당의 지도리념과 계급적지반, 투쟁목적 그리고 남조선혁명에 대한 태도와 립장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당의 성격과 투쟁과업을 명백히 천명하였다.

이것은 남조선혁명의 향도적력량으로서의 통일혁명당의 확고한 지위와 령도적역할을 뚜렷이 표시해주고있다.

통일혁명당은 자기 선언에서 《우리 당은 사회의 기간적역군인 로동계급과 농민을 위시한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대변하며 옹호한다. 당은 이들 로동자, 농민들과 근로인테리들의 선각분자들로 조직된다.》고 선포함으로써 자기 당의 계급적지반을 명백히 하는 동시에 자기 당이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의 선봉적, 조직적부대라는것을 밝히였다.

통일혁명당은 선언에서 《통일혁명당의 지도리념은 맑스-레닌주의를 현시대와 우리 조국현실에 독창적으로 구현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이라고 선포하였다.

이것은 수령의 주체사상을 높이 받들고 남조선인민을 령도하여 혁명을 끝까지 수행하려는 남조선혁명가들의 불굴의 투지를 반영한것이다.

통일혁명당이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그 지도적지침으로 삼는것은 그가 남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진정한 혁명적당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그것은 우리 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가장 정확한 맑스-레닌주의적지도사상이며 조선혁명을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이끄는 위대한 사상으로서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무궁무진한 생활력을 가지고 우리 인민들에게 영광에 찬 앞길을 밝혀주는 휘황한 등대이다.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도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에 의하여 지도되고 전개될 때 비로소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또한 남조선혁명은 남조선인민들이 주동이 되여 수행해야 한다는 남조선혁명에 대한 통일혁명당의 립장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정세하에서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을 혁명투쟁에 정확히 구현한것으로서 자체의 힘으로 남조선혁명을 수행함으로써 전반적조선혁명앞에 지닌 남조선혁명가들의 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려는 진실로 혁명적인 립장이다.

통일혁명당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창조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하는 당이라는것을 선포하고있다.

통일혁명당은 자기 선언에서 《한국혁명은 현대의 탁월한 령수 김일성동지에 의해 향도된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찬 전통에 뿌리박고》있다는것을 밝히고있다.

당이 어떠한 전통을 계승하는가 하는 것은 그 당의 성격을 규정하는 중요한 표징의 하나이다.

혁명하는 당은 당의 력사적뿌리를 이루는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그를 계승발전시키며 혁명하기를 거부하는 당들은 례외없이 혁명전통을 반대하며 그를 모호하게 만들고 그것을 인민들의 의식속에서 지워버리려고 책동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일적 령도를 받들고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조선혁명의 한 구성부분인 남조선혁명을 책임지고 통일적으로 지도해야 할 통일혁명당이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계승하는것은 응당한 일이다.

이것은 통일혁명당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혁명전통을 계승한 진정한 혁명적당이라는것을 보여주는것이다.

통일혁명당은 선언에서 자기 당의 최고목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것이며 당면목적은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수행하여 부패한 식민지반봉건적사회제도를 전복하고 인민민주주의제도를 건립하며 나아가서는 조국통일을 성취하는것이라고 선언하고있다.

통일혁명당은 남조선에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미제국주의침략세력을 몰아내야 한다고 선포하고있다. 미제는 남조선인민의 첫째가는 투쟁대상이다. 미제는 남조선의 모든 실권을 틀어쥐고있는 실제적인 통치자이다. 미제는 남조선에서 식민지적지배와 전쟁정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악랄하고 횡포한 군사파쑈통치를 실시하고있으며 남조선인민들을 기아와 빈궁, 무권리와 학살이 지배하는 생지옥속에 몰아넣고있다. 그러므로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내지 않고서는 민족해방의 과업을 수행할수 없으며 지주, 예속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의 반민족적, 반인민적 통치를 뒤집어엎고 인민민주주의제도를 수립할수도 없고 조국통일의 위업도 성취할수 없다.

뿐만아니라 통일혁명당의 최고목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도 결국 미제를 몰아내고 인민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함으로써만 실현될수 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을 남조선에서 내쫓고 그 식민지통치를 청산하기 위한 투쟁을 떠나서는 남조선혁명의 승리와 나아가서는 조선혁명의 승리에 대해서도 말할수 없다.

강령은 또한 일본군국주의세력의 재침책동을 짓부셔야 한다고 지적하고있다.

근 반세기에 걸쳐 우리 인민에게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한 우리 민족의 철천지원쑤인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를 등에 업고 자기들의 옛지위를 회복하려고 망상하면서 또다시 남조선에 침략의 마수를 뻗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침략자들을 타도하기 위한 투쟁과 함께 반드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침략기도를 분쇄하여야만 새로운 재난의 위험에서 벗어날수 있다.

통일혁명당은 자기의 강령과 선언에서 또한 남조선에서 온갖 착취와 압박을 받고있는 로동자, 농민, 병사대중과 청년학생, 지식인, 도시소자산계급 그리고 량심적인 민족자본가들을 혁명의 동력으로, 미제와 그 앞잡이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을 혁명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반제민족해방적과제와 반봉건민주주의적과제는 이 두세력간의 첨예한 투쟁속에서만 해결될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정권문제는 혁명에서 기본문제이다.

통일혁명당은 폭력적방법으로 주권을 전취할것을 선언하고있다.

혁명투쟁을 계속 끝까지 혁명적방법으로 수행하는가 안하는가 하는것은 혁명적당과 기회주의적당을 갈라놓는 기본징표의 하나이다.

로동계급은 착취계급의 권력기구를 뒤집어엎고 자기의 정치적지배를 확립

하기 위한 투쟁에서 혁명적폭력이 없이는 승리할수 없다. 더우기 세계제국주의 원흉인 미제가 둥지를 틀고있는 남조선에서 혁명은 결코 평화적방법으로 될수 없다. 그러므로 폭력적방법으로 주권을 전취할것을 선언한 통일혁명당의 립장은 원칙적이고 혁명적이며 유일하게 정당한 립장이다.

그리고 강령에서 로동계급의 령도밑에 광범한 인민대중을 결속하여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철폐하고 자주적인민민주정권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한것은 반제민족해방의 과업과 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과업을 밀접히 결합시키고 그 투쟁들을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의 과업에 부합되게 밀고나갈수 있게 한다.

통일혁명당은 자기 강령에서 파쑈독재체제를 소탕하고 사회정치생활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할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당면하게는 반파쑈민주화투쟁을 진행할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이것은 남조선의 광범한 인민대중을 혁명투쟁에 불러일으킴으로써 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당면한 반제반봉건투쟁을 성과있게 진행할수 있게 한다.

또한 통일혁명당이 토지개혁을 실시하고 농어촌의 빈궁을 없애며 미국 및 일본을 비롯한 외국독점자본가들과 매판자본가들의 소유인 중요산업들을 국유화하고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며 민주주의적로동법령과 남녀평등권법령을 실시하며 학원을 민주화하고 인민보건사업과 민족문화를 발전시킬데 대한 문제를 제기한것은 혁명의 영광스러운 기발아래 인민대중을 굳게 묶어세워 그들을 당면목적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조직동원할수 있게 할뿐만아니라 혁명을 가일층 전진시킬수 있게 한다.

통일혁명당의 건설에 의하여 남조선 인민들의 혁명투쟁은 자연발생적투쟁으로부터 목적의식적인 투쟁으로 더욱 급속히 발전하게 된것이다.

통일혁명당의 혁명적기치밑에 힘차게 전진하고있는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은 원쑤들의 온갖 야수적인 공격을 짓부시고 결국 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하고야말것이다.

그것은 현시대의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천재적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으며 공화국북반부의 강력한 혁명기지가 있고 그 적극적인 지원이 있기때문이다.

그것은 또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고 그이께서 제시하신 전략전술적방침에 따라 남조선혁명을 현지에서 지도할 참모부인 통일혁명당의 지도를 받을수 있게 되였고 수령의 위대한 혁명로선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영웅적으로 투쟁하는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이 있으며 또한 국제적지지성원이 있기때문이다.

3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 통일혁명당의 결성은 우리의 혁명발전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으로 된다.

통일혁명당의 결성이 가지는 의의는 무엇보다도먼저 오직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를 받들고 그이께서 제시하신 위대한 혁명로선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싸울수 있는 혁명적당을 결성함으로써 남조선혁명을 승리적으로 령도할 진정한 참모부를 가지게 되였다는데 있다.

통일혁명당이 결성됨으로써 남조선 인민들은 혁명의 참모부, 향도적력량을 가지게 되였으며 당의 령도하에 수령의 혁명사상을 받들고 남조선혁명의 결정적승리를 촉진시킬수 있게 되였다.

통일혁명당이 결성됨으로써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독창적으로 제시하신 현단계에서의 남조선혁명의 기본

방침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현단계에서 남조선혁명의 기본방침은 적들의 탄압으로부터 혁명력량을 보존하는 동시에 그것을 부단히 축적하고 장성시킴으로써 혁명의 결정적시기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392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이 방침은 혁명의 주력군을 꾸리고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망라하는 반미구국통일전선을 형성하며 반혁명세력을 최대한으로 고립약화시킴으로써만 실현될수 있다.

혁명의 주력군은 혁명에 동원될수 있는 사회의 기본계급인 로동자, 농민과 그속에 뿌리박은 맑스-레닌주의당을 의미한다.

따라서 혁명의 주력군을 편성하는 사업은 우선 당을 꾸리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또한 맑스-레닌주의당이 꾸려지지 않고서는 통일전선도 이룩할수 없으며 설사 통일전선이 이루어졌다 해도 견고할수 없다.

이와 같이 맑스-레닌주의당은 혁명력량의 골간이며 혁명력량을 준비하는 주체로서 혁명의 주체적요인가운데서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 된다.

통일혁명당결성이 가지는 의의는 또한 조국통일과 전국적조선혁명의 승리를 앞당길수 있게 하는데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조국의 통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는 결국 3대력량의 준비에 달려있다고 말할수 있다.

첫째로,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잘하여 우리의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더 강화하는것이며,

둘째로, 남조선인민들을 정치적으로 각성시키고 튼튼히 묶어세움으로써 남조선의 혁명력량을 강화하는것이며,

셋째로, 조선인민과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는것이다.》(우와 같은 책, 239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조국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3대혁명력량을 다같이 튼튼히 준비하여야 한다.

이중에서도 특히 조선인민의 주체적혁명력량인 남북조선의 혁명력량을 튼튼히 마련하는것이 중요하다.

오늘 북반부에서는 전체 인민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위에 굳게 단결되였으며 북반부혁명기지는 불패의 력량으로 튼튼히 다져졌다.

이런 조건에서 사실상 조국통일과 전국적조선혁명의 승리는 남조선에서 혁명력량이 어떻게 준비되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남조선에서 남조선혁명의 참모부이며 향도적력량인 통일혁명당이 결성된것은 조국통일과 전국적조선혁명의 승리를 이룩하는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으로 된다.

통일혁명당결성이 가지는 의의는 또한 세계혁명력량을 강화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할수 있게 되였다는데 있다.

남조선혁명은 조선혁명의 한 구성부분이며 조선혁명은 세계혁명의 한고리이다. 따라서 남조선혁명력량이 강화되면 세계혁명력량이 그만큼 강화된다.

남조선인민들이 통일혁명당의 지도밑에 남조선혁명을 수행하고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민족적임무를 다하기 위한것으로 되는 동시에 세계혁명을 발전시키기 위한 국제적임무에 충실한것으로 된다.

또한 통일혁명당의 결성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반미투쟁전략을 실현함에 있어서 거대한 기여로 된다.

우리 나라는 반제반미투쟁의 가장 치렬한 전선의 하나로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반미투쟁전략의 실현에서 세계혁명적인민들의 앞장에 서서 나가고있다.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통치를 끝장내고 그 생명선의 하나를 끊어버리기 위하여 싸우는 통일혁명당이 출현하게 됨으로써 미제와 그 주구 박정희괴뢰도당에게 심대한 타격을 준

수 있게 되였으며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의 각을 뜰데 대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반미투쟁전략의 실현에 더욱 큰 기여를 할수 있게 되였다.

이것은 동시에 반제반미투쟁을 힘있게 전개하고있는 세계혁명적인민들에게 커다란 고무로 된다.

실로 통일혁명당의 결성은 남조선혁명운동발전에서의 획기적사변으로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에서 새로운 전환점으로 된다.

통일혁명당이 결성됨으로써 남조선혁명가들과 인민들은 혁명승리를 위한 결정적담보인 진정한 혁명의 참모부를 가지게 되였으며 8.15후 25년간 혁명의 참모부를 갖지 못함으로 하여 실패를 거듭하였던 남조선혁명운동은 참모부의 통일적지도하에 승리적으로 전개될수 있게 되였다. 그러므로 천재적맑스-레닌주의자이신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는 통일혁명당의 결성은 혁명적당건설에서 남조선혁명가들과 인민들이 이룩한 빛나는 승리로 된다.

오늘 통일혁명당과 남조선인민들 앞에는 미제를 남조선에서 철거시키고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어떤 간고한 시련도 이겨내고 자기의 혁명대오를 더욱 불패의것으로 꾸려나가며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파쑈적폭압과 전쟁정책을 걸음마다 분쇄하고 조국통일과 혁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줄기차게 투쟁하여야 할 과업이 나서고있다.

통일혁명당은 무엇보다도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는 사업을 첫째가는 과업으로 내세우고 투쟁하고있다.

통일혁명당은 전체 당원들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는것을 자기의 사활적과업으로 제기하고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투쟁하고있다.

이와 동시에 통일혁명당은 자기의 조직체계를 정비확대하면서 각종 대중운동을 벌림으로써 광범한 대중을 각성시키고 수령의 주위에 굳게 결속시켜 강력한 혁명력량을 마련하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전개하고있다.

또한 정치투쟁과 경제투쟁, 합법투쟁과 비합법투쟁, 폭력투쟁과 비폭력투쟁 등 모든 형태의 투쟁을 주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과 더욱더 밀접히 결합시켜나가고있으며 혁명승리를 위한 결정적투쟁에 대처할 준비를 다그치고있다.

통일혁명당은 우선 박정희파쑈도당을 꺼꾸러뜨리고 사회정치생활을 민주화하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고있다.

남조선에서 혁명은 원쑤들의 야수적탄압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전진하고있으며 원쑤들의 파쑈적식민지통치체계를 밑뿌리채 뒤흔들어놓고있다.

남조선혁명은 날로 성숙되여가고있으며 조국통일의 그날은 더욱더 다가오고있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혁명의 위대한 전략가이시며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충실한 전사들인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이 자기의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반드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리라는것은 의심할바 없다.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가슴깊이 아로새기고 통일혁명당의 주위에 굳게 뭉쳐 힘차게 싸워나아가는 남조선혁명가들과 인민들의 앞길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으며 그들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뿐이다.

근로자 제8호 (루계 341호)
편집위원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 소 • 평양시 중구역 남문동
인쇄소 • 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 • 1970년 7월 25일 발 행 • 1970년 8월 1일

ㄱ—03383 값 50전